

서울 洞의 역사

서울 洞의 역사

성북구

제 1 권 성북구 개관 · 성북동 · 동소문동



우리들은 어릴 때부터 역사를 배웁니다. 세계사, 동양사, 서양사, 한국사 등 다양한 지역의 역사를 지금껏 공부해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초등학교 사회과 과목에서 우리가 사는 지역을 배우기도 합니다만 대상 지역이 서울시, 경기도 등 광역시도 단위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걷는 길, 장 보러 가는 시장, 공부하는 학교, 휴식을 취하는 집, 일하는 직장 등이 어떤 내력을 거쳐 현재에 이르게 됐는지 궁금증이 일어도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서울역사편찬원에서는 이런 점에 착안하여 서울 역사에 가장 기초를 이루는 400여 개의 동을 대상으로 ‘서울 洞의 역사’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역사편찬원에서는 1967년부터 1992년까지 《동명연혁고》 총 15권을 발간한 바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동 이름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정착했는지, 어떤 마을이 있고 문화유산은 어떤 것이 있는지 등을 살펴본 책자입니다. 그런데 발간한 지 30여 년이 넘었고, 그동안 서울이 세계적인 대도시로 성장한 만큼 《동명연혁고》를 증보할 필요성이 늘 있어왔습니다.

이에 《동명연혁고》의 오류를 바로잡는 한편 새롭게 변화한 서울 지역의 동 역사를 정리하고자 《서울 洞의 역사》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동이 400여 개나 되기 때문에 현재 서울시 영역이 25개 구로 나

뒀어 있는 점을 존중해서 구 단위로 동의 역사를 서술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성북구가 지역 범위와 인구 규모도 적절할 뿐 아니라 사대문에 접해 있어 전통과 근현대가 복합적으로 반영된 곳이라 판단되어 첫 번째 사업 대상지로 삼았습니다.

이 책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서술방식이 아닌 주제별 서술방식을 택했습니다. 아직까지 동을 단위로 한 학계의 연구 성과가 많지 않아 일반적인 역사서 서술방식을 택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동별로 차이는 있지만 1. 행정구역의 변천, 2. 인구 변동, 3. 도시계획과 개발, 4. 주요 시설과 기관, 5. 문화유산, 6. 인물, 7. 주요 행사와 축제 등 7가지 주제를 기본으로 삼아 해당 동의 역사를 서술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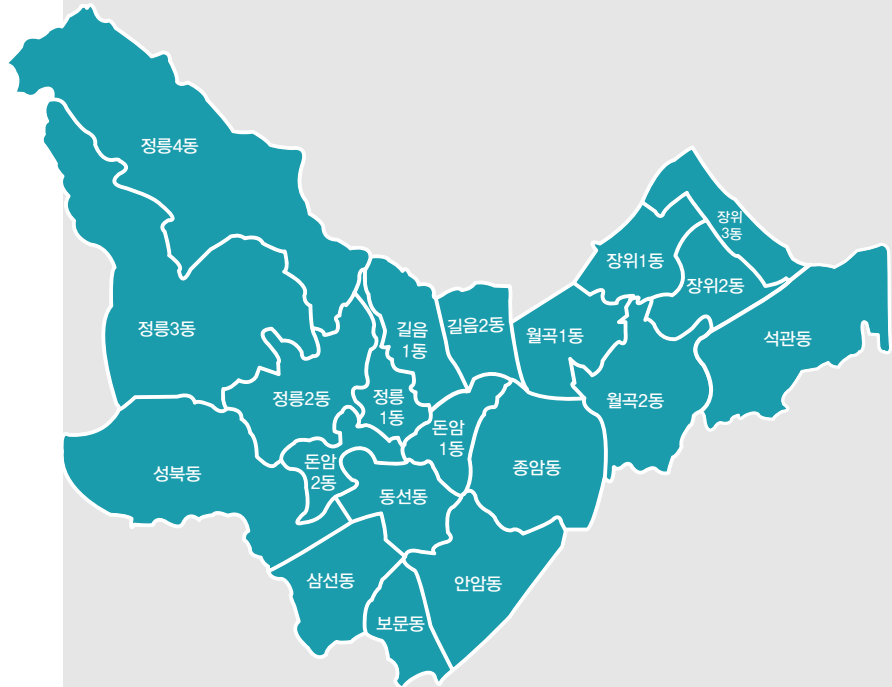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라 보충해야 할 부분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계의 평가와 독자 여러분의 질정을 받아 다음에는 좀 더 나은 《서울洞의 역사》를 발간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끝으로 이 책이 나오기까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집필자 선생님, 서울역사편찬원의 연구원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8. 12.

서울역사편찬원장 이상배



한눈에 보는 성북구



면적	24.57km ² (시의 4.05%)
인구	192,923세대 464,738명
주택	165,532호
주민조직	20동 467통 3,777반
행정조직	5국 2담당관 29과 1소(4과) 20동, 구의회(1국 3팀)

주요시설	
교육기관	68개소(초 29, 중 18, 고 13, 대학 8)
의료시설	762개소(병원 543, 약국 219)
종교시설	461개소(개신교 281, 천주교 22, 불교 147, 기타 11)
대사관	2개
대사관저	41개

기반시설	
도로율	21.85%
포장율	100%
상수도 보급율	100%
도시가스 보급율	93.8%
공원	78개소



(2015년 6월 기준)

성북구의 주요 역사유적



서울 선잠단지
(사적 제83호)



서울 한양도성
(사적 제10호)



성락원
(명승 제35호)



만해 한응운 심우장
(서울특별시 기념물 제7호)



성북동 이증석 별장
(서울특별시 민속문화재 제10호)



상허 이태준 가옥
(서울특별시 민속문화재 제11호)



서울 정릉
(사적 제208호)



길상사
(서울미래유산 제208호)



영취사 5층석탑
(서울특별시 문화재자료 제40호)

성북구의 주요 문화자원



성북구립미술관



간송미술관



한국가구박물관

일러두기

- 이 책은 서울역사편찬원에서 발간했던 《동명연혁고》의 개정·증보판이다.
- 성북구의 39개 법정동과 20개 행정동을 1·2동이나 1·2가 등의 구분 없이 13개 동으로 묶어 서술하였다. 동 명칭에서 '제'는 생략하고 '돈암1동' 형식으로 표기하였다.
- 수록 순서는 대체로 서쪽에서 동쪽 방향으로 수록하되, 분량을 고려하여 한 책으로 묶었다.
- 서술의 시간적 범위는 2017년까지이지만, 필요한 경우 2018년의 내용도 서술하였다.
- 전근대 연도는 먼저 서력기원을 쓰고 괄호 안에 왕력을 기록하였다.
- 역사용어는 국사편찬위원회 기준을 준용하였다.
- 각주 번호는 동별로 새로 시작하였다. 각주에서는 한자를 병기하되 한시 제목이나 원문을 인용한 경우에는 한자를 노출하였다.
- 주소는 먼저 도로명주소를 쓰고 괄호 안에 지번주소를 기록하되, 도로명주소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번주소만 기록하였다.
-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개수가 많고 비교적 최근에 세워진 것이므로, 보육·교육시설 항목에서 명칭과 개수만 기록하였다.
- 학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순으로 기록하였다.
- 종교시설의 경우 사찰은 전근대, 개신교회는 1950년 이전에 건립된 경우를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 수록 인물은 별세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글 가나다 순서로 서술하였다.



서울 洞의 역사

성북구

제1권

차례



발간사 004

찾아보기 302



성북구 개관

01. 자연환경	014
02. 성북구의 역사	032
03. 행정구역 변동	042
04. 인구 변동	047
05. 성북구 일반 현황	052



성북동

01. 행정구역 변동	070
02. 인구 변동	078
03. 도시계획과 개발	083
04. 주요 시설 · 기관	104
05. 문화유산	125
06. 성북동의 인물	151
07. 역사적 사건 및 주요 행사 · 축제	174



동소문동

01. 역사와 행정구역 변동	190
02. 도시계획과 개발	220
03. 주요 시설 · 기관	239
04. 문화유산	275
05. 동소문동의 인물	284
06. 주요 행사 · 축제	297



서울
洞의 역사 · 성북구

성북구 개관



● 성북구 주요 역사유적과 시설



선잠단지



한양도성



정릉



성락원



이종석 별장



심우장



이태준 가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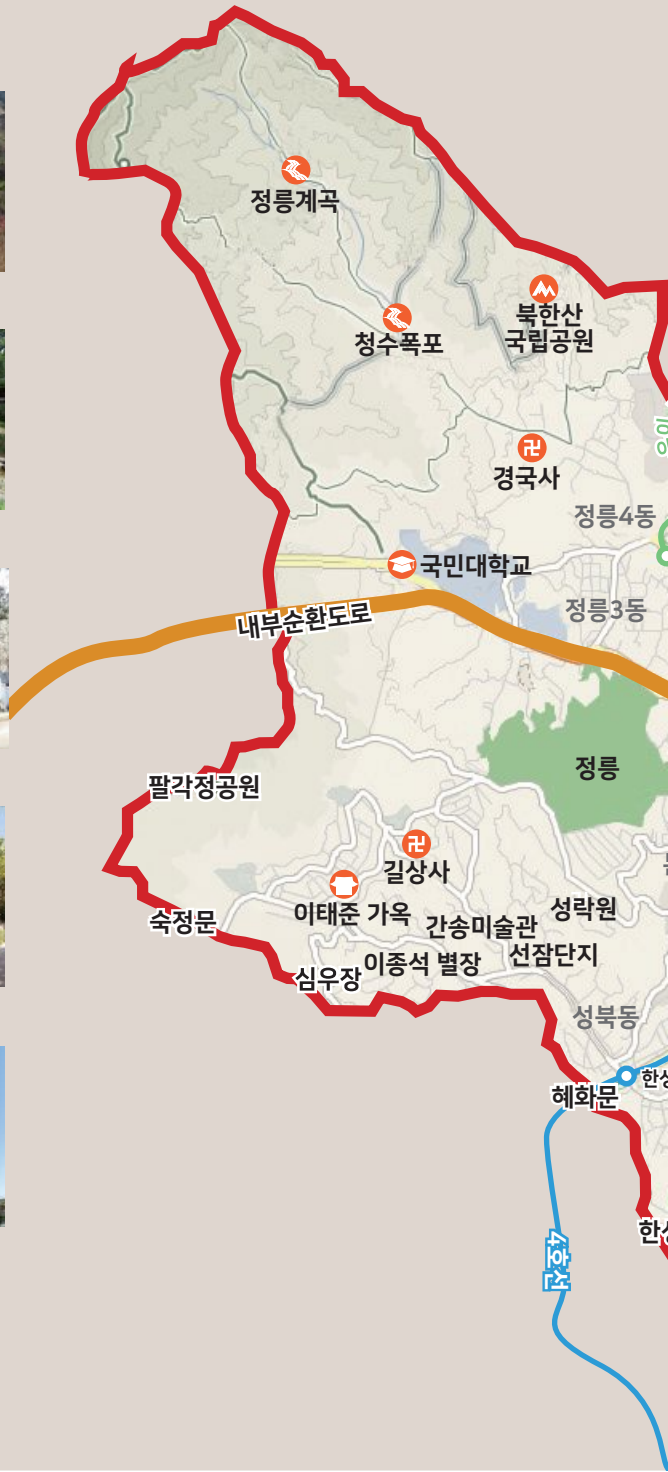
길상사



간송미술관



성북구청





1

성북구
개관

자 연 환 경

성북구는 서울의 동북부에 위치한다. 성북구의 동쪽에는 중랑천을 경계로 중랑구 묵동과 인접한 석관동이 있다. 남쪽은 종로구와 경계를 이루는 보문동, 북쪽은 북한산의 여러 성문 가운데 하나인 정릉동의 보국문^{輔國門} 지역이다. 남서쪽은 한성대학교 뒤편에서 삼청터널까지 한양도성을 경계로 종로구와 접해 있으며, 북동쪽으로는 우이천을 경계로 장위동이 노원구 월계동과 접해 있다. 성북구의 전체 면적은 24.57km²로 서울시 전체 면적의 약 4%에 해당한다.

성북구의 지형은 서쪽의 산지와 동쪽의 저지대로 대별된다. 산지인 서쪽은 북한산 남장대(715.7m)를 주봉^{主峰}으로 하여 북악터널을 지나 북악산(342.4m)에 이르는 비교적 험준한 능선으로 모래내^{砂川}와 분수령을 이루고 있다. 성북천과 정릉천이 성북구 경내를 관통하며 흐르고 있는데, 이 두 하천은 침식을 잘 받는 화강암 질로 되어 있고, 또 천정천^{天井川}(토사의 퇴적으로 바닥이 주변보다 높아진 하천)이어서 자주 범람하였다. 그러나 정릉천은 복개된 상태이고, 성북천은 복개됐다가 일부가 다시 복원됐지만 잘 정비되어 현재는 범람하는 일이 거의 없다.

동쪽은 상대적으로 낮은 지대로 중랑천이 흐르며, 장위동 부근에는 도봉

구 도봉동에서부터 이어지는 넓은 충적지가 있다. 중앙에는 천장산(141.8m)에서 개운산(131m)에 이르는 구릉이 있으며, 이 사이를 정릉천이 흐르고 있다.

성북구의 중심에는 돈암동에서 정릉으로 넘어가는 아리랑고개와 길음동·미아동으로 통하는 미아리고개가 있다. 이 고개들은 조선시대부터 서울에서 한반도 동북쪽으로 통하는 중요한 교통로였다. 조선시대에는 여진인이 이 고개를 넘어서 들어온다고 하여 되너미고개(秋踰峴)라고 불렀다. 6·25전쟁 때에는 북한군이 이 고개를 넘어 서울을 공격했으며, 후퇴 할 때에도 많은 포로들을 이끌고 이 고개를 넘어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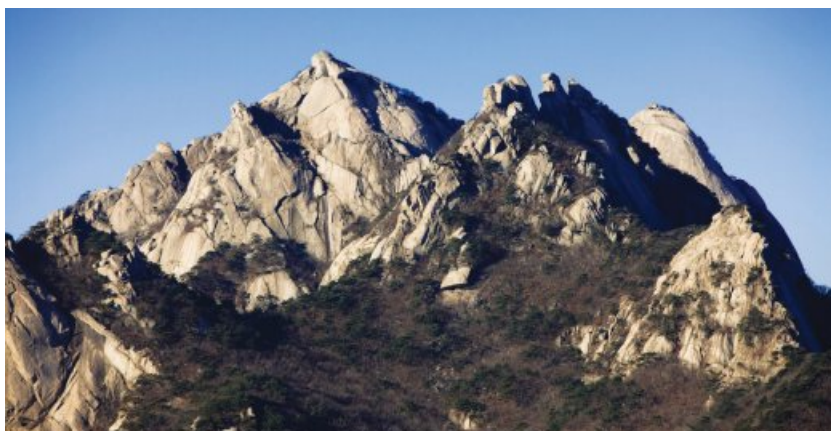
1) 산

(1) 북한산

북한산은 서울의 북쪽에 위치하며 해발 836m이다. 서울에서 가장 높은 산이며 서울의 진산(鎭山)이다. 원래 이름은 삼각산이다. 삼각산은 인수봉·백운대·만경대의 세 봉우리에서 연유한 이름으로 늦어도 고려시대부터는 이 명칭으로 불렸던 것으로 보인다. 연꽃을 닮았다고 해서 연화산(蓮華山) 혹은 화산으로 불리기도 했다. 북한산은 ‘한산(漢山)의 북쪽’이란 뜻으로, 산이 아닌 지역의 이름으로 불렸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시대 사료에서 나오는 ‘북한’은 산이 아니라 숙종 때에 축조된 북한산성을 의미한다. 지금과 같이 북한산으로 불린 것은 1983년 도봉산과 함께 삼각산이 북한산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서부터이다.¹

북한산은 워낙 큰 산이라 여러 행정구역에 걸쳐 있다. 서울특별시 은평

¹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 《서울지명사전》, 2009, 1063쪽.



북한산 세 봉우리(위),
북악산과 그 일대(아래)

구·종로구·성북구·강북구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에 걸쳐 있다. 성북구의 경우 정릉2·3·4동이 북한산 자락과 맞닿아 있다. 봉곡사·경곡사·내원사·영취사·삼곡사 등 많은 사찰이 위치하고 있으며, 조선 태조 이성계의 계비 신덕왕후의 정릉^{眞陵}도 바로 북한산 자락에 자리하고 있다.

(2) 북악산

북악산은 한양의 주산^{主山}이며 해발 342.4m이다. 목멱산으로 불린 서울의 남산과 마주하고 있으며, 백악^{白岳}·면악^{面岳}·궁극산^{拱極山}으로도 불렸다. 보현봉에서 시작한 북한산 줄기가 형제봉과 보토헌을 거쳐 구준봉과 응봉을 경유하여 북악산에 이른다. 산의 남쪽 좌우에는 각각 삼청동·도화동과 쌍계동이 위치하는데,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모두 맑은 물과 뛰어난 경치를 자랑한다.

예로부터 북악산 주변 지역은 명당으로 여겨졌다. 고려시대 남경이 설치된 것도 이때문이다.

삼각산 면악의 남쪽 땅의 산세와 수세가 옛 문헌에 들어맞으니 면악의 주간^{主幹}을 중심으로 임좌병향^{壬坐丙向}하여 형세에 따라 도읍을 삼음이 마땅하다.²

고려시대 남경에 세운 궁궐이 연흥전^{延興殿}인데, 바로 지금의 청와대 자리였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도 이 지역은 계속 명당으로 여겨졌다. 고려 남경 궁궐터에서 조금 더 넓은 곳을 찾아 궁궐을 만들었는데, 바로 경복궁이다.

2 《고려사》 권11, 세가11, 숙종 6년 10월.



미타사의
오층석탑

한양의 궁궐터는 고려 숙종 때의 궁궐터가 좁은 관계로 그 남쪽에 해산(亥山)을 주산으로 삼아 임좌병향(壬坐丙向)하여 자리 잡았다.³

북악산의 북쪽은 지금의 성북동과 맞닿아 있다. 성북동을 관통하는 하천인 성북천의 발원지도 바로 북악산이다. 훗날 성북동에서 마전(피륙을 삶거나 빨아서 표백하는 행위)을 시작하게 된 것도 여러 원인이 있겠으나, 성북천

³ 《태조실록》 권6, 태조 3년 9월 9일(병오).

이 없었으면 가능하지 않았다. 그런 의미에서 북악산은 한양의 주산일 뿐만 아니라 성북동에도 주산이 되는 셈이다. 또한 한양도성의 북문인 숙정문이 있는 곳도 바로 이 북악산이다.

(3) 낙산

보문동의 서남쪽 경계를 이루는 낙산은 한양도성의 내산 가운데 동쪽에 해당한다. 남쪽 끝자락에 홍인지문[東大門]이, 북쪽 끝에는 혜화문[東小門]이 위치한다. 현재의 낙산은 낙산공원을 제외하면 모두 주거지로 개발되어 ‘산’의 이미지를 갖지 못하지만, 조선시대의 낙산은 산과 계곡이 좋아 이름난 별장들이 조성된 지역이었다. 숙종 때 우의정을 역임한 신익상[申翼相]의 개석당[介石堂], 《지봉유설》을 지은 이수광의 비우당[庇雨堂]과 함께 삼양헌[三陽軒]·최락당[最樂堂] 등의 별장 이름도 전하고 있다.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조선의 4대 문장가로 불리기도 했던 이정구(1564~1635)는 “낙산 기슭에 명원[名園]이 많다.”⁴라고 기록하고 있다.

낙산에 조선시대부터 사람이 살았던 것은 아니다. 고려시대에도 사람이 살았는데, 이를 알려주는 대표적인 유적이 미타사에 남아 있는 오층석탑이다. 이 오층탑은 고려시대의 탑으로 추정되는데, 오랜 기간 보문동 지역의 상징이었던 듯하다. 보문동은 탑골, 탑동 등으로 불렸는데 모두 미타사에 있는 이 탑에서 유래한 것이다. 이 탑은 1047년(문종 1) 건립되었고, 1314년(충숙왕 1)에 중수된 것으로 970여 년의 세월 동안 보문동을 지켜왔다.

낙산이 담고 있는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단종 비 정순왕후 송씨[定順王后 宋氏(1440~1521)]의 사연이다. 14살이던 어린 나이에 단종과 혼인하여 왕비가 된 그녀는 남편이 상왕이 되며 대비[大妃]의 지위까지 오르지만, 곧 단종이 노산군[魯山君]으로 강등되자 군부인[郡夫人]으로 격하됐다가 다시 서인[庶人]으로, 그리고

4 이정구李廷龜, 〈송월헌기松月軒記〉《월사집月沙集》.



바위에 새겨진 '자지동천'

또 다시 천인 신분으로까지 격하됐다. 대비에서 천인까지 파란만장한 신분 변화를 겪은 것이다. 그녀가 낙산과 관련을 맺은 것은 그녀가 궁에서 쫓겨난 이후였다. 궁에서 나온 그녀는 낙산의 청룡사 부근에 거처했다. 지금도 남아 있는 자지동천(紫芝洞泉)은 정순왕후가 생계를 위해 염색을 하려 했는데, 염색을 위해 집 근처 샘에 천을 넣었더니 그 천이 저절로 자주색으로 물들었다는 전설에서 비롯되었다. 그녀가 단종이 그리울 때마다 올라가 단종의 유배지인 영월을 바라 봤던 곳이 바로 동망봉(東望峰)이다. 이 이야기는 후대에까지 남아서 영조는 이곳에 친히 행차하여 '東望峯(동망봉)'이라는 글씨를 낙산의 바위에 새겨 놓았다. 그러나 현재는 남아있지 않다.

낙산이 현재와 같이 주거지로 개발된 것은 일제강점기이다. 원인은 도심의 확장이었다. 일제의 소위 '근대화' 정책은 지방 농민들의 토지 상실로 인

한 농민층의 빈곤을 가져왔고, 농민들은 농촌을 이탈하여 빠르게 임금노동자가 되어 도시로 몰려들었다. 이렇게 식민지 수도 경성으로 모여든 이들은 옛 한양의 외곽 지역에 자리 잡기 시작했는데, 낙산 자락도 그중 하나였다. 낙산 바로 아래 자락에 위치한 현재의 창신동은 1927년에서 1938년까지 조선인 가구만 약 1,500여 호나 늘어나 당시 경성에서 조선인 인구가 가장 빠르게 늘어난 곳 가운데 하나였다.

(4) 월곡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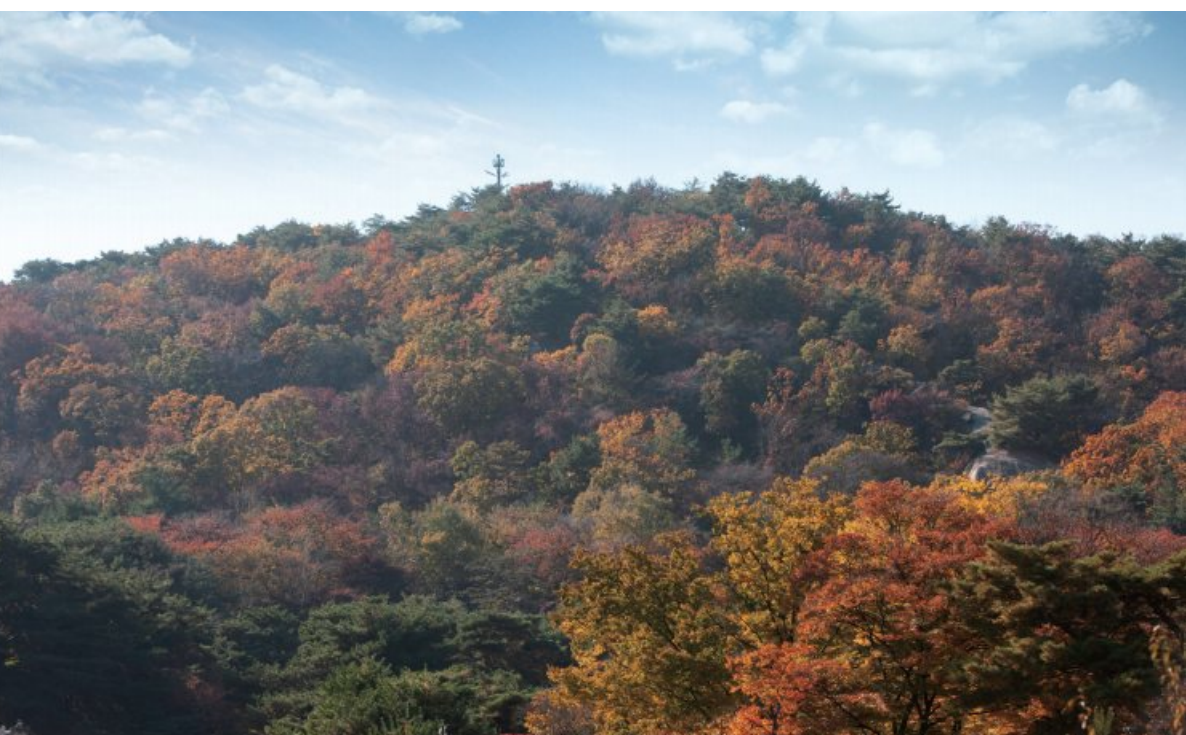
오패산 자락의 남쪽 끝 봉우리를 ‘월곡산’이라고 한다. 소나무가 우거져 풍치가 좋은 곳으로 알려져 있었다. 월곡산의 남쪽 언덕에는 본래 고종의 큰 아들 완화군(完和君(1868~1880))의 묘를 비롯하여 그의 사친인 영보당 이씨와 내안당 귀인 이씨 등 고종 후궁들의 묘도 있었다. 현재의 동덕여자대학교 부근이다.

(5) 개운산

북한산 자락에서 이어지는 개운산은 안암동·보문동·돈암동·길음동 등을 끼고 있는 성북구의 중심이 되는 산이다. 한북정맥의 큰 자락은 삼각산으로 이어지고 그 삼각산 자락은 다시 보현봉과 형제봉, 그리고 북악터널 위쪽인 보토헌을 거쳐 이어진다. 여기서 서남방으로 가면 북악산이 나오고, 동남방으로 가면 정릉과 미아리고개가 나오는데, 이 지맥의 끝자락에 바로 해발 134m의 개운산이 자리하고 있다.⁵

개운산이라는 이름은 ‘나라의 운(運)을 연다(開)’라는 뜻을 가진 사찰 이름 ‘개운사(開運寺)’에서 유래했다. 개운사는 원래 1396년(태조 5) 왕사 무학이 ‘영도사’라는 이름으로 창건하였으며, 개운산 끝자락인 현재의 고려대학교 이공대

⁵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2009, 978~979쪽.



개운사 전경(위), 천장산(아래)

자리에 있었다. 지금의 자리로 옮긴 것은 정조 때 일이다. 1779년(정조 3) 원빈 홍씨가 세상을 떠나자 묘소를 당시의 개운사 자리로 정했던 것이다. 이때 위치를 옮기며 이름도 개운사로 바뀌었다.

현재 개운산 동쪽자락에 위치한 고려대학교 자리에는 종 모양의 돌(鐘巖), 북 모양의 돌(鼓巖)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것이 종암동의 동명 유래가 되기도 했다. 또 돌이 많아 채석장도 생겼다. 자연히 ‘돌을 뜬다.’라는 뜻의 ‘돌뜨기’라는 지명이 생겼다. 이것을 한자로 옮기면 ‘부석(浮石)’이 된다.

(6) 천장산

천장산(天藏山)은 성북구 석관동과 동대문구 회기동·청량리동 사이에 걸쳐 있다. 해발 140m의 산으로 ‘하늘이 숨겨놓은 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천장산 자락에 위치한 연화사의 삼성각 상량문에는 “진여불보의 청정법신이 시방삼세에 두루하지만 드러나 보이지 않는다.”라고 적혀 있어 천장산의 유래를 짐작하게 한다. 천장산 기슭에는 경종과 경종의 계비 선의왕후 어씨의 능인 의릉이 자리 잡고 있다. 의릉 옆에는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가 위치하고 있는데, 그 전에는 중앙정보부 본관이 있던 곳이다. 현재도 의릉 옆에는 7·4남북공동성명을 발표했던 현장인 중앙정보부 강당이 남아 있다.

2) 하천

(1) 성북천

성북천은 북악산 줄기인 구준봉 기슭에서 발원하여 성북구 성북동, 삼선동, 동선동, 안암동, 보문동을 지나 종로구 송인동과 동대문구 용신동을 거쳐 중랑천에 이르는 길이 5.11km의 하천이다. 1960년대에서 1970년대에 걸

쳐 복개되었으며, 1990년대 이후부터 하천 정비 사업이 시작되어 현재는 성북동 지역만 복개된 채로 남아 있다. 안암동 부근에서는 안암천·안감내·안암내 등으로 불리기도 했다.

(2) 정릉천

정릉천은 정릉동 삼각산 계곡에서 발원하여 정릉동을 지나 길음동과 돈암동, 종암동과 월곡동을 거쳐 동대문구 신설동과 용두동 사이를 통과하여 청계천에 이른다. 총 길이는 11.94km로 성북천에 비해 두 배 이상 길다. 하지만 발원지에서 정릉3동과 4동을 지나는 부근을 제외하면 대부분 복개되어 있으며, 1999년에는 하천 위로 내부순환로가 개통되어 하천 위로 교각이 서 있다.

(3) 우이천

우이천은 중랑천의 제1지류로서, 우리말로는 ‘소귀내’라고 한다. 북한산에서 발원하여 덕성여자대학교를 지나 동남쪽으로 흘러 중랑천으로 향한다. 성북구 장위동과 석관동을 지난다. ‘우이^{牛耳}’라는 이름은 도봉산의 봉우리 이름이 소 귀와 닮았다고 해서 붙여졌다. 우이동 역시 같은 이유에서 생겨난 동명이다.

(4) 중랑천

중랑천은 성북구를 흐르는 가장 큰 하천으로 석관동과 월곡동을 지난다. 한강의 1지류이며 의정부시 수락산에서 발원하였다. 도봉구·노원구·성북구·중랑구·동대문구·성동구·광진구를 거쳐 한강으로 들어가는 큰 하천이며 18개의 지류를 갖고 있다. 상류인 도봉동에 도봉서원이 있어 서원천, 상계동의 부근에서는 ‘한강의 새끼개’라는 뜻의 셋개, 혹은 셋강으로 불렸으며,



성북천(위), 정릉천(아래)



우이천(위), 중랑천(아래)

한강 바로 위의 큰 물줄기라는 뜻에서 ‘한내’ 혹은 ‘한천漢川’으로도 불렸다. 이외에도 송계천松溪川·중랑개라는 이름으로도 불렸다. 성북천과 정릉천은 청계천과 합류하여 중랑천으로 흐르며, 우이천은 직접 중랑천으로 합류한다.

3) 고개

(1) 미아리고개

미아리고개는 성북구 돈암동에서 길음동을 지나 미아동으로 이어지는 고개이다. 조선시대에는 ‘되너미고개’로 불렸다. 야인 즉 되놈들이 넘어오던 고개라는 의미였다. 한자로는 적유현狄踰峴·호유현胡踰峴이라고 표기했다. 실제로 조선 초기에 동북 방향에 살던 여진인들이 조공을 바치러 조선으로 들어올 때 미아리고개를 넘어 혜화문을 통해 한양으로 들어오기도 했다. 병자호란 때 청나라 군대가 넘어와서 붙여진 이름이라고도 하지만, 당시의 기록을 보면 청나라 군대는 지금의 의주로로 따라 내려왔다. 청나라를 세운 것이 여진인들이기 때문에 혼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⁶ 또 본래 바위가 많아 돈암현敦岩峴으로도 불렸다.⁷

미아리고개라는 이름은 미아7동 불당골에 ‘미아사’라는 사찰이 있어서 미아동이라는 동명이 생겼고, 이 고개를 넘어 미아동으로 갔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미아리고개가 널리 쓰인 것은 일제강점기 미아리 공동묘지가 생긴 이후의 일로 추정된다.

미아리고개는 지금은 많이 낮아졌지만 본래 높고 험한 고개였다. 조선 시대에 서울에서 동북쪽으로 오갈 때 이용하던 중요한 교통로였다. 6·25전쟁 당시 북한군이 미아리고개를 통해 쳐들어와 공방전이 펼쳐지기도 했으

⁶ 박수진 외, 《미아리고개》, 성북문화원, 2014, 16~21쪽.

⁷ 박수진 외, 앞의 책, 2014, 136쪽.



미아리고개

며, 퇴각할 때에도 북한군은 많은 사람들을 강제로 이끌고 이 고개를 넘기도 했다.

1964~1966년에 시행된 도로 확장공사로 고개 높이가 낮아졌다. 1964년에 돈암동~미아리간 1,300m의 확장공사를 실시하여 도로 폭을 8m에서 25m로 확장했다. 나머지 구간 1,786m도 1966년에 폭 8m에서 25~35m로 확장되었다.⁸

1960년대 중반부터 맹인 역술가들이 이곳에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서 맹인 점성촌이 형성되었다. 1980년 전성기를 누렸던 점성촌은 2014년 12월 현재 36개의 점집만이 자리하고 있다.

(2) 아리랑고개

아리랑고개는 성북구 돈암동에서 정릉동으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본래는 정릉으로 가는 고개라서 정릉고개로 불렸다. 1926년 나운규(羅雲奎, 1902~1937)가 이 고개에서 영화 <아리랑>을 촬영하여, 아리랑고개로 불렸다고 전하기도 하지만 확실하지는 않다. 1935년 청수장이 들어서며 '아리랑고개'라는 뜻

⁸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2009, 1041쪽.



아리랑고개

말을 세운 이후로 아리랑고개라는 이름이 널리 알려졌다. 김교신은 1937년의 수필에서 아리랑고개라는 이름이 이미 널리 사용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⁹ 아리랑고개를 지나는 길은 지선도로이다. 서울시내 전체 가로명 중에서 ‘대로’, ‘로’, ‘길’ 등이 아닌 아리랑 ‘고개’라고 불리는 유일한 도로로서, 유서 깊고 친근한 고개로 남아 있다.¹⁰

(3) 동소문고개

동소문고개는 종로구 혜화동에서 성북구 돈암동으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고개 정상 부근에 동소문인 혜화문이 있어 동소문고개로 불린다.

(4) 보토고개

보토고개는 성북구 성북동 북쪽으로 뻗은 삼각산의 봉우리 중에 마치 개가 쭈그리고 앉은 모양을 하고 있는 구준봉 뒤흘에 있는 고개이다. 한자로는 ‘보토현(補土峴)’이라고 한다. 이곳이 서울 도읍터의 입수목이 되어 잘록하므로,

9 김교신, 〈상현想峴〉《성서조선》 98, 1937.

10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2009, 1094~1095쪽.

京城圖



《동국여도東國輿圖》〈경성도〉의 구준봉과 형제봉
구준봉과 형제봉 사이에 보토현이 있다.

풍수지리설에 따라 그 약한 기운을 보충하기 위하여 해마다 흙을 보태고 떼를 입혔으므로 보토고개 또는 보토현이라고 하였다. 《동국여지비고》 권2에는 “보현봉 걸가지 산줄기가 곧 도성의 주맥이므로 충융청에서 보토소^{補土所}를 설치하고 주관해서 보축하였다.”라고 하였다.¹¹

(5) 장위고개

장위고개는 상월곡동에서 장위동으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장위고개라는 이름은 장위동에서 유래한 것이고, 장위동의 동명은 장위동 뒤편의 장위산에서 유래했다. 장위고개는 다릿굴고개로도 불린다. ‘월곡’을 ‘다릿굴’이라 했던 데서 유래한 이름이다. 옛날에 기우제를 지낼 때 쓰던 물품을 보관하던 곳이었기 때문에 ‘우장현^{雨藏峴}’이라고도 불렸다.¹²

(6) 제터고개

제터고개는 성북구 안암동5가와 동대문구 제기동 사이에 있는 낮은 고개이다. 고개 근처에 제사 지내던 곳이 있어 ‘제터’라는 이름이 붙었다. 근처에는 제터마을도 있다. 여기서 말하는 ‘제터’는 보통 동대문구 제기동에 있는 선농단^{先農壇}을 가리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1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2009, 1057쪽.

12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2009, 1116·1130쪽.



성북구의 역사

1) 선사시대~고려시대 이전

지금의 성북구 지역에 사람들이 정착하여 문화생활을 시작한 것은 역사 시대 이전으로 추정된다. 성북구 지역은 북한산과 북악산의 산세를 서북쪽에 두고 두 산의 계곡에서 흘러나오는 정릉천과 성북천을 끼고 있는 배산임수의 생활터전이다. 이러한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이 지역은 선사시대 이래로 오늘날까지 주거 공간으로 자리하고 있다.

지금까지 성북구 지역에서 구석기·신석기·청동기 유적이 발굴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강동구 암사동 선사주거지, 성동구 응봉 유적, 송파구 가락동 유적, 강남구 역삼동 유적 등 한강변에서 발굴된 선사문화 유적을 통해 볼 때 성북구 지역도 넓은 한강유역 문화권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현재까지 서울 한강 유역의 출토유물과 고고학적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기원전 4,000년경 선사시대부터 한강을 중심으로 집단 거주가 이루어졌음이 밝혀졌다.

성북구 지역을 포함한 한강 유역을 무대로 최초의 정치세력이 등장한 때는 진국과 마한, 초기 백제시대로 보고 있다. 이후 한강 유역과 여기에 포함

된 서울 지역은 백제, 고구려, 신라 삼국의 치열한 각축장이 되었다. 이에 따라 성북구 지역은 삼국시대부터 통일신라시대, 후삼국시대까지 이어진 역사적 변동에 따라 지배 세력의 교체를 겪었다.

기원전 18년경부터 백제 세력이 한강 유역에서 성장하기 시작하였다. 백제의 왕도로 언급되는 하북위례성河北慰禮城의 위치를 북한산 동쪽 기슭으로 보기도 한다. 이곳은 오늘날 성북구 지역과 인접한 곳이므로 이때부터 성북구 지역에도 백제의 세력 판도 안에 포함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 후 고구려·백제·신라의 삼국이 고대국가를 형성하자 성북구 지역을 비롯한 서울 지역은 한반도의 중심지로 삼국이 세력 충돌을 일으키는 군사적 요충지가 되었다.

392년 고구려 광개토왕은 백제를 공격하여 서울 지역을 일시 점령하였다. 이어서 475년 장수왕이 대군을 파견하여 백제 수도를 점령한 후 북한산주北漢山州를 설치하였다. 고구려는 이 지역을 남평양南平壤이라고 칭하기도 했다. 그 후 실지 회복을 도모한 백제는 점차 국력을 키우는 한편 신라와 연합하여 551년 고구려 세력을 한강 유역에서 물리쳤다. 그러나 백제가 점유했던 한강 하류 지역을 신라가 기습하여 차지하자 백제와 신라의 동맹은 깨지고 두 국가 간의 전쟁이 발발하였다. 이 전쟁으로 백제 성왕이 전사하였고, 신라 진흥왕이 이 지역을 완전히 차지하여 신주新州를 설치한 후 북한산주 또는 남천주南川州라고 개칭하였다. 1967년 성북구와 인접한 지금의 강북구 삼양동에서 7세기 전반의 작품으로 추정되는 ‘서울 삼양동 금동관음보살입상’국보 127호이 출토되었다. 554년(진흥왕 15) 이후로 성북구 지역을 포함한 서울 지역이 신라 영토가 되었음을 잘 보여주는 유물이라 하겠다.

신라는 삼국을 통일하고 전국을 9주로 나눌 때 지금의 성북구 일대를 한산주에 편입시켰다. 경덕왕은 한산주를 한주라 개칭하고 이 지역을 한양군漢陽郡이라 하였다. 이로 인해 성북구 지역은 한주의 한양군에 속하게 되었다.

2) 고려시대

삼국시대 성북구 지역은 양길의 부하였던 궁예가 895년 한주 관내의 10여 성을 복속시킴에 따라 궁예의 휘하에 들어갔다. 이후 918년 왕건이 고려를 건국하자 이에 속하게 되었다. 고려시대에 성북구 지역을 포함한 서울 지역은 고려 초부터 정종(재위: 1035~1046) 때까지는 양주(楊州), 문종(재위: 1046~1083) 이후 충렬왕(재위: 1275~1308) 때까지는 남경(南京), 충선왕(재위: 1308~1313) 이후 고려 말까지는 한양부(漢陽府)로 불렸다.

고려시대 수도 개경과 남경을 연결하는 교통로가 성북구 지역을 통과하였는데 지금의 미아사거리~고려대 앞~신설동~동대문을 잇는 도로 일대로 보인다. 오늘날 이 지점들을 잇는 도로 주변으로는 보타사 마애불좌상, 보문사, 미타사 등 고려시대 불교 유적과 사찰들이 남아 있다. 이밖에 정릉동에도 고려 말에 창건된 경국사가 있어 고려시대 남경에 인접한 지역으로 생활권의 확대가 이루어졌던 성북구 지역의 옛 모습을 짐작할 수 있게 해준다.

3) 조선시대

조선시대 성북구 일대는 한성부 성저십리에 해당하였다. 조선 후기에는 숭신방(崇信坊)과 인창방(仁昌坊)에 속하였다. 서울의 4소문 가운데 하나인 혜화문을 지나 원산에 이르는 동북방 간선도로가 이 지역을 관통했다. 따라서 일찍부터 여진과의 통로가 되었음은 물론 노원구 일대의 누원점(樓院店)과 연계되어 상인들이 통행하는 길목이기도 했다.

성북구의 '성북'이라는 이름은 '도성의 북쪽'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원래 성북은 조선시대에 한양의 둘레를 감싸고 있는 성곽의 북쪽에 있는 지역을 지칭하는 것이었는데 이것이 그 땅의 이름이 되어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다.

1840년 조선시대의 한양을 그린 <수선전도>에서도 ‘城北洞^{성북동}’이라는 이름을 찾아볼 수 있다. 예전부터 북한산의 남쪽 기슭은 호랑이가 나올 정도로 산림이 우거진 곳이어서 조선의 국왕이 친히 군대를 이끌고 호랑이 사냥을 나올 정도였다고 한다. 또한 이 지역은 한양의 사대문 밖에 있긴 하지만 성



서울 고지도에 보이는 성북동
(〈수선전도〉, 서울역사박물관)

밖 10리 안에 있는 곳으로 한성 행정부의 통치를 받는 곳이었으며 동시에 서울 동북쪽의 큰 관문이었다.

혜화문은 동소문東小門이라고도 불렀는데 이곳을 지나서 되넘이 고개(지금의 미아리고개)를 넘는 길은 한양에서 강원도를 거쳐 함경도로 가는 길이었다고 한다. 따라서 이 길을 통해 많은 물자들이 오갔는데 특히 한양에서는 생활용품들이 주로 나갔으며 함경도에서는 각종 어물들이 들어왔다고 한다. 앞서 나온 ‘되너미고개’라는 지명은 ‘되눔’, 즉 오랑캐로 불리는 여진족이 한양에 들어올 때 넘어오던 고개라는 것에서 유래되었다. 이처럼 성북은 서울로 들어올 수 있는 중요한 통로였기 때문에 잘 지켜야만 하는 곳이었다. 따라서 동소문과 되너미고개 사이에 있는 삼선평三仙坪이라 불리던 분지에는 병졸들이 무예를 익히는 연무장이 있었다.

조선 후기에는 혜화문 밖 성북동에 도성을 지키는 군대인 어영청御營廳의 북둔北屯을 설치하고 여기에 소속된 군인들과 이 땅을 경작하며 살도록 민간인 한 무리를 보냈다고 한다. 이들이 바로 성북동의 첫 주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으나 처음 그들에게 주어진 ‘새 땅’은 한마디로 황당한 곳이었다. 험한 산지였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도 곡식을 길러낼 수 없는 곳이었기 때문이다. 결국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사람들은 자꾸 도망쳐 버리기 일쑤였다. 그러나 농사를 짓는 민간인들에게는 살기 힘든 곳이었지만,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에게 성북의 산골과 계곡은 도성에서 제일 가까운 사냥터이자 쉼터였다. 뿐만 아니라 궁궐 뒤쪽에 위치하고 있어 성만 넘으면 바로 수려한 자연경관이 펼쳐지기 때문에 조선의 왕자들도 이곳에 별장을 만들어 공부하는 곳으로 사용하였으며, 유명한 문인과 화가들은 거처를 마련하기도 했다. 특히 북둔이 있던 곳은 복숭아나무가 많아 늦봄에는 행랑객들이 줄을 이었다고 한다.

4) 일제강점기

1933년 《중앙》에 발표된 이태준의 단편소설 〈달밤〉은 1930년대 성북동의 모습을 담고 있다. 이때까지만 해도 성북구 지역은 사람들에게 시골로 인식되어 있었다. 조선시대까지 성의 밖에만 있던 성북은 1936년 경성부 안으로 포함되었다. 일제강점 초반 해도 성북 지역은 고양군에 속해 있었지만 점차 경성부, 즉 지금의 서울시 권역으로 다시 편입되었다. 그리고 1930년대를 거치면서 성북구 지역은 점차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아직 성북이 경성부에 속하지 않던 1914년부터 1929년 사이, 성북에는 공동묘지가 설치되었다. 당시는 교통사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비교적 시가지에서 가까운 곳에 묘지를 만들어야만 했다. 또한 과거부터 내려오는 풍습에 따라 상여를 꾸며 직접 관을 넣고, 사람들이 직접 묘지까지 운반하는 장례 절차를 아직까지 사람들이 지키면서 살고 있었다는 것도 공동묘지의 입지에 영향을 주었다. 하지만 이때 만들어진 미아리 공동묘지는 1950년대 중반에 모두 철거되었고 그 자리에는 철거민과 빈민들이 이주해 살게 되었다.

1937년부터는 조선총독부가 돈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실시해 이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성북구 지역에 살게 되었다. 일제는 구획정리공사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시내 중심에서 떨어진 교외지역에 입주희망자가 없자 황무지로 남게 될 가능성을 염려했다. 그래서 시가지에 살면 가난해지고, 교외지역에 살면 행복해진다는 내용이 담긴 소설을 발표하는 등 대대적인 선전활동을 펼쳤으며, 직접 관이 개입하여 이 지역의 토지 매매를 진작시켰다. 그 효과 때문에 전통한옥도 아니고 서양식 주택도 아닌 ‘조선집’들이라 부른 ‘도시형 한옥’이 마치 지금 아파트가 들어서듯 만들어졌고, 이 집들에 많은 중류층 조선인들이 살게 되었다.

성북구 지역에 사람들이 많이 살기 시작하면서 교육 기관도 속속 들어서

가마니로 둘러친 토막



돈암지구 토막 강제철거 현장
(《동아일보》 1939년 7월 6일)

게 되었다. 1930년 중반 이후부터 보성전문학교, 경성고등상업학교, 일본인 대상 중학교들이 설립되었다. 이때 세워진 학교들은 현재 성북구에 많은 대학교들이 위치하게 된 기원이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시내버스와 전차도 운행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이 지역의 대중교통은 전차와 시내버스 간의 자유로운 환승이 가능하였으며, 5전 균일가라는 정책이 잘 이루어진 대

표적인 곳이었다. 1941년에는 동소문 밖 미아리고개 근방의 돈암동에 전차 종점이 생기게 되었다.

일제강점기 돈암지구 일대가 주택지로 개발됨으로 인해 본래 이곳에 살던 토막민들이 정릉리와 정릉천 유역의 외곽 지역으로 밀려나 토막촌을 형성하게 되었다. 토막촌은 각종 재난으로 가진 것을 잃은 사람들이 시내와 교외의 제방, 강바닥, 다리 밑 등에 초라한 살림의 움막을 지어놓고 모여 살던 동네를 이야기한다. 그런데 이들의 수가 너무 많아 이들에 대한 처리를 생각하던 일제는 교외 지역이던 정릉리에 토막민 수용지를 설정하여 토막민들을 이곳으로 몰아넣었다. 하지만 이들은 1942년을 고비로 자취를 감추게 되는데 태평양전쟁으로 노동력이 부족했던 일제가 토막민들을 강제로 북해도 등지로 이주시켜 버린 것이 그 이유였다.

5) 광복 이후

성북구는 광복 이후인 1949년에 비로소 지금의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 그때 동대문구에 속했던 돈암동과 안암동, 종로구에 속했던 성북동, 경기도에 속했던 석관리·장위리·우이리·수유리·상월곡리·하월곡리·미아리·정릉리가 첫 성북구 동네가 되었다. 그러다가 1973년에 미아리고개 북쪽의 동네들을 떼어 도봉구로, 1975년에는 다시 석관동·종암동·안암동 일부를 동대문구에, 정릉동·하월곡동의 일부를 도봉구에 준 대신에 동대문구에서 보문동을 받아 오늘에 이르게 된다.

광복 이후 성북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변화를 겪게 된다. 북한산의 수려한 경관을 배경으로 한 성북동에는 예술인과 지식인들의 단지도 생겨났지만, 다른 골짜기에는 6·25전쟁으로 피난해 온 사람들이 살기 시작했다.

전쟁 이후인 1953년부터 성북구 인구는 다른 서울의 지역보다 훨씬 많이

정릉교수단지 전경



증가하였다. 인구 증가의 이유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다. 일단 전쟁 때 이 지역의 인구수는 확실하게 집계될 수 없었다고 한다. 사람들이 파괴된 마을 주변에 움집을 지어 살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쟁이 끝난 뒤 이들이 집을 지어 살도록 하고, 이들을 포함시켜 새롭게 인구를 집계하였다. 또한 사회가 안정되고 서울에 일자리가 많아지자 지방으로부터 워낙 많은 사람들이 이주해 온 것도 이 지역 인구증가의 원인이었다. 특히 성북구는 당시만 해도 서울의 변두리였기 때문에 땅값이 싸서 많은 사람들이 몰렸다. 일제강점기에 여러 학교와 대학교들이 자리 잡은 것 역시 인구증가의 큰 요인이었다. 급증한 인구수 덕분에 1973년에는 성북구로부터 도봉구가 분구되기도 하였다.

성북동 산에 번지가 새로 생기면서
본래 살던 성북동 비둘기만이 번지가 없어졌다.
새벽부터 돌 깨는 산울림에 떨다가
가슴에 금이 갔다.

그래도 성북동 비둘기는

하느님의 광장 같은 새파란 아침 하늘에

성북동 주민에게 축복의 메시지나 전하듯

성북동 하늘을 한 바퀴 휘 돈다.

- 김광섭, 〈성북동 비둘기〉(1969) 중에서 -

사람들이 많이 살던 만큼 주거지도 늘어나게 되었다. 돌산을 뜻한 ‘암^巖’자가 들어간 동네가 많은 성북구에서는 주거지를 만들기 위해 돌들을 당연히 깎아내야 했고, 높은 산등성이 마다 빼곡하게 들어서 있었던 성북구 주민들의 삶의 터전은 재개발이라는 이름 아래 헐리게 되었다. 시인 김광섭의 〈성북동 비둘기〉는 이런 성북구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일제강점기에 지어졌던 많은 도시형 한옥들이 헐리고 그곳에는 벽돌로 된 현대식 공동주택이 들어서게 되었다.

이제는 소설가 이태준이 이야기했던 시골과 같던 모습도, 집집마다 감나무들이 서 있었던 옛 모습도, 길가에 흔하디흔한 달맞이꽃과 백합꽃도 자취를 감추어 버렸다. 그 대신 잘 정비된 성북천과 공원처럼 가꾸어진 한양도성 성곽 그리고 산을 깎고 다져 그 위에 등장한 높다란 아파트들이 성북구 지역을 대표하는 존재가 되었다.

3

성북구 개관

행정구역
변동

성북구 지역이 구체적인 행정구역으로 편제된 기록이 남아 있는 것은 조선시대 이후이다. 태조 이성계는 1394년에 한양으로 천도한 후 한양부^{漢陽府}를 한성부^{漢城府}로 고쳤다. 또 2년 후인 1396년에 한양도성을 수축하였다. 그리고 관내의 행정구역을 동·서·남·북·중부의 5부^部로 나누고, 5부는 다시 52개의 방^坊으로 분할하였다. 현재의 성북구 지역은 동부에 속했으며, 그중에서도 특히 숭신방^{崇信坊}과 인창방^{仁昌坊}에 해당한다.

세종 때에는 방의 수가 49방으로 축소되었다. 그리고 세조 때가 되면 대체로 도성 밖 10리에 해당하는 지역인 성저십리^{城底十里}가 한성부의 관할 구역으로 포함되었는데, 산의 능선이나 자연 하천을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도성으로부터의 실제 거리는 일정하지 않았다. 성북구 지역은 이 성저십리에 포함되었다. 정릉·청수장^{淸水莊}으로 향하는 길에는 성저오리정계석표^{城底五里定界石標}가 있어 당시 성북구 지역이 한성부에 속했음을 추정할 수 있다.¹³

성북구 지역이 구체적으로 동부 숭신방과 인창방에 속했는지는 정확하게 알려주는 자료는 남아 있지 않다. 다만 1751년(영조 27)에 반포된 <어제

13 이 성저오리정계석표는 문화재관리국이 1970년에 경복궁으로 옮겼고, 그 자리에는 시멘트로 된 유지표^{遺址標}를 세웠으나 지금은 유지표도 없어서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 1936년 사적 제 110호로 지정되었다가 1970년에 지정이 해제되었다.

수성윤음(御製守城綸音)의 <도성삼군문분계총록(都城三軍門分界總錄)에는 당시 한성부에 속한 43개의 방(坊)과 328개의 계(契) 명칭이 보이는데 여기에서 성북구 지역에 해당하는 동부에 속한 방·계는 다음과 같다.



성저오리정계석표

《어제수성윤음》에 수록된 성북구 지역에 해당하는 동부의 방·계

방 이름	계 이름
송신방(성외)	송신방계, 능동계, 가오리계, 장위리계, 안암계, 우이계, 수유촌계, 신설계
인창방(성외)	인창방계, 제기리계, 전농리계, 마장리계, 답십리계, 왕십리사계, 벌리계, 중랑포계, 사아리계

이어 1789년(정조 13)에 간행된 《호구총수(戶口總數)》를 보면 한성부는 47개의 방과 387개의 계로 늘어났다. 여기에서 성북구 지역과 관련이 있는 동부 송신방과 인창방의 계는 다음과 같다.

《호구총수》에 수록된 성북구 지역에 해당하는 동부의 방·계

방 이름	계 이름
송신방	송신동계, 신설계, 종암리계, 벌리계, 가오리계, 수유촌계, 안암동계, 능동계, 사아리계, 어창계, 우이계
인창방	인창동계, 왕십리1계, 왕십리2계, 사계, 청량리계, 답십리계, 제기리계, 장위리계, 중랑포계, 전농리계, 마장리계

이 두 자료를 보면 1751년에서 1789년 사이에 계가 증가했다는 것과 계들이 속한 방이 변경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789년의 송신방 인구는 1,241호에 3,886명이었으며, 인창방은 2,511호에 7,683명이었다. 이후 1867년(고종 4)에 반포된 《육전조례(六典條例)》에서는 한성부를 5부, 47방, 340계로 분할하였다. 1894년 갑오개혁 당시에는 한성부의 5부를 5서(署)로 고

치고 방은 그대로 두었으며, 계는 줄이고 동을 새롭게 두어 47방, 228계, 775
동으로 지방제도를 재편하였다. 이때 성북구 지역은 숭신방(성외) 동문외계
와 동소문외계, 인창방(성외) 동소문외계 지역에 해당하였다.

1910년 8월 조선을 강제 병합한 일본은 그해 10월 1일 총독부령 제1호로
〈부^府·군^郡 명칭 및 관할구역〉을 공포하였다. 이는 그에 앞서 발표된 지방관
관제 제17조에 의한 것이었다. 이때 경성부의 위치 및 관할 구역은 종래의
한성부 일원이었다. 1911년 4월 1일 경기도는 도령^{道令} 제3호로 경성부와 관
내 면의 명칭 및 구역을 새로 정했다. 이른바 5부^部 8면제^{面制}의 실시였다. 성
북구 지역은 이때 8면 가운데 숭신면에 속하게 되었다. 1914년 3월 1일과 4
월 1일을 기하여 조선총독부는 다시 대대적인 지방제도 개혁을 단행하였다.
이때 군과 면을 대대적으로 줄여 통제력을 강화하고 경비를 절감하려 했다.
이때 실시된 부제^{府制}는 기존과 달리 면을 관할 아래 두지 않는 것이었다. 부
에 속한 농촌의 면은 대부분 군으로 독립시키고 시가지 지역에 새로운 부를

동부의 방·계를 수록한
《호구총수》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東部坊 四十七 元戶七千七百二口二萬九千七百十 戶 一萬一千一百七十五口五千五百四十五 戶 景莊宮坊 二 元戶七百七十六口四千二十六 戶 崇教坊 都統監 元戶八百三十九口四千二百七十六 戶 建德坊 都統監 元戶四百七十一口一千八百六十八 戶 昌善坊 都統監 元戶六百八十九口二千四百二十六 戶 崇信坊 都統監 元戶一千二百四十一口三千八百八十六 戶 仁昌坊 都統監 元戶二千五百十一口七千六百八十三 戶	元戶一千二百四十一口三千八百八十六 戶 仁昌坊 都統監 元戶二千五百十一口七千六百八十三 戶
--	---

창설한 것이다. 이로서 부는 도시 지역만을 관할하는 기초단위가 되었으며, 기존 부_府에 속한 8개 면 가운데 용산면을 제외한 거의 모든 지역이 고양군에 편입되었다. 성북구 지역도 고양군에 속하게 되었는데, 이때 송신면과 인창면이 통합되어 송인면이 되었다.

축소된 경성부가 다시 확대된 것은 1936년 2월 14일 총독부령 제8호에 의한 것으로, 실제 시행은 같은 해 4월 1일이었다. 이전까지 경성부의 면적은 36.18km²에 불과하였는데, 이때의 확장을 통해 경성부의 면적은 3.7배나 늘어난 136km²가 되었다.

송인면에서는 성북리, 돈암리, 신설리, 안암리, 종암리, 답십리, 전농리, 청량리, 제기리, 용두리, 회기리, 이문리, 휘경리, 정릉리 일부가 한성부로 편입되었다. 편입되지 못한 지역은 정릉리, 미아리, 장위리, 석관리, 번리, 우이리, 수유리, 상월곡리, 하월곡리 등이었다.

1945년 광복을 맞이하고 1년 후인 1946년 8월 15일 미군정은 7장 58조로 구성된 <서울시헌장>을 발표했다. 그리고 이 헌장의 정신을 이어받아 같은 해 9월 18일 서울특별시 설치에 관한 미군정법령 제106호가 발포되었다. 이로써 경성은 정식으로 ‘서울’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음은 물론 경기도 관할하의 시에서 도_道와 같은 지위의 특별시로 승격되었다. 이 법령의 발효일은 9월 28일이었으니 서울특별시 시대의 시작이었다. 같은 해 10월 1일 일본식 동명도 다시 전래의 동명으로 개칭되었다. 성북구 지역의 경우 일본식 동명이 많지 않았으므로 행정구역 명인 정_町만 모두 동_洞으로 바꾸었다.

1948년 5월 10일 제헌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었으며, 같은 7월 17일 최초의 헌법이 제정·공포되었다. 또한 국회에서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선출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것은 8월 15일이었다. 1949년 8월 15일에 대통령령 제159호로 그때까지 경기도 고양군에 속했던 뚝도면, 송인면, 은평면 전부와, 시흥군 동면에 속했던 도림리, 구로리, 번대방리 등이 서울시로 편

입되었다. 이때 동대문구 관내 일부와 새로 편입된 송인면을 합쳐 성북구를 만들었다. 이로써 서울의 구는 종전의 8개에서 9개로 늘어났다.

1962년 11월 21일자로 공포된 법률 제1172호는 서울시의 행정구역을 크게 확장시켰다. 경기도 양주군 노해면 전부를 성북구에 편입시켰으며, 같은 군 구리면의 5개 리를 동대문구에 편입시킨 것이다. 성북구의 면적은 45.78km²에서 106.49km²로 두 배 이상 확장되었다. 이는 당시 서울시 면적의 17.6%에 해당하였다. 그런데 1973년에 성북구의 면적은 다시 줄어들었다. 3월 12일 대통령령 제6548호에 따라 그해 7월 1일자로 성북구에서 도봉구가 분리된 것이다. 성북구의 면적은 23.37km²로 크게 줄어들었다. 그 이후에도 관할 구역의 조정은 계속되었다. 1973년 9월 23일자 대통령령 제 7816호에 의거하여 성북구 석관동·종암동·안암동4~5가의 일부가 동대문구에, 성북구 정릉동·하월곡동 일부가 도봉구에 편입되었다. 반대로 동대문구 보문동1~7가, 신설동의 일부 그리고 도봉구 미아동 일부가 성북구에 편입되었다.

인구 변동¹⁴

4

성북구
개관

숫자로 보는 성북구의 인구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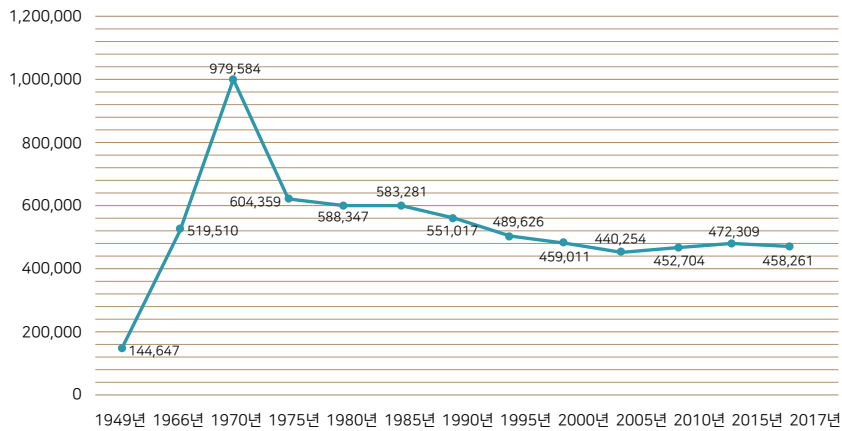
(단위: 명)

연도	인구	남녀
1949년	144,647	
1966년	519,510	
1970년	979,584	
1975년	604,359	
1980년	588,347	
1985년	583,281	
1990년	551,017	
1995년	489,626	
2000년	459,011	
2005년	440,254	
2010년	452,704	
2010년 3/4분기	486,982	남: 240,525 / 여: 246,457
2013년 3/4분기	488,543	남: 239,746 / 여: 248,797
2015년 3/4분기	472,309	남: 230,727 / 여: 241,582
2016년 3/4분기	464,505	남: 226,082 / 여: 238,423
2017년 3/4분기	458,261	남: 222,474 / 여: 235,787

14 이 절의 내용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구지》, 1993, 495쪽과 서울연구데이터베이스(<http://data.si.re.kr>), 서울통계정보시스템(<http://stat.seoul.go.kr>), 성북구통계정보조회(<http://stat.seoul.go.kr/host/seongbuk>)에서 정리한 것이다.

그래프로 보는 성북구의 인구 변화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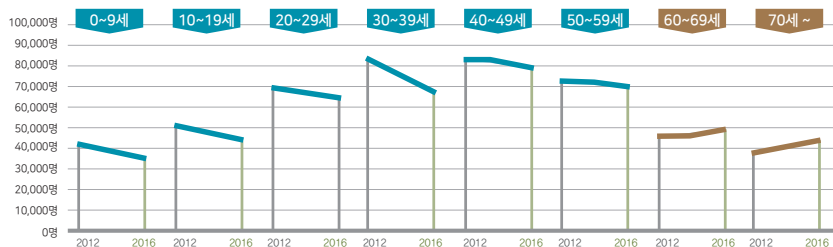
성북구의 인구는 성북구가 신설되던 1949년 14만 4,647명을 시작으로 1970년 97만 9,584명까지 급격하게 늘어났다. 이제 막 도시화가 시작되고, 아직 강남 개발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아 서울 인구의 대부분이 강북 지역에 집중되던 시기였기 때문이다. 1975년에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든 것은 도봉구가 분리되어 나갔기 때문이다. 이후 강남 개발 등으로 인구가 분산되며 인구는 꾸준히 감소했다.

2012~2016년 기간 동안 성북구의 연령대별 인구 추이를 살펴보면 50대 이하의 인구는 감소 추세를, 60대 이상은 증가 추세를 보인다. 2012년 대비 2016년 성북구 인구증감률은 서울시 대비 10세 미만, 20·30대, 50대의 감소 폭이 큰 편이며, 총인구 감소폭도 서울시의 2배 수준이다. 성북구의 평균 노령화지수는 123.7이며, 노년부양비는 19.5이다. 서울시 평균 노령화지수는 118, 노년부양비는 17.7이다. 2017년 현재 성북구의 65세 이상 인구는 6만 5,937명으로 전체 인구의 14.36%에 달하여, 서울시 평균 13.32%보다 높은 편이다. 위의 정보를 종합하면 성북구는 서울시에서도 다소 노령화된 인구

구성임을 확인할 수 있다.

평균 인구밀도는 km^2 당 1만 8,781명이다.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동은 둔암2동으로 해당 인구가 4만 9,335명이고, 가장 낮은 동은 정릉3동으로 4,752명이다.

그래프와 숫자로 보는 성북구의 연령별 인구 추이(2012~201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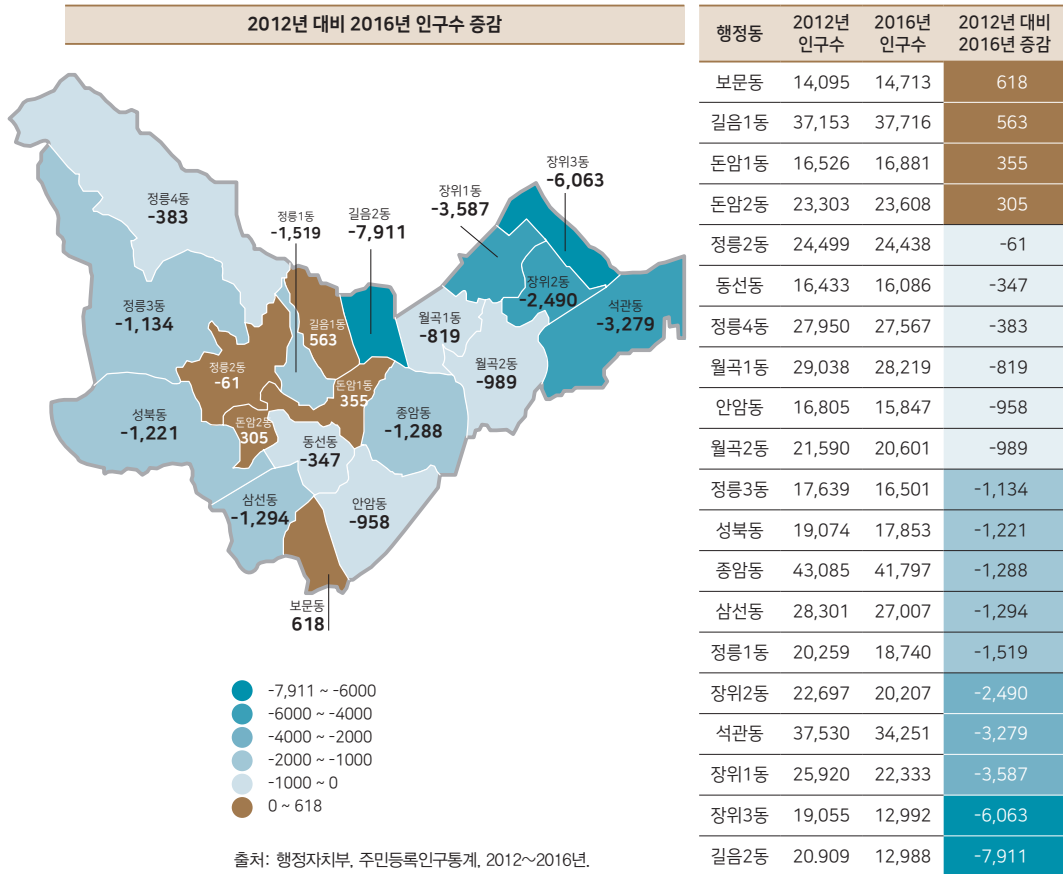
구분	0~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총인구수
2012년	41,720	51,044	69,273	83,524	81,678	72,244	44,869	37,505	481,857
2013년	40,294	49,242	67,581	79,726	82,420	72,583	45,396	39,347	476,589
2014년	38,257	46,985	66,278	74,619	81,624	72,045	46,121	40,777	446,706
2015년	37,292	44,817	65,412	70,999	80,227	70,884	47,885	41,759	459,275
2016년	35,453	43,041	64,375	67,183	78,758	69,510	48,775	43,260	450,355
증감률(성북)	-15.00%	-15.70%	-7.10%	-19.60%	-3.60%	-3.80%	8.70%	15.30%	-6.50%
증감률(서울)	-7.80%	-18.50%	-3.10%	-10.10%	-3.30%	-0.40%	17.50%	20.30%	-2.60%

출처: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통계, 2012~2016년.

성북구 20개 행정동의 2012~2016년까지의 인구수 증감은 다음의 표와 같다.

성북구 20개 행정동의 인구 증감 현황(2012~201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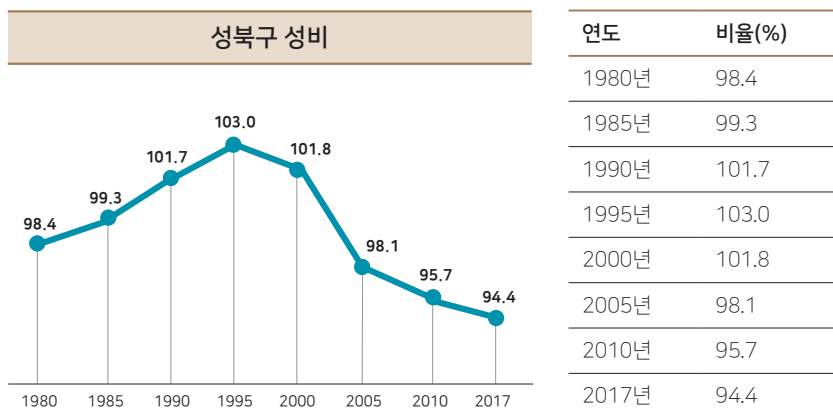
(단위: 명)



위의 표를 보면 보문동과 길음1동, 돈암1동과 2동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동에서 인구가 감소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특히 길음2동과 장위3동의 감소가 두드러지는데 이는 주택 재개발의 영향으로 보인다.¹⁵

¹⁵ <2017 정책연구: 성북구 인구가구 구조변화와 정책적 대응방안>, 성북공공데이터플랫폼 (<http://sbdata.sb.go.kr>).

성북구의 성비 변화



여성 100명당 남성의 비율을 의미하는 성비는 성북구의 경우 1995년 103명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2017년 3/4분기 현재 94.4명이다. 서울시 평균이 95.9명인 것에 비하면 성북구는 여성 인구가 다른 구에 비해 많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5

성북구
개관

성북구 일반 현황

1) 문화재

고려시대에는 남경에, 조선시대에는 한성부 성저십리에 속하였던 성북구 지역은 오늘날의 서울에서 종로구와 중구 다음으로 많은 역사적 유적과 유물을 보유하고 있다.

사적으로 지정된 곳은 모두 6곳이다. 사적 제10호로 지정된 서울 한양도성을 필두로 하여 서울 선잠단지(先蠶壇址 사적 제83호), 서울 의릉(懿陵 사적 제204호)과 서울 정릉(貞陵 사적 제208호), 서울 고려대학교 본관(사적 제285호), 서울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사적 제286호)이 그것이다. 이 중에서 조선시대 왕릉인 정릉과 의릉은 2009년 유네스코에 의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기도 하였다. 2016년에 발굴을 진행했던 선잠단지는 발굴 결과 조선 초에 축조한 제단 석축을 확인한 것을 바탕으로 현재 복원 공사가 진행 중이다. 이외에 의친왕이 말년에 머물던 성락원(城樂園)은 명승 제35호로 지정되어 있다.

국보와 보물은 간송미술관과 고려대학교 박물관과 도서관, 그리고 성북구에 소재한 전통사찰과 대학 박물관에 주로 소장되고 있다. 국보로는 성북동의 간송미술관에는 청자 기린형 뚜껑 향로(국보 제65호), 동래선생 교정 복사상

절 東萊先生校正北史詳節 권4, 5국보 제149-1호, 청자 모자 원숭이 모양 연적국보 제270호, 백자청화 철채동채 초충문 병 白磁靑畫鐵彩銅彩草蟲文瓶 국보 제294호, 청자상감 연지원양문 정병靑磁象嵌蓮池鶯鶯文淨瓶 국보 제66호, 청자 상감운학문 매병국보 제68호, 훈민정음국보 제70호, 동국정운 권1, 6국보 제71호, 금동 계미명 삼존불입상金銅癸未銘三尊佛立像 국보 제72호, 금동 삼존불감金銅三尊佛龕 국보 제73호, 청자 오리모양 연적국보 제74호, 신윤복 필 풍속도 화첩국보 제135호 등이 소장되어 있다. 이 가운데 훈민정음이 199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되었다.

안암동의 고려대학교에는 분청사기 인화국화문 태항아리국보 제177호, 혼천의 및 혼천시계국보 제230호, 동궐도東闕圖 국보 제249-1호, 용감수경龍龕手鏡 국보 제291호 등이 소장되어 있다. 이 중 혼천의 및 혼천시계는 2007년 새로 도안한 1만 원권 지폐의 뒷면에 삽입되기도 하였다.

보물로는 성북동의 간송미술관에 백자 박산형뚜껑 향로보물 제238호, 금보



혼천의(고려대학교 박물관)

譜 보물 제283호), 금동여래입상·보물 제284호, 금동보살입상·보물 제285호, 청자상감 포도
 동자문 매병·靑磁象嵌葡萄童子文梅瓶 보물 제286호, 분청사기 박지철채화문 병·보물 제287호,
 괴산 외사리 승탑·槐山外沙里僧塔 보물 제579호, 문경 오층석탑·보물 제580호, 분청사기 상
 감모란문 반합·보물 제348호, 청자상감 국화모란당초문 모자합·보물 제349호 등이 소
 장되어 있다.

안암동의 고려대학교에는 홍무정운역훈 권3~16·洪武正韻譯訓 보물 제417호, 삼
 국유사 권3~5·보물 제419~4호, 중용주자혹문·中庸朱子或問 보물 제706호, 동인지문사육 권
 1~6·보물 제710~2호, 동인지문사륙 권7~9·보물 제710~5호, 수선전도 목판·보물 제853호 등이
 소장되어 있다. 성신여자대학교 박물관에는 대동여지도·보물 제850~1호가 있다.

전통사찰인 정릉동의 봉국사·奉國寺·경국사·慶國寺, 돈암동의 흥천사·興天寺, 보
 문동의 미타사·彌陀寺·보문사·普門寺, 안암동의 개운사·開運寺와 보타사·普陀寺, 성북
 동의 정법사·正法寺 등은 고려시대 또는 조선시대 사찰로 전해지고 있다. 이 밖
 에 동소문동의 청룡암, 장위동의 진흥선원, 안암동의 대원암·칠성암 등의
 작은 규모의 절도 많이 있다. 이들 전통사찰에도 많은 문화재가 있다. 서울
 경국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보물 제748호, 서울 흥천사 금동천수관음보살좌
 상·보물 제1891호, 서울 개운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및 발원문·보물 제1649호, 서울 보
 문사 묘법연화경 권3~4, 5~7·보물 제1164~2호, 서울 보타사 금동보살좌상·보물 제1818
 호와 보타사 마애보살좌상·보물 제1828호이 대표적인 유물로 꼽힌다. 이들 유물들
 은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 번성했던 성북구 지역의 사찰 면모를 잘 보여주
 고 있다.

중요민속문화재로는 고려대학교 박물관에 사영 김병기 일가 옷·思穎金炳冀
 一家옷 제6호와 홍진종 의복·洪鎭宗 衣服 제113호이 소장되어 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민속문화재로는 국민대학교 내에 장교동 한규설 가옥·長橋洞韓圭家屋 제7호, 성북
 동에 성북동 이종석 별장·城北洞李鍾奭別莊 제10호와 상허 이태준 가옥·尙虛李泰俊家屋 제
 11호, 장위동 김진흥 가옥·長位洞金鎭興家屋 제25호이 있다.



심우정(위)과 만해공원(아래)

문화예술인들이 거주하는 공간이기도 하였다. 이때문에 성북구에는 이 시기의 역사와 문화를 담고 있는 건축물과 유물이 다수 남아 있다. 이에 문화재청은 이들 건축물과 유물 중 일부를 등록문화재로 등재하였다. 서울 돈암장^{제91호}, 서울 의릉 구 중앙정보부 강당^{제92호}, 서울 동선동 권진규 아틀리에^{제134호}, 서울 성북동 최순우 가옥^{제268호}, 동덕여자의숙 태극기^{제268호}, 서울 홍천사 대방^{제583호}, 유길준 단령^{제606호}, 서울 성북동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구 본원^{제655호}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끝으로 성북동에 있는 만해 한용운 심우장은 만해 한용운 선생이 1933년 건축하여 1944년 입적하기까지 거주한 집으로 1984년 서울특별시 기념물 제7호로 지정되었다. 근래에는 심우장 마당의 벽돌조 양옥 가옥을 철거하고 마당 한켠에 작은 관리사무소를 두어 한층 쾌적하게 관람할 수 있게 하였다. 또 심우장으로 올라가는 길 입구에 만해공원을 조성하여 오가는 시민들이 한용운 선생의 평화와 독립정신을 기릴 수 있게 하였다.

성북구 문화재 현황

(단위: 개)

국가 지정문화재	소계	83
	사적	7
	명승	2
	국보	17
	보물	33
	중요민속문화재	19
	국가무형문화재	5
서울시 지정문화재	소계	53
	유형문화재	44
	기념물	1
	민속문화재	4
	무형문화재	4
문화재자료		7
등록문화재		13
합계		156

2) 교육·문화시설

성북구 지역에는 일찍부터 근대교육기관이 설립되었다. 1909년 성북리에 설립된 삼산학교(三山學校)를 비롯하여 1922년 종암동에 숭인공립보통학교, 1924년 사립인 인창보통학교, 1934년 보성전문학교(현 고려대학교), 1939년 경성고등상업학교(훗날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등 많은 학교가 설립되는 등 일찍부터 근대교육이 자리했던 곳이다.

이후에도 인구 증가와 함께 꾸준히 학교가 설립되어 2018년 현재 초등학교 29개교, 중학교 18개교, 고등학교 14개교, 특수학교 1개교가 있다. 대학교는 고려대학교·국민대학교·동덕여자대학교·서경대학교·성신여자대학교·한국예술종합학교·한성대학교 등 7개교가 있다. 서울의 다른 구에 비해 많은 대학이 위치하고 있어 교육환경이 우수한 곳이다.

문화공간으로는 돈암동 한신·한진아파트 뒤편에 성북구민회관과 성북여성회관이 있고, 성북동1가에 성북예술창작터, 아리랑고개에 아리랑시네센터, 동선동에 청소년문화공유센터, 미아리고개 정상에 미아리고개 예술극장이 있어서 성북구민들이 각종 문화 활동을 향유할 수 있다. 이밖에도 복합문화공간 성북도원(성북동), 청소년휴카페(정릉동), 동행라운(동선동1가)이 있고, 또 최근에는 미아리고개 고가도로 하부공간에 미인도라는 개방적인 문화공간이 들어서서 예술인, 청소년, 일반 시민이 활용하고 있다.

2010년대 들어서 주목할 만한 변화로는 활발한 공공도서관 설립을 들 수 있다. 이전부터 있던 성북정보도서관과 아리랑정보도서관 외에 성북구 곳곳에 소규모 구립도서관 7개소를 세우고 54만 권에 달하는 책자를 구비하여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였다.

공공영화관으로는 돈암동에 아리랑시네미디어센터가 있다.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개봉관과 영화갤러리, 미디어센터를 갖추고 종합적인 영상교육

문화공간으로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정보와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박물관으로는 고려대학교 박물관, 성신여자대학교 박물관, 동덕여자대학교 박물관, 국민대학교 박물관 등 대학박물관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최근에는 성북동에 한국가구박물관과 우리옛돌박물관 등 사립박물관 두 곳과 구립 성북선잠박물관이 개관하여 역사문화도시 성북구의 위상을 한층 높여가고 있다. 1934년 개관한 고려대학교 박물관은 6개의 전시실을 갖추고 국보와 보물 등 역사·고고·미술 분야에 걸친 약 10만여 점의 유물을 소장하고 있다. 1977년 발족한 동덕여자대학교 박물관은 문화유산 중에서도 여성 전통 민속공예와 의상 자료, 바느질 자료 등 여성의 문화와 관련된 자료를 집중적으로 수집·보관·전시하고 있다. 1966년 생활과학박물관으로 출발한 성신여자대학교 박물관은 조선시대의 고지도, 서화류, 공예품 등 민족의 생활 문화에 나타난 문화유산을 전시하고 있다. 국민대학교 박물관은 시대별 전시실과 장르별 전시실로 나누어 고고·미술·공예·민속·역사 등 다양한 자료를 폭넓게 수집·전시·교육하고 있는데, 특히 설촌고서와 암각화자료가 주목할 만하다.

미술관으로는 간송미술관과 성북구립미술관이 있다. 1938년 전형필이 설립한 간송미술관은 중심 건물인 보화각에 국보급 유물을 다수 소장하고 있다. 1970년대부터 2013년까지 봄가을로 특별전을 열어 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졌으나 최근에는 동대문역사문화공원 내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상설전을 기획하는 등 전시 방법에 변화를 주고 있다. 2009년 성북동에 문을 연 성북구립미술관은 전국 자치구 최초로 설립한 미술관으로 개관 당시 큰 주목을 받았다. 규모는 작지만 매년 성북구의 예술적 전통과 특성을 살린 독창적인 전시를 기획하여 구민들에게 다가가고 있다.

1997년 동소문동1가에 자리한 성북문화원은 전통문화강좌와 역사문화강좌 개설과 선잠제향, 만해 한용운 기념행사 등을 통해 지역의 고유문화



아리랑시네미디어센터(위)와 성북구립체육회관(아래)

를 개발·보급하고, 향토사 조사와 연구는 물론 각종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스포츠시설로는 성북구민체육회관을 비롯하여 성북구 도시관리공단에 서 관리하고 있는 성북종합레포츠타운, 개운산스포츠센터, 북악골프센터 등이 자리하고 있다. 월곡동에 있는 성북구민체육관은 헬스클럽, 테니스클럽, 축구장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성북종합레포츠타운(석관동)은 휴식과 운동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최적의 쾌적성을 부여함을 목표로 국내 최고 수준의 종합스포츠 전문시설을 갖추었다. 자연채광과 전망을 특별히 고려한 수영장과 헬스장이 있고, 4층에 위치한 골프연습장은 비거리 30야드, 29타석의 밝고 쾌적한 분위기와 함께 최첨단의 스윙분석기를 통한 과학적인 골프트레이닝을 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 1층에는 스쿼시장과 어린이 체육관이 있어 다양한 스포츠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으며, 취미·스포츠문화교실에서는 건강·미술·교양 등의 다양한 문화강좌를 열고 있다. 개운산스포츠센터(종암동)도 수영장과 헬스장을 갖추어 지역민의 건강한 생활에 일조하고 있다. 북악스카이웨이 산자락에 있는 북악골프장(성북동)은 52타석의 자동화 타석기계, 퍼팅연습장, 벙커연습장, 레스토랑, 골프용품점, 303개의 개인 락카를 비치하여 더욱 편리하고 안락한 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다. 이외에도 정릉동에 있는 정릉북악생활체육시설은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배드민턴장을 갖추고 있다.

3) 관광

성북구 지역은 북쪽에 북한산국립공원을 두고 있어 북한산을 이 지역의 최고 관광지로 손꼽을 수 있다. 북한산과 연결되어 있는 정릉계곡도 예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찾던 명소 중 하나이다. 또한 북한산 자락에 들어선 경국

구박물관, 성락원, 심우장, 간송미술관 등이 자리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러한 역사문화지구 성북동의 역사적 가치를 고려해 종합적인 개발·보존계획을 마련해 시행에 옮기고 있다.

4) 산업·교통

성북구는 토지의 33.3%가 임야이고 경지는 전체 토지의 0.5%에 불과하다. 대지 41.7%, 하천 2.1%, 학교용지 6.3%, 도로 11.1%, 철도용지 0.5%로 전체 토지에서 임야와 대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산업 인구는 제조업 종사자 10.8%, 건설업 3.6%, 도소매업이 17.3%, 숙박 및 음식업이 13.7%, 운수업 7.8%, 금융 및 보험업 2.3%, 부동산 및 임대업 3.2%, 사업서비스업 5.8%, 교육서비스업이 15.9% 등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전체 사업체 가운데 1~4명의 종사자가 근무하는 영세한 사업체가 전체의 88.6%에 달할 만큼 압도적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1,000명 이상의 사업체는 3개에 불과하다.

여로부터 한양도성의 북쪽 지역이었기 때문에 서울의 4소문 가운데 하나인 혜화문을 지나 원산에 이르는 동북방 간선도로가 이 지역을 관통하고 있다. 이곳은 일찍부터 여진과의 통로가 되었음은 물론 노원구 일대의 누원점樓店과 연계되어 상인들이 통행하는 길목이기도 했다. 따라서 국가의 공무를 전하는 파발이나 특산물을 수송하는 상인, 금강산을 여행하고 싶은 여행객 등 오고가는 많은 사람들로 붐비던 지역이다. 주요간선도로인 미아로·동소문로·종암로를 중심으로 도로가 확장되어 있고, 지하철시대가 개막되면서 1985년 지하철 4호선 개통과 함께 2000년 지하철 6호선의 개통으로 서울시내는 물론 한강 이남으로의 교통이 더욱 편리해졌다.

성북구의 주요간선도로는 북쪽에 북한산국립공원이 막고 있어 그 아래

에서 동서남북으로 비교적 잘 발달되어 있다. 도로의 크기에 따라 광로(廣路)·중로(中路)·소로(小路)를 모두 합하면 총연장은 621km에 달하며, 도로 포장률은 99.98%이다.

폭 40m 이상의 넓은 도로는 성북구를 동서로 관통하는 내부순환로를 비롯하여 동소문로·종암로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서울 도심과 연결되는 동소문로와 종암로는 일찍부터 개통되어 있었으며, 정릉로가 북악터널의 개통



성북구의 도로망



미아로

과 함께 북부 서울을 동서로 관통하는 대로가 되었다. 이외에도 아리랑로, 보문로, 성북로, 월계로, 화랑로, 돌곶이로, 안암로 등의 지선도로가 연결되어 교통의 편리를 더하고 있다.

지하철 4호선은 당고개역에서 오이도역까지 48개 역을 운행하는 전철로 1980년 착공하여 1985년 개통하였다. 성북구를 지나는 역은 길음역·성신여대입구역(돈암역)·한성대입구역(삼선교) 세 곳이 있다. 지하철 6호선은 봉화산역에서 역촌역까지 38개 역을 운행하는 전철로 1994년에 착공하여 2001년 완전 개통하였는데, 성북구 지역은 2000년에 공사가 끝났다. 성북구를 지나는 6호선 구간에는 석계역·돌곶이역·월곡역(동덕여대)·고려대역(종

암)·안암역(고려대병원앞)·보문역이 있다. 2017년 9월에는 경전철 우이신설선이 개통되었다. 성북구를 지나는 우이신설선 구간에는 보문역·성신여대입구역·정릉역·북한산보문역이 있다.



성북동

서울洞의 역사 · 성북구





1

한성
변동

행정구역 변동¹

1) 조선시대: 한성부 동부 송신방 성북동

성북동은 성城의 북쪽北에 위치한 동洞이라는 뜻이다. 여기에서 성은 한양 도성을 가리키므로 성북동이라는 이름은 조선시대 이후에 붙여진 것이다. 비록 성 밖이지만 성북동 지역은 조선이 건국된 초창기부터 한성부, 그중에서도 특히 송신방崇信坊에 속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 초에서 중기까지의 사료에는 성북동이라는 동명이 나오지 않지만, 영조 때의 《어제수성윤음御製守城綸音》에 실린 <도성삼군분계총록都城三軍分界總錄>를 보면, 장위리계長位里契·안암계安岩契·우이계牛耳契 등이 송신방에 속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 지금의 성북동 지역이 송신방에 속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는 갑오개혁으로 오부五部가 오서五署로 바뀌면서 오서 관할의 계契와 동洞을 정리한 다음의 기록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성부漢城府

동서東署

송신방崇信坊 성외城外

동소문외계東小門外契 성북동城北洞²

위의 기록에서 성북동이 숭신방에 속한 것을 보면 그 이전에도 지금의 성북동 지역이 숭신방에 속했음을 알 수 있다.

2) ‘5부 8면제’의 실시: 경기도 경성부 숭신면 성북동

1910년 한일강제병합 이후 1945년까지 성북동의 행정구역 명칭은 네 번 바뀌었다. 첫 번째 행정구역 변화는 1911년에 이루어졌다. 같은 해 4월 1일 경기도 내 면의 명칭과 구역을 정하는 법령인 경기도령 제3호가 공포되었다. 이 법령에 따라 경성부는 동·서·남·북·중 5개 부^部와 8개의 면^面으로 재편되었다. 이를 일반적으로 ‘5부^部 8면제^{面制}’의 실시라고 하며, 5개 부와 8개 면 아래에는 661개 동^洞과 리^里를 두었다.

성북동은 8개 면 중 하나인 숭신면^{崇信面}에 속하였다. 숭신면은 성북동을 포함하여 40여 개의 동과 리로 구성된 면이었다. 1911년 4월 1일 이후 성북동의 주소는 ‘경기도 경성부 숭신면 성북동’이 되었다. 한편 이 법령에 따라 형성된 경성부의 총 면적은 약 62.84km²이었다. 부를 담당하는 직책으로 부장을, 면을 담당하는 직책으로 면장을 두었다. 이들이 경성부의 최고 책임자였던 부윤^{府尹}의 지휘 감독을 받아 군과 면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3) 부제의 실시: 경기도 고양군 송인면 성북리

조선총독부(이하 총독부)는 1913년 10월부터 1914년 4월까지 지방제도

1 이 장의 내용은 박수진·백외준·남기현·한봉석·김보라·김지은, 《성북동-만남의 역사, 꿈에 공간》 성북문화원, 2015 가운데 남기현이 쓴 부분을 기초로 일부 축약·보완하여 작성하였다.

2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 《국역 경성부사》 제2권, 2013, 405쪽. 갑오개혁 당시의 한성부 행정구역에 대해서는 《구한국관보舊韓國官報》 등에도 나타나지 않고 1936년 경성부청京城府廳이 소장하고 있던 문서에서 발견되어 《경성부사京城府史》 제2권에 수록되어 있다(박경룡, 《개화기 한성부 연구》, 일지사, 1995, 23쪽).

를 개혁하였다. 1913년 10월 30일 제령^{制令} 제7호로 부제^{府制}를 실시할 것을 발표하였다. 이후 총독부는 이에 대한 세부적인 법령을 발표하고, 이에 근거하여 1914년 4월 1일부터 경성·인천·군산·목포·대구·부산·마산·평양·신의주·원산·청진 등 12개 지역에서 부제가 실시되었다.

이때 성립된 부^府는 이전의 부^府와 성격이 달랐다. 새로 만들어진 부는 그 산하에 면^面이 있지 않았다. 지방행정의 기초단위로서 부가 성립한 것이다. 새롭게 부가 만들어지면서 기존 행정구역 산하에 있던 면은 분리되어 군 아래로 배치되었다. 이때 분리된 면은 주로 농촌 지역이었다. 면을 제외한 시가지 지역은 새로운 부가 되었다. 새로 성립된 부는 지방행정상 도시 지역만을 관할하기 때문에 그 면적은 이전에 비하여 크게 줄어들었다. 당시 경성부 면적은 약 36km²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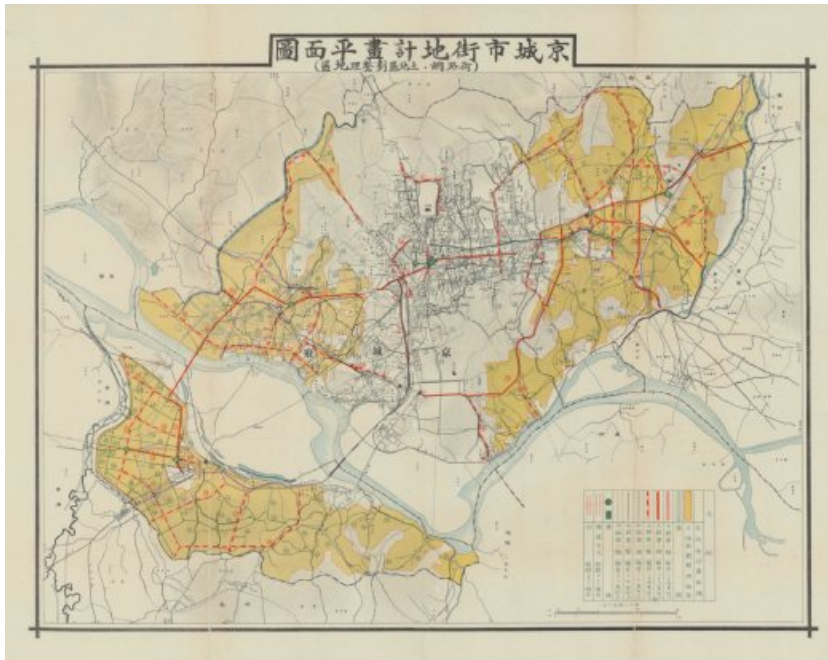
경기도는 1914년 3월 13일 도령^{道令} 제3호를 발표하여 도내의 명칭과 구역을 정하였다. 이에 따라 경성부 8면 중에서 일부는 경성부로 편입되었고 일부는 경기도 고양군으로 편입되었다. 이때의 행정구역 개편으로 고양군은 총 3개 면과 155개 리로 구성되게 되었다. 고양군으로 편입된 지역은 용강면^{龍江面}, 연희면^{延禧面}, 은평면^{恩平面}, 송인면^{崇仁面}, 뚝도면^{蠓島面}, 한지면^{漢芝面} 6개 지역이었다. 성북동 지역은 송인면에 속하였으며 명칭은 성북리로 바뀌었다. 송인면은 당시 행정구역이 재편될 때 새로 만든 면 이름이었다. 송신면의 ‘송^崇’자와 인창면의 ‘인^仁’자를 따서 ‘송인’이라는 새로운 면 이름을 만든 것이다. 송인면은 옛 경성부 송신면과 인창면 중에서 한지면에 속하게 된 일부를 제외한 지역으로 형성되었다. 예하에 22개의 리가 있는 송인면은 고양군 내에서 가장 많은 리로 구성된 면이었다.

4) 경성부에 편입된 성북리: 경성부 성북정

1914년의 부제 실시 이후 경성부 면적은 약 36km²이었다. 당시 경성부 인구는 대략 40만 명이었는데 이 인구를 수용하기에는 경성부 면적이 매우 좁았다. 경성부 확장에 대한 구체적인 움직임은 1930년대에 들어서 이루어졌다. 이노우에 기요시(井上清) 경성부 부윤(府尹)은 1932년 12월 27일에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도시계획령(都市計劃令)의 시행과 함께 경성부 구역을 크게 확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성부는 부의회(府議會)에 경성부 확장에 대해 안을 상정하고 그 내용에 대해 협의했다. 이와 함께 경성부에 편입될 예정인 고양군, 시흥군, 김포군 관계자와 회합을 가지면서 경성부 구역 확장을 준비하였다.

경성부의 구역 확장을 담고 있는 총독부령(總督府令) 제8호가 1936년 2월 14일 발포되었다. 이 법령에 따라 경성부 구역은 동쪽으로 송인면 내의 중랑천(中浪川) 우안(右岸)의 지역, 서쪽으로 고양군 연희면 일부와 용강면 전 지역, 남쪽으로 한지면 일원 및 시흥군 내 영등포읍 전 지역, 북쪽으로 고양군 은평면 일부 및 송인면 정릉천 이남 등의 지역으로 확장되었다. 성북리가 속했던 송인면의 일부 리는 경성부로 편입되고 일부 리는 그대로 송인면으로 남기도 했는데, 성북리는 돈암리·신설리 등과 함께 경성부로 편입되었다. 이에 따라 명칭도 성북리에서 성북정(城北町)으로 바뀌었다.

1936년의 구역 확장으로 경성부 면적은 기존에 비해 3.7배 정도 늘어나 약 136km²이 되었다. 인구도 23만 2,000여 명이 더해져 63만 6,800명을 넘게 되었다. 이것은 당시 일본 본토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큰 규모였다. 관할 구역이 대폭 확장되자 경성부는 관리의 편리성을 이유로 용산·동부(東部)·영등포 등 3개의 출장소를 설치하였다. 송인면에 속했다가 경성부에 편입된 동리는 동부출장소에 속하게 되었는데, 성북정은 동부출장소 관할에 들어가지 않고 경성부 본청(本廳) 관할에 속하게 되었다. 성북정의 위치가 경



성부 본청과 더 가깝기 때문에 행정의 효율을 고려한 조치였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이러한 조치는 바로 지켜지지 않았다. 《동아일보》 기사에 따르면, 부^府 확장안이 실시되고 성북정이 경성부의 본청에 속하게 되었는데도 2개월이 지나도록 성북정의 행정사무를 동부출장소에서 취급하였다고 한다. 이에 대해 성북정 주민들은 불만이 많았다. 당시 동부출장소는 신설정(현 신설동)에 있었는데 1936년 당시 교통상황 등을 고려할 때 성북정에서 신설정까지 왕복하는 것이 많이 불편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으로 보인다. 성북정 주민들은 적극적으로 경성부에 이의를 제기하였고, 그 결과 경성부에서는 1936년 6월 22일부터 성북정의 행정사무를 경성부 본청에서 취급하도록 결정하였다.

5) 구제의 실시: 경성부 동대문구 성북정

1937년 이후 경성부의 지방행정 분야 사무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그 이유로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첫 번째가 일본의 침략정책 때문이었다. 일본은 1937년 중일전쟁을 일으켰으며, 1941년 12월 8일에는 미국과 영국에 선전포고를 하였다. 이로 인해 기존의 행정업무에 공출 및 식량통제 등과 같은 시국사무가 더해지면서 지방행정 업무가 급증하게 된 것이다. 두 번째 이유는 경성부의 인구증가였다. 1930년대 들어서면서 늘기 시작한 경성부 인구는 1936년 구역 확장 이후 더욱 증가하여 1940년경이 되면 약 100만 명으로 급증하였다.

이처럼 처리해야 할 행정사무가 늘어나자 경성부는 먼저 경성부 본청과 각 출장소의 직원을 증원하였다. 1940년 7월 1일에는 기존의 3개 출장소 외에 서부출장소 西部出張所를 새로 설치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폭증하는 업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어렵게 되자 또 다른 방안을 강구하였다. 총독부와 경기도, 경성부는 협의 끝에 경성부에 구區를 설치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1943년 6월 9일 총독부령 제163호로 <경성부 구區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을 발포하였다.

이에 근거해 같은 해 6월 10일부터 구제區制가 실시되고, 용산·동부·서부·영등포 등 4개 출장소는 폐지되었다. 동부출장소 관내는 동대문구와 성동구로, 용산출장소는 용산구로, 서부출장소는 서대문구로, 영등포출장소는 영등포구로 개편되었다. 이와 함께 경성부 본청이 담당했던 지역은 종로구와 중구 2개 구로 분리되었다. 구제의 실시에 따라 성북정은 종로구에 속하게 되었다. 성북정의 행정업무는 경성부 본청에서 담당하였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구제가 실시된 지 1년 5개월이 지난 1944년 11월 1일자로 성북정은 종로구에서 동대문구로 편입되었다.

각 구에는 구장^{區長}을 두고 행정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는데, 처음 구가 설치될 때 구장은 모두 일본인이었다.

6) 광복 이후의 성북동

광복 이후인 1946년 10월 1일 일본식 동명을 고치면서 성북정은 성북동으로 바뀌었다. 1949년 8월 13일 대통령령 제159호로 동대문구에서 성북구가 분리되자 성북동은 성북구에 속하게 되었다. 성북동은 같은 해 8월 15일 당시 성북천에 놓여 있던 운수교^{雲水橋}를 중심으로 동쪽은 성북동1가, 서쪽은 성북동2가로 나뉘어졌다.³ 1955년 4월 19일 서울특별시조례 제66호로 동제^{洞制}를 실시하면서 성북동1가 지역은 성북1동 행정동에서 관할하게 되었다. 2007년 12월 30일에는 성북1동, 성북2동, 동소문동1가, 동소문동4가를 성북동(행정동)에서 관할하게 되었다.

3 한글학회, 《한국지명총람(1) 서울편》, 1966, 124쪽.

인구
변동

성북동의 인구 변화를 1915~2017년까지 살펴보면, 2017년 9월 성북동 인구는 1만 8,058명으로 집계되었다. 성북동 인구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이른 시기는 1915년이다. 이때의 인구는 810명이었다. 1920년에는 805명으로 약간 줄었지만 급격한 인구변동은 없었다. 성북동의 뚜렷한 인구 변화는 1920년대 이후부터 나타났다. 1930년 성북동 인구는 1,666명으로 조사되었는데, 10년 사이에 대략 2배가 되었던 것이다. 1949년에는 1만 3,372명이다. 중간의 인구통계는 확인할 수 없지만 20년 사이에 약 8배의 인구가 증가한 것이다. 그 사이 성북동 지역은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으로 크게 개발되었는데, 그로 인해 인구의 유입이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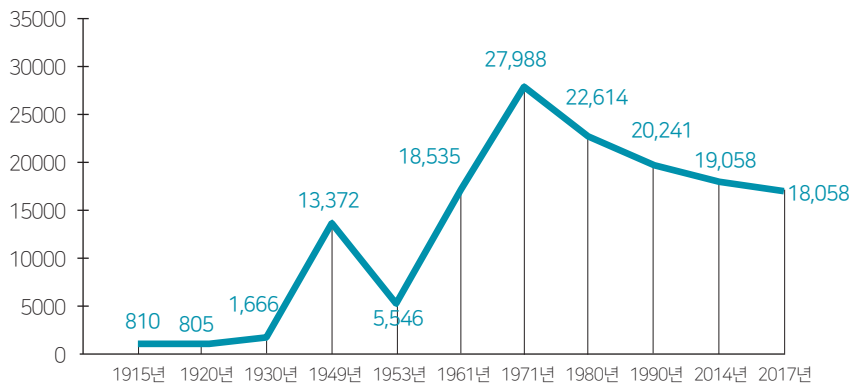
1953년의 성북동 인구가 1949년의 1만 3,372명에서 5,546명으로 크게 줄어든 것은 6·25전쟁의 영향 때문이었다. 1961년에는 1만 8,535명으로 다시 인구가 크게 늘어나고, 1971년에는 2만 7,988명으로까지 인구가 증가하였다. 이것은 급격한 산업화·도시화의 결과였다. 이 시기는 본격적인 강남개발이 시작되기 전으로 당시 서울로 유입된 인구는 사대문의 동서로 모여 들었다. 숭례초등학교, 송인초등학교의 학생 수가 1만 명을 넘은 것도 1970년대의 일이다. 이후 강남개발이 본격화하고, 성북동보다 외곽인 지역으로가

지 주거지가 확장되면서 성북동 인구는 점차 줄어들어 1980년에 2만 2,614명, 1990년에는 2만 241명을 기록하였고, 2014년 6월에는 1만 9,058명으로 더욱 줄었다.⁴ 2000년대의 인구 변화는 전반적인 인구 감소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2017년 9월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북동 세대수는 외국인을 제외하고 8,004세대로 세대당인구는 2.19명이다. 성북구 세대당인구가 2.38명인 것에 비하면 성북동은 약간 적은 편이다.⁵ 한편 외국인을 제외한 성북동 인구의 평균연령은 43.2세인데 성북구 평균연령 41.9세에 비해 약간 높은 편이다.⁶

성북동 인구 변화(1915~2017년)

(단위: 명)



⁴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구지》, 1993, 334쪽; 조규태 외, 《성북동 역사문화자원 조사·연구》, 성북구청 문화체육과·성북문화원, 2016, 90·91·146쪽; 〈서울시 주민등록인구(동별) 통계〉, 서울 열린데이터광장(<http://data.seoul.go.kr>).

⁵ 〈서울시 주민등록인구(동별) 통계〉, 서울 열린데이터광장(<http://data.seoul.go.kr>).

⁶ 〈서울시 평균연령(동별) 통계〉, 서울 열린데이터광장(<http://data.seoul.go.kr>).

2017년 9월 기준 성북동 세대 거주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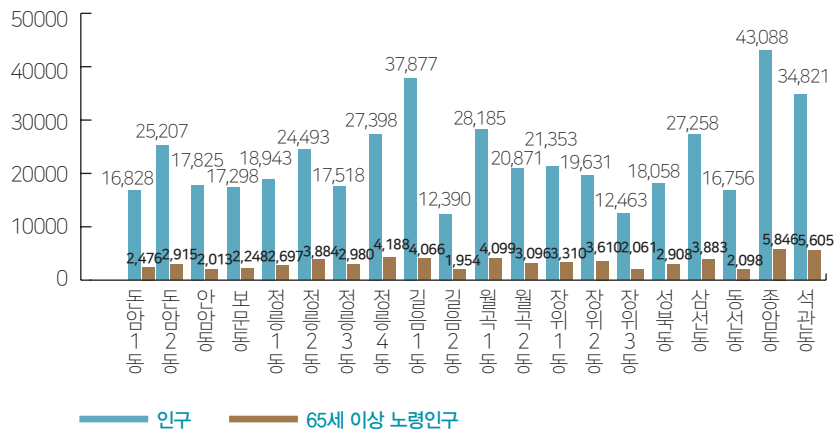
(단위: 세대, %)

세대 형태	세대 수	비율	성북구 평균 비율
1인 세대	3,587	44.82	36.97
2인 세대	1,663	20.78	20.41
3인 세대	1,188	14.84	18.93
4인 세대	1,102	13.77	17.83
5인 세대	332	4.15	4.40
6인 세대	83	1.04	1.05
7인 세대	34	0.42	0.30
8인 세대	7	0.09	0.07
9인 세대	2	0.02	0.02
10인 세대 이상	6	0.07	0.02
합계	8,004	100	

위의 표를 보면, 성북동은 1인 세대가 3,587세대로 전체의 약 44.82%를 차지한다. 다음으로 2인 세대와 3인 세대 순이다. 1인 세대와 2인 세대를 합친 비중은 약 65.59%로 절반이 훨씬 넘는다. 특히 1인 세대와 2인 세대의 비중은 성북구 평균보다 높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를 성북동 인구의 평균연령이 성북구보다 높은 점과 함께 고려하면 성북동의 경우 다른 동에 비해 노인으로 구성된 1인 세대와 2인 세대 비중이 크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그렇다면 성북동의 노령인구 현황과 비율이 구체적으로 어떠한지 성북구 다른 동과 비교하면서 살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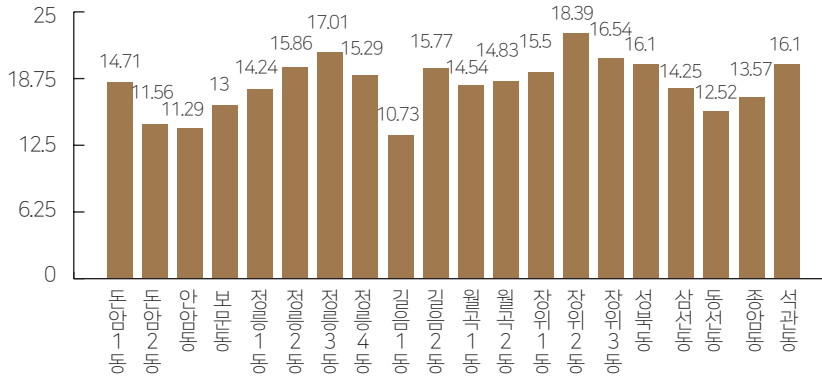
성북구 각 동의 인구와 65세 이상 노령인구 현황(2017년 9월)

(단위: 명)



성북구 각 동의 65세 이상 노령인구 비율(2017년 9월)

(단위: %)



앞의 첫 번째 그래프를 통해 2017년 9월 성북구 각 동의 인구와 65세 이상 노령인구 현황을 살펴볼 수 있는데, 이를 근거로 두 번째 그래프와 같이 성북구 각 동의 65세 이상 노령인구 비율을 도출할 수 있다. 2017년 9월 기준 성북동의 65세 이상 거주자는 2,908명으로 성북동 인구의 약 16.1%를 차지한다. 성북동의 65세 이상 노령인구는 장위2동, 정릉3동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데, 석관동과 더불어 공동 3위에 해당한다. 성북구의 65세 이상 거주자가 성북구 인구의 약 14.39%임을 감안하면,⁷ 성북동의 노령인구 비율은 성북구의 그것보다 약 1.71% 높으며, 이는 상대적으로 성북동에 많은 노령인구가 살고 있다는 점을 알려 준다. 이것은 15~64세 생산가능 연령층의 노인 부양에도 영향을 준다.

2017년 성북구 각 동의 노령화지수와 부양비 통계

(단위: %)

성북구	노령화지수	노년부양비	유년부양비
정릉3동	221.5	22.9	10.3
장위2동	220.2	25.7	11.7
안암동	203.6	14	6.9
석관동	175.5	22.2	12.7

⁷ 〈서울시 고령자현황(동별) 통계〉, 서울열린데이터광장(<http://data.seoul.go.kr>).

성북동	173.3	21.7	12.5
장위1동	171.2	20.6	12.1
동선동	167.8	16	9.5
삼선동	148.8	19.1	12.8
보문동	140.2	17	12.1
장위3동	140.1	22	15.7
월곡2동	139.2	20.4	14.6
정릉2동	138.6	22.1	15.9
돈암1동	136.6	20.2	14.8
길음2동	133.1	21.5	16.1
정릉4동	125.4	21.5	17.1
정릉1동	111.3	19.7	17.7
종암동	110.4	18.6	16.9
월곡1동	101	20.8	20.5
돈암2동	73.5	16.3	22.1
길음1동	55.5	15.7	28.2
소계	125.5	19.7	15.7

위 표의 노령화지수⁸와 부양비⁹를 살펴보면, 2017년 성북동의 노령화지수와 노년부양비는 각각 173.3%, 21.7%를 나타내고 있다. 성북구의 노령화지수와 노년부양비가 각각 125.5%, 19.7%임을 고려할 때 성북동의 그것이 성북구의 다른 동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임을 확인할 수 있다.¹⁰

한편 2016년 km²당 인구밀도를 살펴보면 성북구 인구밀도는 1만 8,781명으로 나타났고, 성북동은 6,409명으로 정릉3동의 4,752명 다음으로 적었다.

⁸ 노령화지수=(65세 이상 고령인구)÷(0~14세 유년인구)×100(〈통계표준용어〉, 통계청(<http://kostat.go.kr>)).

⁹ 노년부양비=(65세 이상 고령인구)÷(15~64세 생산가능인구)×100, 유년부양비=(0~14세 유년인구)÷(15~64세 생산가능인구)×100(〈통계표준용어〉, 통계청(<http://kostat.go.kr>)).

¹⁰ 〈서울시 부양비 및 노령화지수(동별) 통계〉, 서울열린데이터광장(<http://data.seoul.go.kr>).

도시계획과 개발

3

정리
아나

1) 조선시대

조선시대 성북동 지역에는 ‘도시계획’이라는 용어가 어울리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성북동의 탄생 자체가 정부의 정책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도시계획의 범주에 넣어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이다.

영조는 즉위 이후 경종 독살설과 관련하여 계속해서 역모에 시달렸다. 그가 왕위에 있는 동안 청주성까지 함락한 이인좌의 난을 비롯하여 15번의 패서사건이 일어났다. 영조와 집권 노론은 주모자와 연루자를 강력하게 처벌하였지만 그것만으로 안심할 수는 없었다. 이에 예방을 위한 조치들을 취했는데 도성 수비의 강화는 그 일환이었다. 비변사는 여러 해 논의를 거쳐 1751년(영조 27) 《수정절목^{修定節目}》을 완성해 올렸다. 한성부의 백성들을 훈련도감·어영청·금위영의 삼군문에 소속시켜 평소에는 훈련을 하고 유사 시에는 소유한 무기를 갖고 담당한 위치에 가서 도성을 방어하게 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었다.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실행될지는 알 수 없었다.

1765년(영조 41) 4월 영의정 홍봉한^{洪鳳漢(1713~1778)}의 건의는 이러한 고민의

연장선에서 나왔다. 그는 현재 성북동 지역에 둔전^{屯田}을 두고 군적에 올라 있는 백성들과 그 가족들이 이곳에 살게 할 것을 다음과 같이 건의하였다.

영의정 홍봉한이 아뢰기를,

“북성^{北城}(북한산성) 주맥^{主脈}의 동북쪽에 빈 골짜기가 하나 있어 지면이 매우 평평하고 넓은데, 나무꾼들이 함부로 들어가 벌채하여 민등산이 되어 나무가 남지 않았습니 다. 지금 만일 수십 호의 인가를 두어 살게 한다면, 가히 도성을 수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좋지 않은 밭 약간 경頃이 선잠단^{先蠶壇} 근처에 있는데, 군사로서 늪로 廩料를 먹는 자로 하여금 그 땅에 살게 하되 그 밭을 경작하게 하고 그 세금을 감하여 주어 그들의 생활이 정착되게 한다면, 돌아가 농사를 짓게 하는 실제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지형^{地形}을 그려 전달하라고 명하였다.

홍봉한이 손가락으로 지점^{指點}하며 조목조목 아뢰기를 자못 자세히 하니, 임금이 어영청^{御營廳}에 창고를 설치하고 백성을 모집하라고 명하였으니, 곧 오늘날 성북창^{城北倉}이였다.¹¹

홍봉한의 언급에서 확인되는 것은 성북동 지역은 ‘빈 골짜기’로 불릴 정도로 본래 사람이 살지 않았다는 점과, 군사적 목적으로 개발되었다는 점이다. 성북동 지역은 국왕이 머물던 동궐^{東闕}(창덕궁·창경궁)과 가까운 곳이었다. 만일 이곳에 사람이 산다면 이인좌의 난과 같은 역모를 대비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이 확보됨으로써 궁궐로의 침입 위험이 감소될 것이다. 이에 조정은 이곳에 정착할 사람을 모집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사람들은 쉽사리 모이지 않았다. 성북동은 응봉^{鷹峯}과 구준봉^{狗蹲峰} 사이, 성북천이 흐르는 곳에 위치하는 일종의 계곡으로서 농사에 불리한 환경이었다. 이곳에 사람들이 정착할 수 있을 만한, 농사 외에 또 다른 일터가 마련된다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조정이 생각해 낸 일자리가 마전과 훈조였다. 마전은 포목^{布木}을 회게 만드는 것이다. 조

11 《영조실록》 권105, 영조 41년 4월 17일(임술).

정은 단순히 이 일만 맡긴 것이 아니라 일정한 돈을 받고 시전市廛 상인에게 납품할 수 있게 하였다. 훈조^{熏造}는 메주를 쑺는 것이었는데, 이 역시 일정한 돈을 지불하고 조정이 구매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결정 사항을 문서로 보장해 주었는데 1805년(순조 5) 《성북동포백훈조계완문절목^{城北洞曝白燠造契完文節目}》이 바로 그것이다. 이 문서에 따르면 조정은 '1767년(영조 43) 특별히 거주민들의 생계를 헤아려서 목면^{木綿}(무명), 포^布(베), 저^紵(모시)를 취급하는 세 점포에서 포백^{曝白}할 물건과 송도의 모시 전부를 본 동리의 거주민에게 주어서 삶아서 익히도록' 하였고, '무자년(1768, 영조 44년) 겨울에는 훈조막(메주 쑺는 곳)을 설치해서 비변사에서 총융청에 관문^{關文}을 보내 연용대 훈조막에 있는 숙련자 한 사람을 본 막으로 보내 가르치게 하고, 동리의 거주민으로 하여금 배워서 생활에 보탬이 되도록'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절목을 살펴보면 임금^{工賃}의 경우 '매 동^同(50필)마다 무명 4냥, 베 6냥 5전, 모시 10냥씩 하되, 비변사에서 결정한 예에 따를 것', '콩



《성북동포백훈조계완문절목》(서울역사박물관)

은 1석당 6전을 주는 대신 쌀 2말씩을 지급할 것' 등의 내용이 적혀있다.

이곳에 둔전^{屯田}을 설치하고 사람들이 살도록 하였던 초창기에는 거주민들이 별로 없었으나, 조정의 위와 같은 일자리 정책이 성공을 거두면서 사람들이 조금씩 거주하기 시작하였다. 김귀주^{金龜柱(1740~1786)}는 이러한 사실을 다음과 같은 시로 노래하였다.

다시 성북둔을 찾다

北墩初設擯羣言	북둔을 처음 설치할 때 여러 반론 물리쳤으니
陰雨城隍至計存	남 모르게 성황의 지극한 계책이 보존해 주었음이라.
往者尋常一長谷	지난날엔 그저 평범하고 기다란 골짜기였을 뿐인데,
居然排列幾家村	어느새 촌가 몇 호 벌려 있구나.
緣溪泔澗誰爲葉	푸른 계곡의 세찬 물소리는 누가 세고 있는지
負郭耘耕可餉屯	성곽을 등지고 밭 갈고 김매면 넉넉한 군량 얻으리라.
更得淸秋水石好	다시 맑은 가을 닻치니 계곡의 물과 돌이 좋을싸고
客來拄杖問窮源	나그네 와서 지팡이 짚고 물의 근원 어디냐고 묻는구나. ¹²

점점 이곳에 사람들이 정착하면서 마을이 만들어졌고, 주민들은 포백과 훈조 이외에도 더 잘 살기 위한 방책을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맑은 계곡과 언덕을 끼고 사람들이 모여 사는데 복숭아를 심어 생업을 삼는다. 매년 늦은 봄이면 놀이 나온 사람들과 수레가 두 줄을 지어 가득하게 산과 계곡을 메우며 깨끗한 초가집이 많다.¹³

북저동^{北渚洞}은 혜화문 밖 북쪽에 있다. 동네 안에 복숭아나무를 많이 심어 봄철에 복사꽃이 한창 피면 도성 사람들이 다투어 나아가 놀며 구경한다. 민간에서는 도화

12 김귀주, <재방성북둔再訪城北屯> 《가암유고可庵遺稿》 권3.

13 《한경지략漢京識略》 명승名勝.

동¹⁴이라고 부르며, 어영청의 성북둔^{城北屯}이 있다. 또 북사동^{北寺洞}이라고도 하며 예전에 묵사^{墨寺}가 있었기 때문에 묵사동이라고도 한다. 맑은 시내의 언덕을 따라 주민들이 복숭아나무를 심어서 생활을 한다. 늦은 봄철마다 노는 사람과 수레가 많이 몰린다.¹⁴

最憐城北屯邊俗 내가 사랑하는 성북둔 주변의 풍속은
不種桃花以爲耻 복숭아나무를 심지 않으면 부끄럽게 여기는 것이다.¹⁵

惠化門外何所見 혜화문 밖에서 무엇을 보겠는가.
點綴靑林白沙嘴 푸른 숲이 흰 모래 밭에 연하여 있네.
北屯桃花天下紅 북둔의 복사꽃 천하에서 가장 붉고,
短籬家家碧溪汜 푸른 시냇가에는 집집마다 낮은 울타리.¹⁶

東城之北北城西 동소문 밖 성북동에는
遊人陸續恒來此 언제나 풍류객이 끊이지 않고 이곳으로 몰려오네.
百道穿棚射侯正 백보 밖 활 쏘는 사람 과녁 맞추는 소리 딱딱하고,
一水緣谿漂聲邇 시냇물 따라 빨래하는 방망이 소리 요란하다.¹⁷

위의 글을 보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첫째, 조선 후기 성북동 지역은 포백과 훈조에 만족하지 않았던 거주민들이 복숭아나무 등의 과실수를 많이 심었으며, 봄철 도성 사람들이 이를 보기 위해 많이 찾는 명승으로 자리 잡았다. 《동국여지비고^{東國輿地備考}》, 《한경지략^{漢京識略}》 등의 서적은 물론이고 박제가^{朴齊家(1750~1805)}, 이덕무^{李德懋(1741~1793)} 등 조선 후기 유학자들도 모두 성북동의 복사꽃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곳이 복사꽃 마을, 즉 도화동^{桃花洞}이라고 불리기도 했다는 것은 조선 후기 성북동에 복숭아나무가 많았을

14 《동국여지비고^{東國輿地備考}》 권2, 한성부 명승.

15 《동국여지비고^{東國輿地備考}》 권2, 한성부 명승.

16 박제가, 〈성시전도응령^{城市全圖應令}〉 《정유각삼집^{貞菴三集}》.

17 이덕무, 〈성시전도^{城市全圖}〉 《청장관전서^{靑莊館全書}》 권20.

뿐만 아니라, 흐드러진 복사꽃을 보기 위해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음을 알려준다.

둘째, 성북동은 북저동^{北渚洞}, 북사동^{北寺洞}, 묵사동^{墨寺洞} 등으로도 불렸다는 점이다. 북저동에서 ‘저^渚’는 물가, 모래섬, 삼각주 등을 뜻한다. 성북동은 그 가운데를 흐르는 성북천을 끼고 만들어진 마을이기에 꽤나 어울리는 이름이다. 북사 혹은 묵사는 모두 사찰의 이름을 딴 것인데 이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찾기 힘들다. 다만 보문동이 보문사, 미아동이 미타사의 이름에서 유래한 데서 알 수 있듯이 당시 사찰 명칭에서 마을 이름을 딴 것이 드문 일은 아니었다.

성북동에 유람 온 사람들이 어떻게 놀았는지는 채제공^{蔡濟恭(1720~1799)}의 시를 통해 알 수 있다. 그가 지은 〈유북저동기^{遊北渚洞記}〉에 당시의 모습이 잘 묘사되어 있다.

북저동 유람기

意行意坐俯視之	가다가 앉다가 오르면서 내려다보니
村家點點分麓	촌가가 점점이 산기슭에 흩어져 있네.
大抵以桃花爲藩籬	무릇 복사꽃으로 울타리를 삼았는데,
隱約露出者	은밀하게 드러난 것이
或牕之半	혹은 창이 절반,
或簷之角也	혹은 처마의 모서리이구나.
都人士自達官	도성 사람들은 이름난 관원에서부터
至閭巷民庶	여항의 서민에 이르기까지
遊賞如不及	놀고 구경함을 시간이 모자란 듯이 열중하네.
車馬殷殷轟轟	수레와 말이 요란하게 지나가고
歌呼迭作	노랫소리 번갈아 일어나며
間以笙簫	사이사이 생황과 통소 부는 소리.

위의 시를 보면, 18세기 성북동의 마을은 집집마다 복사꽃으로 울타리를 삼았는데, 그 사이로 은밀하게 보이는 것이 창 의 절반, 처마의 모서리 정도 일 만큼 복숭아나무의 개체수가 많았음을 알 수 있다. 채제공은 사람들이 그 풍경을 얼마나 아름답게 여겼는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나 와서 노래를 부르고 생황과 통소를 연주하며 즐겼다고 하였다.

조선시대 마련된 일자리였던 포백, 즉 마전의 일은 20세기 초에 이르러서도 성북동 사람들의 주된 생업으로 자리 잡았다. 《매일신보》 1917년 7월 5일자는 이런 사실을 전하고 있는데, 위 기사를 현대어로 바꾸면 다음과 같다.

성북동의 환희

마전질을 하게 되었다.

동소문 밖 성북동은 호수가 70여 호에 생업되는 바는 다만 포백 장사뿐으로 날마다 문안 각 포백상에 단골을 삼아두고 포목을 가져와서 포백하는 것이 큰 생업인데, 요사이 가뭄으로 인하여 동리 우물 29개소나 말라버리고 시냇물이 또한 말라서 포백을 할 수 없으므로 부득이 그 업을 폐지하다시피 전부 중지하고 그 대신 짚신과 기타 미투리를 삼아서 겨우 호구하기 때문에 동민의 생활난을 부르짖는 소리가 창천하던 바, 요사이로 가끔 비가 시작되어 다시 시냇물이 회복되었으므로 전과 같이 포백업을 시작하고 동민들은 매우 낙관을 하는 모양이라더라.

당시 동소문 밖 성북동 70여 호의 주민이 마전의 일, 즉 포백을 생업으로 하고 있었는데 가뭄으로 인하여 우물과 시냇물이 말라 포백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대신 짚신과 미투리 등으로 겨우 호구하였는데, 최근 가끔씩 비

18 채제공, 〈유북저동기〉《변암집樊巖集》 권35.

가 내려 시냇물이 회복되자 주민들은 다시 포백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음을 알려주는 신문 기사이다.

앞서 1805년(순조 5) 《성북동포백훈조계완문절목》의 내용과 같이 1767년(영조 43) 이후 포백을 통하여 정해진 비용을 받도록 한 것이 문서로 보장되었던 만큼, 조선왕조가 존재하던 시기까지는 포백의 일이 유지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시작된 포백이 위의 신문 기사처럼 20세기 초반까지 이어져 성북동 주민들에게 매우 중요한 생업으로 되었다. 18세기 중반 시작된 조선 조정의 ‘마을 만들기 사업’이 성공한 것이다.

한편 성북동을 일컫는 또 다른 동명洞名으로 ‘노구멧골’, ‘도둑골’, ‘운수동雲水洞’, ‘논골’ 등이 있다. ‘노구멧골’은 옛날 이 마을에 사는 한 여인이 집을 나간 남편을 위해 아침저녁으로 노구메(밥)를 떠 놓고 산천 신령에게 제사를 지냈더니 그 정성으로 결국 남편이 돌아와서 잘 살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도둑골’은 성북동 동북쪽의 계곡이 깊고 지형이 험준하여 도둑이 숨기에 적합했기 때문에 생긴 이름이다. ‘운수동’은 성북동 60번지 부근의 마을인데 바위에 그 이름이 각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생긴 것이고, 이곳을 ‘논골’이라고도 불렀는데 이는 어떤 사람이 깊은 산속인 이곳에 논다랑이를 조금 풀고 살았기 때문이라고 전한다.

2) 일제강점기¹⁹

본격적인 ‘근대적’ 도시개발이 이루어진 시기는 일제강점기이다. 일제강점기 경성 도시계획은 1910~1920년대 경성지구개수京城市區改修 계획에 의한 것과 1930~1940년대 <조선시가지계획령>에 의해 이루어진 경성시가지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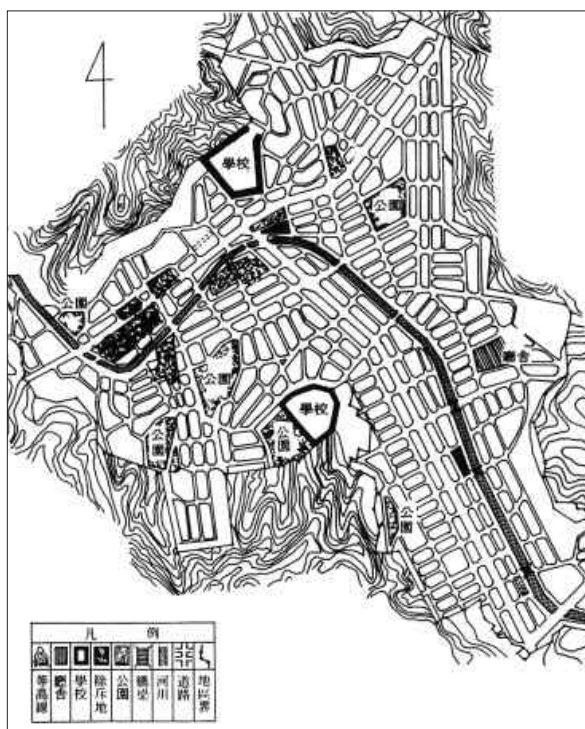
¹⁹ 이 부분은 염복규, 《서울의 기원, 경성의 탄생》, 이테아, 2016의 <돈암지구 구획정리와 주택지 형성의 특징> 265~282쪽에서 보완·요약한 것이다.

京城市街地計劃 두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단계는 주로 4대문 안 도심부의 격자형 도로망 및 순환선의 완성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외곽인 성북동 지역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다.

성북동 지역에 큰 영향을 준 것은 1930~1940년대에 이루어진 경성시가 지계획이었다. 1931년 일제가 일으킨 만주사변을 기점으로 한 본격적인 대륙 침략의 전개와 같은 해 총독 우가키 가스시게(宇垣一成(1868~1956))의 부임으로 총독부는 군사적·공업적 도시의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1920년대 이미 <도시계획령> 초안이 완성되었지만 이는 우가키의 부임으로 폐기되고 <조선시가지계획령>이 다시 세워졌다. 도시와 시가지는 단순한 용어의 차이가 아니었다. 도시가 자연적으로 발생한 독립적 유기체라면 시가지는 대륙침략이나 공업화 같은 ‘국책적 의제’를 수행하기 위한 인위적 거점이었다.

경성부의 경우 1920년대 <도시계획령> 초안 등을 작성하기 위한 조사가 비교적 잘 이루어져 있었다. 처음 한 일은 경성부의 확대였다. 1935년의 조사와 논의를 거쳐 1936년 4월 공식적으로 행정구역을 확대하였다. 성북동 지역은 이때 다시 경성부로 편입되었다. 경성시가지계획은 경성을 동부, 서부, 한강이남 세 지역으로 나누었다. 이 세 지역은 다시 동부는 청량리, 왕십리, 한강리 세 곳, 서부는 마포와 용강, 연희와 신촌, 은평 세 곳, 한강이남은 영동과 노량진 두 곳 등 총 8개 구역으로 나뉘었다.

성북동 지역이 속한 돈암지구는 동부 청량리 지구에 속하였고, 1차 토지구획정리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다. 용도는 주거지역이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일정한 지구 내의 불규칙한 구획을 정리하고 공공시설물을 축조하여 토지의 효용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1937년 일어난 중일전쟁으로 차질을 빚었으나 돈암지구의 경우 비교적 원활하게 개발이 진행되었다. 경성부는 1939년 4월 토지 소유자들에게 토지분양조합



돈암지구 구획정리계획 평면도
(岡田貢,
〈敦岩町新區劃整理地
と其の今昔〉
《京城土木建築業協會報》
제2권 제10호, 1937년 10월)

을 조직하게 하였으며, 도시계획을 마련하고 토지 상담소를 설치하는 등 정지整地가 끝난 택지를 매각하기 위한 준비에 나섰다. 판매 및 건축도 원활하게 이루어졌다. 1939년 8월 동대문경찰서 건축계에는 매일 40여 건의 주택신청원이 접수되었으며, 이런 추세는 1940년 말까지 계속되었다.

총독부는 돈암지구를 ‘근린주구近鄰住區’이면서 ‘조선인과 일본인이 함께 거주하는 내선인內鮮人 혼주混住 지구’로 계획하였다. 근린주구는 필요한 생활기반시설을 갖춘 일정한 규모 이상의 경제력을 가진 유산층의 자족적 커뮤니티를 의미한다. 돈암지구에도 학교, 시장, 공원 등과 같은 생활기반 시설의 설치가 계획되고 실제로 집행되었다. 하지만 ‘내선인’ 혼주 지구 계획은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주택지는 일본식 주거에 맞춰 장방형으로 설계되었지만, 실제로 들어선 건물들은 조선식의 도시형 한옥이었다. 자연히 새

로 유입된 사람들도 대부분 조선인이었다. 1942년 7월 돈암정·안암정·신설정의 전체 인구는 6만 9,904명인데, 이 가운데 일본인은 1,001명(1.43%)에 지나지 않았다. 성북동 지역에 조선인들이 많이 살게 된 것은 이와 관련이 있었다. 2017년 현재 성북동에 남아 있는 한옥은 수십 채인데, 그 대부분이 이때 건립된 도시형 한옥이다.

성북동 지역과 관련된 총독부의 도시계획은 공원계획과 풍치지구^{風致地區}였다. 이 중에서 공원계획은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 등으로 예정지만 지정되었다. 반면 풍치지구는 공습 대비 등을 이유로 지정되었다.

위의 지도들은 1907년, 1912년, 1936년 사이 성북동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3) 현대의 도시계획²⁰

(1) 1950년대

현대의 도시계획은 6·25전쟁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먼저 6·25전쟁으로 인해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었다. 1949년 1만 3,372명이었던 성북구 인구가 1953년에는 5,546명으로 급감하였다. 더 큰 문제는 주택의 부족이었다. 6·25전쟁 3년 동안 거의 7만 9,000여 동의 주택 피해가 발생하였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성북동 주택이 ‘일부 피해 및 건재동’으로 분류되었다는 점이다.²¹ 구체적으로 보면 성북2동은 15%의 손실이 있다고 평가되었다.²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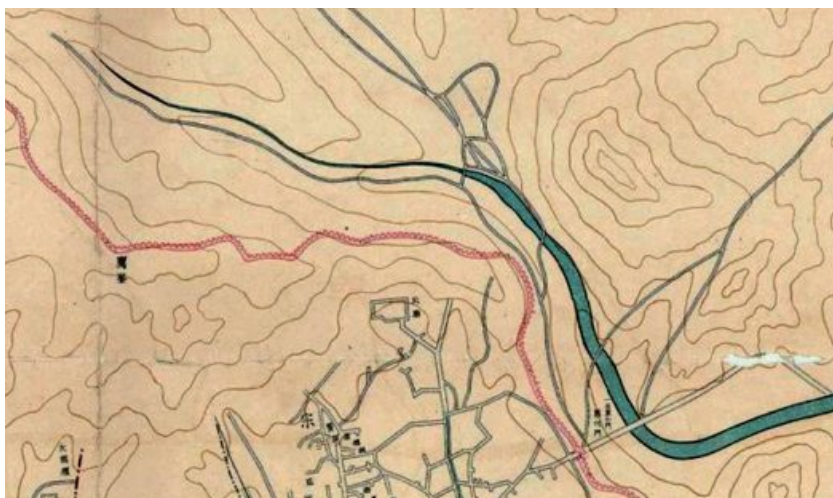
전쟁의 피해 복구는 전쟁 중에 시작되었다. 1951년 3월 18일, 당시 이기

²⁰ 이 부분은 박수진 외, 《성북동-만남의 역사, 꿈의 공간》, 성북문화원, 2015의 내용을 보완·요약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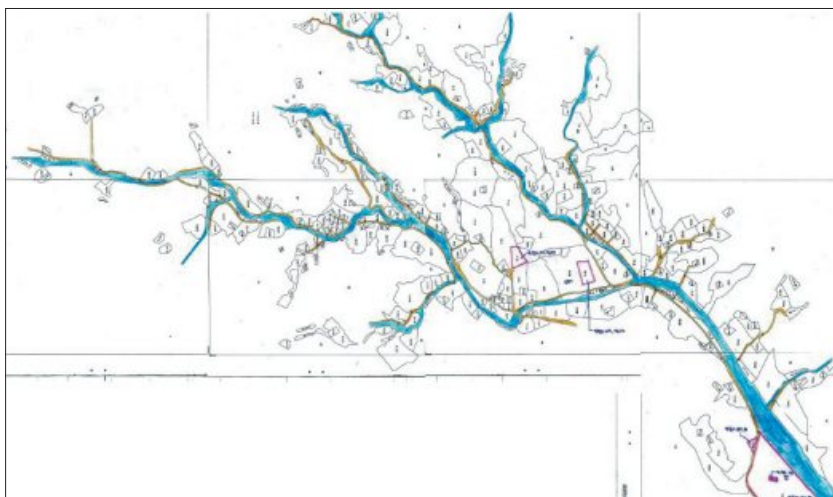
²¹ 《동아일보》 1951년 3월 16일.

²² 《동아일보》 1951년 3월 24일.

1907년 <최신경성전도>의
옛 성북동 지역(서울역사박물관)
녹색으로 표시된 선이 성북천이다.



1912년 <경성부 지적원도>의
옛 성북동 지역
(조선총독부 토지조사부)



1936년 <대경성정도>의
옛 성북동 지역
(서울역사박물관)



봉 서울시장은 행정건설대 300명을 이끌고 서울로 돌아왔다. 1952년에는 새 서울 건설을 위해 기존의 서울 공간을 도심지대, 중간지대, 교외지대 등으로 구획하고 이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정부는 22만 6,000호의 난민용 구호주택을 건설·보급하였으나 이것만으로는 다시 모여드는 사람들을 감당하기에 역부족이었다. 당시 계획에는 녹지공간도 설정하였지만, 그곳은 이른바 불량주택으로 불리는 토막, 판자집 등으로 채워졌다.²³

성북동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성북천변은 물론 산속까지 피난민들이 자리 잡았다. 공원부지로 예정된 청암장淸岩莊(현 길상사) 부근부터 산을 건너 정릉의 배밭골까지 사람들이 정착하였다. 도성 자락에 위치한 북정마을 역시 이 무렵 서울로 일을 찾아 들어왔던 사람들이 모여 형성된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형성된 이른바 판자촌이 1960년대 후반까지 이곳 성북동에서 그 모습을 유지하였다. 이렇게 된 데는 당시 주택 공급이 부족한 상태에서 서울시가 불량건물이라 불렀던 바라크(일명 뼈락) 등을 현실적인 주거 형태로 인정한 탓도 크다.²⁴

그렇다면 이들 피난민 외에 원래 주민들의 삶은 어떠했을까? 1958년도 보건사회부의 《주택조사보고서》가 그 단면을 보여준다. 1958년의 본 조사보고서에 응답한 성북동 총 가구 호수는 403호였다. 그런데 당시 응답자 중 한 가구당 인원수가 주로 5~10명 정도 되는 것을 감안하면, 이는 2,500명 남짓한 이들이 응답한 것이다. 1961년 성북동의 인구가 1만 8,535명인 것을 고려하면 전체를 다 반영한다고 할 수는 없으나, 대체로 주택을 소유한 이들이 응답했음을 생각해볼 때 당시 성북동 사람들의 삶의 한 단면을 살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전쟁 당시 성북동 내 마을이 큰 피해를 입지 않았음은 이 조사를 통해서

²³ 전남일 외, 《한국주거의 사회사》, 돌베개, 2008, 163~167쪽.

²⁴ 1958년 보건사회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토막과 천막을 포함한 가주택, 바라크는 종래의 절충식 주택 등과 더불어 현실적으로 인식되고 있던 건물 양식이었다(보건사회부 편, 《도시(서울)주택조사보고서》, 1958, 5쪽).

도 드러난다. 조사에 응답한 자기 집을 가진 자 중에서 전쟁 중 피해를 입은 가구 수는 총 82호이다. 그러나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응답한 가구는 총 193호로 훨씬 많다. 이들 중 일부는 전재^{戰災}를 복구하고 사는 이들도 있고, 그대로 피해를 유지한 채 살림을 꾸려가는 이들도 있었다. 이는 1950년대 정부 주도의 도시개발과 주택 보급에서 유독 성북동이 제외되어 있던 것에 대한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1950년대 정부는 대한주택영단, 미 원조 기구 등과 함께 부흥주택, 재건주택, 난민주택, 희망주택, ICA주택 등 갖은 유형의 주택을 민간에 보급하였다.²⁵ 이는 성북구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안암동의 재건주택, 국제연합한국재건단^{UNKRA}의 1957년 미아리 난민정착촌사업 등이 대표적이다.²⁶ 그러나 성북동의 경우에는 이러한 기록이 잘 눈에 띄지 않는다. 이 시기 서울시의 도시개발, 즉 구획정리사업에서 성북동과 관련한 개발은 주로 환경정비사업이었다. 즉 종래 파괴된 전화국, 수도시설의 재정비를 위한 증설공사 등이 주로 이루어졌다.²⁷

그래서 주민들은 주로 전전의 주택에 그대로 거주했던 듯하다. 주택의 대체적인 규모는 11~30평(36.36~99.17㎡) 사이가 많았고, 대체로 온돌처리가 되어 있는 집들에 살고 있었다(227호). 주택에 사용된 재료는 달랐는데, 콘크리트 바닥인 집이 138호, 흙바닥인 집이 113호, 마룻바닥인 집이 152호 등 다양각색이었다. 중요한 수도의 경우 전용 수도를 사용하는 이가 309호, 공용을 이용하는 이가 34호로 분류되었다.²⁸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주택개발, 새로운 주택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전망은 작지 않았다. 당시 주민들은 대체로 전쟁 이전의 주택에서 거주하고

25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 10년사》, 1999 참조.

26 대한주택영단과 원조기구 등의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개략적 설명은 정은경, 〈1950년대 서울의 공영주택 사업으로 본 대한원조사업의 특징〉 《서울학연구》 59,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2015 참조.

27 《경향신문》 1954년 9월 12일;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구지》, 1993, 380·384쪽 참조.

28 보건사회부 편, 앞의 책, 1958, 55~61쪽 참조.

있었지만 희망하는 형태의 주택으로 주로 서양식을 선호하였다(164호). 물론 이들 중 일부는 임시가옥인 ‘빠락’에 주거하는 이도 있었다(3호). 또 셋집에 거주하는 이들도(54호) 있었다. 생계에 있어서는 공무원이라고 응답한 자(140호)와 상업이라고 응답한 자(163호)가 반반 정도를 차지하는데, 상업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응답자 중 일부는 임시가옥인 ‘빠락’에 거주하였고(3호), 비율이 크진 않지만 농업에 종사한 자(5호), 공업에 종사하는 자(27호)도 있었다.

이 조사는 응답자의 대부분이 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등 동민 전체를 대표하기엔 부족하다. 또한 당대 성북동에 허다했던 ‘불량주택’에 거주했던 이들이 모두 포함된 것 같지도 않다. 그러나 피난민 이외 성북동 원주민들의 삶의 일단을 살펴 볼 수는 있었다고 할 것이다.

(2) 1960년대

문인들의 회고에 등장하는 성북동의 풍경에서 집들이 점차 현대적인 꼴을 잡아가기 시작한 것은 아무리 빨리 잡아도 1960년대 중반경은 넘어야 했다. 윤이상 尹伊桑(1917~1995)이 조지훈 趙芝薰(1920~1968)과 마주보고 즐겼던 성북천이 복개된 것 역시 1967년 이후이다.²⁹ 김광섭 金光燮(1905~1977)의 〈성북동 비둘기〉는 바로 이 본격적인 회고의 이전 시대를 읊조렸던 시이다. 1961년 김광섭은 건축가 김중업 金重業(1922~1988)에게 부탁한 설계대로 집을 짓고 성북동에서 5년 동안 거쳐하였다. 그리고 이때의 기억을 후일 시집에 실었던 것이 바로 〈성북동 비둘기〉였던 셈이다. 성북동에 대한 문인들의 정서는 이렇듯이 김광섭에 의해 절묘하게 드러났지만, 그것은 또한 당대 문인들이 성북동을 바라보던 시선이기도 하였다. 정한모 鄭漢模(1923~1991)의 글에는 당시의 성북동 모습이 잘 드러나 있다. 당시 성북동에 거주하던 정한모는 지금은 고급 주택

29 《경향신문》 1967년 10월 23일.

지대라고 간주되는 곳이 당시에는 “성북초등학교에서 개울을 따라 한참을 걸어 올라와야만 하는 약수터나 빨래터를 찾는 사람들만이 올라오는 곳”이라고 회고하였다.³⁰ 즉 1960년대 초중반까지 여전히 성북동은 비록 정계·재계 인물들의 별장터이고 ‘뽕의 바다’로 불리기는 했지만 아직은 오늘날의 모습보다는 과거의 모습이 더 많이 남아 있었던 셈이다.³¹ 그래서 과거 유명하던 배나무, 복숭아 등의 흔적은 점차 사라져갔지만 몇몇 성북동 산위의 집들, 그리고 보통사람들로 구성된 지역 문화는 1960년대 중반까지 엇비슷하게 이어졌다.³² 그리고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서울의 도시계획상 성북동의 위치 때문이었다.

종로, 중구, 성북, 서대문, 용산 등 일제강점기에 어느 정도 계획되어 사업이 진행됐던 지역들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³³ 성북동 또한 큰 변화가 없었다. 그러다가 1960년대 중반에 이르러 사정이 달라졌다. 광복 이후 서울시는 1961~1980년 사이 27개 지구에 도시계획상 구획정리를 실시하였는데, 1960~1970년대에 택지조성사업 등을 대규모로 진행하면서 서울은 많은 변화를 겪었던 것이다. 정부는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웠고, 건설부가 주택건설 계획을 발표하는 등 주택 보급을 서둘렀다. 이것은 기존 무허가건물들, 즉 흔히 판자집이라고 불리는 ‘불량건물’들을 대대적으로 정리하는 것을 의미하였다. 4년 간의 불도저식 개발을 통해 유명해진 김현옥 서울시장

30 송지영·심지혜, 《성북동, 길에서 예술을 만나다》, 연두와 파랑, 2015, 217쪽.

31 방경만 구술·김한울 수집, 〈뽕의 바다라고 불린 성북구〉《메모리인 서울 프로젝트》, 서울문화재단(<http://www.sfac.or.kr>).

32 나폴레옹 제과점에 대한 한 주민의 기억이 대표적이다. 나폴레옹 제과점이 처음 들어섰을 때 그 제과점에서 제과에 책정된 가격은 서민에게는 부담스러운 정도였는데, 이는 당시 제과점이 성북동의 부자들을 고객으로 상정하고 가게를 열었기 때문이라고 한다(신종범 구술·조영남 수집, 〈달동네와 부촌이 공존했던 삼선교 주변〉《메모리인 서울 프로젝트》, 서울문화재단(<http://www.sfac.or.kr>) 참조).

33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구지》, 1993, 324쪽.

의 추진력 아래 서울은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였다.³⁴

그 대표적 조치가 바로 1967년부터 약 5년간 진행되었던 이른바 ‘판자촌’의 철거와 재배치였다. 서울의 도심부의 현대적 재개발을 위해 정릉 등 기존의 도심 반경에서 5~10km 내외의 무허가 정착지들이 철거 대상이 되었다. 정릉과 등을 맞대고 있었고, 또 그 골짜기에 많은 판자촌이 형성되어 있었던 성북동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특히 1967년 6월 성북동 산 25번지 일대의 숲속 풍치지구 약 10만 평이 대규모 외국인 주택단지로 책정된 것은 그야말로 오늘날 성북동 부촌의 전조를 알린 신호였다.³⁵ 성북천은 복개되었고, ‘풍치지구’로 개발이 불허되었던 숲의 나무들이 집으로 대체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이듬해 북악스카이웨이 공사를 위한 대대적인 공사의 진행이 이루어질 무렵 김광섭이 〈성북동 비둘기〉를 발표하였다.

그런데 성북동의 산천을 보호하고 있었던 ‘풍치지구’란 무엇이었을까? 사실 이 풍치지구라는 것은 일제강점기 경성부의 정책에서 연원한 것이다. 1941년 일제는 〈조선시가지계획령〉을 통해 구시가지 내 북악과 성북, 무학 등 20군데 약 1,000만 평을 이른바 ‘풍치지구’로 선정하였다. 특히 성북동의 경우, 이보다 앞서 풍치지구 이외에 ‘보안림(保安林)’으로 개발이 규제되어 있었다. 보안림이란 1937년 경성부가 도시의 녹지계획을 수립하면서, 국토의 보안과 위해 방지를 위해 벌채 등 난개발을 공권력으로 금지한 것을 말한다. 당시 성북동 지역의 약 2km²에 해당하는 영역이 이에 선정되었다. 뒤이어 1941년 3월 25일 조선총독부고시 제377호에서 새로 풍치지구가 설정되었는데, 북악산과 인접한 성북동의 일부 지역이 중복 적용되면서 성북동이 난개발에서 제외되었다고 할 수 있다.³⁶

34 이 시기 서울시의 도시계획에 관해서는 손정목, 《서울도시계획이야기》 1~5, 한울, 2007 참조.

35 《동아일보》 1967년 6월 26일.

36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 《서울육백년사》 5, 1993, 642~643쪽 참조.

이러한 성북동 산림에 대한 보호는 광복 이후 서울시의 도시개발에 그대로 이전되었다. 특히 6·25전쟁 이후 서울시는 도시개발 계획을 진행하면서 이러한 풍치지구에 근거, 서울의 시유지로 간주된 성북동 산 지역 등 일부를 공원화하였다. 그러나 당시 서울시의 극심한 주택난으로 인해 시유지에 해당하는 성북동·청암동 등의 부지들에 무허가 주택들, 즉 판자촌 등이 난립해서 세워졌던 것이다. 1950년대 말 서울시는 이러한 시유지들을 정리할 계획으로 토지를 개인에게 매각했는데, 이로 인해 무허가 건물에 주거하던 성북동, 돈암동 주민들이 집달관^{執達官}들에 의해 내쫓기는 등 사회문제가 일어나기도 하였다.³⁷

물론 1960년대 중반 이전에도 성북동의 개발이 완전히 묶여 있었던 것은 아니다. 5·16군사정변 이후 일부 시유지들이 개인에게 불하되었고, 성북동 지역의 중요 문화재 주변의 필지들이 소유권 변화 등을 겪으며 공간상의 변화를 맞이하였다.³⁸ 그러나 역시 1970년대 성북동의 대대적인 변화를 예비했던 것은 풍치지구의 본격적인 해제였다.

1967년 6월 성북동 산 25번지 일대가 정부에 의해 외국인 택지로 책정되면서 이른바 풍치지구의 축소와 종래 이곳에 무허가 건물을 짓고 십여 년을 넘게 살아오던 주민들의 철거문제가 사회문제로 되었다. 특히 성북동 산 14~26번지 일대의 100호가량의 무허가 건물들, 성북동 산 1번지 일대 300여동의 무허가 건물들이 강제 철거 대상이 되었다.³⁹ 이는 서울시의 북악스카이웨이 공사를 위해 성북동 산 18번지와 25번지 일대를 철거하면서 일부 무허가 판자집의 양성화 계획에서 예외로 간주되는 주민들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37 《동아일보》 1959년 5월 31일.

38 당시 성락원 주변의 필지 변화에 대해서는 이원호·이세미, 〈성락원(명승 제35호) 주변지역 필지변화과정에 관한 연구 -성북동 문화재 주변을 중심으로-〉 《한국전통조경학회지》 31-2, 한국전통조경학회, 2013 참조.

39 《경향신문》 1968년 5월 2일.

당시 김현옥 서울시장은 일부 판자촌을 양성화하는 한편 판자촌으로 상징되는 무허가 건물들을 규정에 맞게 철거하거나 개량하고자 하였다. 성북동에서 살고 있었던 김광섭은 1966년 그의 시 〈성북동 비둘기〉를 통하여 이러한 급격한 사회 변화를 묘사했던 것이다.

1968년 12월 당시 성북동에는 200동의 불량건물이 존재하였다. 1960년대 중반에 이어 두 번째로 대대적인 풍치지구가 해제되었고, 성북동 330번지 일대 등을 포함해서 서울시내 34곳 풍치지구는 25개로 그 규모가 축소되었다.⁴⁰ 이처럼 일제강점기인 1934년의 〈조선시가지계획령〉을 따라 시작된 풍치지구는 40여 년 뒤인 1977년 12월 8일 대대적 변동이 발생하여 총 34곳 중 25개로 축소되었고, 이 중 성북동 330번지 일대 등이 추가로 해제되면서 이른바 대개발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다.

(3) 1970~2000년대

1960년대 중반부터 형성되기 시작한 성북동 고급주택지는 1970년대 크게 세 구역으로 나뉘어 확대되었다. 성락원 마을(5통), 평의바다 마을(8통), 대교단지(9통)가 그것이다. 입주민은 대체로 국내 대기업 총수, 전·현직 고급 공무원, 언론인, 대학교수 등 내로라하는 사람들, 이른바 한국 사회의 주류였다. 무엇보다 1970년 삼청터널의 개통이 부촌 형성의 기폭제 역할을 하였다. 성북동~세종로 간 거리를 10분 이내로 단축시켜 준 이 터널 덕분에 성북동 고급주택지의 인기는 한층 높아졌다. 그리하여 1980년대에 이르면 현대, 럭키금성, 롯데, 국제, 효성, 두산, 코오롱, 한국타이어, 남양유업을 비롯한 우리나라 유수의 대기업 회장들이 모여 사는 한국 제일의 부자동네가 되었다. 그밖에 1974년 일본대사관저와 1976년 서독대사관저를 필두로 주한 외교관 사택들도 속속 들어서서 일대의 풍경을 한층 다채롭게 만들었다.

40 《동아일보》 1977년 12월 8일.

하지만 1970~1980년대 성북동 고급주택들을 바라보는 외부의 시선은 그다지 곱지 않았다. 1978년 조세희가 펴낸 연작소설집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중 〈케도 회전〉에서는 이러한 성북동 고급주택지의 사회적 맥락과 의미를 날카롭게 해부하고 있다.

아주 밝고 깨끗한 동네였다. 아버지가 행복동 삼층집을 팔고 북악산 산허리 숲속 단층집으로 이사를 한다고 처음 말했을 때 누나는 발을 동동 구르며 싫다고 했었다. 비서를 따라갔다 와서는 반대로 이사 갈 날만 기다렸다. 울타리가 쳐져 있는 동네였다. 입구에 경비실이 있고, 경비원들이 차를 세워 동네로 들어가는 사람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전혀 다른 세계에 와 있는 느낌이었다. 거리는 깨끗하고, 집들은 그림 같았다. 걸어서 이 저택촌을 드나드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봄이 되자 동네는 향기로 가득 찼다. 겹벚꽃·덩굴장미·라일락·백목련·산철쭉·가막살나무·박태기나무 등이 꽃을 피웠다. 벌들이 잉잉 소리를 내며 날았다. 그 동네에서는 과거의 소리를 들을 수 없었다. 비 온 다음의 풍경은 말할 수 없이 아름다웠다. 윤호는 거기서 작은 혼이 자지러지는 소리를 듣고는 했다. 그러나 숨을 죽이고 살았다. ‘노동수첩’은 더없이 좋은 책이었다.

윤호는 북악산 산허리 숲속 단층집으로 이사를 갔는데 그곳은 울타리가 쳐져 있었고, 입구에 경비실이 있었으며, 경비원들이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의 차를 세워 그들의 신원을 확인하는 동네로 ‘전혀 다른 세계’였다. 소설 뿐만 아니라 드라마에도 등장하는 ‘부촌’ 성북동의 이미지는 이때 형성된 것이다.

하지만 이 시기 성북동은 부촌만 개발된 것이 아니었다. 성북동의 중심을 흐르던 성북천은 1967년부터 10여 년에 걸쳐 복개가 진행되었으며 복개 구간 양옆으로 새로운 집들이 들어서고 중산층 주거지가 형성되었다. 도시형 한옥들은 빠르게 빌라로 바뀌어갔다.

조선 초기(한양도성·선잠단지), 조선 후기(마전터·이종석 별장·성락원), 근대(만해 한용운 심우장·상허 이태준가옥·간송미술관), 현대(최순우 옛집,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구 본원) 등 다양한 문화유산이 있는 성북동은 그 가치를 인정받아 2013년 서울시 최초로 ‘역사문화지구 지구단위계획’ 지역으로 선정되었다.

사업은 활발히 진행 중이다. 성북동 박물관 특화거리 조성사업이 시작되어 선잠박물관이 2018년 4월 개관하였으며, 성북동 근현대 미술관도 건립 준비 중에 있다. 특히 선잠박물관은 2016년의 선잠단지 발굴 성과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선잠단 복원 계획도 계속 진행 중이다. 성북동 대표 보행거리 조성사업도 계속되어 인도를 넓히는 사업이 2017년에 완료되었으며, 넓어진 도로에 가로정원도 설치하였다. 윤이상, 김일엽, 임종국 등 성북동 역사 인물 10여 명의 집터를 알리는 표석을 설치하기도 하였다. 이밖에도 성북동 예술커뮤니티센터, 만해기념관 등의 건립사업도 추진 중에 있다.

4

아래쪽

주요 시설·기관

1) 공공 및 유관기관

(1) 성북동 주민센터

1946년 10월 1일 일본식 동명을 고치면서 성북정은 성북동으로 변경되었다. 1949년 동대문구에서 성북구가 분리되자 성북동은 성북구에 속하였다. 성북동은 같은 해 8월 성북동1가와 성북동2가로 분리되었다. 1955년 동제^{洞制}를 실시하면서 성북동1가 지역을 행정동 성북제1동의 관할 지역으로 하였다. 성북제1동사무소는 성북동1가 74-1에 있었다. 도로명주소로 성북구 성북로 23에 해당하는 이곳은 현재 ‘성북예술창작터’가 들어서 있다. 성북제2동사무소는 성북구 성북동 246번지에 있었다. 도로명주소로 성북구 성북로 134에 해당하는 이곳은 현재 ‘성북글로벌빌리지센터’가 자리해 있다.

주민센터는 동의 사무를 처리하는 장소 명칭으로서, 행정·민원·복지·문화·체육 등과 관련한 주민생활서비스를 통합하여 수행하기 위한 시설이다. 자치단체의 하부행정기관인 주민센터는 단체장의 지도·감독 하에 업무가 추진되고 있다.⁴¹⁾

41 행정자치부 지방조직발전팀, <동사무소 명칭변경 추진지침>(제2445호), 2007년 8월 29일 참조.

2007년 기존의 성북제1동사무소와 성북제2동사무소는 사라지고, 성북로 37(성북동1가 117-1)에 위치한 성북동 주민센터가 2018년 현재까지 성북동, 성북동1가, 동소문동1가, 동소문동4가에 대한 관할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각 동 주민센터에 설치된 자치회관⁴²은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익시설과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주민의 참여를 통해 자치의식과 공동체 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다.

교통·통신의 발달과 생활·경제권 확대 등으로 인하여 구청의 광역적·종합적 행정의 필요성이 커진 반면 동 단위의 일반 행정기능은 약화되고, 생활 수준 향상으로 인한 민원·복지·문화 등 서비스 기능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다. 이에 정부는 1999년 7월부터 지방자치단체별로 동 주민센터의 사무와 인력을 조정하고 그에 따른 여유 공간에 주민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한 자치회관을 설치·운영하도록 하였다. 성북구도 2001년 1월 1일부터 성북동주민센터 안에 자치회관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자치회관의 총괄 책임자는 동장이지만 관할구역 내의 주민대표로 구성되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며, 각 분야에서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적극 권장함으로써 주민이 실질적인 운영주체가 되도록 하고 있다.

자치회관의 주요 문화 프로그램으로는 댄스스포츠, 꽃꽂이, 종이접기, 노래교실, 한글교실, 한문교실, 외국어 회화 등이 있으며, 지역공동체 프로그램으로는 발 마사지, 무료 이·미용봉사, 불우이웃돕기 등이 운영되고 있다. 아울러 연 1회 자치회관 프로그램 경진대회를 실시하여 1년 동안 20개 동 자치회관에서 배우고 연마한 프로그램을 뽑내고 서로 공유하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한편 주민자치위원회는 자치회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일종의 주민 자치조직으로서, 자치회관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의

42 성북구 동주민센터 홈페이지(<http://www.seongbuk.go.kr/dongoffice>).

우리옛돌박물관 입구



활성화, 주민의견 수렴, 자문 역할 등을 수행하고 있다. 관할 구역 내 각계각층의 주민대표 15~25명 내외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운영상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 위원들이 협의하여 선출한다. 2018년 현재 성북동 주민자치 위원회는 총 20명(남 13, 여 7)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2) 박물관 및 미술관⁴³

① 우리옛돌박물관

2015년 11월에 개관한 우리옛돌박물관은 국내외 흩어져 있던 석조 유물들을 한자리에 모아 전시하고 있는 석조전문 박물관이다. 성북구 대사관로 13길 66(성북동 330-605)에 위치하고 있다. 본래는 2000년 경기도 용인에서 ‘세종옛돌박물관’이라는 이름으로 국내 최초의 석조전문 박물관으로 개관했다가 2015년 현 위치로 이전하면서 ‘우리옛돌박물관’으로 개칭하였다. 전시

⁴³ 성북선잠박물관은 이 책의 성북동 '07. 역사적 사건 및 주요 행사·축제'에 서술되어 있다.



한국가구박물관 입구

구성은 1층 환수유물관, 2층 동자관·벽수관·자수관, 3층 기획전시관, 야외 ‘무병산수의 길’·‘돌의 정원’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한국의 옛 돌조각을 사찰의 장식이나 묘제 석물로 여기던 전통적인 시각을 넘어, 그 안에 담긴 선조들의 철학과 지혜를 현재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데 중점을 두어 전시를 구성하였다. 석조 유물뿐만 아니라 규방 문화의 결정체인 자수 작품과 한국 근현대 그림도 함께 전시하고 있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② 한국가구박물관

2012년 4월에 개관한 한국가구박물관은 전통 목가구 2,500여 점을 수집, 보존, 전시하는 특수 전문 박물관이다. 성북구 대사관로 121(성북동 330-577)에 위치하고 있다. 한국의 옛 가옥 10여 채를 옮겨 놓아 실제 한옥에서 우리 가구의 쓰임새와 생활 방식을 함께 볼 수 있다. 각 개인의 특징적인 수집으로 특성을 살린 인간적인 전시·분류 방법을 도입하였으며, 한국 전통 가구를 종류별(사랑방, 안방, 부엌 등), 재료별(먹감나무, 은행나무, 소나무, 종이

등), 지역별로 분류·전시하고 있다. 건물은 궁채, 곳간과 부엌채, 사대부 집 등 다양한 양식의 한옥으로 구성되어 있다. 궁채는 창경궁에 있던 건물을 옮겨와서 붙은 이름이며, 사대부 집은 순종황제의 계비 순정효황후(純貞孝皇后) 윤씨(1894~1966)가 궁궐에서 나와 살던 집이다.

한국가구박물관은 한국을 방문한 유명 인사들이 즐겨 찾는 곳이기도 하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문이 계기가 되어 한국을 찾은 중국 인사들이 꼭 한번 들려 보는 장소가 되었으며, 할리우드 영화배우 브래드 피트, ‘살림의 여왕’ 마사 스튜어트, 가수 빅토리아 베컴도 이곳을 찾아 한국 목가구에 감탄을 자아내기도 하였다. 미국 방송국 CNN은 2011년 이곳을 ‘서울에서 가장 아름다운 박물관이며, 놀랍도록 감탄스럽다.’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2010년 11월 주요 20국 정상회의 때 영부인들이 모여 오찬을 갖기도 했으며, 2016년 3월에는 130년 만의 한·불 전략대화가 열린 장소로도 유명하다. 2018년 1월에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아랍에미리트 왕세제 특사로 கட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행정청장을 접견하기도 하였다.⁴⁴

③ 간송미술관

간송미술관은 한국 최초의 사립박물관이다. 그렇지만 박물관이나 미술관으로 등록되어 있지는 않다. 서울 성북구 성북로 102-11(성북동 81-2)에 위치하고 있다. 전신은 북단장(北壇莊)이다. 1934년 간송(澗松) 전형필(全鑒弼, 1906~1962)은 프랑스인 플레장(Plaisant)의 땅과 그 주변의 땅을 추가로 구입하였다. 북단장이라는 이름은 오세창이 선잠단 자리에 지은 것이라 하여 붙인 이름이다. 수집품이 늘어나면서 체계적으로 문화재를 보존할 공간이 필요해지자, 1938년 음력 윤 7월 5일 건축가 박길룡(朴吉龍, 1898~1943)의 설계로 건물이 완공되었다. 당시의 이름은 보물을 지킨다는 뜻의 보화각(葆華閣)으로 역시 오세창이 지

⁴⁴ 《조선일보》 2017년 3월 2일 ; 《연합뉴스》 2018년 1월 9일.



간송미술관 입구

은 이름이다.

간송미술관이 현재와 같은 한국민족미술연구소 체제로 재편된 것은 1966년 혜곡^{兮谷} 최순우^{崔淳雨(1916~1984)}와 전형필의 아들인 전성우·전영후 형제가 수집품에 대한 정리와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였다. 간송미술관은 1971년 그간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겸재전^{謙齋展}'을 열었으며, 이후 봄(5월)과 가을(10월)에 2주씩 일반에 전시회를 무료로 개방하였다. 2014년부터 보존공사로 인하여 휴관 중이며 대신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특별전을 개최하고 있다.

간송미술관에는 《훈민정음해례본》, 청자상감운학문매병, 계미명금동삼존불입상 등 국보 11점, 문경 5층석탑 등 보물 10점을 포함한 수천 점의 문화재들이 보존되어 있다.

④ 석은 변종하 기념미술관

석은 변종하 기념미술관은 석은미술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 재단은 변종하卞鍾夏(1926~2000)의 미술을 기념하고 미술 발전에 기여한 그의 업적을 기리며 한국 미술문화의 진흥에 기여하기 위해 1996년 12월 13일에 설립되었다. 기념미술관은 그가 별세한 이듬해인 2001년 그가 살던 집을 개조하여 개관하였다. 성북구 대사관로3길 43에 위치하고 있다. 봄과 가을에 각각 3개월 정도 전시를 하며, 전시 기간 외에는 전시 준비를 위해 휴관한다.

⑤ 성북구립미술관

성북구립미술관은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 건립한 최초의 미술관으로, 2009년에 옛 성북2동 동사무소 건물을 수리하여 개관하였다. 성북구에 오랫동안 거주하고 있는 원로화가 서세옥이 명예관장을 맡았다. 2010년 7월 개관기념전을 열었으며, 이후 매년 성북에 맞는 주제로 기획전을 개최하고 있다. 권옥연, 서세옥, 최만린, 전뢰진, 김창열, 박서보, 오승우 등 원로화가들



성북구립미술관

의 전시부터 중견·신진작가들의 전시도 열고 있다. 2018년 현재까지 ‘정릉 시대전’(2018.04.05.~06.04.) 등 30회 가까운 기획전을 개최하였다. ‘성북동을 걷다-예술가의 길’ 등의 교육프로그램과 ‘문학, 영화를 만나다’ 등의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박물관은 지하 1층, 지상 3층의 규모인데, 지하 1층은 수장고, 지상 1층은 안내 데스크, 2층은 전시실과 사무실, 3층은 전시실과 학예실로 사용하고 있다. 성북로 134(성북동 246)에 있다.

2) 보육·교육시설

성북동에는 보육시설로 베들레헴·한빛·햇살내리는어린이집 등이 있으며, 교육시설인 유치원은 서울성북초등학교병설·덕수유치원 등이 있다.⁴⁵ 성북동에는 초등학교가 1개교, 중학교가 2개교, 고등학교가 2개교, 특수학교가 1개교, 대학교가 1개교 있다.

(1) 성북초등학교

성북초등학교는 1908년 개관한 삼산의숙(三山義塾(삼산학교))을 이어 받았다.⁴⁶ 삼산의숙은 성북동은 물론이고 성북구에서도 최초로 설립된 근대식 교육기관이다.⁴⁷ 그런데 성북초등학교 홈페이지에서는 1942년 공립화 시점을 개교일로 삼고 있으며, 기재된 초대 교장은 하윤실이다. 1942년 ‘공립삼산학교’라는 이름으로 인가되었으며, 1946년 9월 1일 서울성북국민학교로 교명을 변경하였다. 1회 졸업식은 1947년 6월 30일에 열렸으며 56명(남 34, 여 22)이

⁴⁵ 어린이집은 성북구청에서 제공한 2018년 11월 기준 <성북구 어린이집 현황>을, 유치원은 유치원 알리미 홈페이지(<http://e-childschoolinfo.moe.go.kr>)를 참조하였다.

⁴⁶ 조규태 외, 《성북동 역사문화자원 조사·연구》, 성북구청 문화체육과·성북문화원, 2016, 116~117쪽.

⁴⁷ 성북문화원 향토사연구팀, <성북구 최초의 학교 무산아동을 위한 삼산학교> 《성북소리》 제 484호, 성북구청, 2016.7.25. 10쪽.



성북초등학교

졸업하였다. 1985년에는 성북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개원하였으며(2학급), 1996년 서울성북초등학교로 교명이 변경되었다. 2017년 3월 현재 377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며 각 학년마다 3개 학급으로 운영되고 있다. 성북로 102-10(성북동 66-1)에 위치해 있다.

(2) 서울다원학교

서울다원학교는 발달장애 아동을 위한 공립 특수학교로,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가 통합된 형태의 학교이다. 1968년 1월 13일 사립 서울명수학교라는 이름으로 개교하였다. 당시에는 166개 특수학교 가운데 유일하게 개인이 운영하는 정신지체 장애 특수학교였다. 학교 재산을 놓고 민사소송이 발생하여 2014년 4월 폐쇄 결정이 내려졌지만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특수교육 대상자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명수학교의 공립화를 결정하였다. 그 결과 2015년 8월 31일 사립 명수학교가 폐교되고 다음날인 9월 1일자로 공립 서울다원학교가 개교하였다.

2017년 3월 1일 현재 초등학생 27명(남 23, 여 4), 중학생 19명(남 11, 여 8), 고등학생 32명(남 20, 여 13), 전공과 15명(남 9, 여 6)으로 총 93명의 학생이 다니고 있다. 성북로31길 5-15(성북동 226-220)에 위치해 있다.



서울다원학교(왼쪽)
동구마케팅고등학교(오른쪽)

(3) 동구여자중학교·동구마케팅고등학교

동구마케팅고등학교는 1942년 6월 17일 ‘동구가정실습여학교’로 설립이 인가되었으며, 같은 해 7월 20일 동대문 근처에서 개교하였다. 초대 교장은 성암 조석봉이다. 1950년 2월 15일 재단법인 동구학원의 설립 인가를 받았으며 초대 이사장 역시 조석봉이다. 1957년 김활란이 이사장이 되었다. 1954년 동구여자중학교와 동구여자상업고등학교로 개편되었다. 1958년 3월 성북동에 교사 신축을 시작하여, 1961년 3월 동대문에서 성북동으로 이전하였다. 동구마케팅고등학교는 2011년 3월 동구마케팅고등학교로 교명을 변경하였다. 2017년 현재 학생 수는 764명이며 30학급이 있다. 교원은 71명(남 25, 여 46)이며 사무직 직원은 총 14명(남 4, 여 10)이다. 국제비즈니스과, 금융자산마케팅과, 문화콘텐츠마케팅과의 세 개 전공이 있다. 대표적인 졸업생으로는 배우 문화가 있다.

동구여자중학교는 설립부터 현재까지 대부분의 역사가 동구마케팅고등학교와 같다. 1954년 동구여자상업고등학교와 동구여자중학교가 분리되었다. 2017년 현재 학생 수는 499명이며 각 학년당 6학급 총 18학급이 있다. 교원은 33명인데 이 중 수업교원은 30명이다. 대표적인 졸업생으로는 김은경 제17대 환경부장관과 배우 김청·이승현·변정수·변정민 등이 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모두 성북로8길 71(성북동 168-275)에 위치해 있다.

(4) 홍익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중·고등학교

홍익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중학교는 1931년 경성외국어학원으로 설립이 인가되었다. 1954년 4월 3일 학교법인 계원학원의 설립이 인가되었으며, 같은 달 12일 성북중고등학교의 설립도 인가되었다. 1969년 고교평준화로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분리되었다. 1970년 학교법인 홍익학원에 합병되었다. 1972년 홍익중학교로 교명을 바꾸었다가 1977년 현재와 같이 홍익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중학교가 되었다. 2018년 현재 학년당 6개 학급씩 총 18개 학급에 351명이 재학 중이다.

홍익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는 1954년 4월 성북중고등학교로 설립이 인가되었으며(6학급), 초대 교장은 이희석이였다. 1955년 농구부를, 1957년 펜싱부를 잇달아 창설하였다. 1970년 학교법인 홍익학원에 합병되었고, 1972년 홍익고등학교로, 1977년 홍익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로 교명이 바뀌었다. 2018년 현재 1학년 6학급, 2학년 7학급, 3학년 8학급 총 21학급에 379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다. 2018년 2월 기준으로 2만 6,459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대표적인 졸업생으로는 농구선수 이상민, 희극인 엄

홍익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용수, 배우 김세준·장항선 등이 있으며, 펜싱선수로는 김정환·최병철 등이 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모두 성북로14가길 23에 위치해 있다.

(5)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는 성북동의 유일한 대학이다. 성북로28길 60(성북동 292-1)에 위치하고 있다. 1996년 8월 학교법인 동방학원 창립총회에서 김웅현을 초대 이사장으로 선임했으며, 같은 해 12월 학교법인 동방학원의 설립을 허가받았다. 2002년 10월 법인 명칭을 학교법인 동방대학교로 변경하였다. 2004년 11월 동방대학원대학교의 설립을 인가받고 2005년 3월 개교하였다. 개교 당시 학과는 석사과정으로 문인서화학과, 불교문예학과, 민속문화학과 3개 학과였고, 정원은 100명이었으며, 정상옥 박사가 초대 총장으로 취임하였다. 2006년 3월 박사과정을 신설하고 석사과정을 6개 학과로 늘렸다(정원 205명). 2014년 3월 문화예술콘텐츠학과, 불교문예학과, 자연치유학과, 미래예측학과 4개 학과로 개편했으며, 8월에는 학교 명칭을 현재와 같은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로 변경하였다.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3) 사회복지·문화시설

성북글로벌빌리지센터는 2009년 11월 29일에 설립되었으며, 성북로 134(성북동 246)에 있다. 성북글로벌빌리지센터는 성북구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안정적으로 한국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를 교류하며 어울릴 수 있는 공간으로 설립되었다. 생활 편의 서비스와 다양한 교육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내국인과 외국인이 언어와 문화의 차이를 극복하고 함께할 수 있는 열린 공간, 문화교류의 장으로서 기능하고 있다.⁴⁸

4) 종교시설

(1) 불교

① 길상사

삼각산 길상사^{吉祥寺}는 법정스님, 그리고 시인 백석^{白石(본명 백기행白麤行 1912~1996)}과 자야^{子夜(본명 김영한金英韓 1916~1999)}의 이야기가 깃들여 있는 사찰이다. 성북구 선잠로5길 68(성북동 323)에 위치하고 있다. 본래는 대원각^{大圓覺}이라는 요정이었으며, 그 전에는 친일파 백인기의 별장이었다. 1953년 자야 김영한이 인수하여 요정 대원각을 차렸는데, 대원각은 삼청각·오진암과 함께 1950~1970년대 3대 요정으로 불렸다.

1987년 김영한은 법정스님에게 대원각을 사찰로 만들어 줄 것을 청했고, 8년이 지난 1995년 법정스님이 이를 받아들여 6월 13일 대한불교 조계종 송광사의 말사 대법사로 등록하였다. 이때 주지는 현문스님이다. 1997년 '맑고

48 성북글로벌빌리지센터 홈페이지(global.seoul.go.kr).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로 이름을 바꾸어 등록하고, 초대 주지로 청학스님이 취임하였다. 12월 17일 창건법회가 열렸다. 1999년부터 법정스님이 정기법회를 열기 시작했으며, 2004년부터 법정스님의 정기법회는 봄, 가을 2회로 확정되었다. 법정스님은 2010년 3월 11일 길상사에서 입적하였다.

길상사가 유명세를 탄 것은 시주인 김영한과 시인 백석과의 인연 때문이다. 백석은 1936년 함흥의 영생고등보통학교 교사로 취임하는데, 이때 함흥관에서 일하던 김영한을 만나 사랑에 빠졌다. 백석은 당시 진향이라는 예명 藝名을 쓰던 그에게 이백의 시 〈자야오가 子夜吳歌〉에서 따온 ‘자야’라는 아호 雅號도 지어주며, 3년간 사랑을 나누었다. 백석의 대표적인 시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는 이때 만들어진 것이다. 하지만 현실의 장벽에 막힌 이들은 갈등하고 결국 헤어지고 말았다. 이후 백석은 북한에서, 자야는 남한에서 여생을 보냈다. 백석은 1963~1964년경 협동농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길상사 경내



김영한(길상화)
공덕비와 사당



데, 최근 연구결과 1996년에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자야는 1995년 ‘김자야’라는 필명으로 《내사랑 백석》을 출간하였고, ‘백석문학상’ 제정을 위해 2억의 돈을 1997년 창작과 비평사에 출연하였으니, 백석을 일생의 사랑으로 여겼다고 해도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닐 것이다. 지금도 길상사에 있는 김영한(법명 길상화)의 공덕비 옆에는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가 새겨진 시비가 서 있다.



정법사

② 정법사

삼각산三角山 정법사正法寺는 조선 후기 유명한 학승이며 선사인 호암虎巖 체정體淨(1687~1748) 스님이 창건하였다. 원래 명칭은 ‘복천암福泉庵’이었으며, 나라와 왕실의 안녕을 기원하는 암자였다. 이후 1959년 건봉사乾鳳寺 회주인 보광선사와 석산 화상이 종로구 가회동에 있던 건봉사 포교당인 정법원을 이곳으로 이전·중창하면서 정법사로 개명하였다. 현재 정법사에는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관세음보살상과 후불탱화, 산신탱화, 복천암터 주춧돌 등 다수가 있다. 성북구 대사관로 13길 44(성북동 330)에 위치해 있다. 정법사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전통사찰로 지정되어 있다.⁴⁹

성북동에는 길상사와 정법사 외에도 관음사, 대성사, 법천사, 보덕선원, 성라원, 연화원 등의 사찰이 있다.

⁴⁹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성북동성당

(2) 천주교

① 성북동성당

성북동성당은 1975년 5월 박귀훈(요한) 주임 신부가 부임한 것을 시작으로, 혜화동성당에서 신자를 분리(1,026명, 384세대)하여 같은 해 9월 8일 설립이 인준되었다. 하지만 건물이 완공된 것은 7년이 지난 1982년 6월이며, 이때 김수환 당시 추기경이 준공 축복식의 주례를 맡았다. 이후 건물들을 개축, 증축, 신축하며 지금에 이르고 있다. 2017년 기준 신도는 2,540명이다.⁵⁰

한편 2003년 6월 성당 유리화(琉璃畫) 축성식이 열렸다. 유리화는 수원가톨릭미술가회 양단철 작가의 작품이다.⁵¹ 총 8개의 작품이 있는데, 〈예수성탄〉, 〈성모승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한국의 순교자들〉, 〈부활하

⁵⁰ 성북동성당 홈페이지(<http://www.sbsd.or.kr>).

⁵¹ 이우현, 〈[가톨릭 미술인을 찾아서] 유리화 작가 양단철(수원가톨릭미술가회)씨〉 《가톨릭신문》 2012년 1월 22일.



최양업관

신 그리스도), <생명의 나무인 십자가>, <최후만찬>, <성 김대건(안드레아) 신부>가 그것이다.⁵² 이 유리화는 작가가 서양의 중세 유리화 표현을 그대로 답습하지 않고, 순교자의 복장을 한복으로 그리거나, 죽음을 이긴 부활을 매화로써 상징하는 등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와 문양 등을 활용한 것이 특징이다.⁵³

② 최양업관

최양업관은 선잠로2길 244(성북동 1-161)에 위치해 있다. 서울대학교가 최양업(崔良業(1821~1861)) 신부를 기념하고 은퇴한 사제들의 거주처로 지은 건물이다. 1관과 2관으로 나뉘어 건립된 최양업관은 연면적 7,216㎡에 지하 2층, 지상 2층 규모이며, 47개의 숙소와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었다. 교구가 은

⁵² 성북동성당 홈페이지(<http://www.sbscd.or.kr>).

⁵³ 주정아, <서울 성북동본당 유리화 리플릿 제작> 《가톨릭신문》 2003년 8월 3일.

퇴 사제들만을 위한 공동 사제관을 마련한 것은 최양업관이 최초이다.⁵⁴

최양업은 일명 정구^{鄭九}라고도 불리며, 세례명은 토마스이다.⁵⁵ 본관은 경주, 충청남도 홍주 다락골(지금의 충청남도 청양군 화성면 농암리)에서 태어났다. 1836년 조선에 입국한 파리의방전교회 소속 모방^{R. Maubant} 신부에 의해 김대건·최방제^{崔方濟}와 함께 조선인 신학생으로 선발되어 1837년 6월 마카오에 도착하였다. 최양업은 1849년 김대건^{金大建(1821~1846)}에 이어 두 번째 조선인 신부가 되었고, 그 해 12월 조선에 입국하였다. 그는 입국 후 12년 동안 열성적으로 전교에 노력하다가 과로로 쓰러졌고 설상가상으로 식중독까지 겹쳐 1861년 6월 사망하였다. 그의 활동과 업적은 그동안 김대건의 순교에 가려 크게 조명되지 못하다가 최근에 이르러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3) 개신교

① 덕수교회

대한예수회장로회 덕수교회는 1946년 3월 정동에 있던 적산^{敵産}을 정부로부터 인수받아 세워졌는데, 당시의 이름은 ‘덕수전도교회’였다. 6·25전쟁 때 잠시 부산으로 피난하였다가 휴전 후 다시 서울로 올라왔다. 1965년 정부에 재산불하를 끝내고 정식으로 교회재산을 덕수교회로 등기 이전하였다. 1983년 성북동으로 교회 이전을 결정하고 1984년 5월 성북동 현 위치로 이사하였다. 1986년에 덕수유치원을 개원하였다. 2006년 《덕수교회 60년사》를 발간하였으며, 2016년 창립 70주년을 맞이하였다. 영내에 서울특별시 민속자료 제10호로 지정된 ‘성북동 이종석 별장’이 있는데, 지금은 영성수련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성북구 성북로 122(성북동 94-1)에 위치하고 있다.

54 남정률, 〈서울대교구 은퇴 사제 위한 공동 사제관 축복〉 《가톨릭평화신문》 2016년 10월 30일.

55 최양업에 대해서는 《두산백과》과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을 참조해 정리하였다.



덕수교회

② 성북교회⁵⁶

성북교회는 성북로 45-2(성북동 131-107)에 위치하며, 대한예수교장로회 교단에 속해 있다. 1949년 성북동 23번지에서 김태주 목사와 김병국 장로 등을 중심으로 설립하였고, 대한예수교장로회 경기노회에 가입하였다. 6·25전쟁이 발발하면서 김태주 목사가 납북되는 등 어려움을 겪었지만 1954년에 김상권 목사가 새롭게 부임하면서 성북동 141번지 동회사무소 자리를 빌려 교회를 이전하였다. 1955년에 미국북장로회 선교부로부터 보조금을 얻어 성북동 산63-9번지에 목조 건물을 지었다. 2003년에 교육관을 준공하고 본당을 리모델링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성북동에는 덕수교회와 성북교회 외에 성북은혜교회, 성북중앙교회, 아

⁵⁶ 성북교회 홈페이지(<http://www.seongbukch.com>).

름다운교회, 용광교회, 창성교회 등이 있다.

5) 대사관저 및 대사관

성북동의 대사관저 및 대사관은 성북동 고급주택단지 형성과 연관된다. 성북동 고급주택단지는 1960년대 중반 형성되기 시작되었는데, 본격적으로 지금의 모습을 갖춘 것은 성북동과 광화문을 10분 거리의 생활권으로 만들어준 1970년의 삼청터널 개통 이후였다. 성북동 고급주택단지는 성락원 마을(5통), 평의바다 마을(8통), 대교단지(9통) 등 세 부분으로 나뉘어 개발되었으며, 대기업총수, 전·현직 고위공무원, 언론인, 대학교수 등 한국사회의 이른바 ‘상류층’이 거주하기 시작하였다.

서울 시내로의 이동이 쉬우면서도 조용하며 ‘상류층’이 사는 성북동은 외교관들의 거주지로서도 적합한 곳이었다. 1974년 일본대사관저와 1976년 서독대사관저(지금의 독일연방대사관저)를 필두로 외국 대사관저가 들어서기 시작하였다. 2018년 11월 현재에는 39개의 대사관저와 2개의 대사관(네팔·앙골라)이 성북동에 위치하고 있다.

성북동에 대사관저를 둔 나라는 오만, 앙골라, 카타르, 중국, 아제르바이잔, 덴마크, 남아프리카공화국, 케냐, 싱가포르, 알제리, 스리랑카, 에티오피아, 사우디아라비아, 파푸아뉴기니, 브라질, 요르단, 일본, 핀란드, 독일, 호주, 멕시코, 네팔,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폴란드, 탄자니아, 그리스, 잠비아, 튀니지, 나이지리아, 방글라데시, 터키, 콜롬비아, 노르웨이, 카자흐스탄, 아프가니스탄, 스웨덴, 베네수엘라, 수단 등이다.

1) 문화재

(1) 만해 한용운 심우장

만해 한용운 심우장은 독립지사이자 시인이며 승려였던 만해 한용운이 1933년 건축하여 1944년 6월 29일 입적할 때까지 11년 동안 가족과 함께 살던 집이다. 성북로29길 24(성북동 222-1)에 있으며, 1984년 7월 5일 서울특별시 기념물 제7호로 지정되었다. 정면 3칸, 측면 1칸이며 부엌만 한 칸이 더 있는 구조의 4칸 집이다. 대지면적은 373.52㎡(112.99평)이고 건평은 58.84㎡(17.8평)이다. 지붕은 기와로 덮고 앞에는 함석을 댄 근대식 한옥이다. 당시에 수학교사이며 광복 후 서울대 총장을 역임한 최수동이 설계하였다. 택호(宅號)인 심우장은 불교의 선종화 심우도(尋牛圖) 또는 심우도(十牛圖)에서 따온 것이다. ‘심우(尋牛)’란 본성을 찾아 수행하는 단계를 동자가 소를 찾는 것에 비유해서 묘사한 10단계 중 첫 번째 단계를 말한다. 사랑방 위쪽에 걸린 편액은 성북동에 거주하던 서예가 일창(一滄) 유치웅(兪致雄(1901~1998))이 1980년대에 쓴 것이다.

한용운이 이곳 성북동에 정착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복합된 것으로 보인다



심우정(위), 최순우 가옥 마당(아래)

다. 먼저 김벽산 스님이 본인의 초당을 지으려고 산 52평의 땅을 한용운에게 준 것이 계기가 되었다. 1933년 결혼한 부인 유숙원의 돈과 당시 조선일보 사장이던 방응모와 주변 사람들의 도움, 그리고 금융조합의 대출을 받아 추가로 땅을 매입하고 집을 지을 수 있었다. 한용운은 그 이전에도 성북동 골짜기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이곳이 사대문 안과 가까워 당시 한용운이 활동하던 거점인 선학원(禪學院)으로 쉽게 갈 수 있었던 반면, 일본인들은 거의 거주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⁵⁷

한용운은 심우장에 머물면서 1935년 <북대륙의 하룻밤>을 집필하였으며, 같은 해 <조선일보>에 장편소설 <흑풍>을 이듬해 2월까지 연재하였다. 1936년에는 장편소설 <후회>를 <조선중앙일보>에 연재하였으며(신문 폐간으로 인해 50회로 연재 중단), 단재 신채호의 묘비를 제작하였다(글씨는 오세창). 1937년에는 재정난으로 휴간했던 잡지 <불교>를 이어 <신불교>를 속간하였으며, 3월 3일에는 서대문 형무소에서 옥사한 일송(一松) 김동삼(金東三(1878~1937))의 5일장을 심우장에서 치렀다. 1938년에는 장편소설 <박명>을 이듬해 3월까지 <조선일보>에 연재하였다. 1939년 회갑을 맞이하여 청량사에서 홍명희·오세창 등 20명이 참여한 가운데 환갑 잔치를 열기도 하였다. 1944년 6월 29일 심우장에서 중풍 후유증 등으로 입적하였다.⁵⁸

(2) 서울 성북동 최순우 가옥

최순우 가옥은 미술사학자이자 제4대 국립중앙박물관장을 지낸 혜곡 최순우(1916~1984)가 1976년부터 1984년 별세할 때까지 살던 집이다.⁵⁹ 성북로15

⁵⁷ 배경식, <1930년대의 문학지형과 한용운의 삶> <2014 만해 한용운 선생 70주기 기념 학술회 의-만해의 심우장 시대(1933~1944)->, 성북문화원, 2014, 77~78쪽.

⁵⁸ 한용운에 대해서는 이 책의 '성북동의 인물' 편 참조.

⁵⁹ 문화재청 홈페이지에 올라 있는 정식 명칭은 '서울 성북동 최순우 가옥'이다. 그렇지만 대문에 '최순우옛집'이란 현판이 걸려 있고, 혜곡최순우기념관 홈페이지와 안내판에 '최순우옛집'으로 기록하고 있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이 가옥은 '최순우옛집'이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길 9(성북동 126-20)에 위치해 있으며, 대지가 395.042m²이다. 건물 면적이 101.92m²인데, 안채가 62.46m², 바깥채가 39.46m²이다. 2006년 9월 4일 등록 문화재 제268호로 등록되었다. 또 같은 달 19일에는 ‘해곡최순우기념관’이라는 이름으로 서울시 등록박물관 제29호로 등록되었다. 1930년대 만들어진 도시형 한옥으로 ‘ㄱ’자인 안채와 ‘ㄴ’자인 바깥채가 합쳐진 트인 ‘ㄹ’자 형태의 집이다.

안채는 본래 사랑방과 안방, 부엌, 건넌방으로 구성되었는데, 개조 공사로 인하여 현재 부엌은 없다. 사랑방 앞에는 최순우가 직접 쓴 ‘杜門即是深山’두문즉시심산(문을 닫으니 이곳이 곧 깊은 산속이다)이란 현판이 걸려 있으며, 반대편에는 단원 김홍도 金弘道(1745~?) 유묵첩에서 집자한 ‘午睡堂’오수당(낮잠 자는 방)이란 현판이 걸려 있다. 최순우는 자신이 ‘오수노인’午睡老人으로 불리는 것을 즐겼다. 건넌방은 딸이 사용하던 방으로 ‘梅心舍’매심사(매화의 마음을 가진 방)라는 현판이 걸려 있었는데 현재는 없다. ‘ㄴ’자 형태의 바깥채는 서고와 다용도실로 사용되었다. 현재 안채는 최순우가 살던 시절의 모습을 재현해 놓은 상설전시 공간으로, 바깥채는 특별전시 공간과 사무실로 활용 중이다.

최순우가 사망한 후 딸이 거주하던 집이 재개발로 사라질 위기에 처하자, 한국내셔널트러스트에서 2002년 12월 시민들의 기금을 모아 이 집을 구입하여 ‘내셔널트러스트 시민문화유산 제1호’로 등록하고, 2004년 4월 일반에게 개방하였다. 이후 문화재의 전문적인 관리와 보존을 위해 재단법인 내셔널트러스트 문화유산기금이 설립되어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다. 이 기금은 2006년 조각가 권진규 (1922~1973)의 아틀리에(등록문화재 제134호, 성북구 동소문로26마길 12)를 유족에게 기증받아 관리하고 있고, 2012년에는 한국 최초의 서양화가 고희동이 41년 동안 살던 원서동 고희동 가옥(등록문화재 제84호)의 전시운영을 맡았다.



성북동 이종석 별장

(3) 성북동 이종석 별장

성북동 이종석(李鍾奭)(1875~1952) 별장은 성북로 131(성북동 243-3)에 위치하고 있다. 건립연대는 1900년대로 추정되지만 폐쇄가옥대장에는 1948년 4월 28일 신축된 것으로 되어 있다. 아마도 이때 가옥대장에 등록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대지가 약 605m²(183평), 건평이 98.5m²(29.8평)이다. 1977년 3월 17일 서울특별시 민속문화재 제10호로 지정되었다.

건립자에 대해서는 이종상, 이종석, 이종숙 등 다양한 사람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다. 마포에서 젓갈 장사로 부자가 된 상인의 집으로 알려지기도 했으나, 폐쇄토지대장에 소유자가 이종석으로 나오는 바 교육자 이종석의 별장임이 확인되었다. 현재 문화재청의 정식 등록 명칭도 ‘성북동 이종석 별장’이다. 이종석은 조선 말기의 부호이자 1933년 보인학원을 설립하고 보인보

통학교를 운영한 교육가이다.

1956년 대림산업주식회사(당시 회장 이재준)가 매입하였다. 1977년 서울 특별시 민속문화재 제10호로 등록될 당시 소유주의 이름을 따서 ‘성북동 이재준가’로 등록되었으나, 2009년 2월 5일 〈서울특별시 지정문화재 지정명칭 변경〉에 따라 건물의 성격을 분명히 하기 위해 건물의 건립자와 성격을 명시하여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 고시하였다.

1976년 서울시 조사 당시에는 행랑채 퇴 부분과 사랑채 동측 서까래 부분이 썩어 내려앉았으며, 각 방에는 학생들이 하숙하고 있었다. 1980년대 자료에는 ‘一觀亭^{일관정}’이라는 현판이 붙어 있고 추녀에도 풍경이 달려있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1986년 이후 자료에는 일관정을 비롯한 현판과 주련이 모두 보이지 않으며, 오늘날에도 전하지 않는다.

1984년 덕수교회가 이전해 오면서 진입 지형이 바뀌었으며, 1985년 11월 21일 덕수교회에서 이종석 별장을 매입하였다. 2002년까지 목사관으로 사용되다가, 정비를 거쳐 2004년 10월 26일부터 영성수련원으로 사용 중이다. 본래는 정원과 연못 등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지만 현재 연못은 남아 있지 않다. 《덕수교회 60년사》에 따르면 이태준은 정지용, 이은상, 이효석 등과 함께 이곳에서 문학 활동을 했다고 한다.

건물은 본채와 행랑채로 구성되어 있다. 본채에 해당하는 안채는 중앙에 두 칸 크기의 대청과 그 좌측에 두 칸 크기의 안방을 두고 앞에는 툇마루를 두었다. 그리고 대청 오른쪽에는 건넌방 대신에 세 칸 크기의 넓은 누마루를 전면 1칸이 돌출되게 두었다. 이 건넌방에 일관정이라는 현판이 걸려 있었다. 기단은 좌측에서 중앙 대청마루까지 일정한 길이로 가공된 화강석 장대석을 3벌대로 바른층쌓기를 하였다.

행랑채는 ‘ㄱ’자 모양으로, 원래 대청 동쪽에 한 칸 크기의 건넌방이, 왼쪽에는 2칸의 안방이 있고, 안방 앞에는 부엌이 있었으나 현재는 대청 옆의

건넌방을 모두 대청으로 바꾸고, 온돌방 끝으로 부엌과 화장실을 두었다. 행랑채 서편은 바깥마당이며 이곳에는 우물이 있다.

(4) 상허 이태준 가옥

성북동 이태준 가옥은 소설가 상허^{尙虛} 이태준^{李泰俊}이 1933년부터 1946년 월북할 때까지 머물던 집으로, 수연산방^{壽硯山房}이란 이름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태준은 1932년 10월 26일 성북로26길 8(성북동 248)에 120평(약 396.7㎡)의 토지를 매입하였으며, 이듬해 초복에 공사를 시작하여 9월 말까지 공사를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금은 사라진 상심루^{賞心樓} 역시 본채와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본채는 59.5㎡(18평)의 기와지붕이며 상심루는 16.53㎡(5평) 초가지붕이다. 건물등록을 완료한 것은 1939년 12월이

이태준 가옥의
본채와 정자



다. 상심루는 1950년 6·25전쟁 때 소실된 것으로 전한다. 1963년 10월 22일 서울민사지방법원의 관리인 선임결정에 따라 생질 이애주씨의 소유로 이전되었다. 1977년 3월 17일 서울시 민속문화재 제11호로 지정되었는데, 이태준이 월북작가라는 이유로 '성북동 이태현 가옥'으로 등록되었다. 1998년 2월부터 전통찻집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같은 해 7월 10일 후손들의 요청에 따라 '상허 이태준 가옥'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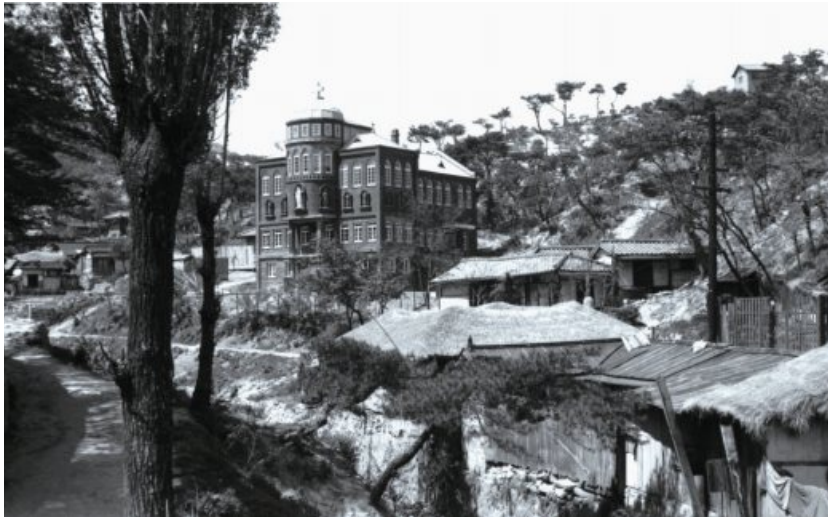
이태준의 수필 〈목수들〉을 보면 본채를 만든 것은 동묘를 만든 목수들이었다. 또한 조카 김명렬 교수가 쓴 〈나의 외삼촌 상허 이태준〉에 따르면 상심루는 철원의 집을 헐어 만들었다. 만들 당시 성북동 248번지 앞은 좁은 도로와 개천이 있었다. '수연산방'이라는 당호는 '벼루가 다 할 때까지 글을 쓰겠다.'는 그의 의지를 담아 붙인 이름이다.

이태준은 수연산방에 살며 활발한 문학작품을 펼쳤다. 구인회 활동을 시작한 것도 1933년부터였다. 성북동을 배경으로 하는 소설도 많이 썼는데 〈달밤〉, 〈손거부〉, 〈장마〉 등이 대표적이다. 《덕수교회 60년사》에는 수연산방 건너편 이종석 별장에서 이효석, 정지용 등과 함께 교류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5) 서울 성북동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원 구 본원

서울 성북동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원 구 본원은 한국 가톨릭 최초로 내국인 남자 수도자를 위해 1953년에 창설된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韓國殉教福者聖職修道會) 옛 본원(本院) 건물이다. 수도회를 창설한 방유룡(方有龍, 1900~1986) 신부가 직접 설계하여⁶⁰ 1955년에 건립을 마치고 입주하였다. 성북로24길 3(성북동 90)에 위치해 있다. 입구에는 '피정의집 복자사랑'이라는 명패가 붙어있다.

⁶⁰ 《서울신문》 2018년 9월 13일.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구 본원
(1955년, 문화재청)

전형적인 라틴십자가 평면으로 구성된 이 건축물은 후진(後陣) 평면을 일반 성당의 반원형 대신 타원형으로 설계하였다. 또 제단 상부의 돔 역시 반원형이 아닌 타원형 반구로 조성하는 등 다른 성당과는 구별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건물의 역사적·종교적 가치가 인정되어 2013년 서울미래유산으로 등록되었으며(인증번호 2013-273), 2015년 12월 16일에는 등록문화재 제655호로도 지정되었다.

(6) 서울 선잠단지

선잠단(先蠶壇)은 잠업(蠶業)의 신 서릉씨(西陵氏)에게 제사(祭)선잠제향을 지내던 제단이다. 우리 역사에서 선잠단은 고려 성종 2년인 983년에 처음 쌓았다. 선잠단 터를 뜻하는 서울 선잠단지는 성북로 17(성북동1가 64-1)에 있으며, 조선 태종 때인 1405~1413년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태종 이후 다른 곳으로 제단을 옮기자는 논의가 있었으나 옮겼다는 기록은 남아있지 않다. 1908년 국가제사를 대대적으로 통폐합·축소할 때 이곳 선잠단 역시 그 대상이 되어

선잠단지



성락원

선잠단 신위는 사직단으로 옮겨졌고 제단은 별도의 관리 없이 방치 상태가 되었다. 이후 필지가 나뉘고 일부가 민간으로 넘어가는 등의 우여곡절을 겪었다.

1963년 1월 12일 '선잠단지'라는 이름으로 사적 제83호로 지정되었으나,

얼마 후 옆으로 길이 나면서 일부가 훼손되었다. 1976년 이학수라는 이 지역 주민이 이곳에 뽕나무를 심었다. 2011년 7월 ‘서울 선잠단지’로 문화재 지정 명칭이 변경되었다. 2016년 선잠단지에 대한 발굴조사를 진행하여 조선 시대에는 선잠단지 서편의 도로 일부까지도 선잠단의 영역에 포함되었음을 확인하였다. 2018년 현재 선잠단지 면적은 약 1,475m²(528평)이다. 선잠제향 보존위원회가 주관하여 1993년부터 매년 선잠제향을 거행하고 있다.

(7) 성락원

성락원 城樂園은 의친왕 義親王 이강 李珣(1877~1955)의 별장이던 곳으로, 선잠로 2길 29-8에 위치해 있다. 1992년 사적 제378호로 지정되었다가, 2008년 1월 8일 명승 제35호로 등록되면서 사적 지정은 해제되었다. 지정면적은 1만 4,407m²이다. 각종 설명에는 철종 때 이조판서를 지낸 심상응의 별장으로 서술하고 있으나, 조선왕조실록이나 《승정원일기》 등에 이조판서를 지낸 심상응은 등장하지 않아 앞으로의 연구를 필요로 한다.

전원 前苑, 내원 內苑, 후원 後苑의 세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전원에는 ‘雙流洞天 쌍류동천’이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으며, 내원의 영벽지 影碧池에는 추사 김정희 1786~1856의 글씨로 된 ‘嚮氷家 장빙가’를 비롯한 각종 글씨가 새겨져 있다. 내원 옆에 있는 건물들이 의친왕이 머물던 곳으로 전하는데, 현재 건물은 새로 지은 것이며, 예전의 모습은 알 수 없다. 후원에는 연지 蓮池라는 연못과 함께 송석정 松石亭이란 누각이 있다. 현재의 누각은 1953년에 다시 지은 것이다. 송석정 뒤에는 ‘松石 송석’이라고 하는 각자가 새겨져 있어, 누각 명칭의 유래를 살필 수 있다.

(8) 마포 최사영 가옥

이 고택 古宅은 대한제국 때 관료로서 광업·금융업·창고업 등에 종사하며

부를 축적해 재력가로도 널리 알려진 최사영(崔思永)이 1906년 마포에 건립한 집의 안채로 추정되는 건물이다. 그가 건립부터 1929년까지 거주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소유권이 여러 차례 변경되면서 문화재 지정이 검토되던 2001년 당시에는 이 건물 한 채만 남아 있었다. 2001년 서울특별시 민속자료로 지정된 후, 한국가구박물관에서 2003~2007년에 걸쳐 현 위치로 이전, 복원하였다.

(9) 서울 한양도성

1392년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는 2년이 지난 1394년 10월 한양으로 도읍을 옮겼다. 종묘와 사직, 거처할 궁궐 경복궁을 세운 후 1396년(태조 5) 내사산의 능선을 연결하여 18km가 넘는 도성을 쌓았다. 태조 때 석성과 토성으로 쌓았던 도성은 1422년(세종 4) 당시 태상왕으로 있던 태종의 주도하에 전부 석성으로 개축되었다. 이후 숙종과 영조 때 대대적인 개축이 있었고 순조 때에도 여장을 수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1963년 1월 21일 사적 제10호로 지정되었다.

한양도성은 내사산인 북쪽의 백악(현 북악산), 서쪽의 인왕산, 남쪽의 목멱산(현 남산), 동쪽의 타락산(현 낙산)의 능선을 따라 쌓았으며, 평균 높이 5~8m, 총 둘레 18.6km, 면적 63만 9,217.6㎡에 이른다. 인마와 물자 통행을 위해 사대문(四大門)과 사소문(四小門)을 두었다. 사대문은 동쪽의 흥인지문(興仁之門, 동대문), 서쪽의 돈의문(敦義門, 서대문), 남쪽의 숭례문(崇禮門, 남대문), 북쪽의 숙청문(肅淸門⁶¹)이며, 사소문은 동북쪽의 혜화문(惠化門, 동소문), 서북쪽의 창의문(彰義門, 자하문), 동남쪽의 광희문(光熙門, 수구문·시구문), 서남쪽의 소의문(昭義門, 서소문)이다.

한양도성은 근대화 과정에서 옛 모습을 상당 부분 잃어버렸다. 1899년

⁶¹ 숙청문은 숙정문(肅靖門)으로도 불렸는데, 양자가 병칭되는 가운데 숙정문이란 이름이 더 자주 쓰였다.

도성 안팎을 연결하는 전차가 개통됨에 따라 성문이 제 기능을 잃었고, 1907년 일본 왕세자 방문을 앞두고 길을 넓히기 위해 숭례문 좌우 성벽이 철거되었다. 1908년에는 평지의 성벽 대부분이 헐렸다. 성문도 온전하지 못하였다. 소의문은 1914년에 헐렸으며, 돈의문은 1915년에 건축 자재로 매각되었다. 광희문의 문루는 1915년에 붕괴되었고, 혜화문은 1928년에 문루가, 1938년에 성문과 성벽 일부가 헐렸다. 일제는 1925년 남산 조선신궁과 홍인지문 옆 경성운동장(옛 동대문운동장, 현 동대문디자인플라자)을 지을 때에도 주변 성벽을 헐어버리고 성돌을 석재로 썼다. 민간에서도 성벽에 인접하여 집을 지으며 성벽을 훼손하였다. 광복 이후에도 도로·주택·공공건물·학교 등을 지으면서 성벽이 훼손되는 일이 되풀이되었다.

한양도성 복원 사업은 1968년 1·21사태 직후 숙정문 주변에서 시작되었고 1974년부터 전 구간으로 확장되었다. 하지만 과거에는 단절된 구간을 연결하는 데에만 치중하여 오히려 주변 지형과 원 석재를 훼손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서울시는 한양도성의 역사성을 온전히 보존하여 세계인의 문화유산으로 전승하기 위해 2012년 9월 한양도성도감을 신설하고, 2013년 10월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한양도성 보존·관리·활용 계획을 수립하였다.

한양도성은 2014년 현재 전체 구간의 70%, 총 12.8km 구간이 남아있거나 복원되었다. 숙정문·광희문·혜화문을 중건하였지만 광희문과 혜화문은 원래의 위치에서 조금 벗어난 곳에 세웠다.

한양도성 중 성북동에 속한 곳은 혜화문에서 숙정문 부근에 해당한다. 혜화문을 지나 경신고등학교에서 끝나는 약 1.2km의 구간의 성벽은 대부분 멸실되었다. 숙정문은 주소가 종로구 삼청동으로 되어 있지만, 종로구와 성북구의 경계에 있고 또 숙정문 안내소가 성북동에 있으므로 혜화문과 함께 다루도록 한다.



숙정문의 역사



현재의 숙정문

숙정문은 한양도성의 북쪽에 위치한 문으로 본래 이름은 숙청문이다. 1396년(태조 5)에 완공되었다. 북대문으로 불릴 만도 하지만, 규모가 작고 이용하는 자가 적어서 '대문'으로까지는 불리지 못하고 주로 '북문'으로 불렸다. 숙청문에서 숙정문으로 바뀐 이유와 시기는 명확하지 않다. 조선왕조실록에 숙정문肅靖門이 1523년(중종 18) 6월 처음 나오는 것을 보면 그 이전에 바뀌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조선왕조실록에는 그 이후에도 숙청문이란 문 이름이 드물지만 나온다. 숙정문이 사용되기 이전 마지막으로 숙청문이란 명칭이 사용된 것은 1509년(중종 4) 4월이다. 한양도성의 사대문과 사소문은 모두 문루가 있지만, 숙정문에는 문루가 없었다.

정북쪽 문을 숙정문이라 하는데, 위에 집 지은 것^{架屋}이 없으며 달아둔 채 다니지 않는다.⁶²

위의 기록을 보면 가옥, 즉 문루가 없다는 기록이 등장한다. 한양도성의 다른 문은 문루가 낡으면 수리하거나 다시 만들어 이용했는데, 유독 숙정문만 문루가 없는 것은 그만큼 이용자가 적었

⁶² 《신증동국여지승람》 권2, 비교; 《동국여지비고》 권1, 경도京都.

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실제로 숙정문은 1413년(태종 13) 풍수상의 이유로 막아버렸다. 1422년(세종 4)에는 다시 숙정문을 열어 군사들의 이동 통로로 사용하였지만 1530년 당시에는 다시 막혀 있었다. 1504년(연산군 10)에 “숙정문을 막고 오른쪽에 새 문을 만들라.”는 전교가 있었지만, 옮겼다는 기사는 보이지 않는다. 평소에는 막혀 있는 숙정문이었지만 풍수지리상 북쪽이 음陰과 물을 의미하였기 때문에, 가뭄이 들면 문을 열고 기우제를 지내기도 했다. 실제로 조선왕조실록의 숙정문 관련 기록은 대부분 문을 열고 기우제를 거행했다는 내용이다. 또한 음陰과 관련된 이야기도 전한다.

숙정문은 곧 양주의 북한산으로 통하는 곳인데, 그 문 역시 지금은 폐지 폐置되어 있다. 이 문이 어느 때에 폐지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전하는 말에 의하면, 이 문을 개통하던 당시 성 안 마을에 남녀 간의 음란한 풍조가 자꾸 일어나므로 폐치하였다고 한다.⁶³

위 기록은 조선 후기의 학자 이규경 李圭景(1788~1856)이 지은 《오주연문장전산고》의 내용이다. 이것을 보면 숙정문은 조선 후기까지 닫혀 있었다. 또한 그 이유를 ‘음란한 풍조’ 때문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는 숙정문이 음陰을 상징하기 때문이었다.

한양도성은 1963년 1월 21일 사적 제10호로 지정되었는데, 1968년 북한의 무장 게릴라들이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하기 위해 침투한 1·21사태로 인해 청와대 뒤쪽 북악산 일대의 일반인 출입이 차단되었다. 2006년 4월 다시 일반에게 공개되었지만 여전히 군사 통제 지역으로 정해진 시간에만 신분증을 제시하고 출입이 가능하다.

한양도성의 성문 위치



63 《오주연문장전산고》 경사편6, 논사류1, 논사論史, 이문흥인문변증설里門興仁門辨證說.



혜화문의 역사



복원한 혜화문

혜화문(惠化門)은 한양도성의 동북쪽 소문으로 동소문(東小門)이라고도 한다. 혜화문의 본래 이름은 홍화문(弘化門)이다. 그런데 1483년(성종 14)에 창건한 창경궁 정문의 이름을 홍화문이라 정하게 되자, 양자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1511년(중종 6)에 혜화문으로 개명했다.

조선시대에는 숙청문이 풍수상의 이유로 닫혀 있었기 때문에, 혜화문이 도성의 북문 역할을 담당했다. 혜화문은 한양과 원산을 연결하는 경원가도와 이어져 있어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었다. 조선시대에 도성의 대문을 지키는 병사는 30명이고, 소문은 20명이었는데, 혜화문을 지키는 병사는 예외적으로 30명이었다. 그리고 《동국여지비고》 경도조에는 혜화문을 숭례문·흥인문·돈의문과 함께 도성의 정문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를 종합해보면 혜화문은 도성의 소문이지만, 실제로는 대문의 역할을 담당했다고 볼 수 있다.

혜화문의 문루는 한양도성의 축성과 함께 만들어졌는데, 그것이 소실된 이유로는 두 가지 이야기가 전한다. 혜화문은 본래 조선으로 들어온 여진족들이 도성을 출입할 때 사용하는 문이었다. 그러나 여진족이 청나라를 세운 후에는 명나라 사신이 출입하던 사대문, 즉 돈의문을 사용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혜화문에 대한 관리가 소홀해져 문루가 소실되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다른 하



겸재 정선의 <동소문도>
(고려대학교 박물관)

나는 임진왜란 당시 불탔다는 것이다. 만약 임진왜란 때 문루가 불에 탔다고 한다면, 혜화문의 문루는 소실된 채로 150년이나 방치된 것이다.

《조선왕조실록》에 따르면 1744년(영조 20)에 문루를 새로 지었음을 알 수 있다. 옛날에는 혜화문에 문루가 없어 임금이 어영청에 명해 이를 세우게 했다고 한다. 문루가 없던 당시의 모습은 겸재 정선(鄭敼)(1676~1759)의 <동소문도(東小門圖)>에서 살펴볼 수 있다. 1754년(영조 30)경 정선이 그린 <동소문도>는 현재 고려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문루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문루가 만들어진 이후에 그린 그림임에도 문루를 표현하지 않은 것은, 아마도 이전의 모습을 기록하기 위해 그린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혜화문의 홍예(虹霓) 천장은 다른 문들의 그것과 다른 특징이 있다. 보통 홍예 천장에는 용을 그리는 것이 일반적이는데, 혜화문에는 용이 아닌 봉황이 그려져 있다. 옛날 혜화문 밖 삼선평(三仙坪) 일대에는 새들로 인한 농사의 피해가 심했다고 한다. 그래서 새들의 왕인 봉황을 그려 넣은 것이라고 전해진다.

1928년 동소문 문루의
철거를 알리는
신문기사



혜화문은 도성의 동북쪽 문으로 한말까지 기능하다가 두 번에 걸쳐 파괴당했다. 먼저 다음의 신문 기사를 보자.

경성 성벽의 문들 중에는 동북간 문인 동소문과 동남간에 있는 부정문이라고 하는 광희문은 남아 위험하기 짝이 없으며 또한 보관을 소홀히 하여 거지의 숙박처가 되어 위생상 그대로 둘 수 없다 하여 이전부터 돈을 들어 고적보존회의 손으로 수리 보관을 하든지 그렇지 못하면 차라리 철거하여 불안이 없게 하자는 두 의견이 있어왔던 바 고적보존회로부터 경비가 없어서 두 문을 유지할 수 없으니 철거하여도 무방하다는 의견을 표시하였으므로 토목부 관유재산계에서는 재목만을 내자 동에 사는 진모에게 1,200여 원에 팔아버려 철거하게 하는 중인데 동소문은 태조 5년에 창건되어 흥화문이라고 하다가 연산군 10년에 현재 위치로 이전하여 지금까지 내려온 것이오.⁶⁴

일제강점기 1928년 혜화문은 보존할 돈이 없다는 이유로 문루가 헐리고 말았다. 이어 1939년에는 일제가 전차 선로를 연장하면서 남아있던 흥예마저 헐어버렸고, 이 과정에서 혜화문은 완전히 그 모습을 잃었다.

현재 우리가 볼 수 있는 혜화문은 1994년에 원래의 위치에서 조금 떨어진 언덕 위에 복원한 것이다. 원래의 위치에는 혜화동로터리에서 미아리고개까지 이어지는 ‘동소문로’라는 도로가 있기 때 문이었다.

⁶⁴ 《동아일보》 1928년 7월 12일.

성북동 문화재 현황

(단위: 개)

국가 지정문화재	소계	29
	국보	13
	보물	10
	사적	2
	명승	1
	등록문화재	3
서울특별시 지정문화재	소계	9
	유형문화재	4
	무형문화재	1
	기념물	1
	민속문화재	2
	문화재자료	1
합계		38

국보

연번	지정번호	명칭	소재지	관리자(단체)	소유자	지정일
1	제65호	청자 기린형뚜껑향로	성북로102-11, 간송미술관	간송미술관	전○○	1962.12.20.
2	제66호	청자 상감연지원앙문정병	성북로102-11, 간송미술관	간송미술관	전○○	1962.12.20.
3	제68호	청자 상감운학문매병	성북로102-11, 간송미술관	간송미술관	전○○	1962.12.20.
4	제70호	훈민정음	성북로102-11, 간송미술관	간송미술관	전○○	1962.12.20.
5	제71호	동국정운 권1, 6	성북로102-11, 간송미술관	간송미술관	전○○	1962.12.20.
6	제72호	금동계미명삼존불입상	성북로102-11, 간송미술관	간송미술관	전○○	1962.12.20.
7	제73호	금동삼존불감	성북로102-11, 간송미술관	간송미술관	전○○	1962.12.20.
8	제74호	청자 오리모양 연적	성북로102-11, 간송미술관	간송미술관	전○○	1962.12.20.
9	제135호	신윤복필 풍속도 화첩	성북로102-11, 간송미술관	간송미술관	전○○	1970.12.30.
10	제149호	동래선생교정북사상절	성북로102-11, 간송미술관	간송미술관	전○○	1973.07.10.
11	제149-1호	동래선생교정북사상절 권4, 권5	성북로102-11, 간송미술관	간송미술관	전○○	1973.07.10.
12	제270호	청자 모자원숭이모양연적	성북로102-11, 간송미술관	간송미술관	전○○	1992.04.20.
13	제294호	백자 청화철채동채초충문병	성북로102-11, 간송미술관	간송미술관	전○○	1997.01.01.

보물

연번	지정번호	명칭	소재지	관리자(단체)	소유자	지정일
1	제238호	백자 박산형뚜껑항로	성북로102-11, 간송미술관	간송미술관	전○○	1963.01.21.
2	제283호	금보	성북로102-11, 간송미술관	간송미술관	전○○	1963.01.21.
3	제284호	금동여래입상	성북로102-11, 간송미술관	간송미술관	전○○	1963.01.21.
4	제285호	금동보살입상	성북로102-11, 간송미술관	간송미술관	전○○	1963.01.21.
5	제286호	청자 상감포도동자문매병	성북로102-11, 간송미술관	간송미술관	전○○	1963.01.21.
6	제287호	분청사기 박지철채화문병	성북로102-11, 간송미술관	간송미술관	전○○	1963.01.21.
7	제348호	분청사기 상감모란문반합	성북로102-11, 간송미술관	간송미술관	전○○	1963.01.21.
8	제349호	청자 상감국화모란당초문 모자합	성북로102-11, 간송미술관	간송미술관	전○○	1963.01.21.
9	제579호	괴산 외사리 승탑	성북로102-11, 간송미술관	전성우	전○○	1974.10.02.
10	제580호	문경 오층석탑	성북로102-11, 간송미술관	전성우	전○○	1974.10.02.

사적

연번	지정번호	명칭	소재지	관리자(단체)	소유자	지정일
1	제10호	서울 한양도성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1963.01.21.
2	제83호	서울 선잠단지	성북동 64-1	성북구	서울시	1963.01.21.

명승

연번	지정번호	명칭	소재지	관리자(단체)	소유자	지정일
1	제35호	성락원	선잠로2길 47	성북구	(주)제남기업	2008.01.08.

등록문화재

연번	지정번호	명칭	소재지	관리자(단체)	소유자	지정일
1	제268호	서울 성북동 최순우 가옥	성북로15길 9	(재)내셔널 트러스트 문화유산기금	(재)내셔널 트러스트 문화유산 기금	2006.09.19.
2	제470-4호	김소월 시집 진달래꽃	성북로 49 운석빌딩	화봉문고	화봉문고	2011.02.25.
3	제655호	서울 성북동 한국순교복자성직 수도회 구 본원	성북로 143		(재)전주교 한국순교 복자성직 수도회	2015.12.16.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연번	지정번호	명칭	소재지	관리자(단체)	소유자	지정일
1	제28호	삼층석탑	성북로102-11, 간송미술관	간송미술관	전○○	1974.05.12.
2	제29호	석조팔각승탑	성북로102-11, 간송미술관	간송미술관	전○○	1974.05.12.
3	제30호	석불입상	성북로102-11, 간송미술관	간송미술관	전○○	1974.05.12.
4	제31호	석조 비로자나불좌상	성북로102-11, 간송미술관	간송미술관	전○○	1974.05.12.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연번	지정번호	명칭	소재지	관리자(단체)	소유자	지정일
1	제13호	매듭장	성북로102-11, 간송미술관		김○○	1996.12.31.

서울특별시 기념물

연번	지정번호	명칭	소재지	관리자(단체)	소유자	지정일
1	제7호	만해 한용운 심우장	성북로29길 24		성북구	1984.07.05.

서울특별시 민속문화재

연번	지정번호	명칭	소재지	관리자(단체)	소유자	지정일
1	제10호	성북동 이종석 별장	성북로 131	덕수교회	덕수교회	1977.03.17.
2	제11호	상허 이태준 가옥	성북로26길 8	조내혁	조○○	1977.03.17.

서울특별시 문화재자료

연번	지정번호	명칭	소재지	관리자(단체)	소유자	지정일
1	제37호	마포 최사영 고택	선잠로68-20 한국가구박물관		정○○	2007.05.30.

2) 서울미래유산

(1) 성북동 국시집

창경궁로43길 9(성북동1가 9)에 위치한 성북동 국시집(인증번호 2015-020)은 1969년 개업하여 같은 자리에 2대째 이어오고 있는 칼국수 전문 식당으로, 김영삼(金泳三(1927~2015) 전 대통령 등 유명 정치인들이 자주 찾던 식당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2) 북정마을

성곽마을인 북정마을(인증번호 2015-016)은 성북로23길(성북동) 일대에 위치해 있다. 마을이름 ‘북정’의 유래는 ‘북적거리다’에서 왔다는 설이 유력하다. 조선 왕조가 이 지역에 사람들을 정착시키기 위해 1767년(영조 43) 포백과 훈조를 할 권리를 이곳 사람들에게 부여하였는데, 특히 훈조 즉 메주를 쑈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작업을 해야만 했고, 이때 사람들이 ‘북적북적하다’고 하여 북정마을이라는 이름이 생겨났다는 것이다.⁶⁵

북정마을



65 도시공감협동조합 건축사사무소, 《성곽마을 북정》, 서울특별시, 2016, 35쪽.

이곳에 본격적으로 마을이 형성된 것은 6·25전쟁 전후인 1950년대에 이주민들이 들어오면서부터이다. 2000년대 이후 진행된 재개발 문제로 갈등이 있었으나, 수습된 이후 현재는 마을 공동체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한양도성을 끼고 있는 성곽마을로서, 만해 한용운이 살았던 심우장이 북정마을 내에 있다.

한편 2012년 만들어진 성북동 비둘기 소공원은 심우장에서 북정마을로 올라가는 길에 위치한다. 공원에는 비둘기 조형물과 함께, 이 공원의 주인공인 김광섭 시인의 <성북동 비둘기>가 벽면에 새겨져 있다. 공원에는 성북동을 소개하는 책자를 비치한 구조물과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벤치 등이 마련되어 있다.

(3) 길상사

길상사(구 대원각, 인증번호 2013-036)는 선잠로5길 68에 위치해 있다. 일제강점기 친일파 백인기의 별장이었으며, 이후 ‘청암장 淸岩莊’이란 요릿집으로 바뀌었다가 1951년 자야 子夜 김영환 金英韓(1916~1999)이 인수하여 ‘대원각 大苑閣’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군사정부 시절 오진암 梧珍庵, 삼청각 三清閣과 함께 3대 요정으로 불렸으며, ‘요정정치 料亭政治’로 불렸던 밀실정치의 중심지였다. 김영환은 1987년부터 법정스님에게 대원각을 시주하였으며, 1997년 송광사의 말사로서 길상사를 창건하였다. 법정스님은 이곳 길상사에서 입적하였다.

(4) 삼청각

대사관로 3(성북동 330-115)에 위치한 삼청각(인증번호 2013-123)은 1972년 남북정상회담의 막후 협상 장소로 이용하기 위해 건립되었다. 이후 ‘대원각’, ‘오진암’과 함께 서울 3대 요정으로 불리며 전성기를 맞았다. 김영삼 문민정부가 들어서며 경영난에 시달리다 1997년 일반음식점 ‘예향’으로 전환



삼청각 입구
(서울시)

했지만 1999년에 결국 폐업하고 말았다. 2000년 서울시가 삼청각 부지와 건물
물을 도시계획시설상 문화시설로 지정, 매입하고 2001년 리모델링하여 전통
문화공연장으로 개장하였다. 현재는 서울시 세종문화회관에서 운영 중이다.

(5) 서세옥 가옥 및 작업실

서세옥 가옥 및 작업실(인증번호 2014-026)은 성북로28가길 7(성북동 260-
10)에 있다. 1965년 건립되고 사용 승인이 난 이 집은 전통 동양 미술을 현대
적으로 표현한 화가 서세옥(徐世鈺(1929~))의 주택 및 작업실로 사용되었다. 2017
년 현재 서세옥이 거주 중이다.

(6) 윤중식 가옥

윤중식 가옥(인증번호 2013-207)은 성북로14가길 13-14(성북동 145-23)에
있다. 서양 미술의 도입에 선구적인 역할을 한 화가 윤중식(尹仲植(1913~2012))이
생전에 거주했던 곳으로서, 보존 가치가 인정되어 미래유산으로 선정되었



윤중식 가옥
(서울시)

다. 정확한 건립연도는 알 수 없다.

(7) 〈성북동 비둘기〉

〈성북동 비둘기〉(인증번호 2016-032)는 1960년대 성북동 일대의 택지개발사업을 배경으로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한 환경의 파괴, 인간성의 상실을 비판적으로 표현한 시인 김광섭(金光燮, 1905~1977)의 대표적인 시이다. 그는 1961년부터 1966년까지 약 5년 동안 성북동에 거주하며 여러 편의 시를 구상하였다.

(8) 《달밤》

《달밤》(인증번호 2016-009)은 일제강점기 대표적인 소설가 이태준의 소설 작품이다. 성북동을 배경으로 하였으며 이웃 주민 황수건을 통해 당시 하층민들의 삶을 엿볼 수 있다. 또한 그가 성북동으로 이사 온 1934년은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뒤늦게 이 지역이 경성부의 일부로 편입되었다는 역

사적 사실과 부합한다.

(9) 쌍다리식당

쌍다리식당(쌍다리돼지불백 본점, 인증번호 2016-034)은 1970년 기사식당으로 출발한 연탄불구이 돼지불고기 백반 전문 식당이다. 성북구 성북로23길 4에 위치한다. 현재는 창업자의 대를 이어 자녀가 2대째 운영 중이다. ‘쌍다리’라는 가게 이름처럼 식당 근처에 두 개의 다리가 있었다고 한다.

(10) 《혈맥》

《혈맥》(인증번호 2017-038)은 1948년 발표된 김영수金永壽(1911~1977)의 희곡이다. 3막 4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김영수는 이 작품에서 1947년 서울의 외곽 지대였던 성북동의 방공호에서 살아가는 세 가족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당시 도시 서민들의 참혹한 생활상을 입체적으로 묘사하였다. 희곡 《혈맥》을 영화화한 동명의 영화 《혈맥》(인증번호 2016-052)도 서울특별시 미래유산으로 지정되었다.

성북동의 인물

6

정리 나

1) 문학가

(1) 김광섭

김광섭(金光燮(1905~1977))은 시인이며, 문학평론가이다. 그가 쓴 시 〈성북동 비둘기〉는 일반인에게 성북동을 알렸던 대표적인 작품이다. 1905년 함경북도 경성군에서 태어났다. 1918년 함경북도 경성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하였고, 1920년에는 경성(서울)에 있던 중앙고등보통학교를 수료하고 중등학교로 전입했으며 1924년에 졸업하였다. 같은 해 일본 와세다대학 영어영문학과에 입학하고 1928년에 졸업하였다. 1933년에 중등학교 영어교사로 부임하였다. 1941년 학생들에게 민족의식을 고취시켰다는 이유로 3년 8개월간 옥고를 치르기도 하였다. 광복 이후에는 미군정청에서 근무했으며, 이승만 정부 초창기에 공보비서관을 역임하기도 하였다.

그가 성북동에 머문 것은 1961~1966년, 5년 동안이다. 특히 1965년은 전환점이 되었던 해였다. 1956년 5월부터 동료 문인들과 함께 시작한 월간지 《자유문학》은 재정난을 이기지 못하고 1964년에 폐간되었다. 그에게 ‘한국 현대문학의 건설자’라는 칭호를 안겨준 《자유문학》의 폐간은 큰 상실



김광섭 집터 알림판(왼쪽)
김광섭 집터 주변(오른쪽)



잠을 안겨줬고 결국 1965년 4월 김광섭은 동대문야구장에서 야구를 관람하던 중 뇌출혈로 쓰러졌다. 다행히 죽을 고비를 넘긴 김광섭은 회복하며 활발한 창작활동을 이어갔다. <봄>, <생의 감각>, <성북동 비둘기>, <산> 등 그의 네 번째 시집 《성북동 비둘기》에 실린 그의 대표적인 시들은 모두 죽을 고비를 넘긴 후에 나온 작품들이다. 1966년 미아동으로 이사하면서 김광섭의 성북동 시절은 막을 내렸다. 친구 김중업이 설계한 집이 있던 성북동 168-34번지에는 지금 빌라가 들어서 있다.

(2) 염상섭

염상섭 廉尙燮(1897~1963)은 한국 근대 사실주의 소설의 대표자이다. 호는 횡보 橫步인데 늘상 술을 많이 마시고 게걸음으로 다녔기 때문에 붙었다는 설과 기이한 활동을 많이 해서 붙은 설 두 가지가 전한다.

서울에서 태어났으며, 보성소학교와 보성고등보통학교를 다녔다. 일본



종로 교보문고
입구에 세워진
염상섭 동상

으로 유학하여 게이오대학 사학과에 진학했지만 병으로 자퇴하였다. 귀국 후에는 동아일보 기자로 활동했으며, 만주에서 사업을 벌이기도 하였다. 광복 후에는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하였고, 1954년에는 예술원 회원이 되었으며, 같은 해 서라벌예술대학 학장으로 취임하였다.

1920년 《폐허》의 동인으로 참여하며 문학 활동을 시작하였다. 1921년 발표한 〈표본실의 청개구리〉는 한국의 첫 자연주의 소설로 평가받고 있다. 1922년 《신생활》에 연재하였던 소설 〈묘지〉가 검열에 의해 삭제당하고 이로 인해 《신생활》마저 폐간되자, 1924년 《시대일보》에서 〈만세전〉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연재를 하였다. 1931년에는 장편 〈삼대〉를 《조선일보》에 연재하였다.

1962년 성북동으로 이사하였다.⁶⁶ 이때 《사상계》에 〈황보문단회상기〉를 연재하였으나, 이듬해 3월 직장암으로 성북동 자택에서 작고하였다.

⁶⁶ 송지영·심지혜, 《성북, 100인을 만나다》, 성북구청, 2015, 9쪽.

(3) 이태준

이태준(李泰峻(1904~1974))은 한국의 모파상으로 불렸던 일제강점기 대표적인 소설가이다. 1933년 성북동에 수연산방(壽硯山房)을 짓고 이사를 오면서 성북동과 인연을 맺었다. 같은 해 모더니즘 문학단체 구인회(九人會) 활동을 시작하였다. 그가 가장 활발한 집필 활동을 한 것도 성북동에 머물던 시절이었다.

이태준 소설연보

연도	작품명	개수
1925	《오몽녀》	1
1929	《모던걸의 만찬》 《행복》 《그림자》 《온실화초》 《누이》 《엇던날의 뽀-토벤》	6
1930	《백과전서의 신의의》 《기생 산월이》 《은회부처》 《어떤날 새벽》	4
1931	《구원의 여상》 《결혼의 악마성》 《고향》 《불도나지 안었소, 도적도나지 안었소, 아무일도 업소》	4
1932	《봄》 《불우선생》 《천사의 분노》 《실락원 이야기》 《서글픈 이야기》 《코스모스 이야기》	6
1933	《슬픈 승리자》 《꽃나무는 심어놓고》 《범은 그러치만》 《미여기》 《제 2의 운명》 《아담의 후예》 《어떤 젊은 어미》 《코가 복숭아처럼 붉은 여자》 《마부와 교수》 《달밤》	10
1934	《어머니》 《박물장사 늙은이》 《빙점하의 우울》 《촌뜨기》 《불멸의 함성》 《점경》 《어둠》	7
1935	《애욕의 금렵구》 《성모》 《색시》 《손거부》 《순정》	5
1936	《삼월》 《가마귀》 《산 사람들》 《황진이》 《바다》 《장마》 《철로》	7
1937	《복덕방》 《코스모스 피는 정원》 《사막의 화원》 《화관》	4
1938	《패강냉》	1
1939	《영월영감》 《딸삼형제》 《아련》 《농군》	4
1940	《청춘무성》 《밤길》	2
1941	《토끼 이야기》 《사상의 월야》	2
1942	《별은 창마다》 《행복예의 흰손들》 《사냥》 《무연》 《석양》 《왕자호동》	6

연도	작품명	개수
1943	《석교》 《뒷방마님》	2
1945	《즐거운 기억》	1
1946	《너》 《해방전후》 《불사조》	3
1948	《첫전투》	1
1949	《아버지의 모시옷》 《호랑이 할머니》 《삼팔선 어느지구에서》	3
1952	《백배천배로》 《누가 굴복하는가 보자》 《미국 대사관》 《고귀한 사람들》 《네거리엔 선 전신주》 《고향길》 《먼지》 《두죽음》	8

앞의 표에서 보는 것처럼 그는 성북동에서 〈아담의 후예〉, 〈달밤〉, 〈어머니〉, 〈색시〉, 〈손거부〉, 〈장마〉, 〈토끼 이야기〉, 〈가마귀〉, 〈황진이〉, 〈밤길〉 등 그의 많은 대표작을 집필하였다. 뿐만 아니라 〈달밤〉, 〈손거부〉, 〈장마〉, 〈토끼이야기〉 등 많은 작품에서 성북동을 소재로 삼기도 하였다. 소설뿐 아니라 성북동을 소재로 한 수필도 많이 썼다. 그의 수필집 《무서록》에는 〈성城〉, 〈목수들〉 등 성북동과 집을 소재로 한 소설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이태준의 성북동 집,
수연산방

구인회 회원 등 문인들과의 교류도 활발하였다. 《덕수교회 60년사》에는 수연산방 맞은편 언덕에 있던 이종석李鍾奭 별장에서 이효석李孝石(1907~1942), 정지용鄭芝溶(1902~1950), 이은상李殷相(1903~1982) 등과 같이 어울렸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⁶⁷ 1945년 이태준의 제안으로 손재형孫在馨(1903~1981)이 그린 〈승설암도勝雪庵圖〉에는 이태준, 김환기金煥基(1913~1974), 손재형, 조중현趙重顯(1917~1982) 등이 모임을 가졌음을 보여준다. 기록되지 않은 만남은 더욱 잦았을 것이다.

이태준은 1935년 작품 활동에 전념한다는 이유로 입사 5년 만에 조선중앙일보사를 그만두었는데, 1936년에 7편의 작품을 발간한 것은 그 영향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1946년에는 《해방전후》로 제1회 해방문학상을 받았다. 그는 1946년 7~8월경에 월북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로써 성북동과의 인연은 끝이 났다.

하지만 1947년에는 소련 여행을 담은 《소련기행》이 대한민국 출판사인 백양당白楊堂에서 출판되기도 하였다. 1948년 이후 국가학위수여위원회 문학분과 심사위원, 북조선문학예술총동맹 부위원장 등을 맡으며 승승장구했지만, 1956년 숙청당한 후 본래의 위상을 되찾지 못하고 1974년 향년 71세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다.

(4) 조지훈

조지훈趙芝薰(1920~1968)은 대한민국의 문학가이자 교육가이다. 경상북도 영양 주실마을 출신이며, 혜화전문학교(현 동국대학교 전신)를 졸업하였다. 1939년 《문장》에 〈고풍의상〉 등이 실리면서 등단하였다. 당시 《문장》에서 시 부분은 정지용이 추천했으므로 그의 시 역시 정지용의 추천으로 보인다. 이후 널리 알려진 〈승무〉 등을 발표하였다.

그가 성북동과 인연을 맺은 것은 아버지 조헌영趙憲泳(1900~1988) 때문이었

⁶⁷ 덕수교회 60년사 편찬위원회, 《덕수교회 60년사》, 대한예수교 장로회 덕수교회, 2008, 246쪽.



조지훈 집터 근처의
대로변에 조성된
방우산장

다. 조지훈은 1937년 한용운이 심우장에서 독립운동가 김동삼의 장례를 치를 때 부친 조헌영과 함께 장례를 도운 경험이 있었다. 당시 그는 성균관 근처에 살았는데, 이후 1943년 아버지와 함께 성북동으로 이사를 왔다. 1950년 6·25전쟁 당시 아버지 조헌영은 납북되었으며, 할아버지 조인석(趙寅錫(1879~1950)) 역시 좌익 청년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자살하였다. 조지훈이 평생 보수주의적, 반공주의적 성격을 지녔던 것을 보면 이때의 경험이 크게 작용했던 것 같다. 성북동 집은 본인이 죽을 때까지 아버지 명의로 두었다.

광복 직후에는 정지용의 제의로 박두진·박목월과 함께 시집을 발표하였다. 이 시집이 그 유명한 《청록집》으로, 이후 이들 세 명은 ‘청록파 시인’으로 불리기도 했다. 시집의 원고를 다듬은 곳이 성북동 조지훈의 집이다. 1956년 자유문학상을 받았다. 이승만 정부에서는 정치권을 꾸짖은 〈지조론〉 등의 글을 쓰기도 하였으며, 4·19 혁명 때도 학생들을 지지하였다. 그의 수필은 《방우산장기(放牛山莊記)》에 정리되어 있다. 1968년 지병으로 사망하

였다.

2014년 3월 성북구는 조지훈 시인이 성북동에 머물던 집터 인근 도로변(성북동 142-1 일대)에 조지훈 시인이 아끼던 시 〈낙화〉를 새긴 건축 조형물 ‘방우산장放牛山莊’을 조성하였다. 성북동 초입에 조성된 방우산장은 성북동 문화예술탐방로의 출발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5) 한용운

한용운 韓龍雲(1879~1944)은 승려이며, 독립지사이자 문학가이다. 1879년(고종 16) 8월 29일 충청남도 홍성에서 아버지 한응준 韓應俊과 어머니 온양 방씨 溫陽 方氏 사이에서 둘째로 태어났다. 아명 兒名은 유천 裕天이고 자는 정옥 貞玉이다.

성북동과 인연을 맺은 것은 심우장 尋牛莊을 짓고 이사를 온 1933년 10월부터이다. 한용운은 이곳에서 부인 유숙원과 결혼 생활을 하면서 1934년 딸 영숙을 낳았다. 또 이곳에서 《흑풍 黑風》(1935, 조선일보), 《후회 後悔》(1936, 조선중앙일보), 《박명 薄命》(1938, 조선일보) 등 장편소설을 신문에 연재하며



만해공원에 세워진
한용운 동상

문학 활동을 이어갔다. 독립운동과 관련한 활동도 계속하였다. 1936년에는 단재(丹齋) 신채호(申采浩(1880~1936))의 묘비를 제작하였으며, 1937년 3월에는 서대문형무소에서 옥사한 일송(一松) 김동삼(金東三(1878~1937))의 장례를 심우장에서 치르기도 하였다. 불교와 관련한 사업도 추진하였다. 1937년 3월 폐간되었던 잡지 《불교》를 《신불교》로 속간하였으며, 그곳에 꾸준히 논설 등의 글을 실었다. 이곳에서 오세창(吳世昌(1864~1953)), 홍명희(洪命憲(1888~1968)) 등 당대 명사들과 교류하던 한용운은 1944년 6월 29일 중풍 후유증 등으로 인해 심우장에서 입적하였다.

2) 음악가

(1) 윤이상

윤이상(尹伊桑(1917~1995))은 첼로 연주자이자 세계적인 작곡가이다. 태어난 곳은 경상남도 산청이며, 통영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1935년 일본 오사카 음대에서 본격적으로 음악을 공부하였으며, 1937년 통영으로 돌아와 《목동의 노래》라는 동요집을 냈다. 1939년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 음악 공부를 했지만 1941년 일본이 태평양전쟁을 일으키자 귀국하였다. 조선 가곡 악보를 갖고 있다는 혐의로 1944년에 두 달 동안 옥살이를 하기도 하였다. 광복 후에는 통영에서 통영 출신 예술인들과 통영문화협회를 만들어 활동하였다. 1948년 부산사범학교로 이직하였다. 이때 일본에서 귀국하는 고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부산에서 시립고아원 소장으로 재직하기도 하였다.

윤이상이 성북동과 인연을 맺은 것은 6·25전쟁이 끝난 직후였다. 1953년 휴전이 되자 윤이상은 가족들과 함께 성북동 128-13번지의 작은 한옥으로 이주하였다. 1955년 4월에는 〈현악4중주 1번〉과 〈피아노 트리오〉로 제5회 서울시 문화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성북동은 그의 창작활동 장소였으



며, 한국에서의 마지막 생활 터전이었다. 윤이상은 주변 예술가와의 활발하게 교류했던 것으로 보인다. 고려대학교 교가는 윤이상이 작곡하고, 그가 살던 곳 바로 건너편에 거주했던 조지훈이 작사한 작품이다.

1956년 파리로 건너갔던 그는 이듬해 독일로 가서 라인하르트 슈바르츠쉴링 [Reinhard Schwarz-Schilling](#), 보리스 블라허 [Boris Blacher](#), 요세프 루퍼 [Josef Rufer](#) 등에 음악을 배웠으며, 1964년에 서베를린에 정착하였다. 그가 동백림 [동柏林 East Berlin](#) 사건⁶⁸에 연루된 것은 1967년의 일이다. 앞서 1963년 윤이상은 고구려 고분벽화인 강서대묘 [江西大墓](#)의 사신도 [四神圖](#)를 보기 위해 방북한 적이 있었는데, 이것이 발미가 된 것이다. 이 사건으로 윤이상은 사형을 선고받았고, 옥 중에서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이에 이고르 스트라빈스키 [Igor Stravinsky](#),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 [Herbert von Karajan](#) 등 세계적인 음악가들이 한국정부에 탄원하기도 하였다. 결국 윤이상은 1969년 대통령 특사로 사면되었으며, 이후 독일로 돌아가서 1971년 독일 국적을 취득하였다. 그러나 죽을 때까지 다시

⁶⁸ 2006년 1월 26일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는 동백림 사건에 대해, 당시 중앙정보부가 윤이상·천상병 등 피의자들에게 간첩죄를 무리하게 적용한 것이라고 밝혔다(《노컷뉴스》 2006년 1월 26일).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1995년 베를린에서 세상을 떠났다.

윤이상이 작곡한 지 23년이 지난 2018년 2월 25일 그의 유해가 독일로부터 고향 경상남도 통영에 돌아왔다.⁶⁹ 이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7월 7~8일 독일 함부르크Hamburg에서의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 하였는데,⁷⁰ 이날 동행한 김정숙 여사가 베를린 가도우Gatow 공원묘지에 묻힌 윤이상의 묘소를 찾아 통영에서 가져온 동백나무 한 그루를 심으며 윤이상을 기념하였다. 이때 윤이상의 독일 내 제자들도 함께 있었는데, 1980년대 초 윤이상으로부터 작곡을 배운 홀거 그로쇼프Holger Groschopp는 자기의 음악 세계 전반에 영향을 준 인물이 윤이상이라면서, 그에 대해 한국 내에서 정치적 논란이 있지만, 그의 음악은 음악대로 평가해 주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⁷¹

(2) 채동선

채동선蔡東鮮(1901~1953)은 작곡가이며 바이올린 연주자이다. 전라남도 보성의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다. 3·1운동에 참여하기도 했으며, 일본 와세다 대학 영문과에 진학하였다. 이후 독일 베를린으로 유학하여, 슈테른 음악 학교의 리하르트 하르체Richard Harchet에게서 바이올린을, 빌헬름 클라테Wilhelm Klatte에게서 작곡을 배웠다. 1929년에 귀국하였으며, 1939년까지 4회의 독주회를 열었다. 홍난파가 쓴 그의 귀국 독주회에 관한 글을 보면 채동선은 상당한 실력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가 성북동 183-17번지에 자리 잡은 것은 1931년의 일이다. 정지용의 시 〈고향〉, 〈망향〉, 〈그리워〉 등 8편에 곡을 붙인 가곡을 작곡하며, 서양 음

⁶⁹ 《서울신문》 2018년 2월 25일.

⁷⁰ 《연합뉴스》 2017년 7월 4일.

⁷¹ 《경향신문》 2017년 7월 6일.

악의 토착화에 대한 노력을 이어갔다. 1930년대 후반 그의 스승인 홍난파까지도 일본군을 찬양하는 곡을 발표하지만, 그는 작곡을 그만두고 수유동을 오가며 농사를 지었다. 창씨개명 역시 끝까지 거부하였다. 한국의 국악과 민요를 악보의 옮기는 ‘채보’ 작업도 진행하였다. 〈판소리 춘향가〉, 〈새야 새야 파랑새야〉, 전라도 민요 〈육자배기〉 등은 그의 손을 통해 악보로 남게 되었다.

6·25전쟁 당시 피난을 가며 악보들을 성북동 자택 지하에 묻었는데, 이 악보들은 10년 후 부인 이소란 여사가 다시 찾아 세상에 공개하였다. 피난 후 부산에서 머물렀는데, 이때 잠시 윤이상과 만났다고 한다. 1953년 채동선은 부산에서 영양실조와 늑막염 등으로 인해 딸이 지켜보는 가운데 사망하였다.

성북구에서는 2017년 6월 16일 채동선 탄생 117주년을 기념하는 기념행사(성북동 183-7번지에 살던 밀짚모자를 쓴 작곡가, 채동선을 만나다)를 한성대



채동선이 살던 성북동 집

입구역 2번 출구 분수마루 광장에서 개최한 바 있다.

3) 미술가

(1) 김용준

김용준(金瑬俊(1904~1967))은 화가이자, 미술평론가이며, 수필가이다. 경상북도 선산에서 태어났다. 중앙고등보통학교를 나왔으며, 1924년 조선미술박람회에서 <건설이나? 파괴나?>로 입선하며 등단하였다. 1926년 일본으로 유학을 갈 때 이태준을 만났다. 1928년 귀국하여 길진섭 등과 목일회 활동을 하였으며, 미술에 대한 평론 작업도 하였다. 1946년 국립서울대학교가 만들어지면서 예술대학 미술학부 교수가 되었다. 미술학부 학제의 기반을 마련하였으나 '국립서울종합대학안' 반대 시위가 일어나자 서울대학교 교수직을 사임하고 동국대학교로 직장을 옮겼다.



김용준의 노시산방이
있던 곳으로 추정되는 집

김용준이 성북동으로 이사를 온 것은 1934년의 일이다. 그가 이곳으로 이사를 온 데에는 이태준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짐작되지만 확실한 기록은 없다. 다만 그의 집 당호堂號인 ‘노시산방老柿山房(늙은 감나무가 있는 집)’은 이태준이 지어준 이름이다. 그는 성북동에 거주하며 이태준과 활발하게 교류하였다. 이태준 책의 장정裝幀뿐만 아니라, 김연만과 이태준, 정지용, 이병기 등이 중심이 되어 발간한 잡지 《문장》의 장정을 맡기도 하였다. 또한 수필과 미술 평론을 《문장》에 실기도 하였는데, 특히 이때 썼던 수필은 1948년 그의 호를 딴 《근원수필》로 출간되었다. 1944년 화가 김환기에게 노시산방을 넘기고 의정부 쪽으로 이사를 하였다. 1949년에는 《조선미술대요》를 출간하여 한국미술사를 정리하는 업적을 남겼다. 1950년 6·25전쟁 때 월북하며, 북한에서도 평양미술대학 강좌장을 역임하였다. 그의 말년 행적은 남아 있지 않으나 러시아 국적의 한인 화가 변월룡邊月龍(1916~1990) 등에게 보낸 편지 등이 남아 있다. 1967년 사망하였다. 자살했다는 설 등이 있지만 정확하지는 않다.

(2) 김환기

김환기金煥基(1913~1974)는 한국 추상미술의 선구자이다. 1913년 전라남도 신안군에서 부유한 지주의 아들로 태어났다. 1927년 상경하여 중동중학교를 다녔으며 1933년 일본으로 유학하였다. 1937년에 귀국하였는데, 이때 사실주의 화풍에 매료되어 ‘신사실파新寫實派’를 조직하고 활동하였다.

그가 성북동에 온 것은 1944년이다. 그는 ‘노시산방’을 김용준으로부터 물려받았는데, 김용준은 김환기의 호 수화樹話에서 ‘수’를, 부인 김향안金鄉岸의 이름에서 ‘향’을 따서 ‘수향산방’이란 이름을 지어주었다.

1946년에서 1949년까지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1952년에서 1956년까지는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교수를 역임하였다. 김환기는 향아리, 달, 별, 학,



환기미술관 전경

구름 등 문학적이고 음악적인 것들을 주제로 삼았다. 그의 작품 세계는 뉴욕 유학 이전과 이후로 변화가 뚜렷하다. 그는 1963년 상파울로 비엔날레에 한국 대표로 참여하여 명예상을 수상한 뒤 바로 뉴욕으로 가는데, 이전의 시기가 앞서 말한 소재들을 추상화한 것이라면, 이후부터는 절대적 추상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 뉴욕 시기의 대표작은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인데, 이는 김광석의 시 <저녁에>에서 영감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3) 변중하

화가 변중하(卞鍾下(1926~2000))는 경상북도 대구에서 변해옥의 3남으로 태어났다. 대구의 계성중학교와 신정미술학교에서 공부하였다. 성북동과 인연을 맺은 것은 생애 후반기인 1980년대의 일이다. 1982년 준공된 그의 집은 1985년에 증축되었으며 1993년 미술관으로 용도를 변경하였다. 1987년 뇌



석은 변종하 기념미술관

경색으로 쓰러진 뒤에도 작품 활동을 이어갔으며, 2000년 7월 29일 사망하였다.

대표작으로는 〈우화〉, 〈어떤 탄생〉, 〈감자꽃과 태초의 새〉, 〈새 두 마리〉가 있으며, 1970년대 〈돈키호테〉와 〈돈키호테 이후〉라는 제목의 연작을 발표하였고, 1970년대 후반에는 별과 나무, 달, 새 등 자연을 주제로 한 〈서정적 풍경〉 시리즈가 있다.

4) 독립운동가

(1) 문석준

문석준 文錫俊(1894~1944)은 독립운동가이자 교육가이다. 함경남도 함주 출신으로 1924년 일본으로 유학하여 동경고등사범학교에서 수학하였다. 1925년

동경유학생학우회(東京留學生學友會) 편집부 위원으로 선출되었고, 1927년과 1928년 재외함흥유학생학우회(在外咸興留學生學友會)에서 주최한 강연회에서 연설을 하였다. 1928년 귀국하여 보성고등보통학교 교사로 활동하였는데, 성북동에 머문 것은 바로 이 시기이다. 신간회 경성지회에서 활동하였으며, 1931년 조선공산당 재건사건으로 체포되어 2년간 옥고를 치렀다. 1933년부터 1937년까지는 조선일보사 영업국장을 역임하기도 하였다. 이후 함흥에서 활동하였다. 1943년 조선이 곧 독립될 것이라는 ‘미국의 소리’ 방송 내용을 전달하였다가 ‘조언비어(造言卑語)’ 유죄로 체포되어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르던 중 1944년 1월 22일 협심증 등으로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이튿날 사망하였다. 2017년 8월 15일 독립운동의 공적이 인정되어 건국훈장 애국장이 추서되었다.

(2) 서광훈

서광훈(徐光勳(1903~?))은 독립운동가이다. 성북로10길 7-12(성북동 173)에서 살았다. 1922년부터 성북구 지역 최초의 학교인 성북동 삼산학교의 교사를 역임하였으며, 1925년에는 성북구락부 총무를 맡았다. 1925년 이후 서광훈은 성북동을 떠나지만 성북구락부와 관계는 계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서광훈은 성북동 이외에서도 사회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하였다. 1924년에는 백정(白丁)들의 신분 해방과 처우 개선을 추구한 단체인 형평사(衡平社)의 서기를, 1926년에는 집행위원장을 역임하였다. 한양청년연맹 집행위원 정위단(正衛團) 총무로도 활동하였으며, 북풍회(일본에서 한국인들이 결성한 사회주의 단체 북성회(北星會)의 국내 지부)와 신흥청년회 등에도 참여하였다. 1927년 고려혁명단 사건으로 체포되었으나, 이듬해 무죄로 석방되었다. 1933년 형평사 내에 공산주의적 전위동맹을 설립한 혐의로 전라도 광주에서 체포된 그는 1936년 다시 무죄로 석방되었다. 이후의 행적은 알려져 있지 않다.

(3) 유진희

유진희(俞鎭熙(1893~1949))는 독립운동가이자 의사이다. 경성의학전문학교를 졸업하고 성북정(城北町)에서 병원을 운영하였다. 1921년 3월 13일 조선노동공제회에 가입하여 활동하였고, 이듬해에는 '신생활사' 잡지 기자로 러시아 혁명 5주년 기념 기사 등을 인쇄·배포하다가 체포되어 1년 6개월을 복역하였다. 1925년에는 고려공산당 중앙집행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민족단일당을 표방한 신간회 활동에도 참여하였지만, 다시 체포되어 4년 형을 받았다. 광복 후에는 남조선과도입법의원(南朝鮮過渡立法議院) 관선의원(官選議員)으로 활약하였다. 1992년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되었다.

(4) 이완기

이완기(李完基(1924~1942))는 독립운동가이다. 성북로 53-2(성북동 133-60)에서 거주하였다. 1940년부터 성북동 일대와 다니던 중등학교 등에서 일본의 패전과 조선의 독립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다녔으며, 수업시간에 군사조련과 지원병 제도 등을 반대하는 발언과 행동을 하였다. 결국 같은 해 10월 민족의식 고취를 이유로 체포되었으며, 2년간의 옥고를 치르던 중 1942년 5월 23일 사망하였다. 2017년 8월 15일 건국훈장 애국장이 추서되었다.

(5) 최용덕

최용덕(崔用德(1898~1969))은 독립운동가이자 정치인이며 군인이다. 1898년 성북로 148-5(성북동 265)에서 태어났다. 1916년 북경에 중국군관학교를 졸업하고 중국 육군으로 활동하였다. 1922년부터 1940년까지 중국 공군에서 활약하였는데, 이것은 훗날 대한민국 공군 창설의 밑거름이 되었다.

1922년부터는 의열단에 참여하였으며, 김상옥 의사를 지원하는 등 의열투쟁을 지원하였다. 1932년에는 조선혁명당 중앙위원이 되었으며, 1940

년 한국광복군이 창설되자 총사령부 총무처장에 임명되었다. 광복 후에는 김정렬·장덕창·박범집 등과 함께 군 항공부대 창설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동시에 초대 국방부차관에 임명되었다. 공군이 육군으로부터 독립한 다음해인 1950년 5월 공군 준장으로 승진됨과 동시에 공군에 복귀하여 공군사관학교 교장으로 임명되었다.

그 뒤 김포지구 경비사령관, 공군근무부대장, 공군후방사령관, 항공기지사령관, 공군본부 작전참모부장을 거쳐 1952년 제2대 공군참모총장(공군 중장)에 취임하였다. 1962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수여받았다.

5) 기타

(1) 전형필⁷²

간송 澗松 전형필 全鏐弼(1906~1962)은 전영기 全泳基(1865~1929)와 밀양 박씨(1862~1943) 사이에서 2남 4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 어머니는 월탄 月灘 박종화 朴鍾和(1900~1981)의 고모이다. 증조부 전계훈 全啓勳(1812~1890)은 배오개 상권을 거의 장악하여 그 이득으로 각처의 농지를 구입해 수만 석 추수를 받는 대지주였다. 전형필은 태어나자마자 숙부인 전명기 全命基(1870~1919)의 양자로 들어갔다.

전형필은 1917년 효제초등학교 전신인 어의동공립보통학교에 입학하였다. 14세이던 1919년 10월 양부 전명기가 별세하자 그 후사를 이었고, 또 같은 해 11월 간송의 유일한 친형이자 본집 계승자인 전형설 全鏐尙(1892~1919)마저 후사를 두지 못한 상태에서 사망하였다. 자 전형필은 본집과 양부 집의 유일한 계승자가 되었다.

전형필은 첫 번째 부인이 1922년 사망하자 이듬해 김창섭 金昌燮의 딸과 재혼하였는데, 그녀는 이후 보성중고등학교 재단 이사장직을 26년 동안 역임

⁷² 간송미술문화재단 홈페이지(<http://kansong.org>) ; <전형필>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 김점순(金點順)(1905~1988)이었다.

전형필은 1925년 휘문고등보통학교(휘문고보)를 졸업하고 일본으로 유학을 떠나 와세다대학 법과에 입학하였다. 그는 방학 때 귀국하면 민족 문화를 지키기 위해 뜻있는 선배나 스승들을 찾아다니며 자문을 구하였다. 그는 휘문고보 시절 미술교사였던 고희동(高義東)(1886~1965)을 통해 오세창(吳世昌)(1864~1953)을 만나 그의 문하생으로서 고증학을 익히고 서화·골동의 감식안을 키웠다.

친형에게 양자로 보내졌던 전형필의 장자 전광우가 1928년 요절하고, 전형필의 생부 전영기 역시 이듬해 별세하자, 25세의 전형필은 생가와 양가의 유일한 적손으로 남아 두 집안의 모든 재산을 상속받음으로써 10만 석 지주가 되었다. 그는 주변의 유혹을 뿌리치며 계속 오세창 문하에 출입하며 민족 문화재 수집에 몰두하였다.

1934년 전형필은 문화재를 수장할 건물을 세우기 위해 고양군 송인면 성북리(城北里)에 만여 평 땅을 구입하였다.⁷³ 이에 오세창은 그곳이 선잠단(先蠶壇) 옛터 부근인 점에 착안하여 북단장(北壇莊)이란 이름을 지어주었다. 북단장이 건립되자 전형필은 일본인이 가져간 석불, 석탑, 부도, 석등 등 규모가 큰 석조물들을 되찾아 오기 시작하였다. 또 1937년 중일전쟁이 발발하자 일본에 거주하며 최고급 고려청자만 수집하였던 존 개스비(John Gadsby)의 수장품을 넘겨받아 전형필의 우리 문화재 수장은 그동안 착실하게 수집해 온 서화·전적과 더불어 당대 제일이 되었다.

이후 일제의 한민족 말살정책이 더욱 기승을 부리자 전형필은 이에 맞설 계획을 세웠다. 북단장 안에 박물관을 세워 수집한 우리 문화재를 보관·전시하며, 연구를 통해 우리 문화의 단절을 막고 민족적 자긍심을 심어주자는

⁷³ 플레장이란 프랑스 출신 석유상이 19세기 말에 서울에 와서 석유를 팔아 번 돈으로 프랑스식 양관(洋館)을 짓고 살던 터이다.



보화각의 후신
간송미술관(왼쪽),
간송미술관 경내에 있는
문경 오층석탑(오른쪽)

것이었는데, 그것이 바로 간송미술관의 전신인 보화각(葆華閣)이었다. 보화각은 한국 최초의 사립 박물관으로 박길룡(朴吉龍)(1898~1943)이 설계하였고 1938년 윤7월 상량식을 거행하였다.

1940년부터는 한남서림(翰南書林)을 후원·경영하면서 문화사 연구에 필요한 전적을 수집하여 한적(漢籍) 1만 권의 장서를 이루었다. 인재 양성에도 노력하여 1940년 재단법인 동성학원(東成學園)을 설립하고 보성고등보통학교를 인수하였다.

광복 후 1945년 10월부터 1년간 보성중학교 교장을 역임하였다. 6·25전쟁이 터지자 전형필은 추사, 겸재, 단원, 혜원 등의 작품과 고려청자, 조선백자 등의 문화재만 수습해 피난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이에 보화각에 남겨진 문화재들은 참화를 면치 못하였다.

1954년 문화재보존위원회 제1분과위원에 선출되기도 했지만 그는 공직에 나가는 것을 피하였다. 다만 1960년 김상기(金庠基)·김원룡(金元龍)·진홍섭(秦弘)



서울 방학동 전형필 가옥

문화재 지정 이후 새롭게 단장하였다.

雙·최순우崔淳雨·황수영黃壽永 등과 같이 고고미술동인회를 조직하고 운영의 핵심을 담당하면서 10여 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1962년 1월 전형필이 타계하자 그해 8월 15일 대한민국문화포장이 추서되었다. 1964년에는 대한민국문화훈장 국민장이, 2014년에는 대한민국 금관문화훈장이 추서되었다. 한편 그의 자제와 동학들이 북단장에 한국민족미술연구소를 설립하고 그가 마련해 놓은 연구자료를 토대로 미술사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하면서 그의 유지를 계승하고 있으며, 보화각은 간송미술관으로 개칭되어 2018년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도봉구 시루봉로 149-18(방학동 431)에 있는 전형필이 가끔 머물던 가옥은 2012년 12월 등록문화재 제521호로 지정되었다.

(2) 조현영

조현영(趙憲泳(1901~1988))은 정치인이자 한의학자이다. 제헌 국회의원과 2대 국회의원을 역임하였으며, 동양의약사(東洋醫藥社)를 개설하여 한국 한의학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1901년 경상북도 영양 주실마을에서 태어났다. 대구보통학교와 대구고등보통학교를 나왔으며, 일본으로 유학하여 와세다대학에서 영문학을 전공하였다. 신간회 동경지부장을 역임하였으며, 귀국 후에는 신간회 중앙검사위원회 상무위원을 맡는 등 독립운동에 참여하였다.

그가 성북동과 인연을 맺은 것은 1930년대 후반의 일이다. 당시 명륜동에 살던 그는 아들 조지훈과 함께 한용운이 살던 심우장에 드나들며 교류하였다. 조현영은 1937년 심우장에서 치러진 독립운동가 김동삼의 장례를 돕기도 하였다. 1950년 6·25전쟁 때 납북되었다. 북한에서는 1956년 7월 재북 평화통일촉진협의회 집행위원을, 1980년 7월에는 서기장을 맡았다. 1988년 5월 23일 평양에서 사망하였다.

(3) 최두선

최두선(崔斗善(1894~1974))은 독립운동가이자 언론인, 정치가이다. 성북로10가길 28(성북동 177-30)에 살았다. 육당 최남선의 동생이다. 1919년 중앙중학교 교장을 역임하였으며, 경성방직에서 사장을 맡기도 하였다. 1921년 조선어연구회 발족에 참여하였으며, 1927년에는 중앙고등보통학교 교장, 1933년에는 보성전문학교 상무이사를 역임하였다. 1938년 홍업구락부 사건으로 안재홍 등과 함께 체포되었다. 광복 후에도 정치활동을 이어갔으며, 박정희 정부에서 첫 번째 국무총리를 역임하기도 하였다. 1947년부터 1963년까지 오랫동안 동아일보사 사장으로 재직하였다. 1971년에 대한적십자사 총재가 되었고, 1972년에는 남북적십자회담을 성사시키기도 하였다.



역사적 사건 및 주요 행사·축제

1) 역사적 사건

(1) 선잠제

조선시대 왕비는 내외명부의 부인들을 거느리고 잠실^{蠶室}에 가서 뽕잎을 따는 의식인 친잠^{親蠶}을 행하곤 하였는데, 친잠례^{親蠶禮}에 앞서 거행하는 제사가 선잠제였다. 선잠제는 국가 제사로서, 사마천^{司馬遷}이 지은 《사기^{史記}》의 기록에 따라 인간에게 처음으로 양잠을 가르쳤다고 하는 서릉씨^{西陵氏}를 기리는 제사이다.

조선시대에는 왕이 친경^{親耕}을 통하여 농경^{農耕}에 모범을 보이고 종묘의 제수를 마련한다면, 왕비는 친잠을 통해 잠업에 시범을 보이고 제사에 사용될 제수^{祭需}를 마련한다는 명분으로 친잠례를 거행하였는데, 여기에는 백성들에게 농상^{農桑}을 강조하려는 의도가 내포되고 있었다. 농경과 잠업이 조선 시대의 최대의 산업이자 부업이라는 현실이 강조된 것이다.

선잠제는 중국 고대의 예서^{禮書}인 《예기^{禮記}》에 나오고, 사마천의 《사기》에는 중국 전한^{前漢} 경제^{景帝} 2년 곧 기원전 155년에 처음 시행된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한국에서도 《고려사》에는 국가제사의 중사^{中祀}에 포함되었



선잠제향

고, 선잠제에 대한 구체적인 의식이 실려 있다. 그러나 고려시대에는 왕비의 친잠 사례가 보이지 않으며, 조선시대에 들어와 1477년(성종 8) 처음으로 왕비가 창경궁 후원에 거둥하여 친잠례를 거행하였다. 《국조오례의》에서 선잠제는 국가제사 가운데 중사로 규정되어 국초부터 꾸준히 시행되었으며, 왕비의 친잠례는 8차례에 걸쳐 시행되었다.

고려시대 선잠단은 사방 2장에 높이가 5척 규모였다. 폐백은 흑색으로 길이는 1장 8척이며, 희생은 소·돼지가 각각 1마리라고 《고려사》에는 기록되어 있다. 헌관은 정3품의 태상경^{太常卿}과 종5품의 예부낭중^{禮部郎中}, 종7품의 태상박사^{太常博士}가 초헌·중헌·종헌을 각각 담당하였다.⁷⁴

조선시대 선잠에 대한 기록은 1400년(정종 2)에 처음 나타났다.⁷⁵ 그러다가 1401년(태종 1)에 선잠의 악장^{樂章}이 제작되었고,⁷⁶ 1411년(태종 11)에는 폐

⁷⁴ 《고려사》 권62, 예지14, 예4, 길례중사, 선잠.

⁷⁵ 《정종실록》 권3, 정종 2년 3월 4일(기사).

⁷⁶ 《태종실록》 권2, 태종 원년 12월 21일(을해).



백을 흑색으로 하되 길이는 1장 8척으로⁷⁷ 고려시대와 동일하게 하였다. 그러나 제단의 축조는 고려시대와 달랐다. 1413년(태종 13) 예조는 선잠단이 비록 축조되었지만 법식과 다르다고 지적하였다.⁷⁸ 이에 이를 수정하여 제단은 높이 3척, 주척으로 8보 4척이며, 사방으로 계단을 내도록 조정하였다.⁷⁹ 이후 태종 후반 언제 인지는 미상이지만 사방이 2장 3척, 높

이는 2척 7촌, 두 개의 담장을 두는 양유^{兩壇} 체제로 수정되었고, 이는 1430년(세종 12)에 재차 확인되었다.⁸⁰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세종실록》 오례를 거쳐서 《국조오례의》 단계에 이르렀다.

한편 친잠은 선잠제와 분리되어 있었다. 성종 때 처음 거행된 조선시대 왕비의 친잠 사례는 이후 1504년(연산군 10), 1513년(중종 8), 1529년(중종 24), 1572년(선조 5), 1620년(광해군 12), 1767년(영조 43)의 6차례로, 전체로는 8차례에 이르렀다.

그런데 신하들을 보내 선잠제를 시행한 이후 창덕궁 후원에서 이루어지는 왕비의 친잠은 그 날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국조오례의》에 선잠제 거행일이 '3월의 길한 사일^{巳日}'로 규정되어 있지만, 1620년(광해군 12) 사례를 제외하면 비록 3월에 거행되더라도 사일이라는 규정은 반드시 지켜지지는 않았다.

1529년(중종 24)과 1620년(광해군 12)에 친잠을 시행하는 당일 선잠제를

⁷⁷ 《태종실록》 권22, 태종 11년 8월 25일(갑인).

⁷⁸ 《태종실록》 권25, 태종 13년 6월 8일(을묘).

⁷⁹ 《태종실록》 권27, 태종 14년 6월 13일(갑인).

⁸⁰ 《세종실록》 권50, 세종 12년 12월 8일(갑술).

먼저 거행했지만 이때는 사일이 아니라 왕비의 친잠에 맞추어서 거행되었다. 반면 1767년(영조 43)에는 3월 10일(갑술)에 친잠이 시행되었는데, 선잠제를 위한 향축香祝 전담은 5일 전에 시행되어 결국 선잠제와 친잠은 4일 간격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같이 선잠제와 친잠이 다르게 시행된 것은 다음 기사와 같이 날씨가 추워서 아직 뽕잎이 피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조가 … 회계回啓하기를, “예문禮文에 ‘선잠제와 친잠을 아울러 한날에 거행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성종 계축년 친잠 때에는, 선잠제를 3월 16일에 거행하고 친잠은 21일에 거행했습니다. 생각컨대 반드시 뽕잎이 피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니, 이번에도 마땅히 이 예에 따라 3월 20일 뒤로 고쳐 택일하여 아뢰겠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⁸¹

예조는 예문에 따르자면 선잠제와 친잠을 한날에 시행해야 하지만, 친잠이 선잠제보다 늦어진 것은 친잠에 쓰이는 뽕잎의 피는 시기를 기다렸기 때문이라면서, 선잠제와 친잠을 행하는 날짜가 서로 다른 것은 불가피한 것이라고 파악하였다. 따라서 이후의 기록에서 양자의 시기는 가급적 맞추었지만 꼭 맞는 것은 아니었다.

1767년(영조 43)에 시행된 친잠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전에 시행된 것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하나는 과거에 시행된 것처럼 그 장소가 창덕궁의 후원이 아니라, 임진왜란 때 파괴된 조선의 법궁 경복궁이었다는 점이다. 임금은 경복궁 안에 설치된 2개의 단에서 선잠제와 친잠을 행하도록 하였고, 의식이 끝난 후 하례를 받는 장소를 근정전의 옛 터에 마련했던 것이다.⁸²

둘째로는 선잠과 친잠이 결합되었다는 사실이다. 원래는 궁궐 밖에 있

81 《중종실록》 권16, 중종 8년 2월 11일(경술).

82 《영조실록》 권108, 영조 43년 1월 20일(을유), 1월 24일(기축), 3월 10일(갑술).

던 선잠단⁸³의 제사에는 관리들을 보내 섭행하도록 하고⁸⁴ 왕비는 창덕궁에서 채상을 거행했는데,⁸⁵ 이때는 경복궁에 설치된 제단에서 선잠제를 거행한 후 채상단^{採桑壇}에서 친잠을 시행했던 것이다.⁸⁶ 영조는 이처럼 왕비로 하여금 직접 선잠과 친잠을 주관하게 하여 선잠과 친잠을 일치시킴으로써 의식을 더욱 규모 있게 하였다.⁸⁷

(2) 둔전 설치와 마전·훈조 권한 부여

1765년(영조 41) 영의정 홍봉한의 제안으로 정부에서는 현 성북동인 선잠단 주변의 밭을 둔전으로 삼고 어영청의 군사 일부를 살게 하였다. 이듬해에는 그곳에 정착한 주민들에게 포백과 훈조의 일을 주어 생계를 마련해 주었다. 포백은 포목을 삶아 별에 말려 하얗게 만드는 것으로 다른 말로는 ‘마전’이라 하였다. 훈조는 콩을 쪄서 메주를 만드는 일을 말한다. 조정은 이 노동의 값을 문서로 정하였다. 먼저 포백의 경우 매 동^同⁸⁸마다 무명은 4냥, 배는 6냥, 모시는 10냥의 노임을 주게 하였으며, 훈조의 경우 훈조막 1개소마다 술 2개씩을 걸고 일꾼 5명을 두어 교대하게 하였는데 콩 1석당 노임은 6전으로 계산하되 돈 대신 쌀 2말로 지급하였다. 이를 적어 둔 문서가 《성북동포백훈조계완문절목^{城北洞曝白燠造契完文節目}》이다. 서울역사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이 문서는 성북동 강운봉의 집에 보관해 둔 원본이 유실되자 1805년(순조 5)에 다시 만든 것이다.⁸⁹

⁸³ 《영조실록》 권105, 영조 41년 4월 17일(임술).

⁸⁴ 《현종실록》 권16, 현종 10년 3월 12일(을사).

⁸⁵ 《중종실록》 권65, 중종 24년 3월 27일(임술).

⁸⁶ 《영조실록》 권108, 영조 43년 1월 24일(기축).

⁸⁷ 한형주, 〈영조대의 친경과 친잠〉 《2014년도 장서각아카데미 왕실문화강좌》,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2014, 61쪽.

⁸⁸ 동은 포목 50필을 뜻하는 단위이다.

⁸⁹ 《성북동포백훈조계완문절목》의 원문과 번역문은 이 책 성북동의 말미에 부록으로 첨부하였다.

2) 주요 행사·축제

(1) 선잠제향

1993년 성북동 주민들은 스스로 ‘선잠제 보존위원회’를 만들고 선잠제향을 재현하는 행사를 진행하였으며, 이후 성북구청이 후원을 하고 있다. 성북구청에서부터 선잠단지까지 퍼레이드를 한 후 제사를 봉행하며, 주로 성북동 주민들이 참여하여 행사를 진행한다. 봉행일은 대체로 원래 봉행하던 ‘3월의 길한 사일’에 맞추려고 하지만, 보통은 5월에 열리는 다문화세계음식 축제와 함께 봉행된다. 현재까지 선잠제향 의례는 완벽하게 복원되지 못했는데, 완전한 복원을 위해서는 다양한 학술적 노력이 필요하다.

성북구에서는 이와 같은 선잠단과 선잠례의 역사적 가치를 알리고자 2017년 12월 성북로 96(성북동 66-21)에 성북선잠박물관을 준공하고 2018년 4월 개관하였다.

3개의 관으로 이루어진 박물관은 1관의 경우 선잠단의 옛 기록과 일

제강점기 훼손된 모습, 선잠단 복원 현장까지 선잠단에 대한 역사를 담고 있으며, 2관은 선잠제 거행 모습, 친잠례 모습을 모형으로 재현하였고, 선잠제의 진행과정을 3D 영상으로 표현하였으며, 3관은 개방형 수장고 및 특별전시실로 양잠·직조 등에 사용된 도구들을 직접 볼 수 있으며, 왕실 비단창고를 조성하여 금_錦, 사_紗, 라_羅, 단_緞 등 다양한 비단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제23회 선잠제향 포스터
(성북문화재단)



운영하고 있다. 성북선잠박물관은 성북동에 소재한 유일한 박물관이다.

(2) 성북동 다문화음식축제

성북동 다문화음식축제는 2008년부터 시작되어온 성북동의 대표적인

거리 축제이다. 성북구는 2003년부터 외교관과 외국 상공인을 위한 송년모임을 열었으며 이 자리에서 서로의 교류를 위해 다양한 의견들이 오고 갔다. 세계다문화음식축제는 여기에서 나온 여러 의견들 가운데 하나였다. 2008년 5월 20개국이 참여하여 처음 시작하였으며 이후 매년 열리고 있다. 2013년부터는 성북문화재단이 중



제10회 성북세계음식축제
(성북문화재단)

심이 되어 진행하고 있으며 성북구를 넘어 서울시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매년 5월 중 일요일에 개최된다.

(3) 월월축제

월월축제(성북동 북정성곽마을 축제)는 2009년에 성북동 북정마을에서 처음 시작하였다. 북정마을 사람들과 문화예술인 등이 함께 하는 축제로 계획되었다. ‘월월’이라는 축제 이름은 ‘담’을 뜻하는 영어 ‘wall’, ‘뛰어넘다’는 뜻의 한자 ‘월越’, 달을 의미하는 한자 ‘월月’ 등 여러 가지 글자로 풀이할 수 있다. 2009년 이래 계속되고 있으며, 성북동 북정마을의 축제 이름으로 자리 잡았다.

(4) 성북동 야행

성북구의 가장 큰 문화축제는 성북동 야행⁹⁰이다. 이 행사는 1박 2일로 진행된다. 성북동은 2013년 최초로 역사문화지구단위계획 지구로 지정되었다. 성북동 야행은 2017년 문화재청의 후원을 받아 개최하였다. 성북구에서 활동하는 젊은 예술가가 대거 참여해 성북동의 역사문화자원을 새로운 시각으로 해석한 공연, 전시, 체험프로그램으로 진행하였다. 성북동 야행은 총 8가지 주제를 바탕으로 하는데, 야경^{夜景(혜화문 밖에서 무엇을 보았는가)}, 야로^{夜路(거리 안의 삶)}, 야사^{夜史(밤에 듣는 역사 이야기)}, 야화^{夜畵(밤에 보는 그림)}, 야설^{夜說(성북 문화예술 공연)}, 야식^{夜食(도성 밖 1번 맛집)}, 야시^{夜市(성북동을 만지다)}, 야숙^{夜宿(저 별이 기억하는 집)}이 그것이다. 성북천 분수마루는 ‘성북동 야행’이 시작됨을 알리는 개막식이 진행되는 장소이다.⁹⁰

⁹⁰ 《동아일보》 2017년 5월 17일. 성북동 야행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성북동 야행 홈페이지(<https://www.sbnightrroad.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성북동포백훈조계완
문절목
(서울역사박물관)

《성북동포백훈조계완문절목》의 원문과 번역문

蓋朝家之置屯鎮何則 安不忘危 古不云乎 都城之北 卽主脉也 山岳峻疊閭閻隔絕 朝家以虛爲慮者久矣 歲在乙酉 鰲興府院君使道 與都提調洪政丞大監 博議廣詢後 字內原處 以設屯募民之意 筵中仰達 丙戌春 行次本洞 相地之宜 削高填低 修之葺之 設屯居民 鎮之實之 卽惠化門之左肅靖門之右也 大抵 本洞山高谷深 生計零落 地僻市遠 利路艱難 丁亥秋 朝家特軫居民之生計 木布苧三塵曝白之物 松苧並盡數 付之於本洞居民 以爲練熟 戊子冬 又設燾造幕 而自廟堂 發關於摠戎廳 鍊戎臺燾造幕所在熟手者一人 移付於本幕 使之教訓 使洞中居民 演學成就 以爲賴活之意 楊前定奪 踰乎高哉 兩相國閣下 統轄營門 爲國成就之道 方略保護之德並行 國有陰雨之備 民無柱玉之愁 神運籌劃 爲時保佑 於斯至矣 易曰 王公設險 以備不虞 書曰 能使斯民 如保赤子 然則設屯鎮以居民 豈偶然者哉 屯鎮者 國之保障 居民者 屯之根本 屯恃於民 民依於屯 互相保護 固非無一者 故朝家特軫保民之政 使斯民使之曝役燾業 補資生之路 其字恤之政 深且厚矣 廟堂文案 營門文蹟 次第連付 作成卷軸 置之於鍊戎臺移來人姜雲峯家矣 雲峯身死許多文蹟 隨而闕失 無處可推可勝痛哉 可勝惜哉 已失之物 勢無奈何 故今番 以此闕失之意 具由呈訴於使道前 伏蒙許施之澤 立旨完文節 以目成出 以爲憑後之跡 伏願僚僚 奉承成意 悉心遵行 與屯興廢 是所望也 夫廟堂及營門決給之時 行者追錄于左 以爲日後可考之地云爾

嘉慶十年 歲在乙丑季夏 追成

대개 조정에서 둔진을 두는 것은 어째서인가? 편안한 때에도 늘 위험을 잊지 않는다고 옛 사람은 말하지 않았던가? 도성의 북쪽은 주맥이라 산악이 높아 첩첩이고 여염집들은 떨어져 있어서 조정에서는 빈 것을 우려한 지 오래되었다.

지난 을유년(1765년, 영조 41)에 오흥부원군(김한구) 사또와 도제조 홍정승 홍봉한 대감께서 널리 의논을 구하고 물어보아서 도성 안팎 경계 지역의 언덕에 둔진을 설치하고 백성을 모으는 취지를 경연에서 임금께 아뢰어 병술년(1766년, 영조 42) 봄에 본 동리에 행차하여 적절한 땅인지를 살펴서 높은 곳은 깎고 낮은 곳은 메워서 고치고 수리해서 둔진을 설치하고 백성을 거주하

게 했다. 둔진을 둔 곳은 혜화문의 왼쪽이자 숙정문의 오른쪽이다. 대체로 본 성북동은 산이 높고 계곡이 깊어서 주민의 생계가 형편없으며 땅은 외지고 시장은 멀어서 살아갈 방도가 곤란하다.

정해년(1767년, 영조 43) 가을에 조정에서 특별히 거주민들의 생계를 헤아려서 목면(무명), 포(베), 저(모시) 세 가지 점포에서 포백할 물건과 송도(개성)의 모시 전부를 본 동리의 거주민에게 주어서 삶아서 익히게 하였다.

무자년(1768년, 영조 44) 겨울에는 훈조막을 설치해서 비변사에서 총융청에 관문(關門, 공문서)을 보내어 연용대 훈조막에 있는 숙련자 한 사람을 본 막으로 보내어 가르치게 하고 동리의 거주민으로 하여금 배워서 생활에 보탬이 되게 하는 뜻을 가지고 임금께 재가를 받았으니 옳은 일이었다. 두 상국 합하께서 군영을 통솔하시니 국가를 위해 성취해야 할 방법과 주민을 보호하는 덕을 아울러 행하셨다. 나라에서는 미리 위험을 방지하게 되었고, 백성들은 끼니를 때울 근심을 잊었으며, 귀신처럼 헤아리고 때맞춰 보우하심이 이에 지극해졌다. 주역에 이르기를 “왕궁이 시설을 험하게 만들어서 미리 방지하여 근심이 없게 하였다.”고 했고, 서경에 이르기를 “백성을 잘 보호함에 어린 아이와 같이 한다.” 라고 했다. 그러니 둔진을 설치하여 백성을 거주하게 한 것은 어찌 우연의 일이겠는가?

둔진이란 것은 나라의 방패막이며 거주하는 백성은 둔진의 근본이다. 둔진은 백성을 믿고 백성은 둔진에 의지해서 서로 보호한다면 하나됨이 없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조정에서는 백성을 보호하는 정책을 특별히 헤아려서 주민들로 하여금 포역과 훈업을 하게 해서 생활하는 길에 보태도록 하였으니 백성을 어루만지는 정치가 깊고 두텁게 된 것이다.

비변사의 문안과 군영의 문적은 차례대로 붙여 족자로 만들어 연용대에서 옮겨 온 강운봉의 집에 두었다. 강운봉이 사망하자 여러 문적을 잃어버려 찾을 길이 없으니 통탄스럽고 애석하다. 이미 잃어버린 물건은 형편상 어찌겠는가. 그런고로 이번에 분실한 사정과 연유를 갖추어 사또께 소장을 올려 엿드려 시행되는 은택을 바라오며 이를 입증하는 원문과 절목을 만들어 주셔서 뒷날 증빙 자료로 삼고자합니다.

엿드려 바라옵건대 저희들이 그 뜻을 받들어서 마음을 다하여 준수하여 둔진의 흥망과 함께 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무릇 비변사와 군영이 결정해 문서를 발급해 줄 즈음에 저희들이 아래와 같이 추록하여 뒷날 상고할 근거로 삼고자 합니다.

가경 10년 을축(1805년, 순조 5) 늦여름에 추기함

- 一. 木布苧三塵 練熟之物 松都苧 並依廟堂 決給例 從束曝白 輸送于各其塵 毋至遲滯
之廢爲白齊
- 一. 木布苧曝白工錢 木每同雇價四兩 布每同雇價六兩五錢 苧每同雇價十兩式 並依廟
堂決給例 捧上爲乎矣 無敢違越爲白齊
- 一. 戶曹遮障布每同練熟雇價 依本曹定式例 白米二十斗 受出爲白齊
- 一. 營門姑給卜馬 使之物種載來 而本契蘇醒後 卽爲還納爲白齊 卜馬畢納今無
- 一. 依廟堂決給例 五人作爲一所 掛設兩釜 交遞蒸太爲乎矣 五人外無敢增加爲白齊
- 一. 治道時 依廟堂決給例 出軍五名 三台廣耳持是遣 與內契 同爲赴役爲白齊
- 一. 釜稅段 依廟堂決給例 每年三十五兩 輸送于內契 以補治道之需爲白齊
- 一. 營門燼太 每石工錢六錢 代米二斗式爲白齊
- 一. 無邊錢段 本幕蘇醒後 卽爲還納爲白齊 畢納今無

大將(手決)

하나. 무명·베·모시 삼전에서 삶아서 익힐 것들은 송도의 모시와 함께 비변사에서 결정해준 예
에 따라 묶음 단위로 포백하여 해당 전으로 수송하며 지체되는 폐단이 없도록 한다.

하나. 무명·베·모시를 포백하는 수공은, 무명은 매동 50필마다 임금이 4량이고, 베는 매 동마
다 노임이 6량 5전이며, 모시는 매 동마다 노임이 10냥씩이다. 아울러 비변사에서 결정해
준 예에 따라 받되 감히 위반하지 않는다.

하나. 호조의 차일에 쓰일 포는, 매 동마다 삶아서 익히는 노임은 호조에서 정하는 규식에 의거
하여 백미 20두를 내준다.

하나. 군영에서 우선 제공해준 짐말로서 물건들을 실어 나르게 하며 본 계가 형편이 좋아지면
곧바로 돌려준다. 짐말을 되돌려 주어서 지금은 없다.

하나. 비변사에서 결정한 예에 따라 5인으로 1소를 만들어 두 개의 술을 걸고 교대로 콩을 삶는다. 5인 외에 감히 증가시키지 말 것이다.

하나. 길을 닦을 때에는 의정부에서 결정한 예에 따라 5명의 역군을 징발하여 삼태기, 괭이를 가지고 내계와 더불어 함께 부역한다.

하나. 술에 대한 세금은 비변사에서 결정한 예에 따라 매년 35냥을 내계로 수송하여 도로 닦는 비용에 보태도록 한다.

하나. 군영에서 콩을 삶는 것은 매 석당 노임은 6전인데, 이는 쌀로 대체하여 2두씩으로 한다.

하나. 이자가 없는 돈은 본 막이 형편이 좋아지면 즉시 갚는다. 다 갚고 지금은 없다.

대장(수결)



서울洞의 역사 · 성북구

동소문동



● 동소문동 주요 역사유적과 시설



돈암장



성북천



분수마루



성북문화원



돈암제일시장



태조감자국



한성대입구역



돈암초등학교





1

동소문동
아래

역사와 행정구역 변동

1) 지형

(1) 위치와 지형

동소문동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속한 동으로 법정동인 동소문동1가~동소문동7가 지역을 포괄하여 붙인 이름이다. 지하철 4호선 한성대입구역 교차로부터 성신여대입구역 교차로 사이 동소문로 좌우에 있다. 동쪽으로는 동선동, 서쪽으로는 성북동과 접하고 있고, 성북천을 경계로 남쪽의 삼선동, 북쪽의 산 능선을 따라 돈암동과 접해 있다. 면적은 0.29km², 인구는 2001년 기준 1만 2,072명이다.

동소문동의 지형은 전체적으로 보아 북쪽으로는 북악산에서 뿔어 내려온 산록을 등졌고 남쪽으로는 성북천이 북서쪽에서 남동쪽으로 흐르는 배산임수형이다. 산비탈 지역과 성북천 주변에는 주택과 건물이 조밀하게 들어서 있어서 지형을 한눈에 살필 수는 없지만, 이와 같은 지형적 특징은 동소문동 사람들의 중요한 생활환경을 이룬다. 또한 서쪽으로 종로구로 향하는 지점의 동소문고개는 조선시대부터 도성의 안팎을 연결하는 통로로서 지금은 그 높이가 낮아져 고개의 의미가 많이 퇴색되었지만 여전히 교통상

중요한 지점으로 구실하고 있다.

(2) 성북천

동소문동 남쪽에서 삼선동과 자연 경계를 이루는 성북천은 성북구 북악줄기 구준봉(狗蹲峰) 기슭에서 발원하여 청계천과 합류한 뒤 중랑천으로 흐르는 하천이다. 길이는 5.11km이며, 하류 지역이 잘 정비되어 있다. 성북동 통과 구간인 '성북 우정의 공원'에서부터 한성대입구역은 아직 복개된 상태로 남아 있다. 중류에서 안암동 지역을 통과하기 때문에 '안암천'·'안감내'·'안암내'



복원한 성북천

라고도 한다. 성북구는 2002년부터 2010년까지 성북천 복원 사업을 진행하여 한성대입구역 앞부터 청계천 합류 지역까지 생태하천으로 복원하여 시민에게 개방하였다.

조선시대 도성 외곽의 교외 지대를 가로질러 흐르던 성북천은 1960년대 서울의 인구 밀집과 도시 팽창으로 말미암아 주택 밀집 지역에 속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수질 오염, 토지 부족 등 여러 가지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다른 도심 하천과 마찬가지로 성북천의 복개 사업에 착수하였다. 그리하여 1967년 복개 공사를 시작하여 1968년 삼선교와 양회다리(지금의 늘빛다리 부근) 구간을 복개하여 하천 위에 주상복합아파트인 삼선상가아파트·나·다동을 완공·개업하였고, 1970년에는 성북상가아파트를 개업하였으며, 1977년부터는 삼선교 상류 성북동 구간의 복개를 시작해 1980년대 후반 공사를 완료하였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와 도심 하천의 복원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성북구에서는 2002년부터 성북천 복원 공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복개한 성북천 위에 세웠던 삼선상가아파트와 성북상가아파트를 전면 철거하고 교량과 산책로를 조성하여 2010년 공사를 마무리하고 시민에게 개방하였다.

(3) 동소문고개

동소문고개는 종로구 혜화동에서 성북구 성북동과 동소문동 쪽으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이름은 이 고개턱에 한양도성의 동북쪽 성문인 혜화문(惠化門)이 있는데, 혜화문의 별칭이 동소문(東小門)인 데서 유래하였다. ‘혜화문고개’·‘혜화동고개’라고도 하였다. 이 고개는 조선시대에 함경도와 강원도 지역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관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사람의 통행이 매우 빈번한 곳이었다. 특히 조선 전기에는 여진족의 족장들이 이 문을 통해 도성으로 들어와 조선 국왕에게 토산물을 바쳤다는 기록이 있어 외교적으로도 중요한 관문 역



옛 동소문고개

지금은 깎아서 창경궁로가
개설돼 있으며, 도로 건너편
언덕에는 복원한 혜화문이
보인다.

할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후 일제강점기와 광복 이후에 서울 영역이 확장되고 인구가 팽창하면서 혜화동과 미아리고개를 연결하는 간선도로가 이 고개를 지나게 되었으므로 이후 더욱 많은 인원이 통행하는 교통상 요지가 되었다. 지금도 출퇴근 시간이 되면 동소문고개는 차량 통행이 매우 많아져서 예나 지금이나 서울 도심과 외곽을 잇는 중요한 지점임을 알 수 있다.

이 고개 사이에 동소문로가 개설되어 있다. 동소문로는 혜화동 132번지(혜화동로터리)부터 돈암동 20-1번지(미아리고개)까지 연결된 너비 25~35m, 길이 2,350m에 달하는 도로이다.¹

¹ 정희선, 《서울의 길》,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 2009, 424쪽.

동소문고개의 연원이 된 동소문은 1396년(태조 5) 한양도성을 축조할 때 함께 건립되었다. 처음에 이름을 ‘홍화문弘化門’이라 하였는데 1483년(성종 14)에 세운 창경궁의 정문 이름 역시 홍화문이라 하였으므로, 양자의 혼돈을 피하여 1511년(중종 6)에 ‘혜화문’으로 고쳤다. 이처럼 동소문의 정식 명칭이 홍화문 또는 혜화문이었던 것은 건국 초부터 이 문을 통해 도성으로 들어왔던 여진인을 회유·포섭하려던 조선왕조의 대외진 정책과도 관련성이 있어 보인다. 이후 언젠가 문루가 헐렸다가 1744년(영조 20)에 다시 문루를 짓고 조강리趙江履가 쓴 혜화문惠化門 현판을 새로 달았으며, 1816년(순조 16)에 중수하였다. 일제강점기인 1928년 문루가 해체되고 1939년 홍예와 육축마저 헐리면서 사라졌다.

혜화문은 도성의 다른 문과 달리 홍예 안쪽에 용이 아닌 봉황을 그려 넣은 것이 특징이다. 그것은 문 밖 지역이 새의 피해를 많이 당하므로, 그것을 막기 위해 새의 왕인 봉황을 그려 넣은 것이라 한다. 1994년 서울시가 종로구 창경궁로 307(혜화동 28-5)에 혜화문을 복원하였다. 이곳은 원래 위치에서 약간 북쪽으로 밀려난 자리로서, 동소문로 북쪽 언덕 성북구와 종로구의 경계 지점에 해당한다.

2) 동명의 유래와 연혁

(1) 동명의 유래

동소문동의 이름은 한양도성의 동북쪽 성문인 혜화문의 별칭 동소문에 서 비롯하였다.

동소문동은 1947년 6월 동회제도洞會制度가 신설되었을 때 설치된 행정동(구 동회)으로서, 2007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 명칭 등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어² 동회제도가 폐지될 때까지 60년 동안 존속하였다. 2008년 동회제도가 폐지될 당시 동소문동1가·2가·3가·4가와 돈암동 일부를 포함하였다.

여기서 다루는 동소문동1가~동소문동7가는 1963년 1월 1일 서울특별시 조례 제274호에 의해 돈암동 지역의 일부를 떼어내 제정한 법정동으로서, 2018년 현재까지 동명과 관할구역이 유지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편의상 동소문동1가~동소문동7가 지역을 하나로 묶어 ‘동소문동’으로 칭하고자 하는데, 이는 2007년까지 존속한 행정동인 ‘동소문동’과는 구별된다는 점을 유의할 요한다.

이처럼 시·도의 하부 행정구역인 동은 법정동(法定洞)과 행정동(行政洞)으로 구분된다. 법정동은 예전부터 전해 내려온 동명으로, 변동이 거의 없다. 따라서 법정동 주소는 개인의 권리, 의무 및 법률 행위 시 사용된다. 반면 행정동은 행정 운영의 편의를 위하여 설정된 행정구역이다. 주민 수의 증감에 따라 수시로 설치되거나 변경된다.³ 따라서 어떤 지역의 경우 법정동과 행정동이 서로 달라서 두 개의 동 명칭이 사용되기도 한다. 예를 들면 동소문동1가는 법정동 명칭이지만, 2018년 현재 동소문동1가 주민은 행정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북동 주민센터(동사무소)에 문의해야 한다. 성북동이 동소문동1가의 행정을 관할하는 행정동이기 때문이다.

(2) 행정동 동소문동

1947년 6월 서울시령 제2호로 동회제도가 시작될 때 동소문동·동선남부

2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 명칭 등에 관한 조례> 개정 2007-10-12 조례 제698호(성북 법무행정서비스 홈페이지(<http://law.seongbuk.go.kr>)). 이보다 앞서 2007년 9월 21일 성북구의회 제161회 임시회 때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사무소 명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04)이 위원회 처리와 본회의 의결을 통해 2007년 10월 5일 원안 가결되었다(성북구의회 홈페이지(<http://www.sbc.go.kr>)-회의록 검색-의안 검색).

3 <법정동> 《두산백과》

동·동선북부동·정화동·육구동부동·육구서부동 등 6개 동회가 설치되어 당시 동대문구 돈암동 일원을 관할하였다. 이어 1949년 8월 13일 대통령령 제 159호에 의해 신설된 성북구에 돈암동이 편입됨에 따라 동소문동·동선남부동·동선북부동·정화동·육구동부동·육구서부동은 모두 성북구에 속하게 되었다. 1951년 11월 29일에는 서울특별시고시 제5호에 의해 동선남부동을 분할하여 동선동부동이 신설되어 돈암동 일원을 관할하는 동회는 7개가 되었다. 1955년 4월 18일 서울특별시조례 제66호에 의해 행정동제가 실시될 때에는 동소문동·삼선제1동·삼선제2동·삼선제3동·동선동·남선동·서선동·북선동·정화동 등 9개 동사무소가 설치되어 돈암동 일원을 관할하였다. 이때 동소문동은 돈암동 중에서 삼선교로부터 돈암교에 이르는 성북천 이북의 지역을 관할하였다.

이후 1963년 1월 1일 서울특별시조례 제274호에 의해 돈암동 지역 중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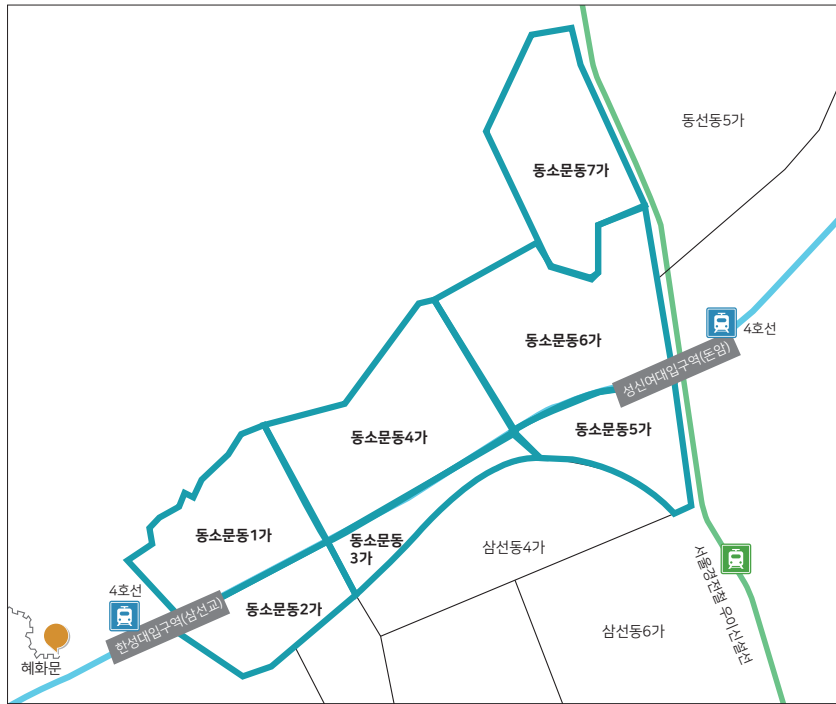
성북구립해오름도서관

부가 동소문동1가~동소문동8가와 삼선동1가~삼선동5가, 동선동1가~동선동5가로 법정동 명칭이 변경·제정됨에 따라, 같은 날짜 서울특별시조례 제275호에 의해 동소문동은 동소문동1가~동소문동4가 일원을 관할하게 되었다. 1970년 5월 5일에는 서울특별시조례 제613호에 의해 이전의 동소문동·삼선제1동·삼선제2동·삼선제3동·동선동·남선동·서선동·북선동·정화동 등 9개동이 동소문동·삼선제1동·삼선제2동·삼선제3동·동선제1동·동선제2동·돈암제1동·돈암제2동 등 8개 동으로 조정되면서 관할구역도 변동되었다. 이때 동소문동은 동소문동1가~동소문동4가 일원 및 돈암동 중에서 돈암초등학교 앞을 기점으로 동구여자상업고등학교(지금의 동구마케팅고등학교)에 이르는 소로 이남지역(지금의 한신아파트단지 전역)을 관할하게 되었다.

2007년 10월 12일 개정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 명칭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존에 있던 구내 30개 행정동이 20개 행정동으로 조정되었다. 이에 따라 2007년 12월 30일부터 성북동이 동소문동1가와 동소문동4가 지역을, 삼선동이 동소문동2가와 동소문동3가 지역을 관할하게 되었다. 이로써 행정동 동소문동이 폐지됨은 물론 주민센터 청사(성북로4길 52) 역시 문을 닫게 되었다. 청사 건물은 2018년 현재 성북구립해오름도서관으로 사용하고 있다.

(3) 법정동 동소문동

1963년 1월 1일 서울특별시조례 제274호 <서울특별시 동 명칭 및 구역 확정조례>로 법정동 동소문동이 신설되었다. 일제 때부터 시작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동소문로를 따라 도로 양쪽의 지리적 조건을 고려하여 1·2·3·4·5·6·7가로 구분하였다. 이때 제정된 동소문동은 그 명칭과 구역을 유지하면서 2018년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 해당 영역은 다음의 그림과 같다.



3) 조선시대 동소문 밖 지역의 역사와 행정구역

동소문동 지역은 혜화문 바깥을 흐르는 성북천과 북악산 산줄기 사이에 있는 좁다란 지역이다. 이 때문에 조선시대 동소문동 지역은 이 지역만을 특징하는 행정구역이나 지명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마을 이름 역시 기록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하지만 일찍이 한성부 경계가 확정되고 행정구역명이 만들어지면서 이곳은 행정구역상 한성부 동부(東部) 송신방(崇信坊)에 속했음을 《세종실록》 지리지(地理志)의 경도한성부(京都漢城府)조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러나 송신방은 지금의 성북구와 동대문구 지역 일부를 아우르는 매우 광대한 지역이었으므로 지금의 동소문동 일대에 해당하는 지명은 되지 못하였다. 대신에 '사을한리(沙乙閑里)' 또는 '사아리(沙阿里)'라는 지명이 몇 차례 실록에 보이는데 이는 공식적인 행정구역명은 아니었지만 동소문동 지역을



《여지도輿地圖》
《도성도都城圖》의 사이리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비롯해 동소문 밖 성북동과 돈암동 정릉동까지 아울려서 부르는 지명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동소문 밖은 조선 초기 북교^{北郊}로 불렸으며, 나라에 쓰이는 말을 풀어놓아 길렀던 곳으로도 추정된다. 1398년(태조 7) 정도전^{鄭道傳(1342~1398)}이 태조에게 지어 바친 신도팔경시^{新都八景詩}의 마지막 8번째 구^句가 <북교목마^{北郊牧馬}>였던 것이다.

瞻彼北郊如砥

春來草茂泉甘

萬馬雲屯鵲厲

牧人隨意西南

바라보면 저 북교 숫돌과 같은데,

봄이 오면 풀은 무성하고 샘은 달구나.

만마^{萬馬}가 구름처럼 모이고 까치처럼 날뛰는데,

목인^{牧人}은 멋대로 서로 갔다 남으로 갔다 하는구나.⁴

동소문 밖 성북천 일대의 평평한 지역이 조선 초기부터 목마장이나 말타기와 활쏘기를 주로 하는 군사 훈련장으로 쓰였음을 짐작할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조선 후기로 오면서 점차 ‘사을한리’라는 지명은 사용 빈도가 줄어들고 ‘사아리’라는 지명이 기록에 자주 등장한다. 국왕이 몸소 군대를 사열하는 열무^{閱武}나 진법 훈련 등의 군사 훈련을 거행할 때 동소문 밖 사아리로 행차하였다는 기록을 볼 수 있다. 이는 점차 동소문 밖 일대의 평평한 지대가 군사 훈련의 용도로 쓰였음을 알려주는 사실로서, 숙종 때에 와서는 노량^{露梁}·양철리^{良鐵里}와 더불어 사아리^{沙阿里}를 고정적인 군사훈련장 즉, 교장^{敎場}으로 삼기에 이르렀다.⁵ 그리하여 19세기에 들어와 ‘동소문 밖 삼선평’ 하면 도성 밖

4 《태조실록》 권13, 태조 7년 4월 26일(임인).

5 《승정원일기》 숙종 13년 8월 14일(경신).

가장 대표적인 군사 훈련장으로 알려지게 되었다.⁶

조선 후기가 되면 한성부에 ‘계궐’라는 ‘방’보다 하위 개념의 행정구역이 설치되었다. 이는 일차적으로 도성 안팎 특히 도성 밖에 사는 백성과 마을을 조직적으로 군문(軍門)이 관할하게 하여 도성 수비를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행한 조치이지만, 동시에 이 시기 도성 밖에까지 인구와 마을이 늘어난 한성부의 사회경제적 변화상에 대한 대응책의 일환이기도 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지금의 동소문동 일대와 삼선동, 돈암동 일대는 오래 전부터 구전으로 내려오는 이름을 따서 ‘사아리계(沙阿里契)’라는 행정구역명을 갖게 되었다. 이때 사아리계는 그 민호를 도성의 삼군문 가운데 어영청(御營廳) 전정(前停)에 분속시켜 유사시 도성 수비에 가담토록 하였다.

이후 정조 연간에 이르러서 사아리계는 송신방에 귀속되었으므로 동소문동 일대는 한성부 동부 송신방 사아리계라는 행정구역상 위치를 부여 받게 되었다. 갑오개혁 때에는 한성부 동서(東署) 송신방(崇信坊) 동문외계(東門外契) 돈암리(敦岩里)와 삼선평(三仙坪)에 나뉘어 속한 것으로 보인다. 동소문외계(東小門外契)가 아니라 동문외계에 분속시킨 점이 주목할 만하다. 참고로 조선 말기 동문외계와 동소문외계에 속한 마을을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으며, 지금의 동소문동 지역은 동문외계의 삼선평 일대로 추정된다.

조선 말기 동문외계

정의	조선시대 한성부 동부 성 밖의 송신방에 있던 계
유래	한양도성 동쪽 문인 동대문 이름에서 유래
당시 소속 마을	홍수동·북차교·남교·대정동·편교·장평리·미전동·장거리·영미동·정자동·대종암·신리·신설동·원리·궁리·상리·중리·우산각리·소종암·돈암리·삼선평 등
현재 해당 마을	송인동·창신동 각 일부와 신설동·안암동·종암동·돈암동·동소문동·등선동·삼선동 각 일원

출처: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 《서울지명사전》, 2009, 213쪽.

6 《승정원일기》 순조 16년 3월 21일(신축), 고종 1년 9월 2일(경자), 고종 11년 3월 27일(기사), 고종 18년 9월 27일(병진), 고종 21년 8월 12일(계미), 고종 28년 8월 3일(갑진), 고종 31년 2월 15일(임술) 등.

조선 말기 동소문외계

정의	조선시대 한성부 동부 성 밖의 송신방에 있던 계
유래	한양도성 동북쪽 문 혜화문의 별칭 동소문에서 유래
당시 소속 마을	성북동·소정릉동·손가정·청수동·미아리·번리·대수유리·소수유리·가오리·우이리 등.
현재 해당 마을	미아동·정릉동·번동·수유동·우이동·성북동 각 일원

출처: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 《서울지명사전》, 2009, 223쪽.

현 동소문동 일대의 조선시대 행정구역상의 변동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조선시대 동소문동 일대의 행정구역 변동

시기	행정구역 변동		
조선 초기	한성부	동부	송신방 북교 또는 사을한리 또는 사아리
1751년(영조 27)			사아리계
1788년(정조 12)			송신방 사아리계
1894년 갑오개혁		동서東署	송신방 동문외계 돈암리·삼선평

동활인서 터로 추정되는
돈암장



조선 전기 동소문 밖의 마을 중 그 명칭이 확인되는 것은 안암동, 사을한리, 다야원 등 2~3개 마을이다. 이는 갑오개혁 때 동문외계와 동소문외계 지역의 마을 수보다 현저하게 적은 수이다. 특히 사을한리는 사아리, 살한리 등으로 불리며 동소문 바로 밖으로부터 지금의 정릉동, 미아동까지를 아우르는 일대를 넓게 이르는 명칭이었으므로, 이를 통해 동소문 밖 인구의 희박함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조선시대 동소문 밖은 동활인서(東活人署)가 있는 곳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지금 삼선중학교 아래 동소문로3길 84(동소문동4가) 돈암장(敦岩莊)이 있는 곳이 동활인서 터로 추정된다.

흥미로운 사실은 조선시대에 동소문 밖 지역이 군사 훈련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었다는 점이다. 성균관에서 문과 시험을 보고 같은 날 동소문 밖에서 무과 시험을 보았다는 사실이 실록에서 확인되며, 군사 훈련을 실시하거나 국왕이 군사를 사열했다는 기록도 자주 보인다. 이는 현재 동소문동과 삼선동 일대가 조선 후기에 동소문 밖 삼선평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지명으로 등장하고 있음으로도 알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동소문 밖은 실제 도성과 궁궐 안보와 관련해 중요한 요충지이기도 해서 군사적 경비를 엄중히 하던 곳이기도 하다. 통행하는 사람이 다른 도성 문에 비해 뜸한 편이고 구릉지에 오르면 도성 안이 훤히 내려다보이는 곳이었기 때문에 조정에서는 도적떼나 반란군이 은거하기 적당한 장소로 이곳을 지목하며 우려하기도 하였다. 이 때문에 연산군은 혹여 있을지 모르는 반군의 발호를 염려해 동소문 안의 인가를 철거하고 동소문 밖 도로변에 금표를 설치해 동소문 안팎에서 궁궐을 넘보는 수상한 거동을 일절 차단하고자 엄중히 단속하였다.

동소문은 1451년(문종 원년) 도성 수축 때 경기·충청·전라도 수군이 동원되어 한 차례 수축되었다. 이후 언젠가 헐렸던 문루는 1744년(영조 20) 어

영청에서 주관하여 서소문 문루와 함께 다시 건립하였다. 그후 1816년(순조 16)과 1869년(고종 6)에 또다시 보수하였다. 영조 때의 문루 건립은 주목할 만한 사실로서, 영조는 동소문을 군사상 중요한 지점으로 인식하고 그 수비를 어영청에 맡겼으며 성북동에 새로이 북둔^{北屯}을 설치해 동소문 주변의 도성 수비를 한층 강화하였다. 이는 그의 재위 기간에 ‘이인좌의 난’과 ‘나주벽서사건’ 등 왕권을 위협하는 반란 모의 사건이 수차례 걸쳐 일어났기 때문에 영조가 정권과 도성의 안보를 위해 내린 특별한 조치였다.

조선 후기 동소문과 관련해 주목할 점은 여진인의 왕래가 끊기고 대신에 도성 안팎을 오가는 내국인의 통행이 늘었다는 것이다. 조선 후기 들어 도성의 인구가 점차 증가하고 상업도 활발해진 까닭에 함경도와 강원도를 거쳐 동소문에 이르는 도로 또한 이용량이 많아졌고 동소문 밖 교외 지역 또한 인구와 마을 수가 늘었다. 계^界와 같은 새로운 행정구역이 만들어지는 것도 이러한 사회경제적 변화와 맞물려서 일어난 변동이었다.

4) 일제강점기 동소문동 지역의 행정구역 변동과 변화 양상

강점 직후인 1910년 10월 1일 일제는 칙령 제357호에 따라 한성부를 경성부^{京城府}로 개칭하면서 경기도에 예속된 하나의 부^府로 격하시켰다. 이어 1911년 4월 1일 경기도령 제3호에 따라 경성부 영역을 5개의 부와 8개의 면으로 재편하는 5부^部 8면제^{面制}를 실시하면서, 동소문동 일대는 경기도 경성부 송신면^{崇信面} 돈암리^{敦岩里}로 불리게 되었다. 1914년 4월 1일에는 종래의 송신면과 인창면^{仁昌面}을 합쳐 송인면^{崇仁面}으로 통합한 뒤 송인면을 경성부에서 분리하여 경기도 고양군에 편입시켰다. 이에 따라 지금의 동소문동을 관할하는 상급 행정기관이 경성부에서 고양군으로 바뀌었다.

그후 1936년 4월 1일 일제가 경성부 영역을 대폭 확장함에 따라 동소문동 일대는 경기도 고양군 송인면 돈암리에서 다시 경성부로 편입되어 경성부 돈암정^{敦岩町}이라는 일제식 동명으로 바뀌었다. 일제 말인 1943년 4월 1일 구제^{區制}가 실시될 때에는 이곳 일대가 동대문구에 속하였다가 광복을 맞게 되었다.

일제강점기 동소문동 일대의 행정구역 명칭 변화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일제강점기 동소문동 일대의 행정구역 명칭 변화

연도	행정구역 명칭	연도	행정구역 명칭
1911	경기도 경성부 송신면 돈암리	1914	경기도 고양군 송인면 돈암리
1936	경성부 돈암정	1943	경성부 동대문구 돈암정

일제강점기 동소문동 일대는 한성부에서 떨어져 나와 경기도 고양군으로 편입되면서 한동안 성 안, 즉 경성부의 변화상과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둔 채로 있었다. 조선시대처럼 도성 바깥의 한적한 교외 지대로 남아 있었던 것이다. 서울과 함경도·강원도 지역을 왕래하는 사람들이 동소문을 이용했지만 통행량은 예전에 비해 많은 편이 아니었다. 봄·가을 성 안에 사는 유람객들의 출입이 늘었는데, 이는 일제강점기에 접어들며 동소문 밖이 경성 사람들의 교외 나들이 장소로 크게 각광을 받았기 때문이다. 흥천사와 봉국사를 비롯하여 정릉리나 북한산 일대 등 교외 명승지를 찾는 사람들은 우선 동소문을 빠져나온 뒤 성북천을 건너 동소문동 일대를 가로질러 가야 했던 것이다.

일제강점기 동소문동 일대와 관련해 일어난 가장 큰 변화는 동소문의 철거였다. 동소문은 1928년에 문루가, 1939년에는 석축과 홍예가 헐려 완전히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이와 같은 동소문의 단계적 철거는 일제강점기 동소문동 일대를 비롯한 동소문 밖 지역의 변화를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사건이기에 주목을 요한다. 강제병합을 전후해 일제에 의해 한양도성의 성곽과 성문들이 헐려나갔다. 먼저 1907년에 남대문의 좌우 성첩이 헐렸고, 1914년에는 서소문이, 1915년에는 서대문이, 1926년에는 광화문이 헐렸다. 그래도 동소문은 꽤 오래 버틸 수 있어서 1928년에야 문루가 헐렸다.⁷ 문루가 너무 퇴락하여 도시 미관을 해친다는 이유에서였다. 당시 동소문의 모습을 묘사한 1928년 4월 28일자 《동아일보》 기사는 동소문의 문루가 “성한 기왓장은 하나도 없을 만치 상^傷한 퇴락한 상태였다고 전한다. 그리고 동소문의 홍예와 석축이 철거된 해는 문루가 헐린 지 11년이 지난 1939년이다. 도로 폭을 넓히고 전차길을 신설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로 미루어 보면 1939년 이전까지는 동소문을 혈만큼 경성부 시내와 동소문동 지역간 넓은 도로는 건설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다만, 동소문 옆 성첩 수십 미터가 헐려서 문루 없는 동소문 옆을 지나는 버스가 통행할 수 있는 만큼의 차도는 이미 닦여 있었다.

이와 같이 동소문 옆을 통과하는 돈암리와 경성 시내를 연결하는 버스 노선은 1933년에 신설되었는데 이로써 돈암리와 동소문동 지역의 교통 사정은 전보다 한결 나아지게 되었다. 버스 노선의 신설은 돈암리 주민들이 오랫동안 총독부와 경성부에 진정함으로써 얻어낸 성과이기도 한데 이는 1920년대에 이미 돈암리에 그만큼 많은 인구가 모여들기 시작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는 돈암리와 가까운 경성부내의 동숭동, 명륜동, 혜화동 등지에 경성제국대학, 보성고보 등을 비롯한 중·고등 교육기관이 들어섬으로 인해 지방에서 몰려든 학생들과 그들이 기거하는 하숙집이 성북리와 돈암리에 많이 생겨났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 외에도 경성부에 유입되는 노동 인구가 늘어나면서 부내에 주거를 얻지 못한 도시 노동자들이 가까운 돈암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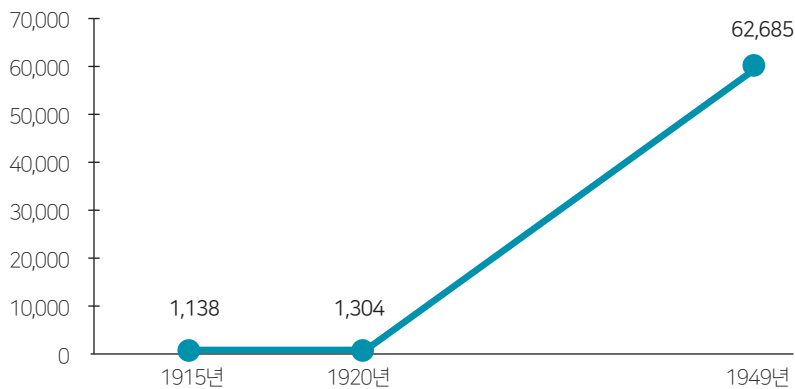
⁷ 동소문 문루는 헐렸지만 조선 후기 명필 조강리趙江履가 쓴 ‘혜화문’ 현판은 없어지지 않고 전해져서 국립고궁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 1992년 복원한 현재의 혜화문 현판은 제27대 서울시장 이원종의 글씨이다.

에 퇴락한 주거를 얻어 살거나 그도 아니면 토막을 지어 생계를 이어나갔으므로 일제강점기 내내 돈암리와 동소문동 지역의 인구는 계속 증가 추세를 보였다.

일제강점기에는 동소문동이라는 지명이 없어서 관련 통계 자료를 구할 수 없지만 아쉬운 대로 돈암리(지금의 동소문동과 삼선동, 동선동, 돈암동 지역을 포괄한 지역)의 인구 추이를 살펴보면 동소문동의 인구 변동 양상도 대강 눈에 들어올 것이다. 다음은 일제강점기부터 6·25전쟁 전까지 돈암리의 인구 변화를 보여주는 그래프이다.⁸

일제강점기~6·25전쟁 전 돈암리 인구 변화

(단위:명)



그래프를 보면 1920년과 1949년 사이 돈암리의 인구가 50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성북동 인구통계에 의하면 1920년 805명에서 1930년 1,666명으로 10년 사이 인구가 2배 이상 늘어났다.⁹ 이로 미루어 볼 때 돈암

⁸ 이 글의 공간적 범위인 법정동 동소문동1가~7가 지역을 관할하는 행정동이 여러 차례 변경되었고, 정부의 인구 파악이 행정동을 단위로 하고 있어 지난 시기 동소문동1가~7가 지역만의 인구 변동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동소문동의 인구변동'은 생략한다.

⁹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구지》, 1993, 334쪽.

리와 그 안의 동소문동 지역 또한 1920년대부터 가파른 인구 증가 추세를 보였음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특히 1939년 동소문이 완전히 철거되고 차도가 넓혀지며 을지로와 돈암동을 연결하는 전차길이 놓이는 등 혁명적인 교통 환경의 변화가 찾아온 후에는 이전보다 더 빠르게 인구가 늘어났을 것으로 짐작된다.

5) 광복 이후 동소문동의 변화

(1) 동소문동의 신설

1946년 10월 1일 이전의 일본식 동명을 없애고 우리 고유의 이름으로 새로 고칠 때 돈암정敦岩町은 돈암동敦岩洞으로 개칭되었다. 1949년 8월 15일 대통령령 제159호로 성북구가 신설되면서 동소문동 지역은 성북구 돈암동으로 되었다. 당시 돈암동은 매우 넓었는데 6·25전쟁 이후 서울에 인구가 집중되기 시작하자 분동이 불가피하였다. 1962년 12월 1일 서울특별시조례 제274호로 <서울특별시 동 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가 공포되고 1963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돈암동 지역은 종래의 동장 관할구역인 동회 명칭이 대부분 법정동으로 분동되어 동소문동 1·2·3·4·5·6·7·8가와 동선동·삼선동 등으로 되었다(이후 동소문동8가는 폐지되어 지금은 없다).

동소문동은 법정동 명칭보다 행정동명, 즉 동회구역 명칭으로 먼저 사용되었다. 광복 직후 서울특별시에서 발간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돈암동 지역은 동소문동회, 동선남부동회, 동선북부동회, 정릉동회, 옥구동부동회, 옥구서부동회 등 6개 행정구역으로 나뉘어 동회가 설치되었다. 1955년 4월 18일 동제 실시 이후 동소문동회 관할구역은 돈암동 중 삼선교로부터 돈암교에 이르는 성북천 북쪽지역이었다. 그런데 2007년 현황을 보면 현재 동소문동 지역은 동소문동 주민센터와 일부는 삼선제2동 주민센터, 동선제2동 주민

센터 관할 내에 있었다. 즉, 동소문동1~4가 지역과 돈암동 일부를 동소문동 주민센터가 관할하고 있었고, 동소문동5가는 삼선제2동 주민센터 관할 하에 있었으며, 동소문동6~7가 지역은 동선제2동 주민센터 관할 내에 들어 있었다.

동소문동1~7가는 동소문로를 따라 도로 양쪽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성북구의 중심지로 볼 수 있으며, 시장·상가 등이 들어서 있어 상업이 발달된 지역이지만 주택가로도 손꼽히는 곳이다. 동쪽은 동선동 1·2·4·5가와 도로를 경계로 인접해 있고 서쪽은 성북동과 맞닿아 있다. 또한 남쪽은 삼선동 1·4가와, 북쪽은 산능선을 따라 돈암동과 접해 있다.

(2) 6·25전쟁 이후 동소문동 인구 및 주택 증가

광복 직후 동소문동 일대의 주거 환경을 잘 보여주는 자료로는 앞서 언급한 김동리의 소설 <혈거부족>(1947),¹⁰ 주요섭의 소설 <잡초>(1958), 김영수의 희곡 <혈맥>¹¹ 등을 꼽을 수 있다. 이 가운데 소설 <혈거부족>의 한 단락을 소개함으로써 당시 동소문동 구릉 지대에 모여 살았던 빈민들의 생활상을 보여주고자 한다.

삼선교와 돈암교 사이의 그다지 높지 않은 구릉 옆을 뚫은 10여 개의 구멍들, 그 앞은 가릴 만한 것도 없이 허연 신작로가 지나가고 있다. 거적대기로 굴 앞을 막고 지내기 때문에 여름철은 그럭저럭 명랑하고 화창한 편이기도 하지만 길고 지루한 겨울을 바람 막아 줄 것 없이 지내자면 거적대기로는 지낼 수 없어 나무 판대기를 대야 하는데 그것조차 이곳에서는 쉽지 않은 일이다. 여름에는 동소문 쪽에서 산들산들 바람이 불어오고 가끔 미국 비행기가 공중에서 소독약을 살포해 주기 때문에 모기의 극성으로부터 어느 정도는 피할 수 있다. 이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순너는 반년 전 이웃집(굴) 할머니의 안내로 이곳 혈거부족의 일원이 되었다.

10 <혈거부족>은 《백민》 1947년 3월호에 발표되었다.

11 <혈맥>은 1950년 봄 을지로4가의 국제극장에서 상연되었다.

이와 같은 문학 작품들의 경우 당대의 비참한 현실과 민초들의 삶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동소문동 일대의 방공호를 배경으로 삼은 것이었으나, 혈거식 주거 또는 토막들이 당시 동소문동 주거 환경을 전적으로 대표하는 것은 아니다. 일제강점기 동소문동 지역의 변화에서도 살폈듯이 동소문로 주변 성북천을 중심으로 한 평탄한 지대는 1937년부터 이루어진 돈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결과로 대규모 도시형 한옥 단지가 들어선 말끔한 주거 환경을 자랑하는 곳이었다. 주민들은 주로 서울 시내에 직장을 갖고 있는 봉급생활자나 자영업자 등 중산층이었다.¹² 이 때문에 광복 이후 동소문동 지역은 구릉지에는 혈거인과 토막민이, 그 아래 평탄한 지대에는 번듯한 한옥을 소유한 중산층이 사는 대조적인 생활환경을 이루고 있었다. 이는 당시 성북구 지역의 일반적인 풍경이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6·25전쟁을 거치며 피난민과 이촌향도의 물결이 들이닥침에 따라 더욱더 짙어져만 갔다. 그리하여 1960~1970년대에 이르면 1940년대 방공호를 터전 삼은 ‘혈거부족’이 살던 곳은 판자집들이 밀집한 거대한 달동네로 바뀌었다. 이에 서울시는 1970년대부터 이들 무허가 불량주택을 철거하기로 방침을 굳히고 실행에 옮기기 시작하였다.¹³

(3) 동소문동1가~7가 지역의 위치와 현황

동소문동1가는 1963년 1월 1일 서울특별시조례 제274호 <서울특별시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로 법정동으로 신설되었다. 일제강점기부터 시

¹² 1950년 전후 동소문동 지역 또는 돈암동 지역 한옥 거주자의 생활환경과 감정을 잘 묘사한 작품으로 박완서의 장편소설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웅진닷컴, 1992)와 단편소설 <그 남자네 집>(《문학과 사회》 58-2, 동인, 2002)이 있다.

¹³ <빛나간 판자집 철거계획> 《경향신문》 1973년 8월 21일 ; <무허가 건물 4,907동 철거> 《매일경제》 1977년 8월 23일.



동소문동1가 영역

작된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동소문동 구역이 이미 확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동소문로를 기준으로 도로 양쪽을 지리적 조건에 따라 1·2·3·4·5·6·7가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2007년 10월 5일 가결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사무소 명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¹⁴에 따라 10월 12일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 명칭 등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었는데, 그 내용은 성북구의 행정동을 재편한다는 것이었다. 2007년 12월 30일 이 조례가 시행됨으로써¹⁵ 기존 30개 행정동이 20개 행정동으로 줄어들게 되었고,¹⁶ 이때 동소문동1가의 행정동이 성북동으로 이관되었다. 동소문동2~4가도 동소문동1가와 동일한 행정구역 변동을 밟았다.

¹⁴ 2007년 9월 21일 성북구의회 제161회 임시회 때 성북구청장에 의해 제출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사무소 명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04)이 위원회 처리와 본회의의 결을 통해 2007년 10월 5일 원안 가결되었다(성북구의회 홈페이지(<http://www.sbc.go.kr>)-회의록 검색-의안 검색).

¹⁵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 명칭 등에 관한 조례> 개정 2007-10-12 조례 제698호(성북 법무행정서비스 홈페이지(<http://law.seongbuk.go.kr>)).

¹⁶ 《서울신문》 2007년 12월 26일.

다음 그림은 동소문동1가의 구역을 나타낸 것이다.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동소문동1가에 해당한다. 도로를 경계로 동소문동1가를 살펴보면, 성북동길을 기준으로 오른쪽, 동소문로를 경계로 위쪽, 성북로6길과 성북로4길을 경계로 아래쪽, 동소문로7길을 경계로 왼쪽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동소문동1가의 북쪽과 서쪽으로는 성북동, 동쪽으로는 동소문동4가, 남쪽으로는 동소문동2가가 있다.

동소문동1가에 있는 동소문로와 성북로2길 사이에는 상가들이 밀집되어 있다. 청미빌딩, 하영빌딩, 김내과빌딩, 안동빌딩 등이 위치해 있다. 동소문동1가에는 지하철 4호선 한성대입구 6번·7번 출구가 있다. 또한 동소문로는 돈암동과 미아동 일대에서 서울 도심지로 들어가는 주요 도로이다. 이에 따라 동소문로1가 주변의 버스정류장에는 많은 버스들이 정차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교통의 편리함 때문인지 정형외과, 피부과, 소아과 등 의료기관이 도로변에 있으며, 파리바게트, 맥도날드 등과 같은 체인점 및 다수의 음식점, 상점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성북로2길에는 동소문우체국이 위치해 있다.

동소문로와 성북로2길 주변에 상권이 형성되어 있다면 동소문로3길과 성북로4길 주변에는 빌라, 개인 주택 등 주거지가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인지 성북로4길 인근에는 성북어린이집, 새삼선유치원, 삼선감리교회가 위치해 있다. 동소문로3길을 가다보면 삼선중학교를 만나게 된다. 삼선중학교는 동소문동1가와 동소문동4가에 걸쳐서 있다.

다음 도면은 동소문동2가 영역을 나타낸 것으로,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동소문동2가 영역이다. 동소문동2가의 위치를 도로를 경계로 살펴보면, 삼선교로를 경계로 오른쪽, 성북천을 경계로 동소문로2길을 포함한 위쪽, 동소문로를 경계로 아래쪽, 동소문로8길을 경계로 왼쪽에 있다. 동소문동2가의 북쪽으로는 동소문동1가, 서쪽으로는 삼선동1가, 동쪽으로는 동소문동3가, 남쪽으로는 삼선동2가가 있다.



동소문동1가와 마찬가지로 동소문로2가를 지나가는 도로 주변에는 상가들이 밀집되어 있다. 일신빌딩, 삼혜빌딩, 광명빌딩 등 건물들이 들어서 있다. 또한 한의원, 내과 등이 교통이 편한 동소문로 주변에 위치해 있다. 반면 동소문로 남쪽은 주택가가 형성되어 있다. 2002년 4월 19일 서울시는 이 지역을 재개발하기 위해 동소문 제2주택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하였다.¹⁷

동소문동2가에는 지하철 4호선 한성대입구역 2번 출구와 1번 출구가 있다. 출구 주변에는 롯데리아, 스타벅스 등 패스트푸드 점과 커피숍을 쉽게 볼 수 있다.

한성대입구역 1번 출구에서 나오면 ‘성북천 분수마루’를 볼 수 있다. 이곳은 성북천이 복원되면서 만들어진 곳으로 성북구와 성북문화원이 주관하는 다양한 문화행사가 벌어지고 있는 장소이다. 동소문로2길을 따라 성북천이 흐르고 있다.

¹⁷ 서울특별시 정보공개정책과, <동소문제2주택재개발구역지정 및 고시>, 2009(서울정보소통광장 홈페이지(<http://opengov.seoul.go.kr>)).

동소문동3가 영역



다음 그림은 동소문동3가 영역을 나타낸 것으로,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동소문동3가 영역이다. 동소문동3가의 위치를 도로를 경계로 살펴보면, 동소문로8길을 경계로 오른쪽, 성북천을 경계로 동소문로2길을 포함한 위쪽, 동소문로를 경계로 아래쪽, 보문로를 경계로 왼쪽에 있다. 동소문동3가의 북쪽으로는 동소문동4가, 서쪽으로는 동소문동2가, 동쪽으로는 동소문동5가, 남쪽으로는 삼선동4가가 위치해 있다.

동소문동1가·동소문동2가와 마찬가지로 동소문로가 지나가는 도로 주변에는 상가들이 밀집되어 있다. 대아빌딩, 삼원빌딩, 경일빌딩, 동방빌딩 등과 같은 건물들이 들어서 있다. 한의원, 내과, 약국 등도 동소문로 주변에 위치해 있다. 또한 국민은행, 우리은행 등 금융기관을 볼 수 있다. 동소문로 남쪽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동소문로10길과 동소문로2길 사이에는 주택가 및 작은 상점들이 모여 있다. 하지만 보문로39길과 동소문로 사이에는 큰 건물들이 위치해 있는 상업지구이다. 보문로39길 건너편에는 총 437세대가 살고 있는 삼선코오롱아파트 단지가 위치해 있다. 보문로39길과



보문로37길 사이에는 성북천이 흐르는데 한빛다리를 통해 왕래할 수 있다.

성북천이 복개되었을 때 동소문동3가에는 성북상가아파트 OB동이 위치해 있었다. 이 건물은 1999년 건물안전도 D등급을 받았으며, 성북천 복원 사업 때 철거되었다. 동소문동3가 안에 있는 동소문로2길과 보문로39길과 나란히 하여 성북천이 흐른다. 동소문동2가와 마찬가지로 동소문동3가는 성북천 복원공사가 완료되는 2010년에 지금과 같은 모습을 가지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동소문동4가의 위치를 도로를 경계로 살펴보면, 동소문로7길을 경계로 오른쪽, 동소문로를 경계로 위쪽, 한신한진아파트와 송산아파트를 경계로 아래쪽, 동소문로13길을 경계로 왼쪽에 있다. 동소문동4가의 북쪽으로는 돈암동, 서쪽으로는 동소문동1가, 동쪽으로는 동소문동6가, 남쪽으로는 동소문동3가가 위치해 있다.

동소문동4가의 경우 동소문로 주변에는 상가와 빌딩들이 밀집해 있다. 대부분 건물이 4~5층 남짓이지만, 하나둘 재개발되며 10층 내외의 빌딩이

동소문동5가 영역



들어서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동소문동4가를 횡단하는 동소문로13가길을 경계로 안쪽으로 들어서면 빌라·다세대주택들이 상당수 있는 주거밀집 지역이다. 특히 한신한진아파트와 닿아있는 송산아파트의 경우 총 345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한편, 동소문동4가에는 성북구에서 지정한 한옥밀집지역 두 곳이 자리 잡고 있다. 동소문동4가 32번지 일대와 동소문동4가 213번지 일대, 이렇게 두 곳인데 모두 1936년 토지구획정리 사업으로 개발된 돈암지구의 일부 지역으로서 형성시기를 1930~40년대로 추측할 수 있다.

동소문동5가의 위치를 도로를 경계로 살펴보면, 보문로를 경계로 오른 쪽, 성북천을 경계로 위쪽, 동소문로를 경계로 아래쪽, 동소문로20길을 경계로 왼쪽에 있다. 동소문동5가의 북쪽으로는 동소문동6가, 서쪽으로는 동소문동3가, 서남쪽으로는 삼선동4가, 동쪽으로는 동선동1가, 남쪽으로는 동선동2가가 위치해 있다.

동소문동5가의 경우 236세대가 거주하는 돈암동일하이빌과 몇몇 원룸



동소문동6가 영역

을 제외하면 대부분 상업지구라 할 수 있다. 특히 1951년 들어선 돈암제일 시장은 동소문동5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서 성북구 전통시장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돈암제일시장 내에는 1958년 터를 잡아 전국적 맛집으로 이름난 태조감자국이 있다. 오직 감자국 하나만으로 널리 알려진 태조감자국은 2014년 서울시 미래유산으로 선정되기도 하여 큰 주목을 받았다.

동소문동6가의 위치를 도로를 경계로 살펴보면, 동소문로13길을 경계로 오른쪽, 동소문로를 경계로 위쪽, 한신한진아파트 및 동소문로15길을 경계로 아래쪽, 아리랑로를 경계로 왼쪽에 있다. 동소문동6가의 북쪽으로는 돈암동과 동소문동7가, 서쪽으로는 동소문동4가, 동쪽으로는 동선동4가와 동선동5가, 남쪽으로는 동소문동5가가 위치해 있다.

동소문동6가의 경우 동쪽과 남쪽이 각기 아리랑로, 동소문로라는 큰 길이 자리하고 있어 오가는 차량도 많고, 특히 아리랑로와 동소문로가 만나는

동소문동7가 영역



곳에 서울 지하철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이 있어 유동인구도 많다. 이로 인해 동소문동6가 동쪽·남쪽에는 주로 상가 건물이나 높은 빌딩이 들어서 있다.

하지만 동소문로에서 조금만 동소문동6가 안으로 들어가면 유서 깊은 교육기관이 있다. 바로 1944년 개교한 돈암초등학교이다. 개교 당시에는 교육의 수요에 비해 교육기관 공급이 현저히 부족한 상황이었어서, 당시 혜화국민학교와 효제국민학교 재학생 가운데 돈암정(현 돈암동)에 거주하는 학생들만 별도로 모아 편성하여 편입되게 하였다. 돈암초등학교는 역사만큼이나 많은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약 4만 5,000여 명의 학생들이 이곳을 졸업하였고, 그 가운데에는 정치인, 야구인, 소설가, 연예인 등 내로라하는 인물들도 많이 있다.

한편 성북구는 한국사학진흥재단과 함께 돈암초등학교 북쪽 부지에 관내 대학생들을 위한 ‘행복기숙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두고 인근 주민들과 지속적인 마찰이 일어나고 있어 세간의 집중을 받은 바 있다. 당초

2018년 개관을 목표로 하였으나 현재까지도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착공조차 못하여, 2020년 개관으로 목표를 재설정하였다.

동소문동6가에도 성북구에서 지정한 한옥밀집지역 세 곳이 자리잡고 있다. 동소문동6가 86번지 일대와 동소문동6가 196번지 일대, 그리고 동소문동6가 238번지 일대이다.

동소문동7가의 위치를 도로를 경계로 살펴보면, 동소문로13길을 경계로 오른쪽, 동소문로15길을 경계로 위쪽, 동소문현대아파트와 정덕초등학교의 경계를 기준으로 아래쪽, 아리랑로를 경계로 왼쪽에 있다. 동소문동7가의 북쪽과 서쪽으로는 돈암동, 동쪽으로는 동선동5가, 남쪽으로는 동소문동6가가 위치해 있다.

동소문동7가의 경우 동쪽으로 아리랑로와 면해 있어, 이 길을 따라 상가 건물이 줄지어 서있다. 하지만 층고가 그리 높은 편은 아니며, 대로변을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의 건물이 빌라, 또는 다세대주택으로 주거밀집지역이라 할 만하다. 또한 194세대 규모의 동선브라운스톤아파트와 409세대 규모의 동소문한신휴플러스아파트, 이렇게 두 곳의 대형 아파트 단지가 자리 잡고 있어, 많은 사람들의 보금자리로 기능하고 있다. 또한 동소문동7가 북쪽에는 1946년 개교하여 현재까지 약 1만 7,00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유서 깊은 교육기관인 정덕초등학교가 위치해 있다.

동소문동6가에도 성북구에서 지정한 한옥밀집지역 세 곳이 자리 잡고 있다. 동소문동6가 86번지 일대와 동소문동6가 196번지 일대, 그리고 동소문동6가 238번지 일대이다.



도시계획과 개발

1) 1930년대 후반 돈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그 영향

일제강점기 동소문동 지역이 변하게 된 가장 큰 계기는 1930년대 후반부터 진행된 돈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다. 1936년 돈암리가 경성부에 다시 편입되고 돈암정으로 바뀌는 행정구역의 변동과 아울러 1937년에는 돈암정, 안암정, 신설정 일대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작되면서 돈암정을 비롯한 동소문동 지역에는 신시가지와 주택 단지가 조성되어 주거 경관과 생활 환경이 크게 바뀌었다. 다음의 인용문은 토지구획정리사업 이후 돈암지구의 변화된 모습과 그 안의 살림살이와 내포된 문제점을 잘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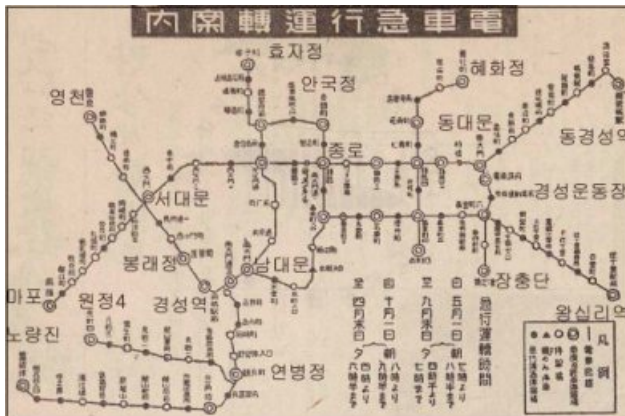
1939년 3월 돈암지구에서는 주택지분양조합이 조직되어 같은 해 11월부터 70~80평 단위의 토지 분양이 이루어졌다. 이 지구에는 적어도 1940년 말까지 활발한 주택 건축이 이루어졌다. 1941년 중반의 조사에 따르면, 이 지구에 신축된 주택 수는 2천여 호 정도였다. 더불어 시가지계획도로도 부설되고 전차노선도 연장되었다. “전차길이 돈암동까지 연장되면서 큰 길이 생기면서 완전히 변화가가 되었다.”라는 한 여성의 회고처럼 말 그대로 신시가지가 조성되었던 것이다.

오늘날 보문동, 안암동, 동소문동, 동선동, 삼선동 일부를 포함하는 돈암지구에는 주로 ‘집장사’라고 불리는 전문주택회사에서 건축한 주택들이 들어섰다. 현재 이른

바 '개량 한옥' 또는 '도시형 한옥'이라고 불리는 이 주택은 전통 한옥을 구조나 재료 측면에서 단순화시킨 것이었다. 식민지기 개량 한옥은 일정한 경제력을 가진 도시 거주 조선인의 일반적인 주거형태로서, 이미 구도심부의 가회동·봉익동·누상동 등에는 개량 한옥지대가 형성되어 있었다.

그런데 구도심부의 개량 한옥 지대와 돈암지구에 새롭게 형성된 개량 한옥 지대는 근본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었다. 건축학계의 실측 연구에 따르면, 구도심부 개량 한옥 지대가 무정형의 필지와 막힌 골목을 특징으로 하는 반면, 돈암지구의 개량 한옥 지대는 정방형의 필지와 격자형의 진입로로 구성되어 있었다. 두말할 나위 없이 그것은 이 지역이 구획정리에 의해 계획적으로 조성된 주택지였기 때문이다.¹⁸

돈암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과 그에 따른 도시형 한옥의 건설 및 입주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충무로에서 혜화동을 경유하여 돈암동까지 닿는 전차 노선도 신설되었다. 1941년 7월 21일, 창경원~돈암동네거리 간 전차 노선이 개통되어 돈암정 주민은 물론 동소문 밖 성북동·안암동·정릉리 등의 주민 역시 교통의 편리를 누리게 되었다. 아울러 1944년에는 돈암국민학교(지금의 돈암초등학교)가 개교하였고, 돈암동 전차 종점과 가까운 곳에 돈암공설시장(지금의 돈암시장)이 개업함으로써 주택, 학교, 시장이 어우러진 부도심의 면모를 띠게 되었다.



일제강점기 전차 노선도
(《매일신보》 1940년 3월 28일)

18 염복규, <새로운 공업지역과 주거지역의 형성> 《서울은 어떻게 계획되었는가》, 살림, 2005.

이러한 경관과 주거 환경의 변화와 발맞추어 주목할 만한 시설과 건물들도 들어서게 되었으니 대표적인 것으로 지금의 동소문동4가 지역에 들어선 평산목장과 돈암장을 꼽을 수 있다. 평산목장은 1929년 옛 동활인서 터 부근(당시 주소는 경기도 고양군 송인면 돈암리 421)에 들어선 목장으로 젖소를 키워 우유를 판매하는 업체였다. 이는 일본인 히라야마 세이쥬(平山政十)와 가가와 쇼군(香川守行)이 공동 출자하여 설립한 합자회사로 젖소를 사육해 우유를 판매하였다.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기록에 의하면, 평산목장에서 짜낸 우유는 경성 시내의 집집마다 배달 판매하였던 것으로 보이며¹⁹ 1945년 광복 전까지도 꽤 안정적인 경영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광복 후에는 광복군(光復軍)으로 활동했던 김상겸(金相謙)이란 인물이 목장을 불하 받아 경영하기도 했다.²⁰

1939년에는 평산목장과 가까운 언덕 꼭대기에 이송래라는 사람이 청기와를 얹은 기와집 한 채를 지었다. 지금은 돈암장으로 불리는 이 기와집은 대목장(大木匠) 배희한(裴喜漢(1907~1997))이 궁궐 양식으로 지은 것으로 한식 목조 팔작지붕의 한옥 건물이다. 광복 후 장덕수(張德秀(1894~1947))의 권유로 이승만(李承晩)

성북상가아파트
입주안내 광고



19 국사편찬위원회 편, <증인 노무라 인병(野村仁兵衛) 신문조서>(1922년 1월 14일)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권29, 의열전쟁2, 조선총독부 폭탄투척사건 예심신문조서(한국사데이터베이스 홈페이지 <http://db.history.go.kr>).

20 국사편찬위원회 편, <김상겸(金相謙)> 《한국근현대인물자료》(한국사데이터베이스 홈페이지 <http://db.history.go.kr>).

(1875~1965) 내외가 이 집에 약 2년간 머물렀다. 장덕수는 돈암장이 정원도 넓고 언덕 위에 있어서 전망이 좋으므로 이곳을 숙소로 정할 것을 권유한 것이다. 이승만이 돈암장으로 거처를 정하자 수많은 정치인들이 매일 이 집에 운집하여 문전성시를 이루었다고 전한다.

이밖에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일 때는 지금의 동소문로 북쪽의 구릉지대에 일제가 방공호를 뚫었다는 것도 여러 문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동리의 소설 <혈거부족 穴居部族>, 주요섭의 소설 <잡초>, 김영수의 희곡 <혈맥 血脈> 등은 광복 이후 이 방공호에 들어선 빈민들의 이야기를 다룬 문학 작품으로, 광복 이전에 일제가 전쟁 수행을 위해 수많은 방공호를 파놓았음을 짐작케 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

2) 1960년대 후반 성북천 복개사업과 주상복합상가의 건립

성북천은 성북구 성북동 북악산 동쪽에서 발원하여 동남쪽으로 흘러 청계천으로 합류하는 지방하천이다. 성북구와 동대문구에 걸쳐 흐르고 있으며, 총 유역면적 중 성북구에 91.5%, 동대문구에 0.63%가 속해 있다.²¹ 1960년대까지 물이 매우 맑아서 그 일대에서 복숭아를 재배하고 물가에서 빨래를 했다고 한다. 하지만 1960년대 말부터 총 3.66km 구간에서 복개가 이루어져 수질이 악화되었다.²²

1967년 10월 23일 서울시는 삼선교~돈암교~성북경찰서 뒤를 흐르는 1,014m의 성북천을 복개한 후 현대식 아파트와 백화점을 세우기로 결정하였다. 이것은 도심지 불량지구 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이었다. 당

²¹ 조용모·이혜영·여형범, <성북천 복원사업의 효과평가 연구>, 2004, 서울시정개발연구원, 10쪽.

²² 이상배, <서울의 하천>,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 2000, 264쪽.

시 서울시는 민간자본 유치사업이 비용을 들이지 않고 불량지구를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성북천, 봉원천, 용두천, 홍은천 등 도심지와 가까운 하천을 복개하고 상가아파트를 만드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였다.²³

성북천 복개공사가 진행될 지역에는 삼선시장이 있었는데 이곳은 무허가 건물 128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서울시는 민간자본 2억 280만 원을 유치하여 3층에서 5층 규모의 상가건물을 짓고자 하였다. 이 건물은 사무실 2동, 백화점 2동, 점포 152개, 아파트A형 187동, B형 144동으로 구성될 예정이었다. 공사의 구체적 구간과 시점은 다음과 같았다. 1차 공사구간은 삼선교~양회다리 간 366m이며 1967년 10월 30일에 착공을 시작하여 1968년에 완공하고, 2차 공사구간인 양회다리~돈암교간 408m는 1969년 1월 착공하여 연내에 완성하고자 하였다. 마지막 공사구간인 돈암교~성북경찰서 뒤 240m는 1970년 1월에 착공하는 것으로 발표되었다.²⁴ 1968년 6월 26일 삼선상가아파트의 일부가 개점되었다. 총 3개 동으로 구성될 상가아파트 중 일부가 개업한 것이었다.²⁵ 1968년 7월 말에는 다시 일부가 완성되었다.

성북천이 복개된 자리에는 성북상가아파트 C, D, E, OB동(1969~1973), 삼익맨션아파트(1971), 삼선맨션아파트(1971), 삼선상가아파트 A·B·C동(1969~1971)이 차례로 들어섰다.²⁶ 다음은 《매일신문》 1969년 1월 12일자에 게재된 성북상가아파트 입주안내 광고이다.

23 《경향신문》 1971년 9월 24일.

24 《동아일보》 1967년 10월 23일.

25 《경향신문》 1968년 6월 10일.

26 《한겨레21》 2005년 4월 22일.

광고에 따르면 성북상가아파트의 위치는 동소문동3가 11번지이며, 건물은 총 3층이었다. 1층은 각종식료품, 의복, 화장품, 시계, 라디오 등을 파는 상점을 모집하였다. 2층은 다방, 식당, 병원, 미용실 등과 같은 편의시설로 구성되었다. 3층은 아파트로 거주시설이었다.

1977년 9월 1일에는 삼선동 삼선교 상류 성북천 복개공사가 착공되었다. 총공사비는 1억 3,600만 원으로 책정되었으며, 폭 4m, 깊이 3m, 길이 180m의 암거 3개를 나란히 설치하고 그 위를 포장한 후 인도와 차도를 구분한다는 계획이 수립되었다. 이 공사는 도로를 확장하는 공사였던 것이다. 공사 기간은 1977년 12월 말까지로 계획되었으며, 도로 폭이 넓어짐에 따라 차량 소통이 원활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되었다.²⁷

성북천 합류지역에서 보문동1가까지의 구간을 제외하고 성북천 상류 지역은 모두 복개되었다. 그리하여 성북천이 복원이 될 때까지 이곳은 복합상가, 도로, 주차장으로 이용되었다.²⁸

3) 1980년대 전반 지하철 4호선 개통

서울시는 교통부와 협의하여, 1980년 7월 15일 지하철 3호선과 4호선 54개 역의 위치를 최종적으로 확정해 고시하였다.²⁹ 이에 따라 1982년에는 동소문동1가 일부 지역에서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이 이루어졌다. 이것은 미아로 확장계획선에 저촉된 부분과 지하철 4호선이 개통됨에 따라 정차장 건물 공사에 따라 수용되는 토지들이 발생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삼선정차장(지금의 한성대입구역) 출입구 및 환기구 설치 지점

²⁷ 《동아일보》 1977년 9월 1일.

²⁸ 조용모·이혜영·여형범, 앞의 글, 2004, iii쪽, 15쪽.

²⁹ 《경향신문》 1980년 7월 15일.



한성대입구역(위). 성신여대입구역(아래)

과 도로확장계획선에 저촉된 토지와 건물을 보상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보상대상이 된 건물이 철거되면 삼선정차장 건설 공사를 벌이기로 결정하였다.³⁰

1985년에 개통된 지하철 4호선은 동소문동의 중심거리인 동소문로 아래를 지나는 노선으로 동소문동 거주민이 애용하는 대중교통 수단이다. 1981년 공사에 착수한 지하철 4호선은 1985년에 상계동에서 한성대입구(삼선교)역의 11.7km 구간이 1차로 개통하였고, 나머지 구간도 같은 해 완공되어 1985년 10월 18일에 전 구간이 개통되었다. 동소문동에는 한성대입구(삼선교)역과 성신여대입구(돈암)역 등 두 개의 역이 생겼다. 지하철 4호선은 동소문동과 서울 도심 및 한강 이남지역을 단시간에 연결해 주기 때문에, 동소문동 전 지역이 대부분 역세권에 속하게 되어 이 지역의 토지 가치가 크게 상승하였다. 이는 돈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이후 큰 변화가 없던 동소문동에 새로운 주택과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건설을 부채질하였다.

4) 1990년대 초반 동소문동 재개발사업

돈암동 606번지와 동소문동1가 1번지 일대의 재개발사업 계획이 확정된 때는 1986년 1월로, 서울올림픽을 약 2년 앞둔 시점이었다. 서울시는 삼선중학교부터 홍천사에 이르는 5만 5,614평(약 18만 3,848㎡) 부지에 있는 불량주택 1,500여 채를 헐어내고 15층 고층아파트 32동을 짓는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는 그 전까지 서울시가 추진해온 불량주택 재개발사업 중 가장 규모가 큰 사업으로 1,83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1986년 3월에 착공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986년 2월 4일 동소문지구 조합이 설립되었으며

³⁰ 이때 보상되는 토지의 주소와 면적은 다음과 같았다. 동소문동1가 83-1번지 32㎡, 84-1번지 27㎡, 80번지 6.6㎡, 82번지 7㎡, 13-1번지 24.2㎡, 14-1 61.5㎡, 15-1번지 47.2㎡, 16-1번지 55.7㎡, 22-3번지 50.1㎡, 23-1번지 47.2㎡, 26-1번지 12.7㎡, 27-1번지 51.2㎡(《경향신문》 1982년 6월 15일).

동소문지구 재개발 예정지
(1990년)



동소문지구
재개발사업 기공식
(1990년)



시행인가를 위한 공람에 들어갔다.³¹ 그러나 실제로 착공이 이루어진 때는 1990년 4월이었다. 이것은 이후 5년에 걸친 세입자들의 재개발 반대 운동 때문이었다.

³¹ 《경향신문》 1986년 2월 4일.

처음 재개발사업 소식을 들은 동소문동과 돈암동의 해당 지역 세입자들은 크게 반발하였다. 이 일대 인구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던 세입자들은 재개발사업이 이루어지면 투기꾼들이 주축이 된 재개발조합과 건설업체만 이득을 볼 뿐 세입자들은 서울 외곽으로 쫓겨나야 할 형편이므로 1988년 4월부터 세입자대책위원회를 결성해 반대운동을 펼쳐 나갔다. 세입자대책위원회는 1990년까지 재개발사업 지구의 세입자들을 대표하여 서울시에 진정을 넣고 언론에 상황을 알리면서 재개발조합과 협상을 진행하였다. 협상은 1990년 4월에 타결을 보았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양측은 ▲ 세입자용 영구임대아파트 2개 동 570가구 건설 ▲ 1989년 12월 31일 이전 입주 세입자에게 영구임대아파트 입주권 부여 ▲ 아파트 건립기간 중 부지 내 가건물 임시거주 허용 등 8개 항의 합의서를 변호사 공증을 거쳐 교환하였다. 양측은 또 이주를 희망하는 입주대상자에게는 서울시가 무이자로 200만 원을 장기 융자한다는 중재안도 받아들였다.³²

이와 같은 우여곡절 끝에 동소문동 구릉지대의 대규모 아파트단지 공사는 1995년 상반기에 끝났다. 이렇게 해서 생긴 아파트단지가 바로 현재의 한신아파트와 한진아파트이다. 한진건설과 한신공영이 시공을 맡아 5년 만에 완공한 이 아파트단지는 건축 연면적이 32만여㎡에 10~20층짜리 고층 아파트 31개동이 들어선, 당시만 해도 강북 최대의 아파트단지였다. 입주 가구수는 총 4,294가구이며, 추가 지구를 포함하면 거의 5,000가구에 달하였다.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형성되자 성북동 입구에서 아파트단지를 잇는 도로(지금의 성북로4길)가 개설되고 아파트단지 안을 일주하며 한성대입구역으로 연결되는 마을버스 노선도 신설되어 아파트 입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였다.

32 <동소문동 재개발분규 | 8개항 합의 최종타결> 《중앙일보》 1990년 4월 12일.

5) 2000년대 초반 성북천의 생태하천으로의 복원

1999년 4월 1일 서울시는 서대문구 홍제천 복개부지의 유진상가와 신영상가, 성북구 정릉천 풍교상가, 성북천 삼선아파트·삼익상가·성북아파트 등 3개 하천 복개부지 상가아파트 11개 동을 철거하고 하천을 원상태로 복원한다고 발표하였다. 서울시가 이러한 계획을 발표한 이유는 1970년대 하천관리 개념이 명확히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복개가 진행되었고, 복개부지에 건립된 상가아파트들의 건물이 낡아서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 있었기 때문이다. 상가아파트들의 지상권 존속기간인 30년이 만료되는 시점이 얼마 남지 않은 것도 또 하나의 이유가 되었다. 서울시는 1999년부터 2003년까지 4년에 걸쳐 지상권 존속기간 만료시점에 따라 건물을 철거할 방침을 세웠다. 그리고 철거 건물 입주자들에게는 감정가에 따라 보상하고자 하였다.³³

하지만 보상 방식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성북구 사이에 이견이 있게 되었다. 서울시는 성북구에 공문을 보내 성북천 복개지 7개 상가아파트 중 안전진단 결과 ‘D등급(위험건물)’ 판정을 받은 성북상가아파트 OB동의 철거에 따른 보상 문제는 도시계획사업 추진결정에 따른 보상이 아닌 민법상의 지상권 원칙을 적용하자고 제안하였다. 그 이유는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입주자들에 대한 보상금이 높아지고, 이사 비용과 이주대책 비용까지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철거 대상 상가의 지상권이 만료되는 시점에 맞추어서 주민들이 상가 매입을 요청해올 경우 구청이 매입하고 철거와 하천복원사업을 추진하라고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성북구는 서울시의 방침에 동의하지 않았다. 보상에 응하지 않는 주민에 대한 수용과 강제집행 등 법적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도시계

33 《연합뉴스》 1999년 4월 1일.

획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불가피하며, 도시계획사업의 실시, 인가, 결정까지 고시했다는 이유에서였다. 성북구는 서울시의 방침대로 주민들이 스스로 상가아파트를 철거하고 하천을 복원시키기로 결정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는 계획안이라고 주장하였다. 서울시가 방침을 바꾸지 않은 성북구에서는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그 결과 성북상가아파트 OB동 철거는 계획보다 늦어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삼선 A·B동, 성북 C·D·E동, 삼익상가아파트 등 성북천 복개지에 있던 나머지 건물 6개 동에 대한 사업추진 계획도 늦춰지게 되었다.³⁴

성북상가아파트 OB동 철거 결정은 2001년 4월에 이루어졌다. 당시 성북상가아파트 OB동에는 주택 78가구, 점포 31곳이 입주해 있었다. 성북구는 보상절차가 마무리되어 4월 중순까지 이주가 완료될 예정이며 2001년 7월까지 이 건물을 완전히 철거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다.³⁵ 성북상가아파트 OB동 철거와 함께 2001년 9월 10일부터 성북천 복개구조물을 철거하는 1단계 복원공사가 시작되었다. 이 공사에서 동소문동3가에서 5가에 이르는 110m 정도의 콘크리트 복개 구조물이 철거되고, 그 자리에는 ‘성북동 생태공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이 발표되었다.³⁶ 1단계 복원공사는 착수한 지 약 2년 가까이 지난 2003년 7월 10일에 종료되었다. 공사비용은 약 15억 원이었으며, 성북천 복개구조물과 건물들이 철거되었다. 복원된 성북천 주변에는 자연석 125m와 생태블록 208m, 다리 1개 등이 설치되었다.³⁷

2004년에는 보상이 종료된 성북상가아파트 C·D·E동을 철거한다는 계획이 발표되었다.³⁸ 이와 함께 2단계 복원공사가 시작되었다. 2단계 복원공

³⁴ 《연합뉴스》 1999년 7월 2일.

³⁵ 《국민일보》 2001년 4월 3일.

³⁶ 《동아일보》 2001년 9월 4일.

³⁷ 《한겨레》 2003년 7월 10일.

³⁸ 《한겨레》 2004년 1월 20일.

오룡아파트에 이르는 구간 462m이며, 2006년 11월부터 착공하여 2007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다.⁴⁰

성북구의 발표대로 2006년 11월부터 3단계 1구간 복원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3단계 2구간(242m) 복원공사는 2008년에 가서야 진행될 수 있었다. 그 이유는 복개된 성북천 위에 위치한 삼선상가의 철거문제로 시장 상인과 서울시 간에 마찰이 있었기 때문이다.⁴¹ 성북구는 2007년 11월 삼선상가 건물의 보상을 마무리하였으며, 이에 따라 2007년 12월 삼선상가의 철거를 완료할 예정이고, 2008년부터 복원공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하였다. 이와 함께 성북천의 시작점이자 옛 삼선상가 자리인 한성대입구역 부근에는 자연하천임을 상징하는 ‘물고기 광장’을, 성북구 신청사 앞을 지나는 부근에는 ‘구청 앞 분수광장’을 조성한다고 발표하였다.⁴²

2007년 말 3단계 1구간 복원공사를 마쳤으며, 2009년 4월 16일에는 3단계 2구간 복원공사까지 완료하였다.⁴³ 완료된 3단계 2구간은 한성대입구역에서 하류 쪽으로 242m 거리였으며, 성북천은 폭 19~27m의 자연하천으로 복원되었다. 이와 함께 소광장, 분수시설, 친수^{親水} 계단, 징검여울, 교량을 설치하고 폭 2~2.3m의 산책로도 조성하였다.⁴⁴

2008년 9월 25일 성북구청에서 대광초등학교에 이르는 1.25km 4단계 구간 공사를 시작하였는데, 이 구간은 본래부터 복개를 하지 않았던 지점이었다.⁴⁵ 2009년 7월 31일에는 성북구청과 성북경찰서 인근 250m 복개구간을

40 《뉴시스》 2006년 10월 30일.

41 맹다미·장남중·오정현, 앞의 글, 2011, 78쪽; 플로스코리아, <‘죽어야 철거민 생계대책 세울 것인가?’-삼선상가대책위>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http://www.nccmc.org>), 2007년 10월 26일.

42 《문화일보》 2007년 11월 21일.

43 《아시아경제》 2009년 3월 3일.

44 《아시아경제》 2009년 4월 16일.

45 《연합뉴스》 2008년 9월 24일.



복원한 성북천과
새로 생긴 산책로

공사하는 5단계 복원공사를 진행하였다.⁴⁶ 2010년 10월 31일에 4단계와 5단계 구간 공사를 마치고 성북천 복원 공사를 종료하게 되었다. 또한 2011년에는 동대문구 구간인 대광초등학교에서부터 청계천까지의 공사도 마무리되면서 성북천 산책로를 따라 청계천까지 갈 수 있게 되었다.

성북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함에 따라 주민들에게 청정한 하천 공간을 제공함은 물론 생명력 있는 하천관리와 치수안전 확보도 가능해졌다. 또한 동소문동뿐만 아니라 주변의 삼선동·안암동·보문동 일대 주민들의 주거

⁴⁶ 《경향신문》 2009년 7월 31일.

환경이 크게 개선되었고, 성북천을 따라 산책로가 생김에 따라 주민들의 쾌적한 산책로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성북천 다리를 이용하여 분수마루, 바람마당 등 여유 공간도 확보하여 주민들의 문화 향유를 위한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게 하였다. 복원한 성북천에는 총 22개의 다리를 건설하였다.

6) 2000년대 초반 동소문동2가 재개발계획

2002년 서울시는 동소문동2가 지역을 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하였다. 동소문동2가의 외곽인 동소문로 주변에는 상업지구가 형성되어 있지만 내부에는 오래된 도시형 한옥과 작은 상점들이 밀집해 있는 상태였다. 서울시가 재개발구역으로 결정한 동소문동2가의 면적은 2만 657㎡이다. 2006년 3월 22일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으며 2008년 3월 17일 조합설립이 인가되었다.

성북구청은 동소문동2가 33번지 일대의 재개발계획을 수정하여 서울시에 제출하였다. 성북구청 수정안은 받아들여졌으며, 2011년 11월 10일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336호에 따라 구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승인이 고시되었다.⁴⁷ 이 계획에는 동소문동2가에 421가구 규모의 최고 지상 29층 아파트 단지를 건설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⁴⁸

동소문동2가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은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고 있으며 철거형 정비수법의 재개발이 필요한 취약거주지역이었다. 하지만 동소문동2가 재개발 계획은 지역 특성과 상황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윤정훈은 그의 논문에서 이 지역의 거주민 중

⁴⁷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관리국 주거정비과, <동소문제2주택재개발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336호), 2011(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홈페이지 (<http://luris.go.kr>)).

⁴⁸ <한성대입구역 일대 성북구 진입관문 랜드마크 재탄생> 《뉴시스》 2010년 4월 29일 ; 민동훈, <성북구 동소문 일대 421가구 공급> 《머니투데이》 2011년 10월 6일.

5%가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이며 이 수치는 다른 지역보다 높은 것임을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현재 동소문동2가 지역의 주택이 철거되었을 때 기존 거주민의 이주현상이 발생할 것임을 경고하였다.⁴⁹

한편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현장조사 결과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지붕·벽체·설비 창호 및 출입문 등을 정비하여 건축연도에 비해 양호한 상태의 주택이 다수 있음이 밝혀졌다. 그러면서 이러한 주택의 개·보수 노력은 건축물의 불량도를 신축연도로만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강조하였다.⁵⁰ 아울러 연구에서는 동소문동2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가 많고, 세입자가 78.2%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재개발을 추진할 때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설문조사의 결과 지역주민의 거주기간은 평균 31년이며, 앞으로도 계속 거주하고 싶다는 결과가 나왔음을 언급하였다. 마지막으로 재개발지역 내에 한옥이 밀집해 있음을 지적하였다. 동소문동2가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단독주택 대부분은 1970년대 건축된 토기와 지붕과 목조 구조의 도시형 한옥이다. 따라서 이것은 지역의 매력적인 요소가 될 수 있으며 이것을 보존, 관리 및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⁵¹

2010년대 들어와 동소문동2가 소재 한옥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하고 있다. 2013년 재단법인 아름지기에서는 <한옥의 경계, 이 시대의 집합 도시 한옥>이란 주제로 공모전을 추진하였다. 이 공모전의 대상지는 동소문동2가에 있는 한옥 집합지역 11개 필지였다.⁵² 한옥을 보존하려는 노력은 성북구

⁴⁹ 동소문동2가 재개발에 관한 사항은 윤정훈, <도시낙후고립지역의 경계 공간 디자인을 통한 도심 주거지 재생 방안연구 -동소문동2가 성북천변을 중심으로- >, 경희대 석사학위논문, 2015, 26~33쪽이 참조된다.

⁵⁰ 맹다미·장남중·오정현, 앞의 글, 2011, 70쪽.

⁵¹ 맹다미·장남중·오정현, 앞의 글, 2011, 78·81쪽.

⁵² <뉴스시스> 2013년 11월 22일.

청도 시도하고 있다. 2013년 성북구청은 4월부터 12월까지 지자체 최초로 한옥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성북구에 서울시 전체 한옥의 11.8%인 1,618채가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조사를 기반으로 성북구청은 <성북구 한옥보전 및 관리를 위한 기본구상안>을 수립하였다.⁵³

7) 2010년대 후반 서울 창작연극 지원시설 건립 추진

2010년대 중반 한성대입구역 주변을 연극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움직임이 일어났다. 2015년 서울시는 비싸진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는 문화예술인·소상공인이 해당 지역에서 집단적으로 밀려나는 등지 내몰림, 즉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현상을 막기 위해 <서울시 젠트리피케이션 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⁵⁴ 그 일환으로 대학로와 인접한 한성대입구역 인근 동소문동1가 1-4 일대(대지면적 2,760㎡)에 지하 2층~지상 3층 규모의 공영 연극지원센터를 만들기로 결정하였다.⁵⁵

이러한 서울시 구상은 2010년대 후반 다시 구체화되었다. 서울시는 2017년 9월 11일, 지하철 4호선 한성대입구역 6번 출구 뒤쪽(성북구 동소문동1가 1-4)에 '서울 창작연극 지원시설'을 만든다고 발표하였다.⁵⁶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지하 2층~지상 4층 규모(연면적 8,056㎡) 건물을 지어 창작연극인 지원시설과 지역주민 및 연극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한다. 다음으로 건물 안에는 창작연극을 올릴 수 있는

53 《뉴스원》 2014년 1월 17일.

54 서울특별시 기획조정실, <서울시 젠트리피케이션 종합대책>, 2015년 12월 7일(서울정보소통광장 홈페이지 opengov.seoul.go.kr).

55 《한국경제》 2015년 11월 24일.

56 서울특별시 문화시설과, <창작연극 지원시설 건립>, 2017년 2월 16일(서울정보소통광장 홈페이지 opengov.seoul.go.kr) ; 서울특별시 도시공간개선단, <(석간) 서울시 대학로 인근 국내 최초 창작연극지원시설 조성>, 2017년 9월 11일(서울정보소통광장 홈페이지 opengov.seoul.go.kr).

소극장, 실험적인 공연에 적합한 블랙박스형 극장과 연습실·리딩룸이 들어선다. 마지막으로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북카페, 전시실, 시민문화연극 교실 등을 조성한다.

건물을 세우는 데 드는 비용은 서울시가 전액 부담하고 건물이 들어서는 토지는 성북구가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서울 창작연극 지원시설’은 2018년까지 설계 작업을 마무리하고 착공에 들어가며, 2021년 4월에 건물을 완성할 예정이다.⁵⁷ 이러한 서울시의 구상은 2015년에 발표된 <서울시 젠트리피케이션 종합대책>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2017년에 발표된 ‘서울 창작연극 지원시설’ 건립 내용은 건물을 짓는 비용 문제, 토지 문제 등이 해결된 구체적인 계획이라고 볼 수 있다. 서울시에서는 새롭게 만들어진 공간이 창작연극계의 허브임은 물론, 연극인과 지역주민 모두에게 사랑받는 공간으로 만들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⁵⁸

57 《연합뉴스》 2017년 9월 11일.

58 《KNS뉴스통신》 2017년 9월 12일.

3

주요 시설·기관

동소문동

1)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1) 구 성북구 청사

동소문동 지역은 지금도 그렇지만 도심인 종로구와 서울 외곽의 주거지역을 연결하는 고리 역할을 하는 지점이므로 성북구에서 가장 넓은 도로가 지나고 그만큼 변화한 곳이다. 따라서 일찍부터 주요 공공기관이나 문화시



신축한 성북구청
(1965년)

설이 성북구의 여타 동들보다 많이 들어섰다. 동소문동에 있었던 가장 대표적인 공공기관으로는 성북구청을 꼽을 수 있다. 2018년 현재 성북구청은 보문로의 삼선동5가에 자리하고 있지만 1950년 3월 30일 처음 성북구청을 개설할 때는 현재의 자리가 아닌 동소문동3가 29번지(지금의 연세빌딩 국민은행 삼선교지점 자리)에 있는 3층 석조 건물을 청사로 삼아 개청식을 가졌다. 그 후 1957년에 현재의 건물을 짓고 이전하였다.

(2) 대한노인회 동소문분회

대한노인회 동소문분회는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소속 분회 중 하나이다. 대한노인회는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 노인 자원봉사 활동의 증진,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운영, 노인 취업활동 지원,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1969년 설립된 보건복지부 산하 사단법인이다. 대한노인회 동소문분회는 대한노인회가 전국 읍·면·동 단위에 설립한 분회 2,031개 중 하나이다. 동소문로13길 39-2(동소문동4가 278-2)에 위치해 있다.

(3) 동소문데이케어센터

동소문데이케어센터는 2014년 4월 개소한 노인 장기요양보호기관이다. 치매 및 노인성 질환을 가진 어르신을 대상으로 개별 맞춤 케어 서비스 및 치매전문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심신기능의 향상 및 일상생활 유지를 돕고 부양가족의 부담을 경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뿐만 아니라 어르신들 대상의 사회심리재활 프로그램, 신체재활 프로그램, 보건위생 의료서비스, 결연후원사업 등을 진행하여 어르신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안전하고 행복하게 생활하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동소문로11길 18(동소문동4가 237) 삼충사타운 1층에 입주해 있다.



성북구보건소
동선보건지소

(4) 성북구보건소 동선보건지소

성북구보건소 동선보건지소는 성북구보건소 산하 보건지소로서, 2011년 9월 이 지역 주민의 보건 의료를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성북구청에서 추가로 설립하였다. 성북구보건소가 하월곡동에 위치하여 이곳 주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관계로 지금의 위치인 아리랑로3길 8(동소문동 6가 146)에 개소한 것이다.

개소 후 2개월 동안 이용자 6,000여 명을 분석한 결과 56%가 보건소를 처음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 의료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주민 불편을 해소하였다는 평가를 얻었다.⁵⁹ 동선보건지소의 주요 사업은 운동, 영양, 금연, 절주, 생활스트레스 상담 및 진단 등 통합건강증진서비스, 만성 질환자와 장애인을 위한 재활서비스, 취약계층을 찾아가는 방문서비스, 건강진단서 및 보건증 발급업무 등 기존의 보건분소에서 실시하는 광범위하고 통합적인 보건의료서비스 등이다.

59 《아시아경제》 2011년 10월 31일.



성북구 1인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도전숙 1호점

(5) 성북구 1인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성북구 1인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성북스마트앱창작터)는 2011년 7월 설립된 기관으로, 1인 창업자 특히 스마트기기 어플리케이션 개발·게임 개발 등의 ICT 분야 지식산업 기업의 체계적 육성과 효율적 지원을 위해 설립되었다. 동소문로 63(동소문동4가 260) 드림트리빌딩에 입주해 있다.

비즈니스센터는 성북구청이 주관하고 서울상공회의소 성북구상공회에 맡아 운영하고 있으며, 입주 기업들에게 각종 전산장비(스마트기기, 개발 프로그램, 컴퓨터), 각종 사무집기, 사무공간, 회의실 등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더불어 교수 및 기업대표 등으로 구성된 지원협의체 운영으로 진행방향과 과정 등을 멘토링하고 있으며, 법률·세무·노무·특허·창업 관련 경영

상담 전문가 등과의 네트워크를 통한 창업까지의 모든 과정을 지원하고 있다. 2017년 11월 기준으로 107개의 창업기업을 배출하였으며, 총 27개의 1인 기업이 입주하여 성북구 1인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의 지원 속에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한편 성북구에서는 사무공간뿐만 아니라 ‘1인 창조기업 공공원룸주택 도전숙·도전하는 사람들의 숙소’이라는 명칭의 직주혼합형 공공원룸주택을 소득이 적은 1인 창조기업 및 예비창업자들에게 제공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사무공간과 주거공간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러한 도전숙은 “젊은 창업자에게 ‘스티브 잡스의 차고’ 같은 공간을 만들어주겠다.”라는 모토를 내걸고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서울지방중소기업청, 성북구청이 2013년 11월 11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넉 달 뒤인 2014년 3월 17일 성북구에 21세대 규모의 1호점을 공급하면서 결실을 맺었다. 2018년 6월 현재 성북구에 9호점을 냈으며, 10월에 10호점까지 열었다.⁶⁰ 2018년 6월 기준으로 도전숙은 성북구 외에도 은평구·금천구·성동구에 각각 1곳이 있으며, 강동구엔 3곳이 개설되어 있다.⁶¹

2) 보육·교육시설

동소문동에는 보육시설로 동선·성북어린이집 등이 있으며, 교육시설인 유치원은 새삼선·서울돈암초등학교병설·서울정덕초등학교병설유치원 등이 있다.⁶² 동소문동에는 초등학교가 2개교, 중학교가 1개교 있다.

60 《머니투데이》 2018년 10월 10일.

61 서울시와 자치구의 도전숙 개설 목적과 현황에 대해서는 《한겨레》 2018년 6월 1일 참조.

62 어린이집은 성북구청에서 제공한 2018년 11월 기준 <성북구 어린이집 현황>을, 유치원은 유치원 알리미 홈페이지(<http://e-childrenschoolinfo.moe.go.kr>)를 참조하였다.

(1) 학교

동소문동의 학교로는 2018년 현재 서울돈암초등학교, 서울정덕초등학교, 삼선중학교가 있다. 돈암초등학교는 돈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일환으로 동소문동6가 27-1에 건물을 세우고 1944년 9월에 개교하였다. 정덕초등학교는 이보다 2년 후인 1946년 11월에 동소문동7가 118-1에서 개교하였다. 이들 학교들은 동소문동뿐만 아니라 옛 돈암동 지역의 학령 아동들을 대상으로 지어진 학교로 지금까지 많은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중학교로는 동소문동1가에 삼선중학교가 1960년 5월에 개교하였다. 처음에는 삼선중학교와 삼선고등학교가 지금의 자리에 함께 들어섰는데 1971년 고등학교가 폐교되어 삼선중학교만 남아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① 초등학교

서울돈암초등학교는 1944년 9월 30일 개교한 공립 초등학교이다. 동소문로13길 38(동소문동6가 27-1)에 있다. 개교 당시 혜화국민학교와 효제국민학교 재학생 가운데 돈암정(지금의 돈암동)에 거주하는 학생들만 별도로 모아 반으로 편성하여 개교 후 돈암국민학교로 편입하였다.

2017년 기준 학급 수는 1학년 8개 반, 2학년 8개 반, 3학년 9개 반, 4학년 9개 반, 5학년 9개 반, 6학년 8개 반이며 특수학급 2개 반을 포함 총 53개 반이다. 서울돈암초등학교는 매우 유서가 깊어 2017년 현재까지 약 4만 5,000여 명이나 되는 많은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서울정덕초등학교는 1946년 11월 1일 사립 화강학원 정화본원을 서울정덕국민학교로 승격하면서 개교한 공립 초등학교이다. 아리랑로 63(동소문동7가 118-1)에 위치해 있다. 2017년 기준 학급수는 1학년 8개 반, 2학년 7개 반, 3학년 8개 반, 4학년 7개 반, 5학년 6개 반, 6학년 7개 반이며 특수학급이 2개 반 운영되고 있어 총 45개 반이다.



서울돈암초등학교(위)
서울정덕초등학교(아래)

서울정덕초등학교는 현재까지 약 1만 7,00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졸업생 가운데 유명인사로는 정치인 정병국 등이 있다.



② 중학교

삼선중학교⁶³는 공립학교이며 1960년에 개교한 역사가 오래된 학교이다. 동소문동1가와 4가에 걸쳐 위치한다. 1960년 2월 16일 신설인가를 받았으며, 같은 해 5월 3일 지금의 학교 위치에서 개교하였다.

2017년 기준 학급 수는 1학년 6개 반, 2학년 6개 반, 3학년 7개 반이며 특수학급 2개 반이 운영되고 있어 총 21개 반이다.

삼선중학교는 농구부가 유명하며,⁶⁴ 경복고등학교 농구부의 연계학교이기도 하다. 삼선중학교 농구부는 우지원·전희철·이재도·양재민 등 유명 농구선수를 배출하였다. 이밖에도 가수 고 유재하, 배우 최민식, 배우 겸 가수 양동근 등이 삼선중학교 출신이다.

삼선중학교는 삼선고등학교와 함께 설립되었다. 하지만 1968년 문교부는 시설 미비 등을 이유로 삼선고등학교를 폐교 조치하고, 1969년부터는 삼

⁶³ 삼선중학교에 대한 설명은 삼선중학교 홈페이지(<http://www.samseon.ms.kr>) 참조.

⁶⁴ 한필상, <서울 농구의 중심을 노린다 '삼선중학교'> 《점프볼》, 2012년 4월 18일.

선중학교 출신들을 경동고등학교에 진학시키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조치에 대해 항의가 이어졌지만 결국 삼선고등학교는 폐지되고 삼선중학교만 남게 되었다.⁶⁵

(2) 평생교육시설

① 성북문화원⁶⁶

성북문화원은 성북구의 대표적인 평생교육기관이다. 성북로4길 13-2(동소문동1가 1)에 위치해 있다. 지하철 4호선 한성대입구역을 기준으로 할 때 성북문화원으로 가기 위해서는 4차선 도로가 지나가는 약간 경사진 길을 올라가야 한다. 원래 성북문화원 앞 4차선 도로 양편은 낮고 바랜 시멘트 벽면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아름다운 벽화가 그려져 있다. 이것은 성북문화원의 주관 아래 성신여대 산업디자인과, 국민대 금속공예학과·의상디자인학과, 한성대 인테리어디자인과·시각영상디자인과 소속 10명의 학생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하여 조성한 것이다. 벽화의 높이는 최저 105cm에서 최고 370m에 이른다. 이 벽화를 계기로 성북문화원은 공공미술 프로그램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⁶⁷

한편 지하철 4호선 한성대입구역 6번 출구를 나와 성북문화원으로 가다 보면, 동소문로3길 11(동소문동1가)에 위치한 작은 가로공원에 설치된 소녀상을 볼 수 있다.⁶⁸ 전국에 여러 소녀상이 설치되어 있지만, 가로공원에 설치된 이 소녀상은 특별한 의미를 지녔다. 한국인 소녀상뿐만 아니라 중국인 소

65 《경향신문》 1968년 11월 9일.

66 성북문화원에 대한 부분은 박수진·백외준·김정현·민문기 편, 《성북문화원 20년사-어제와 오늘-》, 성북문화원, 2016의 내용을 바탕으로 서술하였다.

67 《아시아경제》 2009년 9월 20일.

68 평화의 소녀상 조각가 부부가 펴낸 책인 김서경·김운성, 《빈 의자에 새긴 약속-평화의 소녀상 작가 노트-》, 말, 2016에는 소녀상의 건립 과정과 의미가 담겨 있다.



녀상이 함께 설치되어 있기 때문이다. 일본군 성 노예(Military sexual slaves)⁶⁹ 피해자를 대변하는 한국인과 중국인 소녀상이 일본의 진정어린 사과와 배상, 그리고 당시의 진실을 외면하지 말고 밝혀줄 것을 묵묵히 요구하고 있다. 이 소녀상의 이름은 ‘한·중 평화의 소녀상’이다.

‘한·중 평화의 소녀상’은 2015년 10월 28일 제막되었다. 그 전인 2013년 7월 30일 미국 로스엔젤레스 인근의 글렌데일(Glendale) 시립 중앙도서관 앞 시립 공원에 ‘평화의 소녀상’⁷⁰ 제막식이 열렸다.⁷¹ 이 ‘평화의 소녀상’을 본 중

⁶⁹ UN 인권위원회 특별보고관 라디카 쿠마라스와미(Radhika Coomaraswamy)가 제출한 보고서에 의하면, ‘위안부(Comfort women)’라는 표현은 여성 희생자가 전시에서의 강제 매춘과 성적 억압 및 학대 중에 견뎌야 했던,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여러 번의 강간과 심각한 신체적 학대와 같은 고통을 최소한 반영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군대 성 노예(Military sexual slaves)’라는 표현이 훨씬 정확하고 적절한 용어라고 하였다(Radhika Coomaraswamy, *Report on the mission to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on the issue of military sexual slavery in wartime*,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Human Rights, 1996).

⁷⁰ 글렌데일 소녀상은 종로구에 소재한 주한 일본대사관 맞은편 ‘평화의 소녀상’을 만든 김서경·김운성 부부 작가가 똑같은 것을 새로 만들어 선박으로 운송해 설치한 것이다(《SBS NEWS》 2013년 7월 31일).

⁷¹ 《연합뉴스》 2013년 7월 31일.

국 청화대 미술학교 교수 관위친 潘毅群과 영화 제작자 레오스용^{Leo史詠}이 동상 제작자인 김서경·김운성 부부에게 연락을 하여 동소문동1가 가로공원에 있는 ‘한·중 평화의 소녀상’을 만들었다. 두 소녀상 옆에 있는 빈 의자에는 아래와 같은 글이 새겨져 있다.

먼 길을 돌고 돌아 친구를 찾아와 옆에 앉았습니다.

있던 자리에선 말을 못하고 숨죽여 왔습니다.

친구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소곳하면서도 진지하고, 잔잔하면서도 진실되게 이야기하는 친구와 같이하고 싶었습니다.

바로 나의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절대 잊을 수 없는 우리들의 이야기

이제 함께 하려 합니다.

성북문화원은 1996년 12월 19일 옛 동소문동사무소 건물에서 설립되었다. 당시 성북문화원이 위치했던 건물은 1981년 6월 18일에 준공된 이래 동소문동사무소로 사용되고 있었다.⁷² 후에 동소문동사무소가 지금의 해오름 어린이도서관 자리로 이전한 후에도 성북문화원은 이전하지 않았으며, 현재까지 같은 건물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 성북문화원은 성북구가 주관하는 다수의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하고 있으며, 성북구의 인물과 문화재 등을 복원하고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기관이다.

성북문화원이 만들어진 배경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산업화로 인한 도시 발달과 경제 발전에 따른 생활여건이 향상되면서 지역주민들의 문화의식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주민들의 문화예술을 폭넓고 깊이 있게 향유하려는 욕구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성북구에 다수의 문화재가 있고 수많은 문화·예술인들이 배출되었던 지역적 특성 때문이다.

72 《경향신문》 1981년 6월 18일. 동사무소의 현재 명칭은 주민센터이다.

이와 같은 여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북문화원이 만들어지기 이전에는 성북구 주민들이 누릴 수 있는 문화공간이 부족했으며, 지역의 문화 사업을 이끌어갈 주체가 없었다. 당시 초대 민선 성북구청장이었던 진영호(陳英浩) 구청장은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성북구 관내에 위치한 대학 총장들과 문화예술인, 학계, 재계 인사들과 함께 성북문화원을 창립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처럼 성북문화원을 창립한다는 사실이 가시화되자 성북구에 거주하던 재계 인사들이 문화원 설립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였다. 지역 문화 발전을 위한 문화사업 진행과 성북구에 거주하는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해 거액의 출연금을 쾌척하기도 하였다.

성북구에 거주하던 재계 인사들을 비롯하여 문화예술인, 학계, 관내 대학 총장들, 성북구청장 등으로 구성된 성북문화원설립추진위원단이 구성되었다. 구두희 LG그룹 창업고문이 추진위원장이 되었고, 천신일 세중그룹 회장, 이동찬 코오롱 명예회장, 정세영 현대자동차 명예회장 등과 같은 재계 인사들이 참여하였다. 또한 민병천 서경대 총장, 이면영 홍익대 총장, 이용남 한성대 총장 등 각 학교의 총장들도 위원단에 동참하였다. 이외에도 서세옥 전 서울대 미대학장, 변종하 서울대 교육대학원 교수, 전성우 간송미술관장 등 문화예술분야 학자들도 대거 참여하였다. 1996년 6월 7일, '성북문화원 설립을 위한 간담회'가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서 초대원장으로 구두희 LG그룹창업고문, 부원장에 정관현 삼화그룹회장, 천신일 세중그룹회장이 선출되었다.⁷³ 이후 4개월 뒤인 1996년 10월 16일 '성북문화원 창립총회'가 열렸다. 그 결과 사업계획과 자금조달을 추진할 이사회가 구성되었으며, 7개 분과위가 설치되었다.⁷⁴ 그리고 12월 19일 동소문동사무소에서 성북문화원이 건립되었다.

73 《동아일보》 1996년 6월 8일.

74 《경향신문》 1996년 10월 17일.

성북문화원의 설립 목적은 ‘지역사회의 계발 및 문화진흥’이었다. 그리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행할 사업으로 크게 8가지를 설정하였다.⁷⁵ 설립 당시 설정한 목표는 지금에 이르기까지 성북문화원 활동의 기본방침이 되고 있다.

성북문화원의 활동은 문화강좌, 출판, 예술제 개최 등 광범위하다. 따라서 한정된 지면에서 20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 성북문화원이 활동한 내역을 다 서술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여기서는 성북문화원의 활동을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성북문화원은 개원된 후 내부공사 및 시설정비, 제반 규정 정비 등의 과정을 거쳤다. 1997년 4월, 주민들을 위한 문화강좌 1기 수강생 모집이 시작되었다. 서예, 수지침, 꽃꽂이 등의 강좌가 개설되었다. 문화강좌의 수는 해가 갈수록 늘어났다. 2004년에는 사군자, 수묵산수화, 한글서예, 어린이영어회화, 유아발레 등의 강좌가 개설되어 다양한 연령층이 전통문화, 예술, 체육활동 등을 즐길 수 있게 되었다. 2018년 1월 현재 성북문화원의 강좌는 79기까지 진행되었다.⁷⁶ 1999년에는 성북문화원 개원 3주년 기념 ‘성북문화학교 예술제’가 진행되었다. 이것을 통해 문화강좌 수강생들이 공연을 하고 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발표회는 ‘성북문화가족 한마당 발표회’, ‘성북문화가족 어울마당’ 등으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성북문화원의 정기적 활동 중 하나는 선잠제를 진행하는 것이다. 선잠제란 조선 복식문화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던 양잠(養蠶)을 장려하기 위해 풍요를 기원하며 잠신(蠶神)인 서릉씨(西陵氏)에게 올리던 제례이다. 고려시대부터

⁷⁵ 성북문화원이 수행할 사업 8가지는 다음과 같다. ① 지역 고유문화의 계발·보급·보존·전승 및 선양, ② 향토사의 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 ③ 지역문화 행사의 개최, ④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 보존 및 보급, ⑤ 지역 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⑥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활동, ⑦ 지역 환경보존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⑧ 기타 장학사업 등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⁷⁶ 성북문화원 홈페이지(<http://www.isbcc.or.kr>).

시작된 선잠제는 조선 말까지 매년 음력 3월 중 길한 사일(吉日), 성북동에 위치한 선잠단지(사적 제83호)에서 거행되었다. 성북구청은 1993년 이 행사를 재현했는데, 1998년부터는 성북문화원이 진행을 담당하게 되었다. 성북문화원은 성북구청, 대한잠사회, 선잠보존위원회 등과 함께 협력하여 현재까지 선잠제를 진행해오고 있다. 최근에는 선잠단 유적이 발굴되면서 선잠제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하였다.⁷⁷

성북문화원의 중점 사업 중 하나는 장학사업이다. 이 사업은 1997년 성북구에 위치한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30여 명을 대상으로 총 1,2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성북문화원은 매년 자체 예산으로 장학사업을 지속하였다. 성북문화원 2대원장인 천신일 회장에 따르면 성북문화원은 개원 당시 장학사업을 매우 중요시하였다. 컴퓨터 교육이나 문화강좌 등과 같은 것은 전문 실무자에게 맡겼지만 성북구에 거주하는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사업만큼은 직접 챙겼다고 한다. 이것은 1대 구두회 원장 때부터 이어진 것이었다고 회고하였다. 2001년 11월 25일자 《매일신보》는 “(성북문화원은) 2001년까지 총 4회에 걸쳐 120여 명의 중·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의 향학열을 크게 고취시켰다.”라고 보도하였다.⁷⁸

성북문화원이 창립 이후부터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또 하나의 주요한 사업으로 향토사연구를 들 수 있다. 1998년 향토성북 제1호 《성북의 문화재》 발간을 시작으로 1999년 향토성북 제2호 《사연이 깃든 성북의 유래》, 2002년 향토성북 제3호 《선잠제의 역사와 의례》를 발간하였다. 성북문화원의 향토사연구는 2010년대 들어와 더욱 활발해졌다. 2012년에 역사전공자인 사무국장을 영입했으며, 2013년 3월에는 향토사연구팀이 신설되었다.

⁷⁷ 《서울신문》 2017년 1월 12일.

⁷⁸ 《매일신보》 2001년 11월 25일.



성북문화원

신설된 향토사연구팀을 중심으로 성북문화원은 조선왕조실록, 문집, 신문 자료, 폐쇄토지대장 등 다양한 문헌자료에서 성북구와 관련된 자료들을 찾고 정리하였다. 또한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알고 있는 주민들을 인터뷰하고 이를 문헌과 비교하고 문서화하는 작업도 진행하였다. 그 결과 2018년 현재까지 성북구에 있는 문화재, 관광자원, 역사에 관한 책을 꾸준히 출판하고 있다.⁷⁹ 그리고 성북문화원만의 잡지인 《성북문화》를 2013년부터 발간하기 시작하였다. 2014년에는 문화원 회원들이 직접 쓴 시·소설·수필 등을 담은 문집인 《성북문예》가 발간되었고 2018년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성북문화원에 향토사연구팀이 만들어지면서 ‘역사문화탐방’ 프로그램이 더욱 활발해지게 되었다. ‘역사문화탐방’은 2000년부터 문화강좌 수강생 및

⁷⁹ 성북문화원에서 발간한 책자는 다음과 같다. 《동소문 밖 능말이야기》(2013), 《미아리고개》(2014), 《성북동, 만남의 역사 꿈의 공간》(2015), 《정릉·의릉 스토리텔링 리소스북》(2013), 《한양도성 이야기 자원 모음집》(2014), 《미아리고개 이야기 자원 모음집》(2014), 《성북동 이야기 자원 모음집》(2015).

회원들을 대상으로 전국 각지의 역사 문화유산을 찾아가는 프로그램이다. 향토사연구팀 연구원들의 전문적인 해설이 곁들여진 ‘역사문화탐방’에 대한 회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

성북구의 역사, 문화 등에 대한 향토사 연구 성과가 축적됨과 함께 주민 대상 인문학강연과 학술회의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성균관대 동아시아 역사연구소와 함께 인문학 강좌를 신설하였고, 이것은 2018년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성북구에서 이루어진 독립운동과 거주하였던 인물, 만해 한용운, 선잠제향, 4·19혁명, 6·25전쟁 등에 관한 전문 학술회의도 개최되었다.⁸⁰

성북문화원의 이러한 활동은 객관적 지표를 통해 인정을 받았다. 2016년 한국문화원연합회가 주최하는 2016년 대한민국문화원상에서 지역문화창달 향토사 활용 부분 1위와 종합경영분야 우수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② 키네스평생교육원

키네스평생교육원은 1999년 설립된 평생교육기관으로, 2011년 지금의 위치인 보문로38길 11(동소문동5가 120) 동일하이빌 230호로 자리를 옮겨 운영하고 있다. 근로자 직무능력 향상 제도·내일배움카드 제도·근로자 직업능력 개발훈련 제도를 통해 구직자 및 재직자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2017년 현재 운영 중인 교육과정으로는 영양·운동·수면·스트레스 관리를 통해 건강을 지키게 해주는 관리 지침서인 키네스(KINESS) 지도자 과정, 뇌가 발달하는 5~6세부터 15~17세까지를 대상으로 학습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해주는 뇌교육상담사 과정,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ing Service, SNS) 시대를 맞이하여 소셜 미디어에 대한 이해와 활용을 위한 SNS시대·홍보·모금 과정 등이 있다.

⁸⁰ 성북문화원 주관으로 개최된 학술회의는 다음과 같다. <근현대 성북지역의 독립정신과 호국활동>(2013), <만해의 심우장시대>(2014), <선잠제향의 어제와 오늘>(2014), <성북, 4·19혁명의 북을 울리다>(2015), <6·25전쟁과 미아리고개>(2015), <4월혁명과 문화의 새로운 모색>(2016).

3) 문화시설

(1) 도서관

꿈이 있는 행복한 도서관은 아리랑로5길 12-27(동소문동7가 85-1)에 위치한 동소문교회 1층에 설립된 사립 작은도서관이다. 2017년 3월 설립되었다. 작은도서관은 국민의 지식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 문화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자치단체, 법인, 단체, 개인 등이 운영하는 도서관이다. 작은도서관은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의거하여 육성 및 지원을 받는다. 2017년 현재 성북구에는 56개의 작은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꿈이 있는 행복한 도서관도 그중 하나이다.

한신희아파트북카페는 동소문로15길 99(동소문동7가 23)에 위치한 동소문동 한신희플러스 2차아파트 단지 내에 설립된 사립 작은도서관이다. 2012년 10월 설립되었다. 한신희아파트북카페는 총 5,491권의 도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매주 월~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며, 일요일은 쉰다.

(2) 극장: 동도극장

동도극장은 지난 시절 성북구민의 문화생활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문화시설 가운데 하나이다. 동도극장은 광복 후인 1948년 2월 24일 동소문로 48(동소문동3가 63) 동도빌딩 자리에 들어선 후 1981년 폐장될 때까지 성북구를 대표하는 영화 상영관이었다. 처음 극장이 들어설 때는 주민들 사이에 찬반양론이 있었는데, 다음의 《동아일보》 기사가 이러한 논란과 당시의 상황을 잘 보여준다.

서울 도심지대와는 거리가 동떨어진 채 날로 번창하여 가는 신희마을 돈암동에 동도극장이라는 이름으로 연극과 영화상설관을 지으려고 돈암교 파출소 앞 로타리

부근에 터를 잡고 건축 준비를 갖추던 중 극장 시설지 근처 주민 약 100여 명이 주택 부근에 극장을 지으면 첫째로 화재가 날 염려가 있고 풍기상 자미가 없으며 근처에 국민학교가 있어 교육상 지장이 있고 사람이 많이 모이면 도난 사건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소관 성북서에 반대 진정을 하였다.⁸¹

이러한 마찰을 거쳐 개관한 동도극장은 최신 상업영화보다는 주로 명작 영화를 개봉하는 것으로 유명했으며, 많은 영화인·예술인들이 이 극장을 찾았다. 그리하여 성북구민은 물론 서울시민의 사랑을 받은 추억의 장소로 기억되고 있으며, 여러 문화예술인의 일화와 소설 속에도 등장하는 성북구의 대표적 문화명소였다.

1981년 컬러TV 등이 보급되면서 많은 영화관이 문을 닫게 되었는데, 1981년 8월 14일자 《경향신문》에 따르면 7월 말까지 총 19개의 극장이 문을 닫았다. 동도극장 역시 경영난을 피하지 못해 1981년에 문을 닫게 되었다.⁸²

(3) 문화관: 춘우문화관

춘우문화관은 시인이자 의료법인가화재단 이사장인 전덕기 관장이 2001년 설립한 문화공간이다. 동소문로11길 13(동소문동4가 147)에 위치해 있다. 총 3층 건물을 개조한 것으로 1층은 전덕기 관장 주거용 공간으로, 2층은 시집·문집·문화예술자료·태극기 관련 소품 등이 전시되어 있는 공간으로, 3층은 문화행사용 세미나실로 구성되어 있다.

전덕기 관장은 당초 설립 의도를 ‘동네 한가운데 도서관과 회의실, 공부방 등이 있으면 주민들이 훨씬 쉽게 이용할 수 있으리라 판단하고’, 이를 위해 ‘지역주민들을 위한 시설을 마련하여 도서실 공부방 서재 세미나실 등을

⁸¹ 《동아일보》 1947년 8월 10일. 주민들의 극장 설립 반대와 관련해서는 《경향신문》 1947년 10월 8일과 1948년 2월 25일 기사도 참조할 수 있다.

⁸² 《경향신문》 1981년 8월 14일.



춘우문화관

만들어 주민에게 개방했다고 밝혔다.⁸³

현재 춘우문화관은 매년 의료법인가화재단과 동원병원의 후원으로 춘우청소년문학상공모전을 실시하고 있다.

4) 사회복지시설

(1) 아동·청소년 시설

구립 동선동 청소년공부방은 성북구 내 저소득층·소년소녀가장 등 소외 계층 청소년 및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기주도 학습을 지원할 학습 열람실을 제공하고, 청소년의 여가선용 장소 제공 및 건전한 성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제공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적 성장을 도모하고자 만들어진 공공시설이다. 1989년 처음 개소하여 2018년 현재까지 천주교 서울대교구 산하 사회복지법인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에서 수탁하여 운영하고 있다. 아리랑로 27-3(동소문동6가 239)에 있다.

동소문행복한홈스쿨 지역아동센터는 동소문교회와 (사)기아대책의 협력

⁸³ 《국민일보》 2004년 9월 7일.

아래 2007년도에 설립된 아동 사회복지기관이다. 아리랑로5길 12-27(동소문동7가 85-1)에 위치해 있다. 지역 내의 저소득, 차상위 계층, 맞벌이 가정 등의 아동들을 위해 학습지도와 생활지도, 교육·문화·생활 등 아동들의 전반적인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한 다양한 생활보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성북구는 오랜 주거지역으로 지난 수년간 지역개발 및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어 오면서 다양성이 존재하는 지역으로 변화해 왔으며 이에 따라 거주하는 주민들 역시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으로 다양한 계층이 분포되어 있다. 그러한 가운데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의 수요 역시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보다 현실적이고 전략적인 아동 돌봄 서비스에 대한 구상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현재 성북구 내 서비스를 제공받는 수급자, 한부모, 결식아동 등 요보호·위기 가정의 아동이 18세 미만의 전체 아동 8만 1,000여 명 중 3.9%인 3,156명 정도임을 감안할 때 보다 다각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아동의 발굴과 개별 아동에 맞는 돌봄 서비스가 제공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동소문행복한홈스쿨 지역아동센터가 설립된 것이다.

베타니아 아동청소년그룹홈은 가정해체, 방임, 학대, 빈곤, 유기 등의 이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환경에서 아동의 개별 특성에 맞춘 보호 양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규모 가정형 아동청소년 그룹홈이다. 베타니아 아동복지시설이라고도 한다. 2015년 개소하였으며, 동소문로 15길 99(동소문동7가 23)에 위치해 있다. 베타니아 아동청소년그룹홈은 특히 5세에서 18세의 여성 아동·청소년, 그중에서도 새터민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시립지역아동센터는 정릉에 위치한 성가소비녀회(Little Servants of the Holy Family) 수녀들이 설립한 길음시장 부근의 성가길 공부방이 지역재개발 문제로 더 이상의 운영이 불가해지자, 당시 교사들이 힘을 모아 새로운 운영체제를 지

닌 중고등부 대상의 시습공부방(얼마 뒤 시습지역아동센터로 인가를 받음)을 설립하여 아이들이 공부를 계속할 수 있게 하였다. 뒤이어 초등부 학생들만 남아 있던 성가길 공부방의 운영 주체를 수녀들에서 교사로 변경한 뒤 2007년 동소문동으로 이전하여, 제도권 안의 지역아동센터로 변모함에 따라 현재의 모습을 하게 되었다.

시습지역아동센터의 정원수는 24명으로 초등부에서 고등부까지 있다. 근처에 돈암초등학교가 있어 초등부는 이 아동들이 이용하고, 중·고등부는 6명으로 중학교 1학년 2명, 2학년 3명, 고등학교 3학년 1명이 다니고 있다. 아리랑로5길 36(동소문동7가 87-3)에 위치해 있다.

열악한 사회·경제적 환경 속에서 충분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학업 증진과 더불어 인성교육을 통한 삶의 질적 향상을 달성하는 것을 근본 목적으로 삼는다.

기관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보호(방과 후 돌봄 및 급식, 맞벌이·한부모·저소득층 가정 자녀의 건강한 성장 및 보호, 건강검진), 교육(기초학습 및 독서, 영어수업, 숙제점검, 개별지도, 독서수업, 한자, 사자소학 풀이, 우크렐레 악기 배우기), 문화(방학캠프, 연합 캠프 또는 센터 캠프), 문화체험(영화·연극·뮤지컬 관람, 견학), 복지(아동·부모 상담, 정기상담 및 상시상담), 지역자원연계(학교, 운영위원회 학교선생님과 입소 상담, 분기별 실시 우리은행 연계 후원 및 장학금 지원 타기관 연계, 성북구 센터연합회, 타 지역아동센터 특성화) 등이다.

(2) 노인복지시설

동선동에는 노인복지시설로 경로당과 요양원이 있다. 노인정은 동선2동 노인정(아리랑로 27-3), 돈암동일하이빌 경로당(보문로38길 11), 동소문동2차

한신희아파트 경로당(동소문로15길 99) 등이 있으며, 요양원으로는 성신노인요양원이 있다. 경로당은 노인들이 동년배의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며 새로운 지식을 얻거나 건전한 취미와 오락 활동을 할 수 있는 생활의 집으로, ‘노인정’이라고도 한다. 주된 활동 내용으로는 친구와의 대화, 바둑·장기·화투놀이, 건강체조·포크댄스, 라디오 및 텔레비전의 시청 등이며,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활동은 제도화되어 있지 않지만 경우에 따라 거리질서·휴지줍기·자연보호·봉사활동 등을 진행하기도 한다. 동선2동 노인정에서도 이러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성신노인요양원은 2012년 9월 개원한 노인대상 요양복지시설이다. 동소문로13나길 110(동소문동7가 8-2)에 있다. 노인요양원이란 <노인복지법> 제18조에 의한 노인요양시설로, 노인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 치료,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성신노인요양원은 병약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의료 보호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여가 선용 및 사회심리재활, 신체재활 등을 돕기 위하여 건강체조·미술활동·요리활동·놀이활동·노래교실·국악교실·종이접기 등의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5) 종교시설⁸⁴

(1) 불교

청룡암(靑龍庵)은 조선 철종 때 영의정을 지낸 김좌근(金左根(1797~1869))이 1853년(철종 4) 세운 절이다. 원래 성북동 구준봉 아래에 있었는데, 산지개발계획에 따라 터를 매각하고 1969년 지금의 위치인 동소문로3길 32(동소문동1가

⁸⁴ 동소문로 50(동소문동3가 63-1)에는 천도교 삼선교구가 있다. 천도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 洞의 역사>>(성북구) 4권 석관동의 ‘천도교’ 참조.



청룡암

45-1)에 새로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한불교 조계종에 속한 비구니 도량이다.

김좌근은 조선 후기 문신으로 본관은 안동, 자는 경은景隱, 호는 하옥荷屋이다. 아버지는 영안부원군永安府院君 김조순金祖淳(1765~1832)이며, 누나가 순조의 비인 순원왕후純元王后(1789~1857)이다. 김좌근은 안동 김씨의 중심인물이었으며 정치적 권한이 매우 컸다. 1825년(순조 25)에 관직에 진출한 후 이조참의, 한성부판윤, 대사헌, 병조판서, 우의정 등을 역임하였다. 철종이 집권하던 시기인 1853~1863년 사이에는 영의정에 세 번이나 임명되었다. 고종이 등극하고 흥선대원군이 정치적 실권을 잡게 되면서 영의정에서 물러났다. 이후 실록총재관實錄總裁官으로 《철종실록》 편찬을 총괄하였다. 1866년에는 돈녕부영사敦寧府領事로 기로소耆老所에 들어가게 되었다. 기로소는 조선시대에 나이가 많은 문신들을 예우하기 위해 설치한 기구였다.⁸⁵

85 <김좌근> 《두산백과》; <김좌근>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편 청룡암은 많은 사람들이 거쳐 갔던 장소였던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 인물로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였던 임규(林圭(1867~1948))를 들 수 있다. 임규는 전라북도 익산 출신으로 호는 우정(偶丁)이다. 3·1운동에 참여하였는데, 그의 임무는 일본정부와 귀족원, 중의원에 한국독립에 관한 의견서와 통고문, 선언서를 전달하는 것이었다. 임규는 1919년 2월 27일 오후 7시에 최남선(崔南善)에게 민족대표 33인이 서명한 통고문 3통과 선언서를 받아, 일본 수상과 의회에 우송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귀국 도중 일본 검찰에 검거되어 조선으로 압송되었다. 이후 1년 7개월간 옥고를 치른 후 무죄로 석방되었다.⁸⁶

임규는 자신의 시집인 《북산산고(北山散稿)》에서 청룡암에 대해 다음과 같은 소감을 남겼다.

10년 간 긴 세월을 성북 모퉁이에서 지내니,
청룡암 미륵당이 큰 거리같이 환하다.
고승이 세상을 떠나니 불경 책 거두어 간직하고,
좋은 친구 찾아오니 술병을 끌어당긴다.

떠다니는 버들개지 눈보다 가벼운 것이,
살이 오른 살구 알은 구슬 알보다 크다.
산에 사는 운치를 늙어가며 깨달으니,
날마다 흐뭇한 마음으로 혼자서 즐긴다.

청룡암의 청아한 운치와 그윽한 풍경을 묘사한 것이 눈에 띈다. 이와 함께 임규는 성북동의 상징으로 청룡암·미륵당·살구나무·누대와 정자를 손꼽았다.⁸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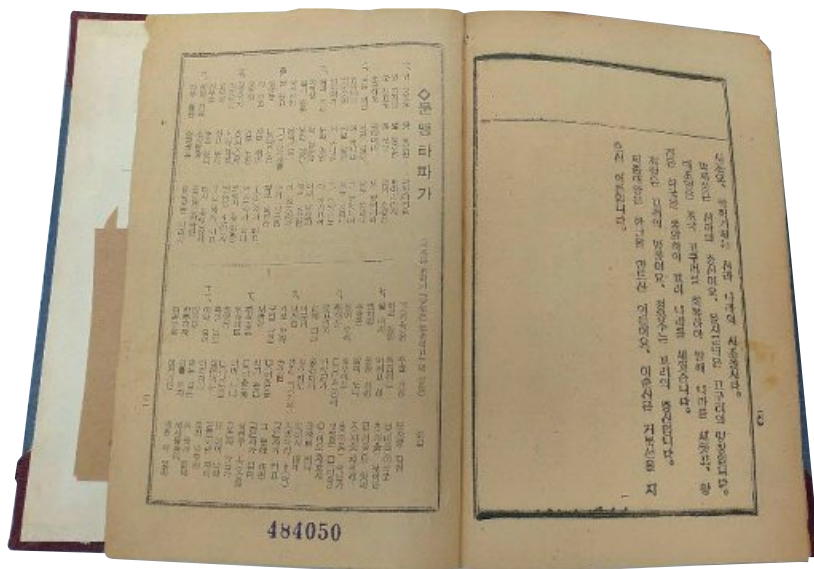
일제강점기 청룡암의 전경에 대해 자세히 기록을 남긴 사람으로 이윤재

⁸⁶ <임규> 《한국민족문화대백과》.

⁸⁷ 성북문화원 편, 《사연이 깃든 성북의 유래》, 1998 ; 임규 지음, 정후수 옮김, 《국역 북산산고(北山散稿)》, 깊은샘, 2004.

李允宰(1888~1943)를 들 수 있다. 이윤재는 독립운동가이자 국어학자로, 호는 환산(桓山) 또는 한피이다. 1919년 평안북도 영변에 있었던 숭덕학교崇德學校 교사로 재직 중 3·1운동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일본 경찰에게 붙잡혔으며, 평양감옥에서 3년간 옥고를 치렀다. 1929년 조선어연구회, 조선어사전 편찬위원회의 집행위원, 1930년 한글맞춤법 통일안 제정위원이 되는 등 국어통일 운동에 앞장섰다. 1931년부터 1934년까지 매년 여름마다 동아일보사와 조선일보사 등에서 한글을 보급하기 위해 진행하던 한글강습회 강연을 위해 지방을 순회하였다. 1932년 조선어학회 기관지 《한글》의 편집 및 발행 책임을 맡았고, 2년 뒤인 1934년에는 진단학회 창립에 참여하였다. 1942년에는 일제가 한글연구를 한 학자들을 잡아들인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홍원경찰서에 붙잡혀 함흥형무소에 수감되었다. 1943년 복역 중 순국하였다.⁸⁸

이윤재의 글은 1934년 8월 29일부터 8월 31일까지 <성북청룡암城北靑龍庵



이윤재가 지은
《한글공부》

88 <이윤재>, 《독립유공자 공훈록》, 국가보훈처(<http://www.mpva.go.kr>) ; <이윤재>,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에서>란 제목으로 《동아일보》에 연재되었다. 1934년 이윤재는 한글강습회를 통해 한글을 보급하기 위한 활동을 정력적으로 전개하고 있었다. 1934년 여름 이윤재는 함경도 방면 5~6곳의 한글강습회에 강사로서 참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일제는 이것을 허가하지 않았다. 여름 일정이 비게 된 이윤재는 수년 간 써놓은 한글 통일안을 기본으로 한 어휘 카드 5만~6만 장과 여러 종의 사전을 들고 청룡암을 방문하였다. 그동안 정리해 놓은 어휘를 정리하기 위해서였던 것이다.⁸⁹

이윤재는 청룡암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다.

이 절은 성북동 한구석에 있는 조그마한 암자로, 다른 절같이 이름이 들어나 있지 않고, 어느 시대에 누가 만들었는지 문헌에서 찾아볼 수 없고 전해지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전혀 그 내력을 알 수 없다. 그러나 그 자연의 정취가 뛰어나며, 또 서울과 가깝지만 인적이 드물고 시끄럽지가 않다. … 이 절은 모두 여승으로만 있는 승방이다. 박묘상 씨가 주지의 직에 있어 절 안살림을 관장하고 있다.⁹⁰

청룡암은 서울에서 가깝지만 매우 조용하고 경치가 뛰어난 곳으로서 여승들만 있는 절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윤재가 청룡암 주변의 경치와 더불어 감탄을 했던 것은 청룡암에 있던 동보탑이었다. 이윤재는 동보탑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이 탑은 칠층으로 되어, 높이가 17척, 광폭이 4척 5촌이며, 제2층에는 연화를 새기었고, 제3층에는 불상을 새기었고, 제4층에는 그 속에 다보보살의 상을 간직하고, 제5층에는 헌물 및 묘상 수서의 발원문을 간직하였다. 탑의 이름을 <동보탑>이라 하니 경주 불국사에 있는 다보탑과는 다르다. 거기에 다보불상을 모신 까닭으로 이

⁸⁹ 《동아일보》 1934년 8월 29일.

⁹⁰ 《동아일보》 1934년 8월 30일. 기사의 일부 용어는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바꾸었다.

이윤재는 청룡암의 동보탑은 박묘상이 건립한 것이라고 하였다. 그녀는 13년 전에 청룡암에 왔으며 이 탑을 지었다고 서술하였다. 따라서 동보탑은 1921년경에 만들어지기 시작했다고 추측된다. 이 탑은 1969년 청룡암이 지금의 위치로 이전할 때 함께 옮겨왔다.

1969년 이후 청룡암에 대한 기록은 많이 찾아보기가 어렵다. 하지만 몇몇 기록을 보면 청룡암은 불교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소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1979년 조계종에서 내분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계사曹溪寺 총무원과 개운사開運寺 총무원이 협의를 해야 했다. 이에 따라 두 절의 대표들이 공식적으로 4차례, 비공식적으로 10여 차례 모임을 가지고 종단 화합을 모색하였다. 이때 이들의 회의가 열렸던 곳이 청룡암이었다.⁹² 1984년에는 조계종의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조계사 총무원에서 물러난 소장 개혁세력 측은 청룡암에서 상임위원회를 열고, 부산 범어사에 임시총무원을 설치하기로 결의하였다. 또한 서울 연락사무소를 청룡암에 설치하기로 하였다.⁹³ 이처럼 청룡암은 불교계 문제 해결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었다.

동소문동에는 청룡암 외에도 보현사, 봉황사 등의 사찰이 있다.

(2) 천주교

성 골롬반 외방선교회는 아일랜드 출생의 성 골롬반Saint Columban(540-615)을 주보성인主保聖人(보호자로 받드는 성인)으로 모시는 천주교 선교회로서, 아시아·아프리카·중남미 지역의 극빈촌 선교 활동을 주력으로 하는 가톨릭 선교 국제

⁹¹ 《동아일보》 1934년 8월 30일. 기사의 일부 용어는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바꾸었다.

⁹² 《동아일보》 1979년 7월 9일.

⁹³ 《동아일보》 1984년 8월 5일.



성 골룸반 외방선교회

단체이다.

성 골룸반은 560년경 사제 서품을 받았다. 그는 성서 말씀에 따라 부모와 집뿐만 아니라 고향까지도 떠나기로 결정하고 12명의 동료와 함께 배를 타고 목적지도 없이 떠났다. 프랑스의 해안에 도착한 그는 프랑스의 외딴 시골에서 수도원을 건립하여 발전시켰으며, 획일적인 교회 문화를 다양화하는 데 노력하였다. 그는 자신이 설립한 수도원의 발전에 만족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한 나그네’가 되기 위하여 유럽의 여러 지역을 다니며 선교를 하였다가 615년 11월 23일 자신이 마지막으로 설립한 북부 이탈리아의 한 수도원에서 선종하였다. 그가 20년 동안 지도하였던 프랑스 수도원 수도자 중에서 20명의 성인이 나왔다.

성 골룸반 외방선교회는 골룸반 성인이 보여준 모습처럼 고향을 떠나,



성 김대건관

다른 문화 속에서 살면서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며, 가난한 이들과 함께 연대하고, 정의를 위해 일하는 선교활동을 하고 있다.⁹⁴

한국에서는 1933년 10월 맥폴린 등 10명의 신부가 부산항을 통해 입국하여 전라도와 제주도 서쪽 지역으로 파견된 것이 성 골롬반 외방선교회 활동의 시작이다. 이후 성 골롬반 외방선교회는 일제강점기와 6·25전쟁, 5·18민주화운동 등을 거치면서 철거민과 노동자 등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활동을 지속해 왔다.

동소문로 93-14(동소문동6가 140)에 위치한 성 골롬반 외방선교회 본당 및 선교센터는 2003년에 개관하였다.

성 김대건관은 천주교 서울대교구 소속 특수사목 사제관 중 하나이다.

⁹⁴ 성 골롬반 외방선교회 홈페이지(<http://www.columban.or.kr>).

1998년 8월 현 위치인 동소문로7길 26(동소문동4가 86)에 자리 잡았다. 서울 대교구에서 특수사목을 전담하는 사제들의 보금자리로 마련한 곳이다. 주거 공간뿐만 아니라 성당·경당·식당·회의실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3) 개신교

동소문동에는 강북사랑의교회, 광성교회, 대망인의 교회, 돈암동교회, 돈암제일교회, 동선교회, 동소문교회, 삼성교회, 새생명교회, 예닮교회, 창대교회, 하늘이음교회, 한마음교회, 행복한교회 등이 위치해 있다.

(4) 천도교

동소문로 50(동소문동3가 63-1)에는 천도교 삼선교구가 있다. 천도교天道教는 ‘내게 모신 한울님’을 신앙으로 하는 종교이다. ‘한울님’을 믿되, ‘내 몸에 모시고 있다.’고 믿는 것이다. 이를테면, ‘한울님’은 대우주의 대정신大精神, 대생명大生命으로서 존재하지 않는 곳이 없으나, ‘내 몸에 모시고 있다.’고 하는 데에 마음의 초점을 두고, ‘한울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다. 이것이 최제우崔濟愚(1824~1864)가 주장한 시천주侍天主 신앙이다. 시천주 신앙을 하게 되면 사인여천事人如天을 행하게 되고, 인내천人乃天을 알게 된다. 최시형崔時亨(1827~1898)이 강조한 사인여천이란 ‘사람 섬기기를 한울님을 대하듯 한다.’는 윤리 행위를 말하며, 손병희孫秉熙(1861~1922)가 설파한 인내천이란 ‘사람이 곧 한울’이라는 의미이다.⁹⁵

동학東學으로 불렸던 천도교는 최제우가 창시한 종교이다.⁹⁶ 그는 1855년 (철종 6)부터 양산군 천성내원암千聖內院庵에서 수도 생활을 시작하여 1860년 (철종 11) 4월 도를 깨닫고 동학을 창시하였다. 이 무렵 중국에서 태평천국太

⁹⁵ 임운길, 〈東學·天道教의 儀禮와 修行〉《동학연구》4, 한국동학학회, 1999, 146~147쪽.

⁹⁶ 이하 최제우와 최시형 및 손병희에 대한 설명은 인명사전편찬위원회, 《인명사전》, 민중서관, 2002을 참조하였다.

平天國의 난이 일어나고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이 북경을 침입한 사건이 발발하자 조선에서도 유럽 열강에 대한 위기의식이 조성되고 있었다. 또한 서학西學이라 불린 천주교天主敎는 그 사상과 주장이 우리의 전통과 달라서 적잖은 물의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이때 최제우는 민족 고유의 신앙으로 동학을 창설하게 된 것이다.

천도교 2대 교주인 최시형은 1863년 최제우의 후임으로 교주에 올랐다. 그는 1864년 정부의 탄압으로 최제우가 처형되자 태백산에 은신하며 관헌의 감시를 피해 안동·울진 등지에서 포교에 힘썼다. 그는 최제우의 유문遺文을 모아 《동경대전東經大全》을 발간하고, 최제우의 가사집歌辭集인 《용담유시龍潭遺詞》를 간행하는 등 천도교의 기본 경전들을 완성하였다.

천도교 제3대 교주는 손병희이다. 일찍이 동학에 들어온 그는 1894년(고종 31)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자 충청도와 경상도에서 10만의 도종道衆을 이끌고 관군과 전투를 벌였다. 동학농민운동이 실패하자 그는 일본을 거쳐 상해로 망명하였다. 이후 동학 교주가 된 그는 1907년 귀국하여 동학을 천도교라 개칭하고 교세 확장에 노력하였다. 한일강제병합 이후에는 보성전문학교·보성중학교를 인수하여 인재 양성에 힘쓰는 한편, 인쇄소로 보성사普成社를 설치하고 《천도교월보天道敎月報》를 발간하였다. 1919년에는 민족대표 33인의 대표가 되어 3·1운동을 기획·주도하여 조선독립을 선언하였고, 경찰에 체포되어 서대문감옥에서 복역하다가 병보석으로 풀려나 서울 상춘원常春園에서 요양하다가 별세하였다.

천도교의 대표기관은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 457(경운동 88)에 위치한 천도교중앙총부이다.⁹⁷ 중앙총부의 체제는 2원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나는 교령사敎領司·현기사玄機司·종무원宗務院·종의원宗議院·감사원監査院 등의 기관을 중심으로 하는 교화행정기구와 또 하나는 정신지도기구인 연원회淵

97 천도교 홈페이지(<http://www.chondogyo.or.kr>).

源會라는 속인제(屬人制) 조직이다.

중앙총부의 최고 결의기관은 3년에 한 번씩 개최되는 전국대의원대회인데, 여기서 교회 대표인 교령을 비롯해서 종의원 의원·중앙감사 등 주요 교직자를 선출하며, 교령이 지명한 종무원장을 인준한다. 중앙총부 산하에는 각 지방에 교구(敎區) 및 전교실(傳敎室)이 있어 교구장을 중심으로 교인들의 교화 및 포덕을 담당한다. 또한 일요일로 지켜지는 시일(侍日)에는 교구별로 교인들이 교당에 모여 종교집회를 거행하고 있다. 한편 연원회는 도정(道正) 및 도훈(道訓)으로 구성되며, 연원회의에서 의장단을 선출하고 예우적인 종법사(宗法師)와 선도사(宣道師)를 추대한다.

부문단체로는 청년회·여성회가 있고, 전위단체로는 동학민족통일회가 있으며, 부설기관으로는 종학대학원·동학혁명백주년기념관 등이 있다. 출판기관인 신인간사(新人間社)에서 월간지 《신인간》과 《천도교신문》을 발행하고 있다. 그리고 중앙총부와는 별도로 재단법인 천도교유지재단과 복지법인 천도교시천주복지재단이 있다.

성북구에는 천도교 관련 시설로 삼선교구 외에도 화랑로 22가길 3(석관동 341-73)에 천도교 도경교구가 위치해 있다.

6) 상업 시설

(1) 돈암제일시장

돈암제일시장은 일제강점기 말 공설시장으로 설립되어 존속해 오다가 성북천을 복개하면서 시장 영역이 더욱 확장되었다. 돈암제일시장이 설립되기 이전에는 필요한 물품을 작은 가게에서 구입하거나 동대문 근처(지금의 경동시장)에서 열리는 5일장을 이용하였다.

시장이 현재 위치한 동소문로18길 12-3(동소문동5가 59-1) 일대에 들어선



돈암시장 북문 간판
돈암시장을 상징하는
선녀가 그려져 있다.

것은 1951년이다. 돈암제일시장은 동소문동·돈암동·보문동 일대를 아우르는, 시장으로서 최고의 입지에 위치해 있다. 이곳은 인구가 밀집한 지역이면서 서울 도심으로 향하는 수많은 교통 노선들이 있어 사람들의 이동도 빈번하기 때문에 돈암제일시장은 자연스레 많은 사람들이 애용하는 시장으로 자리 잡았다.

… 특히 돈암시장 내에 있는 푸주간 앞에는 밤중까지 고기 한칼을 사고자 열을 지어 섰는데 새치기하는 친구들이 어찌나 많았던지 나중엔 치고 꼬집고 욕설을 퍼붓고 아수라장화하였었다고 …⁹⁸

돈암제일시장은 그 역사만으로도 충분히 상징적인 곳이지만, 시장을 더 특별한 장소로 알리는 명소들이 있다. 대표적으로는 1958년 1월 24일 돈암제일시장에 터를 잡아 이제는 전국적인 맛집이 된 감자탕 전문점 ‘태조감자국’이 있다. 감자국은 정형(고기를 부위별로 자르고 다듬는 행위)하고 남은 감

⁹⁸ 《경향신문》 1954년 9월 12일.

자빠를 활용해 만든 서민음식이었다. 인근의 가난한 서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허기를 면하기 위한, 혹은 일상의 피로를 소주 한 잔으로 털어내기 위한 음식으로 즐겨 먹었던 것인데 이것이 50년, 60년을 넘어 대대로 이어지는 맛집 태조감자국을 만든 것이다. 최근에 한 TV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소개되면서 시장의 새로운 명소가 된 '돈암동 순대' 또한 명소로 꼽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지역축제인 '삼선동 축제'와 결합하여 선녀순대, 선녀어묵, 선녀족발 등 선녀라는 브랜드를 활용한 먹거리를 시장의 대표 음식으로 내세워, 지역의 고유한 문화와 관광자원을 전통시장과 연계하여 주목받았다. 그 결과 2014년에는 중소기업청 주관,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이에 발맞춰 상인회에서는 만 39세 이하 청년상인 희망자를 모집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상인 육성 지원사업과 현장실습을 지원하고 있다.

(2) 삼선시장

삼선시장은 성북구 동소문로6길 22(동소문동2가 146)에 있는 재래시장이자, 《두산백과》에는 <삼선골목시장>이라고 소개되어 있다. 현재 삼선시장은 많이 유명하지는 않지만 과거에는 아파트상가시장과 재래시장이 있는 규모가 큰 시장이었다.

성북천변을 따라 가로로 형성된 삼선시장 앞쪽에는 약 200m 길이의 3층 건물인 삼선상가가 위치해 있었다. 삼선상가에는 의류점, 식품점, 음식점, 잡화점, 건어물점 등이 입점해 있었는데,⁹⁹ 오늘날에도 유명한 빵집 '나폴레옹 과자점(성북구 성북로 7)'이 1층에 있었다. 삼선시장은 삼선상가와 함께 지역 상권을 형성하고 있었다.

⁹⁹ 이지영, <입체가로의 도입을 통한 삼선상가 활성화 계획>, 경희대 석사학위논문, 2001, 33~35쪽.



1972년 삼선교 주변
항공사진



1987년 삼선교 주변
항공사진



2016년 삼선교 주변
항공사진

하지만 성북천이 복원되면서 아파트가 없어지고, 삼선상가도 없어지면
서 재래시장도 과거에 비해 규모가 줄어들었다. 2018년 현재는 성북천변으
로 식당가가 형성되어 먹자거리가 형성되어 있다.

과거 삼선시장은 성북동 부자들의 기호에 맞는 미제 물건들을 파는 전문 시장이었다고 한다.¹⁰⁰ 주민설문 결과에 따르면 성북천 복원으로 여가 및 체육활동을 위한 공간이 형성되어 좋다는 긍정적인 답변도 있었지만, 근린생활시설과 연계되어 있던 삼선시장이 사라짐으로써 상권이 위축되고 주민이 이용하던 시장이 없어져 불편하다는 부정적인 답변도 있었다.¹⁰¹

¹⁰⁰ 《한겨레21》 2005년 4월 22일.

¹⁰¹ 맹다미·장남종·오정현, 앞의 글, 2011, 78쪽.

1) 문화재: 돈암장(동활인서 터)

동소문로3길 84(동소문동4가 103-3)에는 돈암장이 있다. 2004년 9월 4일 등록문화재 제91호로 지정되었는데, 총 4개 동 가운데 3개 동은 증축 및 개축으로 원형을 상실하여 2008년 6월 3개 동을 제외한 한옥 본채 1동만 등록문화재로 변경되었다. 남쪽 정원에는 연립주택 등이 들어서 있으며, 본채도 건물 내부는 현대식으로 개조되었으나 외관은 건립 당시의 모습 그대로이다.¹⁰² 본채 1동의 건축 면적은 155.17m²이다.

돈암장이 있는 곳은 조선시대 동활인서(東活人署) 터로 추정된다. 조선시대 활인서는 기근이 심할 때 역驛·원院 등과 함께 구호사업도 병행하는 사회복지기관이자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하였다. 《세종실록》을 보면, “동활인원은 동소문 밖에, 서활인원은 서소문 밖에 있다. 도성 내의 오갈 데 없는 환자를 이곳에 모아 의식을 제공하고 치료하며, 죽는 경우에는 오작인(倵作人)으로 하여금 매장하게 한다.”라고 하였다.¹⁰³ 1646년(인조 24) 전염병이 만연하

¹⁰² <돈암장> 《두산백과》 참조.

¹⁰³ 《세종실록》, 지리지, 경도京都 한성부漢城府.



돈암장

여 활인서에 수용된 환자가 699명에 이르렀다는 기록에서 알 수 있듯이, 시설에 다 수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환자가 많게 되면 청사 주변에 막사를 짓고 환자를 치료하곤 하였다. 활인서에는 땀을 내고 찜질하고 목욕하는 시설도 갖추어져 있었으므로 당시로서는 상당한 의료시설을 갖춘 공공의료기관이었다. 환자의 집이 가난하여 치료비를 내지 못하면 나라 창고에서 미곡을 공급해 주었다. 하루에 주는 쌀은 환자 1인당 1되 정도였으며, 환자의 수를 기록하고 보고하게 하였다. 활인서는 병들어 죽은 자를 매장하는 일도 담당하여 시체 매장을 전담하는 오작인(倣作人)도 배치하였고, 또 무당도 배속시켜 환자의 심리적인 안정을 도모하기도 하였다.

활인서는 고려 때 동서대비원(東西大悲院)의 후신이다. 태종 때 배불 정책의 영향으로 활인원(活人院)으로 고쳤고, 1466년(세조 12) 대대적으로 관제(官制)를 개

정할 때 활인서로 개칭되었다. 연산군과 임진왜란 때 폐지되었다가 곧 다시 설치되었다. 1882년(고종 19) 재정절약 차원에서 혜민서와 함께 활인서도 없애고 그 업무를 전의감^{典醫監}으로 이관하였다. 활인서의 공공의료기관 역할은 이후 제증원, 대한적십자병원으로 이어졌다.

조선 전기의 동활인서는 동소문 밖 지금의 돈암장이 있는 곳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조선 말 순조 때 저술인 《한경지략^{漢京識略}》에는 동활인서는 쇠퇴해서 폐지했다고 하였고, 김정호의 <수선전도^{首善全圖}>에는 중구 신당동 지역에 표시되어 있으므로 조선 순조 이전에 중구 신당동 236, 304번지 일대로 옮겨 간 것으로 추정된다.

광복 직후인 1945년 10월 16일에 귀국한 이승만은 조선폰텔에서 여장을 풀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이곳으로 옮겨 왔고 ‘돈암장’이라 명명하였다. ‘돈암장’이라 이름 지은 것은 당시 이 건물이 돈암정^{敦巖町}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 집은 조선타이어주식회사 사장인 장진영^{張震英}으로부터 빌린 것으로, 장진영은 연건평 약 150평의 세 채 중 한 채만을 쓰고, 안채인 54평과 또 다른 한 채를 이승만에게 빌려주었다. 돈암장은 약 700평의 정원에 뛰어난 미관을 지녔다. 장진영은 6·25전쟁 때 납치되어 사망하였고, 돈암장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동4가 103번지의 1호 및 2호로 분할되어 문화재로 지정되지 못한 채 3명의 소유자에게 나뉘어졌다.

이승만이 돈암장에 머물 당시 윤치영^{尹致暎}(비서실장)·이기봉^{李起鵬}(서무담당)·윤석오^{尹錫五}(문서담당)·송필만^{宋必滿}(비서) 등이 보필하였고, 와병 중에는 임영신^{任永信}이 간병하였다. 이승만은 돈암장에서 공산 계열의 민주주의 민족전선과 대결을 하면서 신탁통치 반대 운동 등에 열중하였다.

극도의 혼란이 거듭되는 가운데 이승만이 장진영으로부터 집을 비워달라는 통고를 받게 되자, 이 소식을 들은 미군정청 사령관 존 하지^{John R. Hodge} 중장의 주선으로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정무총감 다나카가 쓰던 마포장을

얻어 이사하였다.¹⁰⁴

이승만이 입주하면서 돈암장은 광복정국의 중심지가 되었다. 김구^{金九}, 조소앙^{趙素昂}, 신익희^{申翼熙}, 존 하지, 제럴드 굿펠로우^{Gerald Goodfellow} 등의 인물이 돈암장을 방문하여 이승만과 회담을 나눴다.¹⁰⁵

돈암장의 한옥 건물은 당대 최고의 대목장^{大木匠}인 배희한^{裵喜漢(1907~1997)}이 1938년에서 1939년까지 2년여에 걸쳐 지었다. 국가무형문화재 제74호 대목장의 기능보유자인 배희한은 창덕궁 대조전을 지은 목수 최원식의 제자로서, 생전에 “돈암장을 지을 때 쇠못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나무를 짜서 지었으며, 서까래와 내실 기둥 등은 모두 백향목을 사용했다.”라고 증언하였다.¹⁰⁶ 이에서 알 수 있듯이 돈암장의 한옥 건물은 궁궐 양식으로 지어진 것이다.

돈암장은 이전에 내시가 살던 집이라는 설도 있으며, 이 일대는 일제강점기에 평산목장이 있었던 곳이기도 하다. 평산목장은 1929년에 일본인이 창립한 합자회사로 잣소의 사육과 우유를 판매하였다.

2) 서울미래유산: 태조감자국

태조감자국은 감자탕 전문점으로 1958년 개업하여, 3대째 식당업을 이어가고 있는 대중음식점이다. 동소문로18길 5(동소문동5가 73-2)에 자리해 있다. 태조감자국은 충북 진천에서 상경해 풀빵 장사를 하던 창업주 이두환 씨가 감자탕의 원조 격에 해당하는 감자국 요리를 개발, ‘부암집’으로 개업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태조감자국의 대표 메뉴인 감자국은 인근 시장에서 매입한 신선한 돼지

¹⁰⁴ <돈암장>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참조.

¹⁰⁵ 《동아일보》 1925년 12월 6일, 12월 8일; 《동아일보》 1946년 1월 21일, 5월 12일; 《동아일보》 1947년 6월 5일.

¹⁰⁶ <이승만박사 2년간 머문 돈암장> 《국민일보》 2005년 9월 6일.



태조감자국

고기와 사골을 고아 만든 맑고 개운한 국물이 특징으로, 보통 감자탕에 비해 순한 양념의 맑은 국물에 돼지고기와 감자, 수제비, 유채, 들깨가루 등을 푸짐하게 얹어 내놓는다. 돼지고기는 특유의 잡내가 가시도록 잘 삶아 살점의 부드럽고 고소한 식감이 일품이다. 개업 초기에는 다른 메뉴들도 제공하였지만 지금은 감자국 단일 메뉴만 취급하고 있다.

태조감자국은 감자탕이라는 용어가 없던 시절, 국물이 많은 메뉴 특성상 ‘감자국’이라는 이름을 붙여 지금의 돈암시장 초입에 ‘부암집’이란 이름으로 개업한 데서 시작된다. 처음 개업한 장소에서 건물 3개 층까지 식당을 확장해 운영하였으나, 건물주의 일방적인 약속 불이행으로 부암집 영업을 포기하고 현 위치의 태조감자국만 운영하게 되었다. 일일 평균 고객 수는 약 250명 정도이다. 지금은 창업주 이두환 씨의 아들 이규희 씨에 이어 손자인 이호관·호광 씨 형제가 식당업을 이어가고 있다.

태조감자국이 입점한 건물은 1970년에 준공한 지상 3층의 철근콘크리트 건물로 연면적 197.45㎡이다. 태조감자국은 우리나라 감자탕 요리의 시초가 된 감자국 전문점으로 한국 식문화사 측면에서 보존 가치가 높은 곳이다. 이에 2014년 서울시 미래유산으로 선정되기도 하였다(인증번호 2013-255).

3) 한옥밀집지역

한옥밀집지역이란 한옥이 모여 있는 공간을 특정 기준에 따라 서울특별시 및 성북구에서 지정한 것이다. 한옥 및 한옥밀집지역의 판단기준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옥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정의된 ‘한옥’과 ‘한옥밀집지역’을 기준으로 한다.

이 기준에 따라 한옥 및 한옥밀집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기존 한옥의 개보수와 한옥 신축에 대한 보조 및 용자를 받을 수 있고, <건축법>의 도로 및 건축선에 대한 적용 완화 등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옥을 개·보수하거나 신축하는 경우 서울시에서는 최대 1억 8,000만 원을, 성북구에서는 최대 3,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¹⁰⁷

이러한 과정을 거쳐 지정된 성북구 한옥밀집지역이 총 42곳이 있는데 그중 2곳이 동소문동4가에, 3곳이 동소문동6가에 위치하고 있다. 그 형성시기, 역사 및 개발방식의 특징, 지형 및 경관 특성, 형태적 특성은 다음의 표와 같다.

¹⁰⁷ 한옥의 개·보수 또는 신축 지원금은 위치 및 개수·보수·신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지원금 지급은 서울시 한옥위원회·성북구 한옥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지원 승인이 결정되어야 가능하다 (서울한옥포털 홈페이지(<http://hanok.seoul.go.kr>) 및 성북구청 홈페이지(<http://www.seongbuk.go.kr>) 건축과).

동소문4가 한옥 1

형성시기	역사 및 개발방식 특징	지형 및 경관 특성	형태적 특성
1930~ 1940년대	1936년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개발된 돈암지구의 일부 지역으로, 대부분의 한옥이 1940년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지어졌다.	대로에 인접한 큰길에 면해 있고 북쪽으로 경사지를 두고 경사지 위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다.	평면형태가 비슷하고 높이가 낮은 집들로 콘크리트조로 증축하여 외부에서는 서까래나 기와 지붕 이외의 한식 목구조의 요소를 찾아보기 어렵다.

출처: 성북구청, 《성북구 한옥보전 및 관리를 위한 기본구상》, 82쪽.

동소문4가 한옥 2

형성시기	역사 및 개발방식 특징	지형 및 경관 특성	형태적 특성
1930~ 1940년대	1936년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개발된 돈암지구의 일부 지역으로, 대부분의 한옥이 1940년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지어졌다.	아파트 단지가 있는 높은 지대와는 옹벽으로 나뉘져 있고 낮은 구배의 경사지이다.	필지에 맞춰 다양한 형태의 건물이 배치되어 있다. 공동적으로 서까래 면까지 콘크리트조나 벽돌조로 증축하여 목구조가 드러나지 않게 되어 있다.

출처: 성북구청, 《성북구 한옥보전 및 관리를 위한 기본구상》, 82쪽.

동소문6가 한옥 1

형성시기	역사 및 개발방식 특징	지형 및 경관 특성	형태적 특성
1930~ 1940년대	1936년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개발된 돈암지구의 일부 지역으로, 대부분의 한옥이 1940년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지어졌다.	서북 방향으로 높아지는 경사지이다.	비슷한 크기의 ㄷ자집 필지에 맞춰 배치되고 골목에 면한 대문채는 콘크리트조로 증축되어 서까래는 외부로 노출되지 않거나 일부 노출된 건물이 다수이다.

출처: 성북구청, 《성북구 한옥보전 및 관리를 위한 기본구상》, 83~84쪽.

동소문6가 한옥 2

형성시기	역사 및 개발방식 특징	지형 및 경관 특성	형태적 특성
1930~ 1940년대	1936년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개발된 돈암지구의 일부 지역으로, 대부분의 한옥이 1940년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지어졌다.	서북 방향으로 높아지는 경사지이다.	비슷한 크기의 ㄷ자집 필지에 맞춰 배치되고 골목에 면한 대문채는 콘크리트조로 증축되어 서까래는 외부로 노출되지 않거나 일부 노출된 건물이 다수이다.

출처: 성북구청, 《성북구 한옥보전 및 관리를 위한 기본구상》, 83~84쪽.

동소문6가 한옥 3

형성시기	역사 및 개발방식 특징	지형 및 경관 특성	형태적 특성
1930~ 1940년대	1936년 토지구획정리 사업으로 개발된 돈암지구의 일부 지역으로, 대부분의 한옥이 1940년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지어졌다.	아리랑고개로 넘어가는 길목에 자리 잡고 있으며 경사지이다.	콘크리트조로 정면이 증축 확장되고 타일로 마감되어 있으며 높은 담장이 설치되어 있어 폐쇄적인 평면 형태를 띠고 있다.

출처: 성북구청, 《성북구 한옥보전 및 관리를 위한 기본구상》, 84쪽.

5

동소문동

동소문동의
인물¹⁰⁸

1) 고흥문

고흥문(高興門)(1921~1998)은 기업인이자 정치인으로, 제6대부터 제10대까지 국회의원을 역임했으며, 10대에는 국회 부의장을 지내기도 하였다.

고흥문은 1921년 8월 5일 동소문동 223에서 태어났다. 이후 경기상업학교와 고려대 경영대학원을 졸업하였고, 흥한무역공사 사장을 지내는 등 기업인으로 활동하였다.

1950년 조병옥(趙炳玉)의 참모로 활동하며 정계에 입문하였고, 1963년 민정당 전국구 의원으로 제6대 국회에 입성한 이후 제10대의 마지막인 1980년까

108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한국근현대인물자료는 《대한민국 인사록》, 《대한민국건국십년지》, 《대한민국인물연감》 등에 게재된 인물들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여기서는 이 자료와 함께 다른 자료도 참고하면서 동소문동과 관련 있는 인물들을 정리했다.

동소문동과 관련 있는 전국적 인물로는 백기완과 문국현, 김인식이 있지만 아직 생존해 있으므로 서술에서는 제외하였다. 다만, 백기완은 이곳에 통일문제연구소를 차린 바 있고, 문국현은 동소문동4가 241번지에서 출생하였고 돈암초등학교를 졸업했으며, 김인식은 동소문동5가 1번지에서 태어났고 동소문동 인근에 위치한 경동고 야구부의 영향을 받아 야구를 시작하게 되었다는 점만 부기한다. 동소문6가와 관련 있는 인물로는 5·16군사정변에 참여하였고 국회의장을 역임하였던 정래혁이 있지만 아직 생존해 있으므로 서술에서는 제외하였다. 다만, 정래혁이 1960년대부터 1979년까지 동소문로13길 12(동소문동6가 26)에 거주하였다는 점만 부기한다. 피터 바돌로뮤는 생존해 있지만, 한국 사회 내에서의 인물 평가와는 무관한 외국 출신이므로 서술한다.

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였다. 특히 제8대에는 성북구 병 지역구(월곡동·장석동·창동·태릉동·노원동·도봉동)에서, 제9대와 제10대에는 성북구 일원 지역구에서 당선되어 활동하였다.

2) 김진구

김진구金振九는 1919년에 태어났으며, 고려대 경영대학원을 졸업하였다. 동소문로2길 25(동소문동2가 137)에 거주하였다. 함경남도 수도과水道課 기수技手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운영위원을 역임하였다. 민주공화당이 창당되자 가입하고 활동하였다. 민주공화당 강원도 제9지구당 위원장과 중앙상임위원을 역임했으며, 1967년에는 어촌분과위원장직을 맡고 있었다.

3) 송우범

제3대 국회의원을 지낸 송우범宋宇範(1915~2002)은 동소문로 10(동소문동2가 13)에 거주하였다. 그는 1915년 6월 11일 태어났으며, 중국 북경사범대 사학과를 수료하고 중앙장교훈련단을 졸업하였다. 광복 후 강원도 경찰국장을 지냈으며, 우석학원 이사과 예향문화사 사장을 역임하였다. 1954년 5월 20일에 있었던 국회의원 선거에 자유당 소속으로 충청남도 대덕에서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1957년 9월 6일부터 1958년 5월 30일까지 제3대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사진으로 본) 국회20년 -부록- 역대국회의원약력≫에 주소가 동소문동2가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국회의원 재직 당시 동소문동2가에 거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안윤출

안윤출(安潤出(1911~?))은 1942년 고등문관시험사법과(高等文官試驗司法科)에 합격하였다. 위 자료에서는 그의 출생지가 성북구 동소문로7길 13(동소문동1가 125)으로 나와 있다. 광복 후 서울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하였다. 1967년에는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었다.¹⁰⁹

안윤출은 1952년 이승만 정부 때 일어났던 ‘서민호 의원 사건’과 관련이 있었다. 당시 국회의원이던 서민호(徐珉濤(1903~1974))는 야당 소속으로 이승만의 직선제 개헌안을 반대하는 데 앞장섰다. 1952년 4월 24일 지방 순시 도중 현역 육군 대위 서창선(徐昌善)이 서민호 의원에게 시비를 걸고 권총을 쏘며 암살을 시도하자, 서 의원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호신용 권총으로 응사하여 서창선이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였다.¹¹⁰ 이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하는 행위였지만, 이승만 정부는 서 의원을 살인죄로 구속하였다. 국회에서 서 의원에 대한 석방결의안이 통과되었음에도 검찰은 서민호를 석방하지 않았다. 그런데 당시 부장판사였던 안윤출은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내려 서 의원을 석방하였다. 당시 안윤출의 친척들은 “만약 석방하면 너는 귀신도 모르게 죽는다.”라고 충고했다고 한다. ‘백골단’, ‘땃벌떼’, ‘민중자결단’ 등 정체불명의 단체가 이끄는 시위대가 법원으로 몰려와 “안윤출을 죽여라.”라고 외쳤으며 안윤출의 하숙집이 피습당하기도 하였다. 이후 이승만은 대통령 재선을 위한 발췌 개헌안을 통과시켰으며, 서민호 의원은 다시 구속되었고, 군사법원

¹⁰⁹ <안윤출> 《한국근현대인물자료》(한국사데이터베이스 홈페이지 <http://db.history.go.kr>).

¹¹⁰ 《중앙일보》 1972년 7월 28일.

으로 사건이 이관된 후 사형 선고를 받았다.¹¹¹ 그리고 안윤출은 1958년에 실시된 법관 재임용에서 1호로 탈락하는 비운을 겪었다.¹¹²

5) 안준상

제헌국회의원이던 안준상(安駿相(1898~1994))은 동소문로 18(동소문동2가 228)에 거주하였다. 그는 일제강점기 대동청년당을 조직하여 항일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중앙일보사 사장도 지냈던 안희제(安熙濟)의 조카이다. 3·1운동이 벌어졌을 때 안희제를 도와 의령의 산중에서 독립선언서를 등사하여 영남 각지에 배포하였다.¹¹³ 일본 와세다대 정경과 2년을 수료했으며, 입산학원(立山學院) 원장과 경남한글문화보급회 회장, 부산 동아대 이사직을 역임하였다. 조선민족청년단 경상남도단 이사를 지냈다. 조선민족청년단은 ‘족청’이라고 불리는 단체로 한국광복군 참모장이었던 이범석(李範奭)의 주도로 1946년에 결성된 우익단체였다. 우리나라 최초의 보통선거였던 1950년 5월 10일 총선거에서 조선민족청년단 소속으로 출마하여 당선되었는데, 경상남도 의령이 그의 지역구였다. 1955년에는 자유당 상임원직을 맡기도 하였다.

¹¹¹ 안윤출 판사의 석방 결정으로 풀려나 있었던 서민호 의원은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즉각 재구속되어 군법회의에 넘겨졌다. 이때 정부 고위층의 재판장에 대한 압박과 회유, 재판장 교체 등의 우여곡절 끝에 재판을 맡은 육군 군의학교장 박동균의 증언에 따르면, 피고 측 증인은 서창선 대위가 서민호 의원에게 총을 겨누자 서 의원이 위급했기 때문에 서 대위를 쏜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검찰 측 증인은 서 의원이 대문을 나가는 서 대위를 뒤에서 쏘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총을 맞은 서 대위 시체가 없어서 재판부는 증거 채택에 어려움을 겪었다. 결국 재판부는 서 대위가 사건을 유발한 것은 사실이나 서 의원이 충분히 피할 수 있었는데도 피하지 않고 총을 쏜 것은 정당방위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살인행위로 단정, 사형을 선고하였다. 이 사건은 차후 군법회의 재심에서 징역 8년이 선고되었다가 1953년 계엄 해제와 더불어 부산지법으로 이송되었고, 1955년 대법원에 의해 징역 8년형 확정으로 매듭지어졌다(《중앙일보》 1972년 7월 28일).

¹¹² ‘서민호 의원 사건’ 내용은 한홍구, 《사법부 -법을 지배하는 자들의 역사-》, 돌베개, 2016, 31~32쪽의 내용을 참조하여 정리한 것이다.

¹¹³ <안희제> 《독립운동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6) 이승만

이승만(李承晩(1875~1965))은 독립운동가이자 정치가이며,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이다. 황해도 평산에서 태어나 3세 때 부모와 함께 서울로 이주하여 1894년(고종 31) 배재학당에 입학하였다. 이듬해 일제가 명성황후를 시해하는 만행을 저지르자 반일 시위운동을 벌이다가 지명수배를 당하였으나 미국인 여의사의 도움으로 위기를 모면하였다. 이 무렵 개화사상에 심취하고 그리스도교에 입교하였다. 1896년 서재필(徐載弼)이 협성회(協成會)·독립협회 등을 조직하자 이에 가담하여 독립운동에 투신하였다. 이후 《협성회보(協成會報)》와 《매일신문》의 주필로 활약하고 만민공동회를 개최하는 등 독립사상 고취와 민중계몽에 앞장섰다. 또한, 부패하고 무능한 정부를 비판하고 민주적 자문기관으로 중추원(中樞院)의 설치를 주장하다가 1898년 정부타도를 획책했다는 혐의로 투옥되어 복역 중, 1904년 민영환(閔泳煥)의 주선으로 7년 만에 석방되었다.

이해 겨울 고종의 밀서를 가지고 루즈벨트 미국대통령을 만나 한국에서 일본의 침략을 퇴치하는 데 협조하여 줄 것을 호소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자, 미국에 머물면서 수학하기로 결심하였다. 그는 1907년 조지워싱턴대를 졸업하고, 1908년 하버드대에서 석사학위를, 1910년에는 프린스턴대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1913년에는 하와이에서 한국이 독립하려면 서구 열강 특히 미국 정부와 미국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외교방식을 택해야 한다는 주장을 바탕으로 교포사회에서 독립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한 교육활동을 펼쳤다. 이후 무장투쟁론을 주장한 박용만 등과 대립하며 국민회가 분열하는 데 원인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1919년 3·1운동 후 국내에서 조직된 한성 임시정부와 상하이에서 선포된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 각각 최고 책임자인 집정관 총재와 국무총리

로 추대되었다. 그리고 미국 워싱턴에 구미위원부를 설치하고 위원장이 되어 활동하며 임시정부의 영어명칭을 'Republic of Korea'로, 자신을 대통령(President)으로 칭하였다. 하지만 미국에서만 활동한 것과 임시정부 자금 유용 등의 문제로 1925년 탄핵되었다.

1945년 광복을 맞아 10월에 귀국하여 동소문동4가 103번지 돈암장에서 약 2년간 기거하였다. 이 기간 동안 이승만은 우익진영의 지도자로 독립촉성중앙협의회 총재, 대한민국대표, 민주위원의장, 민족통일총본부 총재 등을 역임하였다. 그리고 1946년 6월 남한 단독정부 수립계획을 발표하고, 그해 한국의 독립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미국에 다녀왔다. 좌우합작 반대, 미소공동위원회 참가 거부, 김구의 남북협상 거부 등의 정치적 반탁, 반공 및 단독정부의 즉각적인 수립을 주장하였다. 돈암장에 거주하며 김구, 조소앙, 신익희나 미군정의 하지 중장, 굿펠로우 대령 등과 교류하며 국가 운영을 논하였다. 피격 미수 사건을 당한 것도 돈암장 시절이다. 당시 돈암장을 출발하여 창덕궁 돈화문 부근을 지나던 중 괴한 두 명이 이승만이 타고 있던 차량에 5~6발의 총격을 가하였다. 총알은 차체와 타이어를 향하였고 이승만은 무사하였다.¹¹⁴ 이후 이 피격 미수 사건은 이승만의 동선을 파악하여 실행한 계획적 범행임이 밝혀졌다.¹¹⁵ 이후 범인으로 공산당 당원 김광명 등이 체포되었는데 범행 동기는 이승만과 정부 요인을 암살하기 위함이었으며, 범행을 위해 돈암장에도 다녀갔다고 자백하였다.¹¹⁶

이후 이승만은 장진영의 요구로 돈암장을 떠나 마포장으로 이사하였고, 1948년 초대대통령에 당선되어 경무대로 이사할 때까지 마포장에서 기거하였다. 이승만은 이후 대한민국의 초대·2대·3대 대통령직을 역임하였다. 재

114 <질주하는 이박사 자동차에 괴한이 권총을 발사> 《동아일보》 1946년 9월 13일.

115 <이승만 박사 저격사건 후보 범행은 계획적인 듯> 《동아일보》 1946년 9월 14일.

116 <이박사 저격범 被逮> 《동아일보》 1946년 10월 4일.

임 중 농지개혁법 시행, 전국민의무교육 실행,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등 대한민국 발전에 이바지했던 반면, 6·25전쟁 당시 부적절한 처신이나, 반공주의와 이를 통한 자유 억압, 부정선거 등으로 지탄받았기도 하였다. 1960년 3월 15일 정·부통령선거에서 대대적인 부정을 통해 대통령에 4선되었으나 4·19혁명으로 대통령직에서 스스로 물러났다. 그리고 같은 해 5월 하와이로 망명하여 그 곳에서 사망하였다. 유해는 하와이에서 국내로 옮겨와 가족장으로 장례지내고 국립묘지에 안장되었다.

7) 이원우

이원우 李元雨(1926~1991)는 정치학자이자 정치가였다. 한국사데이터베이스에 동소문로6길 4-20(동소문동2가 31)이 연락처로 나오는 것으로 보아 이곳에 연고를 두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는 1951년 9월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서레이(Surrey) 대학에서 유학생활동을 하였다. 이후 서울대와 경희대, 이화여대, 국방대학원 교수를 역임하였고,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고문직을 맡기도 하였다. 1967년 제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공화당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지역구는 경북 영천이었다. 공보부 차관과 장관도 지냈다. 이원우는 한국을 대표하는 외교인사로도 활발하게 활동하였다. UN총회, IPU총회, APPU총회의 한국대표로 활동했으며, 중남미 친선사절 대통령특사(1970), 외무부 자문위원과 UN대책위원으로 활동하였다.¹¹⁷

8) 이쾌대

1947년 《경향신문》에 성북회화연구소 연구생 모집 광고가 게재되었

¹¹⁷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와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이원우>를 참조하여 작성함.

다. 화백 이쾌대, 남관, 이인성 등 7명을 지도교사로 하여 서울 돈암동 458-1에 성북회화연구소를 설치하였고, 연구부분은 유화·수채·파스텔 등이며, 입소 자격은 학교 출신 유무에 관계없이 소질을 보고 뽑겠다는 내용이었다. 당시 주소인 돈암동 458-1은 지금의 보문로39길 34(동소문동3가 65-2)에 해당한다.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사 김인혜는 그의 글에서 성북회화연구소가 실제로 문을 연 것은 신문에 광고가 난 것보다 훨씬 앞이었다는 증언이 있다고 하면서, 이 증언에 기초하여 성북회화연구소가 1946년 초에 처음 문을 연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였다.

성북회화연구소는 1947년부터 1950년 초까지 약 4년간 존속하였는데, 그 영향이 매우 컸다. 권진규, 김창열, 김서봉, 심숙자, 장성순, 전퇴진, 김숙진, 이용환, 조덕환, 신영현, 정정희, 황종례 등 많은 미술학도들이 예술가의 꿈을 키웠던 곳이기 때문이다.¹¹⁸

이쾌대李快大(1913~1965)는 1932년 일본의 데이코쿠미술학교帝國美術學校에 입학하여 1938년에 졸업하였다. 광복 직후에는 조선조형예술동맹 및 좌익의 조선미술동맹 간부로 활동하였다. 1947년에는 김인승, 조병덕, 이인성 등 18명으로 이루어진 조선미술문화협회를 결성하였다. 1950년 6·25전쟁 직후, 남조선미술동맹에 가담하였고 인민의용군으로 참전하였다가 포로가 되었다. 남북 포로 교환 때 북한으로 가는 것을 선택하였다. 북한에서는 조선미술가동맹 소속 화가로서 활동하였다.

이쾌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것은 월북·남북 예술인에 대한 일부 해금조치가 내려진 1980년대 후반 이후이다. 이에 따라 1990년 신세계미술관에서 〈해금작가 유화전〉, 1991년 〈월북 작가 이쾌대 전〉, 1992년 〈월북 작가 이쾌대 순회전〉, 1995년 〈이쾌대 -낮선 작가를 향한 주목〉 등과 같은

¹¹⁸ 김인혜, 〈이쾌대의 유산, 성북회화연구소 시대(1946~1950)을 중심으로〉 《미술세계》 2015, 78쪽.

유작전이 열려 그의 작품이 일반 시민에게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다.¹¹⁹

9) 전광용

소설가이자 국문학자였던 전광용(全光鏞(1918~1988))은 성북로6길 2-12(동소문동1가 140-69)에 거주하였다. 그는 함경남도 북청 출생으로, 1939년 동화 <별나라 공주와 토끼>가 《동아일보》에, 1955년 <흑산도>가 《조선일보》에 당선되며 등단하였다. 전광용의 대표작은 <꺼삐딴 리>이다. 이 작품은 일제강점기부터 6·25전쟁까지 혼란스러운 시기, 시류에 편승한 주인공을 통해 당시 시대상을 보여준 작품이다. 전광용은 28세에 서울로 올라와서 안암동에 거주하였다. 1960년 초에는 성북동에 거주하였는데, 몇 년 뒤 동소문동1가로 이사하였고 이곳에서 두 아들 및 며느리와 함께 살았다.¹²⁰ 1955년부터 1984년 정년 할 때까지 서울대 국문학과 교수로 재직하였다.



전광용의 꺼삐딴리 표지

¹¹⁹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이쾌대>를 요약하였다.

¹²⁰ 송지영·심지혜, 《성북, 100인을 만나다》, 성북구청 홍보전산과, 2015, 30쪽.

10) 전창근

전창근(全昌根(1908~1973))은 일제강점기부터 광복 후까지 활약한 연극인이자 영화감독 겸 배우이다. 그는 1908년 1월 18일 함경북도 회령에서 태어나 1925년 윤백남(尹白南) 프로덕션에 입사하였고, 이경손(李慶孫) 감독의 <개척자>에 조연으로 출연하며 데뷔하였다. 그러나 <개척자>가 흥행에 실패하고 윤백남 프로덕션이 해체되자 새로운 활로를 찾아 중국 상하이로 건너가 상하이 중화학원과 우창대학(武昌大學)에서 공부를 하였고, 삼일학교(三一學校) 교사로 일하기도 하였다.

1929년 영화감독 이경손, 배우 정기탁(鄭基鐸), 그리고 촬영기사 한창섭(韓昌燮) 등이 상하이로 망명하자 이들과 함께 1931년 영화 <양자강>을 제작하였다. 전창근이 영화 시나리오를 쓰고 주연을 맡았다. <양자강>은 중국에서 큰 인기를 얻었고, 국내에서도 상영되었다. 1932년까지 상하이에서 영화 시나리오 작가 겸 배우로 활동하였고, 이후 중일전쟁 발발하여 1937년 9월 귀국할 때까지 상하이 영화계에서 활동하였다.

귀국한 후 고향에 머물다가 친구 이창용과 <복지만리(福地萬里)> 준비에 매진하였다. 전창근이 시나리오와 연출을 맡은 <복지만리>는 3년 3개월이라는 긴 제작 기간뿐만 아니라 조선과 만주의 합작이면서 일본·조선·만주에서 현지촬영을 했다는 점에서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작품이었다. 하지만 <복지만리>는 만주개척을 소재로 하여 일제의 만주침략을 정당화한, 이른바 '민족협화(民族協和)'를 선전한 영화였다는 문제점도 있었다.

전창근은 이후 광복될 때까지 영화보다 연극 활동에 주력하며 많은 연극의 연출을 맡았다. 연출작 중 특히 <빙화>, <밤마다 돋는 별>, <그 전날 밤> 등은 연극을 통해 체제를 선전하려고 했던 일제의 의도와 일치하였다. 1942년에는 전창근(泉昌根)으로 창씨개명하기도 하였다.

그는 광복이 되자 영화계 활동을 재개하였다. 1946년 항일유격대의 투쟁을 그린 <자유만세>(감독 최인규)의 시나리오를 쓰고 주연을 맡았으며, 1947년에는 영화 <광복된 내 고향>과 <민족의 성벽>의 시나리오와 연출을 담당하였다. 6·25전쟁 중이던 1951년 부산에서 상록극회(常祿劇會)를 창립하여 연극계 활동도 이어나갔다. 1950년대 이후에는 주로 민족적 성향의 영화나 사극을 연출하였다. <단종애사>(1956), <마의태자>(1956), <고종황제와 의사 안중근>(1959), <삼일독립운동>(1959), <아아, 백범 김구 선생>(1960) 등을 연출하였다.

1946년 우파 영화단체인 영화감독구락부의 회원을, 같은 해 영화작가협회 회원을, 1959년 시나리오작가협회 회장을 지냈다. 1973년 1월 19일, 경기도 고양군 삼각산에 위치한 한 암자에서 요양하던 중 사망하였다. 그는 사망할 때까지 동소문로20길 12(동소문동5가 85)에 거주하였다.

11) 정태성

정태성(鄭泰成(1926~1984))은 동소문동1가 14-50번지에서 거주하였다. 그는 연세대 전신인 연희전문학교 상학부를 졸업하였다. 이후 청주공업고등학교, 청주고등학교에서 교편을 잡은 뒤 충북대 교수를 지냈다. 1961년 5·16 군사정변 이후 민주공화당 창당에 참여하였으며, 민주공화당 충청북도 사무국장을 역임하였다. 1963년 제6대 국회의원 선거와 1967년 제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되었다. 지역구는 청주였다. 정계에서 은퇴 한 후에는 주식회사 삼화운조(三和運漕)의 대표이사직을 역임하였다.¹²¹

¹²¹ 정태성에 대해서는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http://db.history.go.kr>),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http://www.grandculture.net>)을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12) 피터 바돌로뮤

피터 바돌로뮤(Peter Bartholomew)는 미국 태생의 기업인이자 사회운동가이다. ‘한옥 지킴이’로 널리 알려져 있다. 2017년 현재 조선업 컨설팅업체인 IRC Limited의 부사장이자 왕립아시아학회 이사, (재)내셔널트러스트 문화유산 기금 명예이사 등을 맡고 있다. 2010년에는 한옥 보존에 힘쓴 공로를 인정받아 ‘명예 서울시민’으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50년 가까이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그는 지난 1974년, 1920년대 초에 지어진 동소문동6가에 위치한 한옥을 구입하여 직접 고치고 손질하고 꾸미면서 40년 넘게 거주하고 있다.

미국 뉴욕 출신인 피터 바돌로뮤는 1967년 평화봉사단원으로 강릉에 도착하면서 한국에 처음 발을 내디뎠다. 중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면서 기거할 곳을 찾던 중 강릉의 대표적 한옥인 선교장에 머물며 한옥의 매력에 빠지기 시작한 것이 지금까지의 한옥 살기로 이어지고 있다.

피터 바돌로뮤는 역사적으로 한옥이 소실된 두 시기를 안타까워한다. 그 두 시기란 일제강점기와 6·25전쟁기이다. 하지만 그보다 더 많은 한옥이 도시재개발 과정에서 사라지는 것을 지적하며 한옥을 지키고자 나선 것이다. 특히 그가 지적한 것은 집을 오래된 냉장고나 TV 버리듯 없애버리는 한국인의 의식과 더불어 수많은 한옥촌을 뉴타운·재개발 등으로 없애버리는 사람들의 마인드 등이다.

피터 바돌로뮤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한 바 있다. “용마루, 서까래, 처마 등 한옥은 주고받고 하는 각도의 절묘한 예술입니다. 호환성의 미美, 조화의 미美가 대단합니다.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 사람들은 오래된 건축물을 절대 철거하지 않고 보존해야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1세기의 사람들이 100년 전 그대로의 삶을 살 수는 없지요. 한옥은 부엌과 화장실, 난방을 기술적으로 보완하면 잘 지낼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피터 바돌로뮤는 한국인들은 궁궐과 불교 사찰과 같은 대형 유적만 지키려하며, 1910년대 한일강제병합 이후 무엇이 존재하였고, 무엇이 사라졌는지 알지도 못할뿐더러 관심도 없다고 지적하였다. 지방마다 특이하고 고유한 건축물인 객사, 감영, 별궁, 사당, 외동헌, 내동헌, 서원 등이 다수 사라졌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피터 바돌로뮤가 지향하는 바는 한옥을 원형 그대로 남기면서 오늘날 생활에 맞게 조금씩 개량해나가는 것이다. 이를 위해 피터 바돌로뮤는 서울시를 상대로 재개발정비구역지정 처분 등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서울시는 2004년 현재 피터 바돌로뮤가 살고 있는 한옥을 포함한 43개 동이 있는 동소문동 일대를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재개발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이에 성북구청은 2007년 10월 이 지역이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으로 노후·불량률이 60.37%가 된다고 보고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처분을 내렸다. 이에 그가 주민들과 함께 정비구역 지정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이다. 1심과 항소심을 통해 '해당 지역의 노후 정도는 재개발 대상 요건인 60%에 미치지 못하며, 이곳에 위치한 한옥은 전통가옥으로서 보존 필요성이 크다.'는 판결을 받아 2010년 승소를 거두었다. 2017년 현재에도 그는 미디어 출연, 강연 활동 등을 통해 한옥의 소중함과 보존의 중요성, 그리고 가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주요 행사·축제

6

동소문동

1) 성북천 분수마루에서 열리는 여러 행사와 축제

지하철 한성대입구역 4번 출구로 나오면 성북천 분수마루를 볼 수 있다. 동소문동2가에 위치한 분수마루는 성북천이 시작되는 지점으로, 삼선동·성북동·동소문동이 만나는 곳이기도 하다. 이곳에서는 성북구를 대표한 축제들이 펼쳐지고 있다. 계절별로 펼쳐지는 대표적인 축제들은 다음과 같다. 먼저 봄에는 ‘세계음식축제 누리마실’가 펼쳐진다. 이 행사는 성북구가 주최하고 성북문화재단, 누리마실친구들이 주관하는 행사로서, 문화 다양성의 가치를 존중하고 사회적 소수자를 아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17



성북천 분수마루

제10회 성북세계음식축제
(성북문화재단)



년 5월 21일 ‘제9회 성북세계음식축제 누리마실’이 열렸다. 20여 개 나라가 참가하였으며, 개막퍼레이드, ‘세계음식요리사(요리)’, ‘우주별별놀이터(체험·공연)’, ‘지구만물장(마켓)’ 등과 같은 세부 행사가 진행되었다.¹²²

여름에는 ‘라틴아메리카 축제’가 열린다. 이 축제는 2011년 6월 18일 시작된 이래 2018년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다. 처음 행

사가 열렸을 때에는 멕시코·브라질·페루 대사관이 참여하였는데, 2017년 6월 10일에 열린 행사에는 총 12개 국가가 참여하는 행사로 확대되었다.¹²³ 각 나라들의 부스에서는 해당 국가 출신 요리사들이 전통음식을 선보였으며, 국가의 사진을 전시하였다. 이와 함께 탕고, 삼바 등 화려한 공연은 물론 라틴 악기체험, 의상체험 등을 경험해볼 수 있는 부스가 운영되었다. 김영배 당시 성북구청장은 이 축제가 각기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평화와 공유하는 장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¹²⁴

성북천 분수마루에서 가을에 진행하는 행사로는 ‘세계맥주축제’가 있다. 2017년 9월 9일 제2회 ‘세계맥주축제’가 열렸다. 이 행사는 ‘세계맥주로 즐기는 건전한 소통의 문화!’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진행되었다. 서울시와 12개국 대사관에서 후원을 하였다. 세계 여러 나라의 맥주를 맛볼 수 있을 뿐만 아

¹²² 《국민일보》 2017년 5월 18일.

¹²³ 《아시아경제》 2011년 6월 13일 ; 《아시아경제》 2017년 6월 11일.

¹²⁴ 《아시아경제》 2017년 6월 11일.

나라, 밴드 공연과 다양한 이벤트가 기획되어 많은 호응을 얻었다.¹²⁵

겨울에는 ‘유로피언 크리스마스마켓’이 열린다. 이 행사에서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핀란드 등 각 지역의 전통음식과 민속음악, 특산품을 볼 수 있다. 이 행사 역시 참여 국가의 대사관 후원 하에 진행되었으며, 수익금 일부는 저소득 다문화가정 돕기에 쓰이고 있다.¹²⁶

한편 2012년 10월 6일에는 ‘이슬람 문화축제’가 열렸다. 주최는 외국인들의 거주를 돕기 위해 서울시에서 설립한 성북빌리지센터였다.¹²⁷ 후원은 주한 터키, 이란, 아프가니스탄, 요르단 대사관 및 주한 사우디아라비아 문화원에서 맡았다. 행사로 이슬람 음식 체험, 이슬람 특산물 판매, 이슬람국가 민속 공연이 진행되었으며, 이슬람 문화 체험 부스가 운영되었다. 2013년 9월 7일에는 ‘아프리카 축제’가 성북천 분수마루에서 열렸다. 주최는 ‘이슬람 문화 축제’와 동일하게 성북글로벌빌리지센터였으며, 주한 아프리카 17개국 대사관에서 후원을 하였다. 행사당일에는 아프리카 문화체험, 아프리카 음식 및 특산물 판매, 아프리카 음악 및 댄스공연, 아프리카 전통의상 패션쇼와 같은 행사가 진행되었다.

‘유로피언 크리스마스켓’, ‘이슬람문화 축제’, ‘아프리카 축제’는 성북글로벌빌리지 센터장으로 활동하고 있던 한스 알렉산더 크나이다(Hans-Alexander Kneider)가 주도하고 성북구가 후원하여 만들어진 행사였다. 그는 행사를 제안한 이유로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모여 서로의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마당을 만들기 위해서”였다고 하였다.¹²⁸

성북구의 가장 큰 문화축제는 ‘성북동 야행(夜行)’이다. 이 행사는 1박 2일로 진행된다. 성북동은 2013년 최초로 역사문화지구단위계획 지구로 지정되었

125 《연합뉴스》 2017년 8월 10일.

126 《뉴스원》 2015년 12월 6일.

127 성북빌리지센터 홈페이지(<http://global.seoul.go.kr/>)

128 《한겨레》 2017년 9월 28일.

다. 2017년에는 문화재청의 후원을 받아 ‘성북동 야행’을 개최하였다. 성북구에서 활동하는 젊은 예술가가 대거 참여해 성북동의 역사문화자원을 새로운 시각으로 해석한 공연, 전시, 체험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성북동 야행’은 총 8가지 주제를 바탕으로 하였다. 야경(夜景(해화문 밖에서 무엇을 보았는가)), 야로(夜路(거리 안의 삶)), 야사(夜史(밤에 듣는 역사 이야기)), 야화(夜畵(밤에 보는 그림)), 야설(夜說(성북 문화 예술 공연)), 야식(夜食(도성 밖 1번 맛집)), 야시(夜市(성북동을 만지다)), 야숙(夜宿(저 별이 기억하는 집))이 그것이다. 성북천 분수마루는 ‘성북동 야행’의 시작을 알리는 개막식이 진행되는 장소였다.¹²⁹

2) 성북천 깃발전

매년 여름과 가을이 되면 성북천변에 깃발들이 휘날린다. 이 깃발에는 성북의 역사, 문화를 소재로 한 아름다운 작품들이 새겨져 있다. 이 작품들은 성북천 깃발전에 출품하여 선정된 것이다. 성북천 깃발전은 성북천 분수마루에서부터 성북3교까지 성북천 일대에서 개최되고 있다. 동소문동3가와 인접한 성북천 일대는 행사가 진행되는 핵심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성북천 깃발전은 2010년에 처음 시작되었다. 이후 매년 2회에 걸쳐 성북천변에서 작품을 전시하고 있다. 여름과 가을에 열리는 성북천 깃발전에 전시되는 작품들은 각각 출품하는 대상자들이 다르다. 여름에 열리는 깃발전의 명칭은 ‘성북천 팔랑거리는 상상전’으로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학생들의 창의력을 뽐내는 작품을 전시하고 있다. 가을에 열리는 깃발전의 명칭은 ‘먹내음 가득한 성북천’이다. 이때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글·한문서에 및 캘리그래피 작품들을 모집한다. 참가자들은 자신의 작품이 깃발로 제작되

¹²⁹ 《동아일보》 2017년 5월 17일. 2017년 ‘성북동 야행’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성북동 야행’ 홈페이지(<https://www.sbnightroad.com>) 참조.



성북천 깃발전
(성북문화원)

어 성북천변에 걸려 많은 사람에게 전시되는 색다른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이유에서인지 매년 많은 사람들이 응모를 하고 있다.¹³⁰

¹³⁰ 박수진·백외준·김정현·민문기, 《성북문화원 20년사》, 성북문화원, 2016, 145쪽.



ㄱ

가가와 쇼군 222
간송미술관 7, 52, 58, 61, 108, 143, 171, 250
갑오개혁 43, 70, 201
개석당 19
개운사 21, 54, 61, 265
개운산 15, 21, 60
개운산스포츠센터 60
경국사 17, 34, 54, 60
경북고등학교 246
경성고등상업학교 38, 57
경성부 71, 91, 94, 99, 149
경성시가지계획 75, 90
경성시구개수 90
계契 201, 204
고려대학교 21, 23, 52, 57, 61, 141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 52
고흥문 284
공원계획 93
구립 동선동 청소년공부방 257
구미위원부 289
구준봉 191
국민대학교 54, 57
국제연합한국재단 UNKRA 96
근린주구 近鄰住區 92
길상사 7, 95, 116, 147
길음1·2동 50, 82
김광섭 41, 97, 101, 149
김상겸 222
김영삼 146
김영수 150, 209, 223
김용준 163
김정희 135
김좌근 260

김중업 97, 152
김진구 285
김환기 156, 164
꿈이 있는 행복한 도서관 255

ㄴ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102
남천주 33
남평양 33
내선인 혼주 92
누리마실 297
누원점 34, 62

ㄷ

다릿굴고개 31
달동네 210
달밤 37, 132, 149, 154
대원각 116
대원암 54
대한노인회 동소문분회 240
대한민국임시정부 288
덕성여자대학교 24
덕수교회 122, 130, 145, 156
도봉서원 24
도시계획령 74, 091
도시형 한옥 210, 221, 235
도심지 불량지구 재개발사업 223
도전숙宿 243
돈암1동 50, 82
돈암공설시장 221
돈암국민학교 221, 244

돈암동 순대 272
 돈암리 56, 201, 220
 돈암장 202, 222, 275, 289
 돈암제일시장 216, 270
 돈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210, 220, 227, 244
 돈암초등학교 197, 217, 243, 259, 284
 돈암현 27
 동국여지비고 31, 87, 138
 동궐 53, 84
 동덕여자대학교 21, 57
 동도극장 255
 동망봉 20
 동문외계 201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115
 동보탑 264
 동성학원 171
 동소문 187
 동소문고개 190, 192
 동소문데이케어센터 240
 동소문동2가 재개발 계획 235
 동소문로 190
 동소문외계 201
 동소문행복한홈스쿨 지역아동센터 257
 동아일보 38, 75, 93, 99, 142, 153, 173, 181, 206, 224, 231, 250, 255, 263, 279, 289, 292, 300
 동행라운 57
 동활인서 203, 275
 동회제도 洞會制度 194
 되너미고개 15, 27
 둔전 84, 178



마전 84, 89, 178
 만경대 15
 목덕산 17
 문석준 166
 미아리고개 15, 21, 27, 36, 39, 57, 142
 미아리고개 예술극장 57
 미아리 공동묘지 37
 미아리 난민정착촌사업 96
 미아사 27, 34
 미타사 18, 34, 54, 61



박길룡 108, 171
 박제가 87
 방坊 201
 방공호 150, 210, 223
 방유룡 132
 배회한 222, 279
 백석 116
 백운대 15
 백인기 116, 147
 범정스님 116, 147
 베타니아 아동청소년그룹홈 258
 변종하 110, 165, 250
 보국문 14
 보문사 34, 54, 61, 88
 보성전문학교 38, 57, 173
 보안림 99
 보타사 34, 54, 55
 보타사 마애불좌상 34
 보토현 17, 21, 29
 보화각 58, 108, 171
 복천암 119



봉곡사 17, 54, 61, 205

북교(北郊) 200

북단장 108, 170

북악골프장 60

북악산 190, 198, 223

북정마을 95, 146, 180

북한산국립공원 15, 60

북한산주 33

불량주택 재개발사업 227

비우당 19

빠락 95, 97

人

사아리 198, 200

사을한리 198, 200

삼각산 15, 17, 21, 24, 29

삼산학교 57, 111, 167

삼선감리교회 212

삼선상가 192, 224, 233, 272

삼선시장 213, 224, 272, 274

삼선정차장 225, 227

삼선중학교 203, 211, 227, 244, 246

삼선평 36, 141, 200

삼양동 금동관음보살입상 33

삼양헌 19

삼청각 116, 147, 148

상허 이태준 가옥 54, 61, 131, 145

서경대학교 57

서광훈 167

서부출장소 76

서세옥 가옥 및 작업실 148

서울다원학교 112

서울시 젠트리피케이션 종합대책 237

서울올림픽 227

서울 창작연극 지원시설 237

서울특별시 동 명칭 및 구역획정조례 197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 명칭 등에 관한 조례
194, 211

서원천 24

석은 변종하 기념미술관 110, 166

선농단 31

선잠단 84, 133, 170

선잠단지 52, 61, 133, 144, 179, 252

선잠제 58, 133, 174, 251, 254

선잠제 보존위원회 179

성가길 공부방 258

성가소비녀회 258

성 골룸반 외방선교회 265

성곽마을 146, 181

성락원 7, 52, 62, 100, 134

성북2동 77, 93, 110

성북구 1인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242

성북구립미술관 58, 110

성북구립해오름도서관 196

성북구민체육회관 60

성북구민회관 57

성북구보건소 동선보건지소 241

성북구청 195, 211, 232, 250, 252, 281, 292, 296,
298

성북구 한옥보전 및 관리를 위한

기본구상안 237

성북글로벌빌리지센터 104, 116, 299

성북도원 57

성북동 국시집 146

성북동 다문화음식축제 180

성북동 비둘기 40, 97, 101, 149, 151

성북동성당 120

성북동 야행 181, 299

성북동 이중석 별장 54, 122, 129, 145

성북동 최순우 가옥 56, 127, 144

성북동포백훈조계완문절목 85, 90, 178, 182

성북문화원 27, 58, 71, 79, 93, 111, 127, 211, 213, 247, 300

성북문화재단 180, 297

성북상가아파트 192, 215, 222, 230

성북선잠박물관 106, 179

성북여성회관 57

성북예술창작터 57, 104

성북정 57, 74, 104, 168

성북정보도서관 57

성북종합레포츠타운 60

성북천 14, 18, 23, 32, 41, 77, 84, 88, 94, 102, 181,

190, 196, 205, 223, 230, 270, 297

성북초등학교 98, 111, 232

성북회화연구소 290

성신노인요양원 260

성신여자대학교 54, 57, 61

성저십리 34, 42, 52

성저오리정계석표 42

소귀내 24

송계천 27

송우벌 285

수성절목 83

숙정문 19, 61, 136, 183

승신면 71, 73

승신방 34, 42, 70, 198, 201

승인공립보통학교 57

승인면 45, 71, 170, 204, 222

신도팔경시 200

신주 33, 155

심상옹 135

심우장 55, 62, 125, 145, 157, 173, 254

쌍다리식당 150



아리랑고개 15, 28, 57

아리랑시네미디어센터 57

아리랑정보도서관 57

안감내 24

안암내 24

안암천 24

안윤출 286

안준상 287

어영청 83, 178, 201

어제수성윤음 42, 70

연화산 15

연흥전 17

염상섭 152

영조 70, 83, 90, 136, 146, 176, 182

5·16군사정변 100, 284

5부8면제 44, 71, 204

완화군 21

요정정치 147

우가키 가스시게 91

우리옛돌박물관 58, 106

우장현 31

운수교 77

월월축제 181

유진희 168

6·25전쟁 15, 27, 39, 78, 93, 100, 122, 132, 147, 157,

162, 171, 207, 254, 267, 278, 290

윤이상 97, 159

윤중식 가옥 148

의릉 23, 52, 56, 61, 253

의릉 구 중앙정보부 강당 56

의친왕 135

이기봉 93, 278

이노우에 기요시 74



이덕무 087
 이송래 222
 이승만 222, 288
 이완기 168
 이원우 290
 이윤재 262
 이인좌의 난 83, 204
 이종석 별장 54, 61, 122, 129, 130, 145
 이쾌대 290
 이태준 37, 41, 54, 61, 130, 145, 149, 163
 이태준 가옥 54, 61, 131, 145
 인수봉 15
 인창방 34, 42
 인창보통학교 57
 임규 262

ㅈ

자야子夜 116, 147
 자야오가子夜吳歌 117
 자연형 하천 232, 234
 자지동천 20
 잡초 209, 223
 장교동 한규설 가옥 54
 장덕수 222
 장위3동 50, 82
 장위동 김진홍 가옥 54
 적유현 27
 전차 220
 전창근 293
 전형필 58, 108, 145, 169
 정덕초등학교 219, 243
 정도전 200
 정릉 9, 14, 21, 32

정릉천 14, 24, 32, 39
 정법사 54, 61, 119
 정태성 294
 정한모 97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98
 젠트리피케이션 237
 조선시가지계획령 90, 99, 101
 조선총독부 71, 94, 99
 조지훈 97, 156, 173
 조현영 156, 173
 주택조사보고서 95
 중랑개 27
 중랑천 14, 23
 중일전쟁 76, 91, 170, 293
 지하철 4호선 190, 212, 225, 237, 247
 진영호 250
 진흥선원 54
 집달관 100

ㄷ

채동선 161
 창계천 191, 223, 232
 청룡암 54, 211, 260
 청소년문화공유센터 57
 청수장 28, 42
 청암장 95, 147
 최두선 173
 최락당 19
 최순우 가옥 56, 61, 126, 144
 최양업관 121
 최용덕 168
 춘우문화관 256
 칠성암 54

ㄱ

키네스평생교육원 254

ㄴ

태조감자국 217, 271, 279

토지구획정리사업 37, 78, 91, 197, 210, 220, 227, 244, 282

ㄷ

판자촌 95, 98

평산목장 222, 279

포백 85, 146, 178, 182

풍치지구 93, 99

피터 바돌로뮤 295

ㄹ

하북위례성 33

한경지략 86, 278

한국가구박물관 7, 58, 61, 107, 145

한국민족미술연구소 109, 172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원 구 본원 132

한국예술종합학교 23, 57

한남서림 171

한성대학교 14, 57

한성부 198, 201, 261, 275

한성 임시정부 288

한신아파트 197, 229

한신희아파트북카페 255

한양군 33

한양도성 14, 19, 41, 52, 62, 70, 136, 144, 147, 192, 201, 206, 253

한옥밀집지역 216, 219, 281

한용운 158

한일강제병합 71, 296

한·중 평화의 소녀상 248

한진아파트 215, 229

한천 27, 63

행복기숙사 219

혈거부족 209, 223

혈맥 150, 209, 223

혜화문 19, 27, 34, 61, 86, 136, 140, 181, 192, 202, 206, 299

호유현 27

홍봉한 83, 178, 182

홍익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중·고등학교 114

홍화문 140, 194

훈조 84, 90, 146, 178, 182

홍천사 54, 61, 205, 227

히라야마 세이쥬 222

【집필자】

성북구 개관: 강성봉(성북문화원 사무국장)
박수진(성북문화원 운영과장)

성북동: 강성봉(성북문화원 사무국장)
박수진(성북문화원 운영과장)

동소문동: 권기중(한성대 교수)
남기현(성균관대 동아시아연구소 연구원)
백외준(성북문화원 성북학연구팀장)

서울 洞의 역사 성북구 제1권

발 행 인	서울역사편찬원장 이상배
발 행 처	서울역사편찬원 (history.seoul.go.kr)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올림픽공원 (02-413-9622)
기획·편집	김웅호, 김중권, 최동녕
발 행 일	2018년 12월 15일
판 매 가	총4권 40,000원
편집·인쇄	경인문화사 (031-955-9300)
디 자 인	에스앤에이커뮤니케이션즈 (031-955-1989)
사진촬영	스튜디오 수포토 (070-8887-3891)

발간등록번호 51-6110000-001947-01

ISBN 979-11-6071-061-8, 979-11-6071-060-1 (세트)